

국립국어원 2011-01-17

발간 등록 번호
----------

11-1371028-000339-01
----------------------

## 2011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한성우
- ▣ 연구 보조원 : 이지애, 오예슬
  
- ▣ 조사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경기 지역어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연구책임자: **한성우**

##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이루어진 방언 조사의 결과이다. 2005년 이후의 경기 지역의 조사는 용인, 포천, 파주, 이천, 양평 등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년 조사는 경기의 서쪽 끝에 위치한 강화군 교동면이 조사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화군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 언어적으로도 경기 방언과 유사성이 많다.

이번 조사에는 전 오(조사 당시 81세)이 주제보자로 참여하여 어휘, 음운, 문법, 구술발화를 담당하였고, 보조제보자 인 할머니(조사 당시 73세)는 구술발화의 일부에 참여하셨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 질문지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총 녹취 시간은 약 22시간이다. 조사된 자료 가운데 어휘, 음운, 문법 항목은 모두 음운 차원에서 전사되었으며, 약 6 시간 정도 녹취된 구술발화 자료 가운데 4시간 정도의 분량이 전사되었다. 이 전사된 구술발화 자료에는 주제보자 전종대 옹의 성장과정, 풍습, 가신 숭배와 금기 등의 거주 생활, 질병과 민간요법, 세시풍속과 놀이 등이 수록되었다.

주제어 :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 방언 조사, 강화, 음운, 문법, 어휘, 구술발화, 전사

## 〈영문 Abstract〉

This report contains transcription of four hours of narrative data as well as lexical, phonological and grammatical variations of Ganghwa-gun, Incheon.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of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2011. Because Ganghwa-gun is on the northern-eastern end of Gyeonggi-do, its dialect is expected to show the features of transition area from Hwanghae-do to Gyeonggi-do area.

Keywords : narrative, dialectal variant, Korean Language Institute, Ganghwa-gun, Gyeonggi-do, transition area

2011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1
3. 전사 자료 .....	13
제 1 편 구술 발화 .....	15
제 2 편 어휘 .....	150
제 3 편 음운 .....	202
제 4 편 문법 .....	249
4. 제출 자료(별첨)	
(1)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2)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3)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4)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5) 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전사 trs 파일	
(6) 지역어 조사 사진 파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 얼굴과 전신, 조사장면, 조사 장소, 마을 전경, 조사 항목 등)	
(7)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8) 구술 발화 발간용 파일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강화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고, 지리적으로는 경기도의 일부이다. 그런데 강화도가 경기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외곽에 치우쳐 있다. 즉 강화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섬들로서 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김포시와 가깝고 북쪽으로는 황해도에 인접해 있다. 특히 교동도는 강화군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북쪽으로는 황해도 연백군(현 황해남도 연안군, 배천군)과 맞닿아 있다.



강화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기도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방언적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교동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황해도와 인접해 있으므로 황해도 방언의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화도는 거리상으로는 김포시와 가까워 오래전부터 김포시와 교류가 많았다. 또한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속하게 됨에 따라 강화군과 인천광역시와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그러나 강화군 최북단의 교동은 황해도 연백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전통적으로 강화도 본도나 경기도 지역과의 교류보다는 황해도 연백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였다. 강화는 뱃길을 통해서 서해의 다른 지역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따라서 서해의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언어 면에서도 많은 영향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강화 서북쪽의 교동은 육지와 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조류 때문에 접근에 제약이 있는 김포보다는 황해도 연백이 훨씬 더 수월하다. 따라서 거리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좋아서 교동은 분단 이전까지 황해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강화의 면적은 400여  $\text{km}^2$ 로서 인천광역시 면적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2011년 현재 29,000여 가구에 67,000여 명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1읍 15면이다. 강화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많은 외지인이 유입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마을의 상당수는 집성촌으로서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들이 살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인 교동은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해 있으나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일부이다. 교동이 경기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외곽에 치우쳐 있다. 교동이 속한 강화군은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섬으로서 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김포시와 가깝고 북쪽으로는 황해도에 인접해 있다. 특히 교동은 강화군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북쪽으로는 황해도 연백군(현 황해남도 연안군, 배천군)과 맞닿아 있다. 교동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황해도와 인접해 있으므로 황해도

방언의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화도는 거리상으로는 김포시와 가까워 오래전부터 김포시와 교류가 많았다. 또한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속하게 됨에 따라 강화군과 인천광역시와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그러나 강화군 최북단의 교동은 황해도 연백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전통적으로 강화도 본도나 경기도 지역과의 교류보다는 황해도 연백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였다.

교동의 역사 및 전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연혁

- 고구려 : 고목근현(高木根縣)
- 신라 : 경덕왕 때 교동현
- 고종 32년(1895) : 읍을 폐하고 강화와 합군하였다가 다음해 7월에 다시 읍으로 환원하고 군수를 둬. 교동 동서남북면 4개 면과 송가면을 합쳐 5개면이었음.
- 한일합방 후(1911) : 송가면은 송남면으로 개칭함. 4개면으로 구획됨.
- 1914 : 송남면은 삼산면에 부속되었고 교동은 화개면과 수정면, 2개면이 됨.
- 1934 : 화개, 수정면을 합면하여 지금의 교동면이 됨.

(2) 지역특성

- 인천광역시 서해안에 위치해 동남은 양사면, 삼산면, 서도면과 마주하고, 서북으로는 불과 5km 거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이루고 있어 황해도 연백군이 눈앞에 보임.
- 섬이지만 비교적 평야가 많으며 해안선은 평탄한 편이고 해저는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심함.

(3) 기본현황

- 면적 : 47.16km<sup>2</sup>
- 세대 : 1,406세대 (11.07.01기준)
- 인구 : 3,101명(남1,555명, 여1,546명)
- 리반 : 17리 127반
- 행정리 : 대룡1리, 대룡2리, 읍내리, 상용리, 봉소리, 고구1리, 고구2리 삼선1리, 삼선2리, 인사리, 지석리, 무학리, 난정1리, 난정2리 서한리, 동산리, 양갑리

## 1.2. 제보자

제보자는 대대로 강화군 교동에 거주한 70세 이상의 토박이로 정하였다. 교동은 전, 한, 황, 방 등이 중심이 된 집성촌이 많은데 이들은 고려말이나 조선초에 교동에 정착한 이래 줄곧 교동에 터전을 잡고 살아왔다. 제보자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4) 제보자 1(주제보자)

- 이름 : 전 (남)
- 연령 : 81세(1931년 생)
- 출생지 : 강화군 교동면
- 거주지 : 교동면
- 학력 : 국민학교 중퇴
- 직업 : 농업
- 19대조 이후 교동 거주
-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킴.

(5) 제보자 2(보조제보자)

- 이름 : 인 (여)

- 연령 : 73세(1939년 생)
- 출생지 : 강화군 교동면
- 거주지 : 교동면
- 학력 : 초졸
- 직업 : 주부
- 외지에서 지낸 경험이 없어 강화 토박이말, 특히 교동말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줌.

주제보자는 19대째 교동에 거주하는 토박이로서 한국전쟁 기간 중에 군대 복무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동을 떠나본 적이 없다. 줄곧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다른 일을 해 본 적이 없고 지금은 소일거리 정도로만 농사를 짓는다.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이지만 다방면에 매우 박식하며 교동향교의 전교도 역임했다. 발음이 매우 또렷하고 음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하여 어휘, 음운, 문법의 모든 항목에 걸쳐 강화 토박이말을 들려 주었고 다양한 구술을 해 주었다.

보조 제보자 역시 교동에서 태어나 교동으로 출가하였다. 교동 향교의 전교를 지낸 한 씨의 부인으로 음식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전해 주었다.

제보자의 현 거주지 및 조사 지점은 다음과 같다.



### 1.3. 조사 및 전사

조사는 2011년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6박 17일 동안 제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조사에는 연구책임자와 2명의 연구 보조원이 참여하였다. 조사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다만 '3. 음운' 부분의 활용형은 보다 자세한 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지역어 조사 질문지보다 항목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는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추가로 조사하였다.

녹음은 마란츠 사의 PMD660을 이용해 48,000hz 웨이브 파일로 저장하였고, 전사 작업을 위해 각 파일을 다시 16,000hz 웨이브 파일로 전환하였다. 녹음 파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파일이름	녹음시간	제보자	녹음 내용
SGG_GD_01	42:16		구술발화 - 기후, 마을설명, 음양이야기
SGG_GD_02	54:53		음운 3.1. 중 31001~31078까지(단모음, 이중모음, 장모음)
SGG_GD_03	30:30		어휘 파트 내의 곡용질문 (xxxxx-0-x)
SGG_GD_04	37:21		음운 3.2.2. 곡용
SGG_GD_05	49:45		음운 3.1. 중 31079~31088까지 및 활용표
SGG_GD_06	34:35		활용표
SGG_GD_07	59:14		활용표
SGG_GD_08	52:53		활용표
SGG_GD_09	36:28		활용표
SGG_GD_10	62:35		구술발화 - 결혼, 전쟁, 의식주이야기
SGG_GD_11	45:41		구술발화 - 향교, 집, 놀이이야기
SGG_GD_12	84:26		구술발화 (이 부분은 사주 내용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제외)
SGG_GD_13	09:22		1권 자연발화 - 동네이야기
SGG_GD_14	56:56		3권(2.5.민속) 21501~21713
SGG_GD_15	06:58		1권 자연발화 - 결혼이야기
SGG_GD_16	55:44		3권(2.5.민속/2.6.인체) 21714~22136
SGG_GD_17	39:24		3권(2.7.육아/2.8.친족) 22201~22345-3
SGG_GD_18	52:10		1권 자연발화 - 천지음양이야기
SGG_GD_19	15:40		3권(2.8.친족) 22346~22379
SGG_GD_20	56:47		1권 자연발화(보조제보자) - 음식이야기
SGG_GD_21	55:12		4권(2.9.동물) 22401~22736
SGG_GD_22	56:39		4권(2.10.식물/2.11.자연) 22801~23355
SGG_GD_23	06:28		4권(2.11.자연) 23402~23441
SGG_GD_24	61:10		5권(4.1.대명사/~4.9.보조용언) 40101~40908
SGG_GD_25	17:38		5권(4.10.부사/4.11.관용적표현) 41001~41116
SGG_GD_26	13:37		보충 질문 및 1권 자연발화
SGG_GD_27	12:09		1권 자연발화 - 귀신이야기
SGG_GD_28	35:36		1권 자연발화 - 태극기이야기
SGG_GD_29	80:32		2권(2.2.음식/2.3.가옥/2.4.의복) 20601~22443
SGG_GD_30	28:34		1권(2.1.농경) 20101~20533
SGG_GD_31	32:25		보충조사
SGG_GD_32	22:30		보충조사
계	약 22시간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제보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제보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다만 조사자가 복수일 경우 주된 조사자는 @로 표시하고, 보조 조사자는 @2로 표시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④ 질문에 해당하는 방언형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에 해당하는 방언형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11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 1 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 마을 들여다보기

- 10101 #예 엔:나레 한 인:, 게, 아:시벼 년 저넨 예는, 요 글러넨 인제 어:르미 그르다지 읍:서서.  
{예 옛날에 한 이게 이십여년 전에는, 요 근년에는 이제 얼음이 그다지 없었어.}
- 10101 #이제 한 아:시벼 년 전 그 때에는 지금, 지그른 요:기 인제 창후리서 인제 일러리 이 뽀도가 인제 수시로 땡이지머는  
{이제 한 이십여년 전 그 때에는, 지금, 지금은 여기 이제 창후리에서 이제 이리로 이 보트가 이제 수시로 다니지만}
- 10101 #그, 저, 그 아:저네는 아:, 남산포래는 데서 인천르루 여, 여객서니 땡겨서.  
{그저 그 이전에는 이북 남산포라는 데서 인천으로 여, 여객선이 다녔어.}
- 10101 #그니까 연락서니지. 인제 그거시 인제 하루에 여기서 한 번 아치메 인제 가구, 저그서 한 번 오구 하루에 한: 번밖에 배가 여기 읍:서서.  
{그러니까 연락도 이제 그것이 이제 하루에 여기서 한 번 아침에 이제 가고, 저기서 한 번 오고 하루에 한 번밖에 배가 여기 없었어.}
- 10101 #읍:는데, 겨:울처레는 뭐, 오늘 내: 향교에 드러가서 인제 오늘두 인제 부냥을 허구 하는 거 보구선 인제 나와찌마는  
{없는데, 겨울철에는 뭐 오늘 내가 이 향교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도 이제 분향을 하고 하는 거 보고선 이제 나왔지만}
- 10101 #거기 이제 어제 인제 광아 가따온 사람들 얘:기 드르니겐 바다에 그냥 어:르미 짝 드러차뜨래 차서.  
{거기 이제 어제 이제 강화 갔다온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바다에 그냥 얼음이 짝 들어찼더라, 찼어.}
- 10101 #근데 인제 무리 이 쓴: 다옴에는 어르미 차서 인제 배가 인제 덴, 이 보도가 땡기질 모터고, 물 밀: 때만 인제 거 무리 밀:면 어:르미 갈라지, 무리 이러 마:니 올라오니겐 어:르미 갈라지지.  
{그런데 이제 물이 이 쓴 다음에는 얼음이 차서 이제 배가 이제 다, 이 보트가 다니질 못하고, 물 밀 때에만 이제 그 물이 밀면 얼음이 갈라지, 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얼음이 갈라지지.}
- 10101 #근께 그 이 그 시가늘 이용해서 배가 배가 다니지.  
{그러니까 그 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배가, 배가 다니지.}
- 10101 #그 간조시엔 무리 쓴: 다멘 배, 이 지금두 땡기지 모탄다구 허는데.  
{그 간조 시엔 물이 쓴 다음엔 배가 지금도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데.}
- 10101 #이 추위, 그때는 그 근, 그 당시에 안:처르루 땡길 때는 여:그서 인천 저 월미도나 께:이부리 인제 일러리 다닐 때는 여 무리 여서찌가늘 걸리는데 어르미 짝 차니겐 배가 일절 모땡기고 겨울 내:내 인제 교통은 가처인는 처지라.  
{이 추위, 그때는 그 그 당시에 인천으로 다닐 때는 여기서 인천 저 월미도나 께이부리, 이제 이리로 다닐 때는 무려 여섯시간을 걸렸는데 얼음이 짝 차니까 배가 일절 못 다니고 겨울 내내 이제 교통은 갇혀있는 처지라.}

- 10101 #헨:데 이: 글:려네 오면서 온나나가 대:가지구선 은:제 어르미 아놔서, 아놔. 하나두 읍씬는데.  
{헌데 이 근년에 오면서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선 언제 얼음이 안 왔어, 안 와. 하나도 없었는데.}
- 10101 #장녀네 장년 비뻐터 비러소, 장녀네 인제 어:르미 나서두 약간 이제 난때따구 하는데 오래는 행:피넛씨  
꽉 드레차따구 허더라구.  
{작년에 작년 빗부터(?) 비로소 작년에 이제 얼음이 났어도 약간 이제 났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형편없이 꽉 들어찼다고 하더라고.}
- 10101  
@ 오는 기레 찌꺼뜨든노. 이거 다 어름이쥬. (#어어. 그러니까 이거시 이 어:드런 이 기후에 조화로써 인제  
이렇게 물로 되가찌.)  
{오는 길에 찍었거든요. 이거 다 얼음이쥬. (#어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어떤 이 기후의 조화로써  
이제 이렇게 물로 되겠지.)}
- 10101 #오늘두 내 향교에서 그런 애길 해:서.  
{오늘도 내가 향교에서 그런 애길 했어.}
- 10101 #옌:나렌 사만사오나라는데 오:래는 사만사온두 우 읍씨지고 마라떠라니켄 어느 사라미, 구안 이란,  
게 구안이로니야요.  
{옛날엔 삼한사온이라는데 올해는 삼한사온도 없어지고 말았떠라니까 어느 사람이, 구한일한,  
그게 구한일온이예요.}
- 10101 #아:으레 추꾸 하루 따드테니께 구안이로니지.  
{아 그래 춥고 하루 따듯하니까 구한일온이지.}
- 10101 #그러태는, 이 우스며 얘:기두 헨는데.  
{그렇다는지 웃으며 얘기도 했는데.}
- 10101 #오:늘두 이거 엄:창나게 어:르미 나때는 건데, 이거이 어:드런 기후의 벼:봐로서 데는 건지두 모르간는  
데.  
{오늘도 이거 엄청나게 얼음이 났대는 건데, 이게 어떤 기후의 변화로써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 10101 #좌우간 기우가, 지나내 인제 여름처레 여기 농사처리, 농사꼬장인께 농사들 진:는데, 비두 엄청나게  
마:니 와꾸.  
{좌우간 기후가, 지난해 이제 여름철에 여기 농사철이, 농사고장이니까 농사들 짓는데,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 10101 #그런가 해:뜨니 올: 겨우렌 유나니 이리이 춥꾸 허니께, 내: 보, 이 금년도지 이게 벌써 이:월따린겐.  
{그런가 했더니 올 겨울엔 유난히 이렇게 춥고 이게 내, 이 금년도지 이게 벌써 이월달이니까.}
- 10101 #에 장:년도에 그랜는데 금년도에 농사도 어드케 될 꺾지 이제 기우가 어드러케 벼:봐알 꺾지도  
모르가서.  
{에 작년도에 그랜는데 금년도에 농사도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도  
모르겠어.}
- 10101 @ 아 그러면, 먼저: 이 마:으리 어떤 마으린지를 좀 얘기를 드러보고 시픈데요.  
{아 그러면, 먼저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 10101 #어: 이 고구리?  
{어어 이 고구리?}
- 10101 @ 예 언제 어떡케: 생겨나꼬 주민드른 보통 어떤 성씨가 이씨요?  
{예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주민들은 보통 어떤 성씨가 있어요?}
- 10101 #에:: 지금, 지금 우리 교:동도가 은:제 어르게 생겨나때는 건 이건 몰라.

{에 지금, 지금 우리 교동도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대는 건 이걸 몰라.}

10101 #응. 어:니때 어드러케 천지 개:벼그루 조와 소그루 인제 생겨난 건지, 건 모르, 모르지.  
{응. 어느 때 어떻게 천지개벽으로 조화 속으로 이제 생겨난 건지, 그건 모르, 모르지.}

10101 #그 소거네, 인제 속파메 드르며는 인제 우리가, 호니 천지개벽 천지개벽 허자나? (@ 네.)  
{그, 속언에, 이제 속담에 들으면 인제 우리가 흔히 천지개벽 천지개벽 하잖아? (@ 네.)}

10101 #천지개:벼기랜 말:만 드러찌 우리가 천지개벽 본 사라른 업:따 마:리지. 또 보래야 볼 쭈도 읊는 거시구.  
{천지개벽이란 말만 들었지 우리가 천지개벽 본 사람은 없다 말이지. 또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거지 뭐.}

10101 #그게, 천지개:벼기래는 거는 분명이 그 서, 서적 서적그루 보며는 천지개벼근 분명이 인는 거시라 마리지.  
{그게, 천지개벽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서 서적으로 보면 천지개벽은 분명히 있는 것이란 말이지.}

10101 #그게 천지개:벼기 그면 천지개벼기 은:마 ,그 기이리 은:마나 걸리냐면 무려 시비만 구천육뽕 너니래는 세워리 흘들단 마리아.  
{그게 천지개벽에 그러면 천재개벽이 얼마, 그 길이 얼마나 걸리냐면 무려 십이만 구천육백 년이라는 세월이란 말이야.}

10101 #그 시비만 구천육뽕 너니 데며는 그땐 완:저니 천지개:벼기 된데는데.  
{그 십이만 구천육백년이 되면 그땐 완전히 천지개벽이 된다는데.}

10101 #우리 교동::이랜 데가 인제 그 천지개:벼컬 때에 생겨난 건지 그 추후에 어드케 생겨난 건지 그거슨 그 내역근 모르고.  
{우리 교동이라는 데가 그 천지개벽할 때에 생겨난 건지 그 추후에 어떻게 생겨난 건지 그것은 그 내역은 모르고.}

10101 #에:: 교동::에 대한, 금, 또 뭐 다른 거 무를 꺼 인나?  
{에 교동에 대한. 그럼, 또 뭐 다른 거 물을 거 있나?}

10101 #문:는 데 대, 대해서 다블 해:줘야 되가찌.  
{문는 데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겠지.}

10101 @ 그럼, 어떤 성씨 분드리 마는지. (#응?) 보통은 어떤 성씨가 마나요 이 교동에는? (#승:씨?) 예.  
{그럼, 어떤 성씨 분들이 많은지. (#응?) 보통은 어떤 성씨가 많아요 이 교동에는? (#성씨?) 예.}

10101 #승:씨는 여기서 오:대승이야. 다선, 다섯쑹이 저, 저 대:승이야.  
{성씨는 여기서 오대성이야. 다섯, 다섯 성이 저, 대성이야.}

10101 #그 다섯쑹 중에는, 예, 황씨, 방씨, (@ 예.) 예:, 한씨, 전씨.  
{그 다섯 성 중에는, 예, 황씨, 방씨, (@ 예.) 예, 한씨, 전씨.}

10101 #또 뭐냐. (@ 신씨요?) 으음. 그게 뭐:지. (@ 전씨?) 으응. 방. (@ 황씨 방씨 한씨 전씨.) 그리고 또 하난 뭐:냐. 으음. 이, 이:쑤인가?  
{또 뭐냐. (@ 신씨요?) 으음 그게 뭐지. (@ 전씨?) 으응. 방. (@ 황씨 방씨 한씨 전씨.) 그리고 또 하난 뭐냐. 으음. 이, 이씨인가?}

10101 #그거이, 게 오:대, 오:대승이야. 음.  
{그게, 그게 오대, 오대성이야. 음.}

10101 @ 이 마을: 이름, 여기서 고구리자나요. (#응 고구리.) 이 고구리라는 이르메 유래가 이쑤요? (#이쑤.)  
아, 그건 어떡케 되는 거예요?

- {이 마을 이름, 여기가 고구리잖아요 (#응 고구리.) 이 고구리라는 이름에 유래가 있어요? (#있지.)  
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10101 #고:구리라는 계시, 예:고짜에 거북꾸짜거든? (@ 예.)  
{고구리라는 것이, 예 고 자에 거북 구 자거든? (@ 예.)}
- 10101 #응. 예:고짜는 뭐:냐면, 요, 요:기 저:수지 여기찌. (@ 네.) 그거 고구초니래니까 고 아페 저수지  
이짜나. 고 근:너 동네가 고:읍니야 고:읍니.  
{응. 예 고 자는 뭐냐면, 여 여기 저수지 여깃지. (@ 네.) 그거 고구촌이래니까 그 앞에 저수지  
있잖아. 그 건너 동네가 고읍리야 고읍리.}
- 10101 #예:고짜에 으비란 읍짜, 응 도, 도, 고으릅짜. 그게 고읍인데.  
{예 고 자에 읍이란 읍 자, 도, 도, 고을 읍 자. 그게 고읍리인데.}
- 10101 #거:기가 지그:른 인제 면:사무소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며:, 면:사무소가 아니구 여그가 옌:나렌  
교동구니야 교동군..  
{거기가 지금은 이제 면사무소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며, 면사무소가 아니고 여기가 옛날엔  
교동군이야 교동군.}
- 10101 #지그:른 광와군 교동면 허지마는 그때는 광아현, 교동두 현.  
{지금은 강화군 교동면 하지만 그때는 강화현:, 교동도 현.}
- 10101 #그니젠 광아, 광아두 지그:르루 얘기함 광아두 구니구 교동두 교동구니야.  
{그러니까 강화, 강화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화도 군이고 교동도 교동군이야.}
- 10101 #그 허:니 읍짜지구선두 교동구니라구 또 구:느루 별또루 이 따루 이서, 광아하군 별또루 이서따구.  
{그 현이 없어지고서도 교동군이라고 또 군으로 별도로 이, 따로 있어, 강화하고는 별도로 있었다  
고.}
- 10101 #햐:는데 거:기가 현:감, 사:또. 이 지금 말루 얘기허면 군:수지.  
{했는데 거기가 현감, 사또. 이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군수지.}
- 10101 #군:수가 거기 안저뜬 자리야, 고읍니. 고 근너 거기가. 거기가 지금두 가며는 터:가 이서. 안저뜬  
관사터가 이서.  
{군수가 거기 앉았던 자리야, 고읍리. 그 건너 거기가. 거기가 지금도 가면 터가 있어. 앉았던  
관사터가 있어.}
- 10101 #즉 마라자면 인제 군청, 청, 지금 얘기허면 군 청사지.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군 청, 청, 지금 얘기하면 군 청사지.}
- 10101 #그저넌 사:뚜가 안자면 관사터가 이 지금도 이서. 그래서 그기 이, 거기 이따가 이 읍:내리루 그  
관사가, 관사가 읍:내루 그, 너머가뜨래서.  
{그 전엔 사또가 앉았던 관사터가 이, 지금도 이서. 그래서 그기 이, 거기 잇다가 이 읍내리루  
그 관사가, 관사가 읍내리루 그, 넘어갔드랬어.}
- 10101 #읍:내리루 너머간는데 읍:내루 가니깐 여기는, 예:도으비 데자나.  
{읍내리로 넘어갔는데 읍내로 가니까 여기는 옛 도움이 되잖아.}
- 10101 #그니께 고:으비야. 바루, 옌:날 읍. 고:읍니라 마랏.  
{그러니까 고읍이야. 바로, 옛날 읍. 고읍리라 말야.}
- 10101 #그래서, 고, 예:고짜가 부터이꾸.  
{그래서 고, 예 고 자가 붙어 있고.}
- 10101 #이 동네, 요동, 이: 동네는 거부꾸짜야.  
{이 동네 요 동, 이 동네는 거북 구 자야.}

- 10101 #계 고, 구. 거부꾸짜. 예:고짜에 거부꾸짜. 고, 고구린데. 거부긴 왜 거부기라구 한:나.  
{계 고, 구. 거부꾸짜. 예 고 자에 거부꾸 자. 고, 고구리인데. 거부기가 왜 거부기라고 했냐.}
- 10101 #산 형체가 거부 형체루 생겨서.  
{산 형체가 거부 형체로 생겼어.}
- 10101 #거북 형체루 생긴데 거부기 형체루 생긴 거이 산 하:나마니 아니라 세:, 이게 삼개사니, 세:, 세:  
사니 거부 형체루 여기 생겨서.  
{거북 형체로 생겼는데 거부기 형체로 생긴 계 산 하나만이 아니라 세, 이게 세 개 산이, 세,  
세 산이 거부 형체로 여기 생겼어.}
- 10101 #여 생긴 거이 어:디냐며는, 바로 이 지금 위, 우이 사니 쪽:: 내려가는 저, 저:리 가며는, 예 저기  
가서 드:레서 보며는 거부기 모양으루 이러케 생기구.  
{여기 생긴 계 어디냐면, 바로 이 지금 위, 위 산에 쪽 내려가던 저, 저리 가면, 예 저기 가서  
들에서 보면 거부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고.}
- 10101 #바로 이 들: 북판에 사나나 이찌? 그거이 또 거부기 형체루 생겨서.  
{바로 이 들 북판에 산 하나 있지? 그게 또 거부기 형체로 생겼어.}
- 10101 #이러케 생겨서 머리가서 요러케 생기구.  
{이렇게 생겨서 머리가 요렇게 생기고.}
- 10101 #그니 거그이 거부기구, 그 저:수지 인는 데서 쪽:: 내려가면 저 낭무루라구 하는 거:기가 또 거부  
형체루 사니 생겨.  
{그러니 거기가 거부이고, 그 저수지 있는 데서 쪽 내려가면 저 낙무루라구 하는 거기가 또  
거북 형체로 산이 생겼어.}
- 10101 #기니간, 그 거부꾸짜를 따서, 옐:으비래는, 거기두 고구리니께는. 그 예:고짜를 따고 여기 거부꾸짜를  
따구 해서 고구리래는 지명이 그러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거부꾸 자를 따서, 옛 읍이라는, 거기도 고구리니까. 그 예 고 자를 따고 여기  
거북 꾸 자를 따고 해서 고구리라는 지명이 그렇게 생긴 거야.}
- 10101 @ 그럼 이 마을 사람드른 주로 어떤 니를 하면서 사라요?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요?}
- 10101 #농사지. 이 교동은 대:체가 농사지.  
{농사지. 이 교동은 대체가 농사지.}
- 10101 @ 교동 짜리 또 유명하니.  
{교동 쌀이 또 유명하니.}
- 10101 #그럼, 아 다 다른 거 읍:썸 전부가 농사지.  
{그럼. 아 다 다른 거 없어. 전부 다 농사지.}
- 10101 @ 여기는 계:나 이런 것처럼 험녀카기 위해서 만든 모이미 이썸요?  
{여기는 계나 이런 것처럼 험력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있어요?}
- 10101 #계:?  
{계?}
- 10101 #아유:: 지금 사람들, 무::진장 찌그 무, 다나비 만트라구.  
{아유, 지금 사람들, 무진장 저 뭐, 단합이 많더라고.}
- 10101 #뭐야 뭐냐, 뭐, 띠모임? 뭐 나, 나, 그 띠모임은 나:이 모이미지. 뭐 동창, 무슨무슨 계:모임.  
{뭐야 뭐냐, 뭐, 띠모임? 뭐, 나, 그 띠모임은 나이 모이미지. 뭐 동창, 무슨무슨 계모임.}
- 10101 #뭐 뭐, 하:예간, 절:른 사람드른 이루 해:아릴 썸 업는 그 모이미 상당이 마나. 어, 무:청 마나. 그거는.

- {뭐, 뭐, 하여간, 젊은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임이 상당히 많아. 어, 무척 많아 그거는.}
- 10101 @ 예,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 10101 #우리 교동이 (@ 네.) 이르미 마:나.  
{우리 교동이 (@ 네.) 이름이 많아.}
- 10101 #처째, 고림, 노플 고짜에 수플 림짜. 대:운, 다를썬, 그리고 뭐:냐. 그러케 이르미 만:코.  
{첫째 고림, 높을 고 자에 수플 림 자. 대운, 달을신, 그리고 뭐냐. 그렇게 이름이 많고.}
- 10101 #예:저네는 여기 교동에 상, 상개며니 이서서. 동면, 서면, 봉면.  
{예전에는 여기 교동에 삼개면이 있었어. 동면, 서면, 북면.}
- 10101 #삼개며, 삼개며니 이서꼬 고 다메는 화개면, 수정면, 이:개며니 이서꼬.  
{삼개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화개면, 수정면. 이개면이 있었고.}
- 10101 #그러다가 인제 교동으루 땀는데, 그 당시에는 인제 저번날 얘:기한 인제 광야군 교동며니 아니라 교동구니거든. 교동혀:니거든.  
{그러다가 이제 교동으로 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번날 얘기한 이제 강화군 교동면이 아니라 교동군이거든. 교동현이거든.}
- 10101 #그그 저 그 뭐이 인하대하꼬에서 온 채게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이쁜데.  
{그그, 저 그 뭐 인하대학교에서 나온 책에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있던데.}
- 10101 @ 제가 해썌썌요. 저 그때 와썌꺼든노.  
{제가 했었어요. 저 그때 왔었거든요.}
- 10101 #그래가지구, 혀, 현:가미 이서꼬 한데, 이 교:동이 아주 저러키니 현:가르루 벼슬, 군수루 내려온 사라미 광야 본도보덤두 여기가 더 지끄비, 게:그비 노픈 사라미 와따구.  
{그래가지고, 혀, 현감이 있었고 한데, 이 교동이 아주 저렇게 현감으로 벼슬, 군수로 내려온 사람이 강화 본도보다도 여기가 더 직급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왔다고.}
- 10101 #근, 왜그러냐, 왜그러냐며는 여기에는 인제 사, 삼군, 삼도통:어사가 이뜨래서.  
{그, 왜그러냐, 왜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사, 삼군, 삼도통어사가 있더랬어.}
- 10101 #삼도통:어사는 뭐냐론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요 삼도를 통:어하는 통:어사.  
{삼도통어사는 뭐냐면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이 삼도를 통어하는 통어사.}
- 10101 #인제 수군절또사가 이꾸. 수군절또산 인제 지금 마라자면 해:군본부지.  
{이제 수군절도사가 있고. 수군절도사는 이제 지금 말하자면 해군본부지.}
- 10101 #여기 서해가 여기 이끼 때메.  
{여기 서해가 있기 때문에.}
- 10101 #이러키 때메 그거슬 검헐러니께는 직푸미 노픈 사라미 여기 내려오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하러니까 직품이 높은 사람이 여기 내려오는 거지.}
- 10101 #그러케 인제 교동이란 데가 그러케 중요한 데구.  
{그렇게 이제 교동이라는 데가 그렇게 중요한 데고.}
- 10101 #그저넌 여기가 이 아프루 이거이 전부 개, 바단무리 들락때는, 개꼴.  
{그 전엔 여기가 이 앞으로 이계 전부 개, 바닷물이 들락대는 갯골.}
- 10101 #개꼬리 여 저:그서 이짜그루 풀리구 이 중가네서 저:리 저:쪼그루 풀리구.  
{갯골이 여 저기서 이 쪽으로 뚫리고 이 중간에서 저리 저 쪽으로 뚫리고.}
- 10101 #그르쥔 서:미 세개가 되는 거 아냐 개꼬리 무리 미러들면 스:미 세:개가 되니. 그래서 삼개며니

- 왜뜨래는 거구.  
{그러니까 섬이 세 개가 되는 거 아냐. 갯골에 물이 밀어들면 섬이 세 개가 되니. 그래서 삼개면이 됐더라는 거고.}
- 10101 #그리구 지금 주로 인제 할 얘기가 마는게 연산군 유배지.  
{그리고 지금 주로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게 연산군 유배지.}
- 10101 #연산군 유배진데, 연:산군, 저 체계두 이찌. 연산군 유배지를 세: 군데를 인제 추츄글 한다 마랴.  
{연산군 유배지인데, 연산군, 저 책에도 있지. 연산군 유배지를 세 군데를 이제 추츄글 한다 말이야.}
- 10101 #하나는 읍:내리, 하나는 저 봉:소리, 하나는 여기.  
{하나는 읍내리, 하나는 저 봉소리, 하나는 여기.}
- 10101 #이러이 추츄글 허는데, 요거 인제 지금 이 면:장 지금 인는 면:장 먼저 면장이 아주 거기 관심이 상당히 마나뜨래서.  
{이렇게 추츄글 하는데, 이거 이제 지금 이 면장 지금 있는 면장 먼저 면장이 아주 거기 관심이 상당히 많았더랬어.}
- 10101 #해서 아주 인제 이 교동에 뭐뭐한 사람들 면:사무소 면, 현:시례 수시로 피야, 모여서 의논허구 전부 결론 내구 현 결과, 어:디다 자리를 정:했냐면 여 영산니 바로 요 우이, 거기다 자릴 정:하구.  
{해서 아주 이제 이 교동에 뭐뭐한 사람들 면사무소 면, 현실에 수시로 모여, 모여서 의논하고 전부 결론내고 한 결과, 어디에다 자리를 정했냐면 여 영산리 바로 이 위, 어디에다 자리를 정하고.}
- 10101 #비껴지, 연산저꺼지라고 유배지라고 비껴지 인제 해:다 거이 세워났는데.  
{비까지, 연산저꺼지라고 유배지라고 비까지 이제 해다 거기 세워났는데.}
- 10101 #그 사라미 그 성이 권간데 권태이런가 그 면장 이서스면 아마 그거이 왜:슬건데 그 사라미 가는 바라메 비만 가따 시위노콘 그냥 방:치해노쿠 말:지.  
{그 사람이 그 성이 권가인데 권태일인가 그 면장 있었으면 아마 그게 됐을 건데 그 사람이 가는 바람에 비만 갖다 세워놓고는 그냥 방치해놓고 말지.}
- 10101 #이 교동이란 데가 이러케 유서기폰데.  
{이 교동이라는 데가 이렇게 유서깊은데.}
- 10101 #행교는 또 뭐 어쩌케 된냐면, 이 교동행교가 지금 나마닐때에 행교가 이:백서른, 이:백스물세:개 행교가 이서.  
{행교는 또 뭐 어떻게 됐냐면, 이 교동행교가 지금 남한일대에 행교가 이백서른, 이백스물세개 행교가 있어.}
- 10101 #인는데, 이 교동행교가 그 나만 일때 행교중에 젤: 위쑤행교야.  
{있는데, 이 교동행교가 그 남한일대 행교 중에 제일 위쑤행교야.}
- 10101 #나도 전:교혈 때 인제 성균관네 올라가면 아우 위쑤행교 전:교님 오셔따구 인제 거 거기서 그런다구.  
{나도 전교할 때 이제 성균관에 올라가면 아우 위쑤행교 전교님 오셨다고 이제 거 거기서 그런다고.}
- 10101 #근데 왜 위쑤가 된냐면, 제:일 먼저 이 행교가 언:제 생겼냐면 천구백이십팔년 이 고려 인종 오:년 오:녀네 이 행교가 생겨서.  
{그런데 왜 위쑤가 됐냐면, 제일 먼저 이 행교가 언제 생겼냐면 천구백이십팔년 이 고려 인종 오년, 오년에 이 행교가 생겼어.}
- 10101 #생겨가지구 그 인제 고 그리군 행교 생긴 먼 해 이따가 이 아뉴, 아 아냥 아냥이 이찌. 이르미 아냥이구 호는, 이르미 아뉴고 호가 아냥이구나. 그 사라미 저 거러키니 중구겔 건너가서.

- {생겨가지고 그 이제 고, 그리곤 향교 생긴 몇 해 있다가 아 안유, 아 안향 안향이 있지. 이름이 안향이고 호는, 이름이 안유고 호가 안향이구나. 그 사람이 저 그렇게 중국에를 건너갔어.}
- 10101 #원나라. 그때 원나라지.  
{원나라. 그때 원나라지.}
- 10101 #원나라에 근:너가따가 공:자니메 영정을 모시구 나오는데.  
{원나라에 건너갔다 공자님의 영정을 모시고 나오는데.}
- 10101 #지그른 인제 뭐 배루두 땡, 아이 거러키니 기차루두 땡기구 배, 저 비행기루 땡기구 그러는데 그땡 그런거이 읍쓰니께는 자:찌 어느머는 배타고 물로 오는 거라 마리아.  
{지금은 이제 뭐 배로도 나, 아이 그렇게 기차로도 다니고 저 비행기로도 다니고 하는데 그땡 그렇게 없으니까는 걷지 않으면 배타고 물로 오는 거란 말이야.}
- 10101 #자:기서 자:러오니젠 힘드니젠 배타구 거그서 오며는, 그땡 서우리 어딴냐며는 개성이란 마리아 개경. 고:려때니젠.  
{거기서 걸어오니까 힘드니까 배타고 거기서 오면, 그땡 서울이 어딴냐며는 개성이란 말이야 개경. 고려 때니까.}
- 10101 #그니까, 개경으루 개성으루 드러갈려 그르먼 일러리 와야된다 마리지.  
{그러니까, 개경으로 개성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리로 와야 된다 말이지.}
- 10101 #여기 교동에꺼지 와:따가 어떠케보면 그이 풍량이 만났는지 피곤해선지 그 공자님 영정 모시고 오든 배가 이 교동에 대 대서.  
{여기 교동에까지 왔다가 어떻게 보면 그 풍량을 만났는지 피곤해선지 그 공자님 영정 모시고 오던 배가 이 교동에 댕어.}
- 10101 #교동에다 대:구서 그리켄 그 교동이 대 대:구나선 그 공자니메 영정을 배에다 모시기 그러니깐 육찌루 인제 그 초마글 지꾸서 육찌에다 모:셔놔따 실꾸선 개성으로 가따마리지.  
{교동에대 대고서 그러니까 그 교동에 대 대고나서는 그 공자님의 영정을 배에다 모시기 그러니까 육지로 이제 그 초막을 짓고서 육지에다 모셔놔다가 실고선 개성으로 갔다 말이지.}
- 10101 #그래서 원:나라에서 처:음 오다가 교동에 기차글 해끼 때메, 그래서 교동행교가 제일 먼저 공자님 모시는 고시란 마리아. 그리니케 나만 일때에 행교 중에 위쭈행교라고 허는 거지.  
{그래서 원나라에서 처음 오다가 교동에 기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동향교가 제일 먼저 공자님 모시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일대의 향교 중에 위쭈향교라고 하는 거지.}
- 10101 #그 행교가 인제 그 행교가 어디제냐면 저 고읍니. 거기 관사터두 이 저:수지 인는, 저:수지 인는 동네가 고읍, 고:으비거든.  
{그 향교가 이제 그 향교가 어디제냐면 저 고읍리. 그 관사터도 이 저수지 있는 동네가 고읍, 고읍이거든.}
- 10101 #고으, 고읍 거기가 인제 관사터두 이꾸 거기서 요로게 건너보자면 사네가 인제 행교터가 지구 그게 구생교, 구 구: 행교터라 그르지.  
{고으, 고읍 거기가 이제 관사터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건너보자면 산에가 이제 향교터가 지고 그게 구향교, 구 구 향교터라 그르지.}
- 10101 #그 행교터가 이:꾸. 거기 이따가, 예, 천칠백팔씨빌려네, 그 한 오:백년 똥나? 사:백년 똥나. 그, 거기따가 읍내리 지금 인는 행교루 글루 올마간 거야.  
{그 향교터가 있고, 거기 있다가, 예, 천칠백팔십일년에, 그 한 오백년 똥나? 사백년 똥나. 그 거기 있다가 읍내리 지금 있는 향교로 그리로 읍아간 거야.}
- 10101 #이 행교는 그런, 교동행교가 그런 행교야.

{이 향교는 그런, 교동향교가 그런 향교야.}

10101 @ 그걸 다 가추고 인는 향교두 머께 업따구 드러써요.  
{그걸 다 갖추고 있는 향교도 몇 개 없다고 들었어요.}

10101 #아냐 공:잔님 영정은 다 가추고 이서.  
{아냐 공자님 영정은 다 갖추고 있어.}

10101 @ 근데 거기서 직접 모셔온, 잘못 뜨러나.  
{그런데 거기서 직접 모셔온, 잘못 들었나.}

10101 #제:기?  
{제기?}

10101 @ 네, 네.  
{네, 네.}

10101 #응. 제 제 제:기두, 제:기는 누가 가져왔냐면 김문성이란 사라미 아뉴 선생이 영정을 모셔오구 나서는 그 후에 김문성이란 사라를 원:나라에다 보내서 원:나라에서 제:길 가져왔는데 제:기는 저 글러리 가져 교동엔 둔 건 아냐.  
{응. 제 제기도, 제기는 누가 가져왔냐면 김문성이라는 사람이 안유 선생의 영정을 모셔오고 나서는 그 후에 김문성이라는 사람을 원나라에다 보내서 원나라에서 제기를 가져왔는데 제기는 저 그쪽으로 갔지 교동에 둔 건 아냐.}

## 1.2. 일생 의례

### 1. 제보자의 태생과 성장

10201 @ 예, 그러며는, 하라버지의 정보에 대해서 그, 저글 켜데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의 정보에 대해서 그, 적을 건데요.}

10201 @ 하라버지에 그 정보:를 여기에 저글 켜데요. 즈, 출생지가 어디세요?  
{하라버지의 그 정보를 여기에 적을 건데요. 저, 출생지가 어디세요?}

10201 #내: 출생지?  
{내 출생지?}

10201 @ 예.  
{예.}

10201 #우리, 내: 출생지가 지금 우리, 저 하라버지가.  
{우리, 내 출생지가 지금 우리, 저 할아버지가.}

10201 @ 예.  
{예.}

10201 #고:려 말려네, (@ 예.) 고, 이 이:싱게 씨가 인제 등그칼 때 고려 말려네 대:사헌까지 지내신 하라버지  
여기 하라버지가 인제 고:려 말기에 대:사, 그 고려 정귀네 대:사헌까지 지내신 하라버지가  
{고려 말년에, (@ 예.) 고, 이 이:싱게 씨가 이제 등극할 때 고려 말년에 대사헌까지 지내신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가 이제 고려 말기에 대:사, 그 고려 정권에 대사헌까지 지내신 할아버지가}

10201 #이:싱게 씨가 이제 등그카면서 그, 그니젠 왕씨가 무너지구 이:씨가 등그퀸 거 아냐.  
{이:싱게 씨가 이제 등극하면서 그, 그러니까 왕씨가 무너지고 이씨가 등극한 거 아냐.}

10201 #그 당시에 충시는 불싸이구니다 마랴.

{그 당시에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말이야.}

10201 #어찌 내가 고려에 충시인데 이:씨에, 또 그 조정을 보겠나 해:가지구 그 당시에 이 교동으로 나장을 해오셔서.  
{어찌 내가 고려의 충신인데 이씨에 또 그 조정일을 보겠나 해서 그 당시에 이 교동으로 낙향을 해오셨어.}

10201 #그니젠, 내: 대, 내:게 십구대 하라버지가 이 교동으로 오셔가지구.  
{그러니까, 내 대, 내게 십구대 할아버지가 이 교동으로 오셔가지고.}

10201 #기니젠, 나:는 지금 이 교동에 오신 하라버지가, 하라버지 이후로부터 이 여기 교동에 인는 게 이:심삼제꺼지 내려와서 이:심삼, 이:시비:대꺼지 내려와, 이:십사, 삼:대꺼지 내려와 이따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교동에 오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후로부터 이 여기 교동에 있는 게 이십삼대까지 내려와서, 이십삼, 이십이대까지 내려와, 이십삼대까지 내려와 있다 지금.}

10201 @ 아아.  
{아아.}

10201 #이러케 역싸가, 교:동에, 아마 제:일 터주때가미라구 허면 전씨가 터주때가미라 하면 바른말 될꺼야.  
{이렇게 역사가, 교동에, 아마 제일 터줏대감이라고 하면 전씨가 터줏대감이라 하면 바른말 될꺼야.}

10201 #그러케, 그러케 뿌리가 기퍼 여기가 교동에.  
{그렇게, 그렇게 뿌리가 깊어 여기가 교동에.}

10201 @ 그러면 여기 출생진 여기 고구리세요?  
{그러면 여기 출생지는 여기 고구리세요?}

10201 #으응 고구리.  
{으응 고구리.}

10201 @ 그러며는 이 조상분들도 계속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사신 거세요?  
{그러면 이 조상분들도 계속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사신 거세요?}

10201 #그러치, 농사 저:찌.  
{그렇지, 농사 지었지.}

10201 @ 향녀근 어떠케 되세요?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10201 #향녀기래야 뭐:, 볼 꺼 인나 이제.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땡길 때는 왜정, 춤 이짜어 궁미나교라구 해가지구 궁미나교 좀 땡기다가.  
{학력이래야 뭐 볼 거 있나 이제.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다닐 때는 왜정, 처음 있잖아. 국민학교라고 해서 국민학교 좀 다니다가.}

10201 #여기 농어파교라고 이서가지고 농학 하교 쪼끔 한 일련 땡기다가 구:악이나 쪼끔 일꾸 만: 거지 뭐.  
{여기 농업학교라고 있어서 학교 학교 쪼끔 한 일련 땡기다가 구학이나 쪼끔 읽고 만 거지 뭐.}

10201 @ 허며는 군대 다녀오셔썬요?  
{그럼 군대 다녀오셨어요?}

10201 #그럼 군대 다녀, 여그 여기 문패 모뻘나 구까유공자라구.  
{그럼, 군대. 여기 문 못봤나? 국가유공자라고.}

10201 @ 아 맞다맞다. 그러면, 어디로 다녀오셔썬요 .  
{아 맞다맞다. 그러면,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10201 #바:루 전:시아, 유기오 때 그때 저 전:쟁알 땅시아.  
{바루 전시아, 육이오 때 그 때 전쟁할 당시야.}

10201 #예, 그, 중부정, 전:선, 금:성, 그마. 그 그 전투에 중부전서네서 전:투헌 거지.  
{예 그 중부전, 전선, 금성 김화. 그 그 전투에 중부전선에서 전투한 거지.}

10201 @ 그러며는 면녀:니나 거기서 계셔썬요?  
{그러면 몇 년이나 거기서 계셨어요?}

10201 #면년 한:냐구?  
{몇 년 했냐구?}

10201 @ 예.  
{예.}

10201 #오:십 칠개월.  
{오십칠개월.}

10201 @ 오:십 칠개월. 우와.  
{오십칠개월. 우와.}

10201 #지그른 뭐 이:시빌개월 이:시비개월, 오:십칠개, 해수로 용년 해:서 용년.  
{지금은 뭐 이십일개월 이십이개월, 오십칠개, 햇수로 육년 했어, 육년.}

10201 @ 어휴. 그러며는 여기서 계속 농사 지으신 거세요? (#그르치.)  
{어휴. 그러면 여기서 계속 농사 지으신 거세요? (#그렇지.)}

10201 @ 그, 그럼 지금 가족 뿐드른 어뜨게.  
{그럼 지금 가족 분들은 어떻게.}

10201 #가조근 아이드른 전부 인제 육찌루 나가이찌.  
{가족은, 아이들은 전부 이제 육지로 나가있지.}

10201 #크나드른 인제 서울서 고등아꼬 교:사루 이꾸.  
{큰아들은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있고.}

10201 #나마지 아이드른 인:친 인제 가인는데 한노른 동:사무소에 이꾸 한노른 구청에 이꾸.  
{나마지 아이들은 인천 가있는데 한놈은 동사무소에 있고 한놈은 구청에 있고.}

10201 #그러이, 그러케 이찌. 지그른. 게 전부 고, 공지게, (@ 다 공무원 하시는구나.) 공지게 이서.  
{그렇게 있지. 지금은. 그게 전부 고, 공직에. (@ 다 공무원 하시는구나.) 공직에 있어.}

10201 @ 어어. 성장과정은. 다 끝나썬요.  
{어어, 성장과정은. 다 끝났어요.}

10201 #거 뭐 내 이:력썬를 부치는 거야 뭐야.  
{거 뭐 내 이력서를 붙이는 거야 뭐야.}

10201 @ 이거는 제보자 조사표를 이러케 만드러야 돼서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제보자 조사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채우는 거예요.}

10201 @ 제가, 저이가 어떤 하라버지한테 어떤 하라버지를 만나서 이런 말씀드를 조은 말씀드를 드러따,라고 증거하러고, 우리가 가짜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인는 사람, 인는 하라버지를 가지구 조사를 한 거라구. 증거를 남겨놔야 돼서.  
{제가, 저희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런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들었다라고 증거하러고, 우리가 가짜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사람, 있는 할아버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라고 증거를 남겨놔야 돼서.}

10101 @ 그러며는, 이 마으레는 무슨 독트칸 특징이나 자랑꺼리 가튼 게 이쓰세요? 이 마을마네 특징

- 가튼 거.  
 {그러면, 이 마을에는 무슨 독특한 특징이나 자랑거리 같은 게 있으세요? 이 마을만의 특징 같은 거.}
- 10101 #어 우리 교동:, 우리 마:을뿐마니 아니라 이 우리 교동::으로서는 머 독트컨 자:랑꺼리래는 건 으음 별루 읍:꾸.  
 {어 우리 교동, 우리 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교동으로서는 뭐 독특한 자랑거리라는 건 음 별로 없고.}
- 10101 #자:랑으루 내:신대며는, 예, 공기조, 공기 조꾸 물 조꾸.  
 {자랑으로 내세운다면, 예 공기 조, 공기 좋고 물 좋고.}
- 10101 @ 쌀 쌀.  
 {쌀, 쌀.}
- 10101 #인:심 조꾸.  
 {인심 좋고.}
- 10101 @ 에에 마자요.  
 {에에 맞아요.}
- 10101 #뭘 인:시문, 아 지그문 인제 모:두가 오염돼가지구 인젠 가튼 제 쌀롱살 진:는다 해:두, 여:기는 아튼 아직 무리 오염데지 아나따 마랴. 지금 저 육찌는 전부 오염미 데가지구 인제.  
 {뭐 인심은, 아 지금은 이제 모두가 오염되어서 이제 같은 제 쌀농사를 짓는다 해도, 여기는 아직 물이 오염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저 육지는 전부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제.}
- 10101 #이 곡씩뚜 깨끄턴 물 드러간 거와 오염텐 물 드러가서 성장한 거이 그 그 차이가 만:타구 허드만.  
 {이 곡식도 깨끗한 물 들어간 거와 오염된 물 들어가서 성장한 게 그 차이가 많다고 하더만.}
- 10101 #근데, 여기는 아직뚜 무리 오염데지 아니켤 쌀:만쿠문, 우리가 주로 식생활을, 쌀만쿠문 아마 교동 짜:리 제:일 조:타구 볼 수 이쓸꺼야.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도 물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쌀만큼은, 우리가 주로 식생활을, 쌀만큼은 아마 교동쌀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을 거야.}
- 10101 #뭘이, 여:러가지 인제 풍경이 교동에두 만:치며는.  
 {뭐, 여러가지 이제 풍경이 교동에도 많지만.}
- 10101 #마:느, 마:는데 전져그루 다 트러볼 땐 아마 그 싸레 대해서는 제:일 조:타구. 안, 안전허구 사라메 유리허다구 볼 쭈 이쓸 꺼야.  
 {많, 많은데 전적으로 다 들어볼 땐 아마 그 쌀에 대해서는 제일 좋다고. 안, 안전하고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 10101 #기니께, 특징이라며는, 물 조코 공기 조코 인:심 조코.  
 {그러니까, 특징이라면,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 10101 #그, 그러키 때메 우리 교동에 이런 얘기가 이서.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동에 이런 얘기가 있어.}
- 10101 #여:기에 지, 지그문 대:충 교동을 다: 알구 이찌마는  
 {여기에 지 지금은 대충 교동을 다 알고 있지만}
- 10101 #여, 한 이삼십년 이저느로 거슬러 올라가며는 여 공:지그루 온 사람들 이따 마랴 인제. 면:사, 면:지귀느로 온대든지 지서지귀느로 온대든지.  
 {여, 한 이삼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공직으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야 이제. 면사, 면직원으로 온대든지 지소 직원으로 온대든지.}

10101 #여기두 인제 전부 다 이, 그 공청이 이시니께는. 오는데. 올 때는 다 울:구 온대는 거야.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이, 그 공청이 있으니깐. 오는데. 올 때는 다 울고 온다는 거야.}

10101 #내:가 이 서:메가 내려와서 날 어뜨쿨, 지내나 마리지.  
{내가 이 섬에 내려와서 난 어떻게, 지내난 말이지.}

10101 #게, 울:고 와따 울:고 가는 거시 교통이다 이거야.  
{그게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것이 교통이라 이거야.}

10101 #드를 때 울:고 나갈 때 울:고.  
{들어올 때 울고 나갈 때 울고.}

10101 #나갈 땐 왜 우냐. 정드러시니까.  
{나갈 땐 왜 우냐. 정들었으니까.}

10101 #지금 오늘두 내 여기 인제 소:포가 지금 와서. 소:포가 완는데.  
{지금 오늘도 내 여기 이제 소포가 지금 왔어. 소포가 왔는데.}

10101 #이 사라미 지금 저: 안, 저 그 경기도 안사네, 안사네서 우체국짱으루 지금 인는 사라민데.  
{ 이 사람이 지금 저 안, 저 그 경기도 안산에, 안산에서 우체국장으로 지금 있는 사람인데.}

10101 #여기 와따 간 지가 한 시보년 정도 돼:찌.  
{여기 왔다 간 지가 한 십오년 정도 됐지.}

10101 #와따 간 지가 시보년 똬는데.  
{왔다 간 지가 십오년 똬는데.}

10101 #그 여기 올 땐 뭐 나하군 저녀 나, 모루는 남나미지.  
{그 여기 올 땐 나하고 전혀 남, 모르는 남남이지.}

10101 #게, 여기 오나가주구 나:를 만, 저 만나가주구 대와해 보니 배, 허구 나서, 나를 아:버지라고.  
{그게, 여기 와서 나를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니 배, 하고 나서, 나를 아버지라고.}

10101 #아:버지라구 하면서 그, 극쩍하게 여 여기 인제 지금 저:기 우체국 인는 저기서 수시루 땡이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극진하게. 여 여기 이제 지금 저기 우체국 있는 저기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아버지 아버지.}

10101 #내 이사람 보구 이거야, 여보게. 나:거튼 사람 치내 봐야, 자네 악끼레 도움 되는 거 이리 하나두 업써.  
{내가 이 사람 보고 뭐야, 여보게. 나 같은 사람 친해 봐야, 자네 앞길에 도움될 거 일이 하나도 없어.}

10101 #나가 뭐 자네 앞끼를 무어: 도우미 텔 싸라민가 마리지. 왜 그르냐 마리아.  
{내가 뭐 자네 앞길을 무어 도움이 될 사람인가 말이지. 왜 그러냐 말이야.}

10101 #아유 저는 도우를 바라지 아느습니다 마리지. 아버지 인껴글 보구 아버지라구 합니다 마랴.  
{아유 저는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말이지. 아버지 인격을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말이야.}

10101 #게, 여기서 떠난 지두 한 시, 십녀니 너머서 한 시보년 데두  
{그게, 여기서 떠난지도 한 십, 십년이 넘었지 한 십오년 되어도}

10101 #매:번 이제 파될 추석, 구:정. 이때는 이러케 소:포루다 선:무를 보내주는 거야.  
{매번 이제 팔월 추석, 구정. 이 때는 이렇게 소포로다 선물을 보내주는 거야.}

10101 #이와 가치 울: 때는 서글퍼서 울:구 와따.  
{이와 같이 올 때는 서글퍼서 울구 왔다.}

10101 #여:그 와서 정에 겨, 정을 부쳐가주구 떠나갈 땐 정을 몬니저섬 게 울:구 와따 울:고 가는 게 교통이다

마리지.  
 {여기 와서 정에 겨, 정을 붙여가지고 떠나갈 땐 정을 못잊어 그게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게 교동이란 말이지.}

10101 #이런 얘기가 이서.  
 {이런 얘기가 있어.}

10101 #이 교동이란, 그거시 특징이라구 보면 특징 될꺼야.  
 {이 교동이란, 그것이 특징이라고 보면 특징 될 거야.}

10101 #또 특징은 농사쌀, 쌀, 싸:리 특징이구.  
 {또 특징은 농사쌀, 쌀, 쌀이 특징이고.}

10101 @ 자랑거리두 이꾸. 지금 이 교동 마으른 어르신니 어려쓸 때랑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져쎄요?  
 {자랑거리도 있고. 지금 이 교동 마을은 어르신이 어렸을 때랑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졌어요?}

10101 #어터게 달라와따고.  
 {어떻게 달라왔다고.}

10101 @ 연륙, 이제 영뉴꼬도 인제 생기쎄. 다리. 다리두 생기구 길두 풀리구.  
 {연륙, 연륙교도 이제 생기쎄. 다리, 다리도 생기고 길도 뚫리고.}

10101 #예:전과 지금 현:재와 비교허래면 말:두 모태.  
 {예전과 지금 현재와 비교하려면 말도 못해.}

10101 #아까두 얘:기 해찌?  
 {아까도 얘기했지?}

10101 #겨:울철 되머는 여기 배가 딱 매켜가지곤.  
 {겨울철 되면 여기 배가 딱 막혀가지고는.}

10101 #여기 인는 사:람들끼리 그, 무슨 물, 물건. 인제. 대:룡, 대:룡리라구 저 자네들 봐슬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 무슨 무, 물건. 이제. 대룡, 대룡리라구 저 자네들 봤을 거야.}

10101 #그이 대:룡리가 인제 고 가:게들 이꾸 한켠 거기들 인제 사, 상인드리 물건 좀 해:다 논단 마랴.  
 {거기 대룡리가 이제 그 가게들 있고 하니까 거기들 이제 상인들이 물건 좀 해다 놓는단 말이야.}

10101 #그 물건 해:단, 고겨 가지구 겨:울 지내니께는 뭐, 뭐:든지 귀허면 비싼 거 아냐. 흐너면 싸구.  
 {그 물건 해선, 그거 가지고 겨울 지내니까 뭐든지 귀하면 비싼 거 아냐. 흐하면 싸고.}

10101 #게 거 물거니 고겨바께 읍스니젠 거 머지 저 육찌에서는 머 시번짜리가트면 여기서는 처닐, 처:뉘니라 두 바들 수 인는 거지.  
 {게 거 물건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 뭐지 저 육찌에서는 뭐 십원짜리같으면 여기서는 천원, 천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

10101 #이러, 이러케 돼:꼬.  
 {이러, 이렇게 됐고.}

10101 #이 지금 이 교동에 전:기가 드러온 지가 한 이:십벼너니 돼:찌.  
 {이 지금 이 교동에 전기가 들어온지가 한 이십여년이 됐지.}

10101 #그: 인제 전:기 드러오기 전까지는 여, 호 호롱불, 드 든잔불 요겨 켜노코.  
 {그 이제 전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 호 호롱불, 드 등잔불 이거 켜놓고.}

10301 #지금 비교::허래야 비교::되지 안는 거니 뵈 거니 그거도 그거지마는.  
 {지금 비교하려면 비교되지 않는 거니 뵈 거니 그것도 그거지만.}

10301 #옌:나레는, 우리, 저, 어, 우리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 으:른 돼가지구 한 이:십쌀 삼십쌀 돼서두.  
 {옛날에는 우리 저, 어, 우리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 어른 되어가지고 한 이십살 삼십살 되어서도.}

10301 #드레 나가서 인제 이:런다 마랴. 여름처레. 이:러구 밤, 해가 어두워가주구 또 드리오며는  
 {들:에 나가서 이제 일한단 말야. 여름철에. 이:러고 밤, 해가 어두워가지고 또 들어오면.}

10301 #드러, 드러와서 이게 발 거더 저 치우구서 방에 드러가며는, 벼룩.  
 {들:어, 들어와서 이게 발을 걷어 치우고서 방에 들어가면, 벼룩.}

10301 #머 오:세 이는 마랄 꺼뚜 읍:꼬.  
 {뭐 옷에 이는 말할 것도 없고.}

10301 #벼, 벼루기 다리에 새:카마케 기어 올라와.  
 {벼, 벼룩이 다리에 새카맣게 기어올라와.}

10301 #그 벼룩 뿌닌가? 빈대는 얼마나 마나.  
 {그 벼룩 뿐인가? 빈대는 얼마나 많아.}

10301 #자네들 빈대 모를꺼야. 아라?  
 {자네들 빈대 모를 거야. 알아?}

10301 #빈대 모르지. 허. 비, 빈대는 납::짜cker게 생겨서. 납짜cker이.  
 {빈대 모르지. 허. 비, 빈대는 납작하게 생겼어, 납작하게.}

10301 @ 피빠라명는?  
 {피 빨아먹는?}

10301 #아:이구 무:진장 빠:라머그먼 아:파요 또.  
 {아이구 무진장 빨아먹으면 아파요 또.}

10301 #그게 이 지금 이:러게 되베 해:찌?  
 {그게 이 지금 이렇게 도배 했지?}

10301 #게 되베가 인나.  
 {그게 도배가 있나.}

10301 #그냥 흐:그루다 이:런, 흑:빠기야 흑:빱.  
 {그냥 흙으로다 이:런, 흙벽이야 흙벽.}

10301 #흑:빠그루 발르니께니 흐:기래는 건 터:지자나, 갈라지자나.  
 {흙벽으로 바르니까, 흙이라는 건 터지잖아, 갈라지잖아.}

10301 #갈라지니 그 새:에 가 전부 드러가 끼여인는 거야. 응?  
 {갈라지니 그 사이가 전부 들어가 끼여있는 거야. 응?}

10301 #그래따 바:미 되면 거기서 나오나서 사람 드러가면 사람 피 빠라명는 거지.  
 {그랬다 밤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사람 들어가면 사람 피빨아먹는 거지.}

10301 #그러게 이: 벼글 보며는 전:부 빈대 가면 손으로다 미지른다 마랴.  
 {그러게 이 벼를 보면 전부 빈대 가면 문지른다 말이야.}

10301 #게, 미지르면 사람 빠라머근 피가 이:시첸 피가 쪽:.  
 {그게, 미지면 사람 빨아먹은 피가 있으니까 피가 쪽.}

10301 #바람:빠기 아니라 전:부 피투세~이~지.  
 {바람벽이 아니라 전부 피투성이지.}

10301 #베루기 그러치, 오세는 이:가 껴이찌.  
 {베루기 그렇지, 옷에는 이가 껴있지.}

10301 #이루 헤아리지 모태.  
 {이루 헤아리지 못해.}

10301 #그래도 그, 그 당시에 사람드른, 그, 그거 깨:무는 주를 모르구 자서.

{그래도 그,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그거 깨무는 줄을 모르고 잤어.}

10301 #왜: 잔냐. 피:고너니까.  
{왜 잤냐, 피곤하니까.}

10301 #지금 여기 아:래 계, 게이트볼장 이서 여기 회관 인는 데.  
{지금 여기 아래 계, 게이트볼장 있어 여기 회관 있는 데.}

10301 #거기 저 가, 내려가봐.  
{거기 저 가, 내려가 봐.}

10301 #절:문 여자드리 그 수:두루커게 지금 메, 메:가지고 이 게:트볼 친다 마랴.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지금 모, 모여가지고 이 게이트볼 친단 말이야.}

10301 #엔:나래 어디가 게이트볼이 이꾸 뭐:이 도, 도라설 시가니 어디서?  
{옛날에 어디가 게이트볼이 있고, 뭐 이 도, 돌아설 시간이 어딴어?}

10301 #저, 나:제 나와서 그냥 거 거, 여긴 또 건파야.  
{저, 낮에 나와서 그냥 거, 여긴 또 건파야.}

10301 #모두, 모두 몬내.  
{모도, 모도 못내.}

10301 #모:래는 건 모:를, 벼씨를 이제 부:어놔따가 그걸 뜨더다가 물론 쓰:럭질 해노곤 끈는 거이 모구.  
{모라는 건 모를, 벼씨를 이제 부어놔다가 그걸 뜯어다가 물논 써레질 해놓고 꽃 게 모고.}

10301 #건파래는 건 마른 노를 가:라가지구 벼씨를 거기다 뿌려.  
{건파라는 건 마른 논을 갈아가지고 벼씨를 거기에다 뿌려.}

10301 #뿌려가지구 거기서 벼, 씨를, 종자가 나오는 거지.  
{뿌려가지고 거기서 벼, 씨를, 종자가 나오는 거지.}

10301 #그이, 그거를 보고 산:파, 지그므루 얘:기하면 산:파라 그래. 헤쳐서 나오니께.  
{그게, 그거를 보고 산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파라 그래. 헤쳐서 나오니까.}

10301 #이걸 봄:내 허미를 가지구 다니면서 기:물 매:는 거야. 응?  
{이걸 봄 내 호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김을 매는 거야. 응?}

10301 #그, 아 거기서 벼씨만 나오나? 김:두 가치 나오지?  
{그, 아 거기서 벼씨만 나오나? 김도 같이 나오지?}

10301 #그러니께 그 잡초는 제:거해줘야자나.  
{그러게 그 잡초는 제거해 줘야잖아.}

10301 #그거 아마 노:니랑이 여:기서 저바할라까지 데면 그거 기:미 만:케 되면 한걸 내:내 매: 봐야 여기서 저바할라까지, 이랑은 요마난, 푸른 요마난 그거 한니랑바께. 그니 아:리 터가 나? 안 터가 나지.  
{그거 아마 논이랑 이 저밭까지 되면 그거 김이 많게 되면 한니절 내내 내 봐야 여기서 저밭까지, 이랑은 요만한 품은 요만한 그거 한 이랑 밖에. 그러니 이리 표가 나? 표가 안 나지}

10301 #그러니겐, 온: 여름 내 그거 가지구 하지.  
{그러니까 온 여름 내 그거 가지고 하지.}

10301 #저녁에 드려오면 뭘: 해야 돼?  
{저녁에 들어오면 뭘 해야 돼?}

10301 #방아 찌야 돼, 방아.  
{방아 찌야 돼, 방아.}

10301 #방안데 무슨 방아. 쌀방아 거트면 한걸 나께. 보리방아.  
{방안데 무슨 방아. 쌀방아 같으면 한걸 낮게. 보리방아.}

10301 #그, 보:리, 보:리를 방, 보:릴 찌어가지구. 응? 찌:야 바블 또께 해:머그니께.  
{그 보리, 보리를 방, 보리를 찌어가지고. 응? 찌야 밥을 또 해먹으니까.}

10301 #싸:리 어디가 이서. 그러케 농사지어두, 머글 싸리 부조캐.  
{쌀이 어디 있어. 그렇게 농사지어도 먹을 쌀이 부족해.}

10301 #그리께, 이런 얘기가 인는 거야.  
{그러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10301 #따를 시지뽀낼려머는, 조:반석쭈기나 허는 지비냐 마리지.  
{따를 시집보내려면, 조반석죽이나 하는 집이난 말이지.}

10301 #아침빠베 저녁쭈기나 멍는 지비냐.  
{아침 밥에 저녁 죽이나 먹는 집이냐.}

10301 #건 부:자야.  
{그건 부자야.}

10301 #아:침빠 머꾸 저녁게 이 중 멍는 사라문 건 부:자야.  
{아침밥 먹고 저녁에 이 죽 먹는 사람은 부자야.}

10301 #거 읍:는 사라문 밤:날 아치미구 저녁기구 주, 주 주가지.  
{거 없는 사람은 밤낮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 죽이지.}

10301 #근데 죽뚜 무슨 주기야.  
{그러는데 죽도 무슨 죽이야.}

10301 #뭘 쌀:쭈꺼튼거? 그건 뭘 알:마나 마시께.  
{뭘 쌀죽같은 거? 그건 뭘 얼마나 맛있게.}

10301 #보리 가라서 보리마까리죽,  
{보리 갈아서 보리 막갈이죽.}

10301 #밀, 밀:, 밀: 가라서, 지금 밀:가루들 파라다 먹, 에 그런 거 가따 사서 인제 뭐야 만:두두 해:머꾸  
뭘 부, 부치기두 해:머꾸.  
{밀, 밀 갈아서, 지금 밀가루들 사다 먹, 에 그런 거 갖다 사서 이제 뭐야 만두도 해먹고 뭘  
부, 부침개도 해 먹고.}

10301 #가:루가 어디서. 그냥 마:까리야 마:까리.  
{가루가 어딴어. 그냥 막갈이야 막갈이.}

10301 #밀: 그냥, (@ 가라세요?) 그럼. 이 매루다 가는 거야 매루.  
{밀 그냥, (@ 갈아세요?) 그럼. 이 매로 가는 거야, 매로.}

10301 #지그문 기계루다 같:구 허지만 매:루다 이러 가:라가지구 그거루다가 수제비라구 인제 국수가 어디서.  
수제비라구.  
{지금은 기계로다 같고 하지만, 매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수제비라고 이제 국수가 어디  
있어.}

10301 #고거 반죽 꺼풀꺼지 해서 반죽해가지구 물 끄린 데다 이제 찌, 찌저너가지구. 그거뚜 잘: 멍는  
거야.  
{그거 반죽 꺼풀까지 해서 반죽해가지고 물 끓인 데다 찌, 찌어 넣어가지고. 그것도 잘 먹는  
거야.}

10301 #이러케 해: 오구.  
{이렇게 해 오고.}

10301 #오:시랜 건 뭐냐.

- {웃이라는 건 뭐냐.}
- 10301 #그전과 지금 얘, 비:교해서 얘:길 해니젠 오:시랜 건 뭐:냐.  
{그 전과 지금을 얘, 비교해서 얘기를 하니까, 웃이란 건 뭐냐.}
- 10301 #무녕. 무, 무녕으루 맨든 바:지저고리.  
{무명. 무, 무명으로 만든 바지 저고리.}
- 10301 #그러차느면 베, 여:르멘 베적삼.  
{그렇지 않으면 베, 여름엔 베적삼.}
- 10301 #베라구, 삼베라구, 여기 마:니 시머뜨래서.  
{베라고, 삼베라고 여기 많이 심었더랬어.}
- 10301 #에이 그거시 지금 대:마야 대:마. (@ 대마예요 그계?) 대:마, 대:마야 그거이. 사미.  
{에이 그계 지금 대마야, 대마. (@ 대마예요 그계?) 대마, 대마야 그계. 삼이.}
- 10301 #이 지금, (@ 아 사미 대마구나.) 베, 베오, 베온, 베오플 입짜나 베온.  
{이 지금, (@ 아 삼이 대마구나.) 베, 베오, 베웃을 입잖아 베웃.}
- 10301 #거 사:람, 저, 주그면 시신 이게 감:는 거이 베루다 감:짜나.  
{거 사람, 저 죽으면 시신 이게 감는 게 베로 감잖아.}
- 10301 #그 베, 베에 그 재료가 대:마야 대:마.  
{그 베, 베에 그 재료가 대마야 대마.}
- 10301 #근데 왜 그때 대:마, 대:마, 그 대:마 풀리파릴 담:빨 안머근지 몰라.  
{그런데 왜 그때 대마, 대마, 그 대마 풀이파리를 담:배를 안 먹은지 몰라.}
- 10301 #집찜마다, 무:진장 해:신께는.  
{집집마다 무진장 했으니깐.}
- 10301 #게, 그거, 그걸, 그걸 하는데, 하머는 아:를 무지, 옛:날 할머니들, 쫄쫄 도라서문, 오:주미나 누라 도라슬까? 똥:이나 누라 도라슬까? 도라슬 새가 읍서.  
{게, 그걸, 그건데, 하면 일을 무지, 옛날 할머니들 조금 돌아서면 오줌이나 누러 돌아설까? 똥이나 누러 돌아설까? 돌아설 새가 없어.}
- 10301 #잠두 별루 문, 게 김:매구 들와서 이 보리방아 찌여서 어찌구 해:서. 응?  
{잠도 별로 못, 게 김 매고 돌아와서 이 보리방아 찢어서 어찌고 해서. 응?}
- 10301 #허지. 아, 아:이들 또 이 떠러진 오:쫄 꼬:매구 이러면 잠잘 시가니 어디서. 잠도.  
{하지. 아, 아이들 또 이 떨어진 옷 좀 꼬매고 이러면 잠잘 시간이 어딴어, 잠도.}
- 10301 #잠두 자는 둥 마는 둥. 이, 이러커는 거지.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이, 이렇게 하는 거지.}
- 10301 #그런: 판구게 서:팔 그몹, 인제 요 을마 안 나마서 구정이 도라오자나.  
{그런 판국에 설달 그몹, 이제 안 나마서 구정이 돌아오잖아.}
- 10301 #서:팔 그몹메, 되머는,  
{설달그몹에, 되면}
- 10301 #그래두 오시라도 빠:라이버야 하자나, 히끄머게.  
{그래도 웃이라도 빨아 입어야 하잖아. 희끔하게.}
- 10301 #빠:라이블러면 이 벽, 벽꾸 이블 오시 읍씨.  
{빨아 입으려면 버, 벗고 입을 웃이 없어.}
- 10301 #그 광:목 바:지저고리두.  
{그 광목 바지저고리도.}

- 10301 #그니겐 할 수 없이 버 버서서 빨라구 허군 오시 읍서서 입구 나갈 수가 읍:스니께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버 벗어나서 빨라고 하곤 옷이 없어서 입고 나갈 수가 없으니깐.}
- 10301 #또 포대기 인제 둘러쓰고, 아랜모케 안저. 그 말, 말, 온: 마를 때까지는 그냥 포대기 둘러 쓰고  
인는 거야.  
{또 포대기 이제 둘러쓰고, 아랫목에 앉아. 그 말, 말, 옷 마를 때까지는 그냥 포대기 두꺼워  
쓰고 있는 거야.}
- 10301 #이와 가치 지내 완는데, 지금 이 시덴 어드레.  
{이와 같이 지내 왔는데, 지금 이 시덴 어때.}
- 10301 #하:유, 진짜 아까 얘:기해찌만 헐리리 읍서.  
{하유,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할 일이 없어.}
- 10301 #기니겐 와서 이제 게이트볼 치는 게, 치 치다가. 또 그거 뿌니야?  
{그러니까 와서 이제 게이트볼 치는 게, 치 치다가. 또 그것 뿐이야?}
- 10301 #야 우, 우리 점:습 시켜 먹자. 밥뚜 아내.  
{야, 우, 우리 점심 시켜먹자. 밥도 안해.}
- 10301 #아 저, 저:와 한 통, 아 여기 뭐좀 가져와 봐 하면 아이 가따 대:령해주는데. 응?  
{아 전, 전화 한 통, 아 여기 뭐좀 가져와봐 하면 아이 갖다 대령해주는데. 응?}
- 10301 #신선 중에두 이런 신서니 읍꾸.  
{신선 중에도 이런 신선이 없고.}
- 10301 #근데 이거시 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이것이 다 왜 그러냐.}
- 10301 #엔:나렌 왜 그러코 지그문 왜 이러냐.  
{옛날엔 왜 그렇고 지금은 왜 이러냐.}
- 10301 #이거이 사:라미 잘라서 이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사람이 잘라서 이려는 거 아니야 지금.}
- 10301 #뭐? 머리가 조:아서 과:하이 발팔대가지구? 그거뚜 이찌.  
{뭐? 머리가 좋아서 과학이 발달 돼가지고? 그것도 있지.}
- 10301 #허지만, 사:라미 머리 조은 거뚜 내: 마음대루 조아지는 거이 아니여.  
{하지만 사람이 머리 좋은 것도 내 마음대로 좋아지는 게 아니야.}
- 10301 #사:라미랜 건 천지 도:쑤 천지 기, 기:쑤, 천지 기쑤 도라가는 대루 읍지기는 거이 사:라미거든?  
{사람이라는 건 천지 도수, 천지 기, 기수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사람이거든?}
- 10301 #내 저 지금 이제 자, 장년까지도 인제 요 이 지금 광아 노:인 복지, 광아에 노:인 복지 화:관 이상까는.  
{내 저 지금 이제 자, 작년까지도 이제 여기 지금 강화 노인 복지, 강화에 노인 복지 화관 있으니까.}
- 10301 #거기 인제, 거기에는 지휘, 지휘구 여기 며:네는 분휘구 이러케 돼: 인는 거기 이제 노:인들, 노:인  
대:하기 이서. 대:하귀니 이꾸.  
{거기 이제, 지휘, 지휘고, 여기 면에는 분휘, 분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노인 대학이 있어.  
대학원이 있고.}
- 10301 #거기 인제 강:의좀 해달라구 해니 강:사루 인제 한 삼년 인제 대:하해 대:하권 강:의도 내 해 줘찌마는.  
{거기 이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나 강사로 이제 한 삼년 이제 대학교 대학원 강의도 내 해줬지만.}
- 10301 #사:라미 이제 지금 이, 살기 조:은 시대 된 거뚜 천지 기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 지금 살기  
좋:지. 아프로 더 조아져.  
{사람이 이제 지금 이 살기 좋은 시대 된 것도 천지 기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 지금

살기 좋지. 앞으로 더 좋아져.}

10301 #응.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야.  
{응.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야.}

10301 #아:니, 우찌 마라.  
{아니 웃지 마.}

10301 #여:자가 잘라서 그런 줄 아라? 에이.  
{여자가 잘라서 그런 줄 알아? 에이.}

10301 #천:지 기우니 그렇게 도라가.  
{천지 기운이 그렇게 돌아가.}

10301 @ 여자쫄그로 이케 도라오는 거예요 기우니?  
{여자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운이?}

10301 #그 애:길 해주까 그러면? 이거 시가니 그르케 인나?  
{애기를 해주까 그러면? 이거 시간이 그렇게 있나?}

10301 #하루에다 비춰서 얘:기허께.  
{하루에다 비춰서 얘기할게.}

10301 @ 네.  
{네.}

10301 #하, 예:를 드러서 얘기하는 거야. 하루야.  
{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하루야.}

10301 #하루는, 이:십사시가니 아냐? 고 지지로 얘:기허면 시비지야.  
{하루는 이십사시간이 아냐? 그 지지로 얘기하면 십이지야.}

10301 #지지가 뭐냐, 자:추진묘 진사 허는 거 이짜나? 고저 열:뚜리거든?  
{지지가 뭐냐. 자축인묘진사,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열들이거든?}

10301 #자 추 긴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요거이 시비지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요게 십이지야.}

10301 #고, 그거시 뭐냐면 요거시 시가니야.  
{그, 그것이 뭐냐면 요것이 시간이야.}

10301 #시간두 데구 연두 데구. 응?  
{시간도 되고 연도 되고. 응?}

10301 #여나라면, 오:래가 인제, 장녀네 경인녀니고 오래 신묘년 아냐.  
{연이라면, 올해가 이제, 장년에 경인년이고 올해가 신묘년 아냐.}

10301 #고, 고저 자추진묘로 나가는 거야. 인, 묘.  
{그, 그거 자축인묘로 나가는 거야.}

10301 #작녀네 인, 인녀니께는 오래는 묘:년 아냐. 장년 범:띠 오랜 토끼띠.  
{작년에 이, 인년이니까 올해는 묘년 아냐. 작년 범띠 올해 토끼띠.}

10301 #그래. 고거시 그 시, 고 시비지루 나가는 거야 그거이.  
{그래. 그것이 그 시, 그 십이지로 나가는 거야 그게.}

10301 #나가는데, 그이 하루에 네:번 벼놔 이짜나. 아침, 점심, 저녁, 밤.  
{나가는데, 그 하루에 네 번 변화 있잖아. 아침, 점심, 저녁, 밤.}

10301 #거이, 요거이 네:번 벼놔하는데 이:십 사:시간 아:네 요거시 네:번 벼놔가 드려이따 마라.  
{그게, 이게 네 번 변화하는데 이십사시간 안에 이것이 네 번 변화가 들어있단 말이야.}

10301 #그 지지루 얘기하면 시비지지. 두 시가니 한 지니께는 요 시간 내에 네:번 베퍼 인는데.  
 {그 지지로 얘기하면 십이지지. 두 시간이 한 지니까 요 시간 내에 네 번 변화 있는데.}

10301 #아:치메는 해가 불끈 동쪽에서 뜨자나. 뜨머는 해: 그냥 시:빨거케 해가주구 크게 떠오르자나.  
 {아침에는 해가 불끈 동쪽에서 뜨잖아. 뜨면 해 그냥 시빨거게 해가지고 크게 떠오르잖아.}

10301 #그 해:는 여기서 떠가지구 열뚜시기를 이견 거:러갈, 응, 기:하늘 두구서 떠오르는 해라 마라.  
 {그 해는 여기서 떠가지고 열뚜시간을 이견 걸어갈, 응 기한을 두고서 떠오르는 해란 말이야.}

10301 #그니, 여기서 히미 이서야 거:까지 갈 꺼 아냐. 거:러갈 꺼 아냐.  
 {그러니, 여기서 힘이 있어야 거기까지 갈 거 아니야. 걸어갈 거 아니야.}

10301 #젠, 여기서 히미 불끈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불끈 올라오는 거지.}

10301 #건 해:, 해:는 양:이거든?  
 {그건 해, 해는 양이거든?}

10301 #그니케 발, 그이 으:망이야 으:망. 으:망이랜 거 만:치.  
 {그러니 발, 그게 음양이야 음양. 음양이라는 거 많지.}

10301 #남녀두, 응, 남자두, 남잔 양:이구 여잔 으:미구.  
 {남녀도, 응, 남자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10301 #하누른 양:이구, 땅은 으, 저이 으:미구.  
 {하늘은 양이고 땅은 으, 저기 음이고.}

10301 #해는 양이구 다른 으:미구.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고.}

10301 #이 으:망이 엽:스머는 조화가 엽서.  
 {이 음양이 없으면 조화가 없어.}

10301 #그르차나. 사:람도 으:망이 하패져야 거기서 응 후:소니 나오구 허지.  
 {그렇잖아. 사람도 음양이 합해져야 거기서 응 후손이 나오고 하지.}

10301 #도강으루서 자손 모뚜고 도금으로서 자손 모뚜다 마라.  
 {독양으로서 자손 못 두고 독음으로서 자손 못 둔다 말이야.}

10301 #으:망이 하패 지는 가운데서 여기서 조화가 나오는 거라 마라.  
 {음양이 합해지는 가운데서 여기서 조화가 나오는 거라 말이야.}

10301 #그이 그 해가 불끈 소사오를 땀 야, 양:이 새로 나오젠 시:미 마:아서 어려.  
 {그 해가 불끈 솟아오를 땀 야, 양이 새로 나오니까 힘이 많으면서 어려.}

10301 #그르먼, 그, 그 당시에 해가 빨깁 올라오면 이 그, 서서보면 그:림자 저:마:쿰 말:리 가 이꺼든?  
 {그러면, 그 그당시에 해가 빨깁 올라오면 이 그, 서서 보면 그림자 저만큼 멀리 가있거든?}

10301 #그이 뭐냐, 그, 그느른 으:미라구 해짜나.  
 {그이 뭐냐, 그 그들은 음이라고 했잖아.}

10301 #그럼 으:른 뭐냐. 해는 뭐구 그느른 뭐냐. 해는 남자, 이 그림자는 여자. 으:망이야 그거뚜.  
 {그러면 음은 뭐냐. 해는 뭐고 그들은 뭐냐. 해는 남자, 이 그림자는 여자. 음양이야 그것도.}

10301 #젠, 으:미 왜 그러케 길:, 그림자는 왜 그러케 기:냐. 으:른 늘거따 마라. 늘그니까 커.  
 {그러니까, 음이 왜 그렇게 길, 그림자는 왜 그렇게 기냐. 음은 늙었던 말이야. 늙으니까 커.}

10301 #거 왜 크냐. 밤:새드락 어:둔 바를 거쳐 와:스니겐 으:미 자랄 때루 이마쿰 자라짜. 그니께 크지.  
 {거 왜 크냐. 밤새도록 어든 밤을 거쳐 왔으니까 음이 자랄대로 이만큼 자랐지. 그러니까 크지.}

10301 #해는 불끈 소사오니겐 이견 침: 나오니겐, 접찌.

- {해는 불끈 솟아오니까 이건 처음 나오니까 젊지.}
- 10301 #그래서 이 옴:나레는 겨로늘 남녀가 겨로늘 헐 때두 남:자는 나이가 어리구 여자는 나이가 마:나.  
{그래서 이 옛날에는 결혼을 남녀가 결혼을 할 때도 남자는 나이가 어리고 여자는 나이가 많아.}
- 10301 #흐니 시고레서 더 마나. 왜. 실랑은 나이 한 열서너살 뉘면 장:개 보내.  
{흐히 시골에서 더 많아. 왜, 신랑은 나이 한 열서너살 되면 장가 보내.}
- 10301 #그리니, 신부는 나이 몬 머거두 한 여릴, 여릴곱쌀 머거야 시지본단 마라.  
{그, 신부는 나이 못먹어도 한 열일, 열일곱살 먹어야 시집온단 말이야.}
- 10301 #그, 농초네선 또 그런 메누릴 어:더야 이:를 시켜먹구 그러는데. 아 열 뉘:서너 짜릴 디려다 무슨 이:를 시켜먹을 수 인나.  
{그, 농촌에서는 또 그런 머느릴 얻어야 일을 시켜먹거든. 아 열두어살 짜리를 들여다 무슨 일을 시켜먹을 수 있나.}
- 10301 #이:를 시킬 수도 인는 거고. 그나, 그거슨 알: 때미 아니라 천지 기우니 그러케 간 거지.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건 일 때문이 아니라 천지 기운이 그렇게 간 거지.}
- 10301 #그리만 이 해가 동쪽에만 우:두커니 안자 인는 게 아니라 요 차츰차츰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 해가 동쪽에만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차츰차츰 올라오거든?}
- 10301 #올:라오머니, 정:오가 돼서. 정: 나지 돼따구. 열뚜시가 돼따구.  
{올라오니 정오가 됐어. 정 낮이 됐다고. 열두시가 됐다고.}
- 10301 #열뚜시에 이러케 보머는 내: 그림자가 내: 미테 이짜나? 저리 가지두 안쿠 이리저리 가지두 안쿠. 그뻐 정음정양이야.  
{열두시에 이렇게 보면 내 그림자가 내 밑에 있잖아? 저리 가지도 않고 이리 가지도 않고. 그뻐 정음정양이야}
- 10301 #남자 귀나니나 여, 그이, 아침 나제는 양, 양에 게, 어음저냥이야. 여:자는 남자이 삼:부름꾼바게 안된다 마라.  
{남자 권한이나 여, 그, 아침나절에는 양, 양에 그게, 어음전향이야. 여자는 남자의 심부름꾼밖에 안된다 말야.}
- 10301 #그르차나. 남존녀비라구 해:가지구 아주 아이 여자가 뭐 어:디 땡길려면 그냥 얼굴 이러케 쓰구 눈 하나 요러:구 내노구 이러케 땡기지 아난나 마리아.  
{그렇잖아. 남존여비라고 해가지고 아주 아이 여자가 뭐 어디 다니려면 그냥 얼굴 이렇게 쓰구, 눈 하나 이려고 내놓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나 말이야.}
- 10301 #그게, 여:자는 체머니 업:찌 머. 남자 주장이지.  
{그게 여자는 체면이 없지 뭐, 남자 주장이지.}
- 10301 #그르니 남:자는 그냥 뭐, 첩뚜 으:꾸 소:실두 으:꾸. 뭐 심지어는 임:금 노르터면 삼천 궁녀가 이꾸.  
{그러니 남자는 그냥 뭐, 첩도 얻고 소실도 얻고. 뭐 심지어는 임금 노릇하면 삼천 궁녀가 있고.}
- 10301 #남자 세워리라 마라.  
{남자 세월이란 말이야.}
- 10301 #그러다 여, 딱: 오머는 정:음정양이야. 양 하나 음 하나.  
{그러다가 여, 딱 오면 정음정양야. 양 하나 음 하나.}
- 10301 #게 남녀 동:등권, 평:등뀌니 나오는 거지. 남자 권, 귀나니나 여자 권나니나 또까치 대는 거지.  
{게 남녀 동등권, 평등권이 나오는 거지. 남자 권, 권한이나 여자 권한이나 똑같이 되는 거지.}
- 10301 #그리니가 나:중에 지금 해가 서쪼그루 사쪼 기우러져.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해가 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 10301 #그르던 이: 해는 인저 질: 시가니 가까워찌, 온 시간보덤 질 시가니 가까워져.  
{그러면 이 해는 이제 질 시간이 가까웠지. 온 시간보다 질 시간이 가까워져.}
- 10301 #야, 양:에 이 해:는 히미 쭈그러져드러가.  
{양, 양의 이 해는 힘이 쭈그러져 들어가.}
- 10301 #근데, 으:른 성하거든. 왜. 저녁날래지 드러가니까는 저녁겐 으:미 성하다.  
{그러던 음은 성하거든. 왜. 저녁 나절에(?) 들어가니깐 저녁에는 음이 성하다.}
- 10301 #그러키 때무네 지그른 호니늘 해봐. 실랑은 나이가 망:쿠 신부는 나이가 어리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혼인을 해봐. 실랑은 나이가 많고 신부는 나이가 어리고.}
- 10301 #천지 이:치래는 건 다 그런데, 이 사:라몬 왜 그러냐며는.  
{천지 이치라는 건 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 10301 #우리는, 우리 농초네서 볼 때는 인제 여기 농사지꾸 허는 사라몬 일러네 농사를 진:는 거 이제 곡씩까지구 지꾸 인제 무슨 과:일거튼 거 하는 사라몬 과일 지꾸 이러지며는.  
{우리는, 우리 농촌에서 볼 때는 이제 여기 농사짓고 하는 사람은 일년에 농사를 짓는 거 이제 곡식 가지고 짓고 이제 무슨 과일같은 거 하는 사람은 과일 짓고 그러지만.}
- 10301 #천:지에, 천:지에 농사는 사:람, 사:라를 가지구 농사 진는 거야. 사:람농사 진는 거야 천지는.  
{천지의, 천지의 농사는 사람, 사람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거야. 사람농사 짓는 거야 천지는.}
- 10301 #그래, 천:지 이:치는 호호창창해서, 너무 광:버미해서 사:라미 누느로다 볼래면 뵈질 안는대는 거지.  
{그래, 천지 이치는 호호창창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사람의 눈으로다 보려면 보이질 않는다는 거지.}
- 10301 #안는데, 사:람 움직이는 걸 보면 안대는 거야. 아 천지 도쭈가 어디때 와따.  
{안는데, 사람 움직이는 걸 보면 안대는 거야. 아 천지 도수가 어디쯤 왔다.}
- 10301 #게, 사:라를 일켜러서 천지, 동:, 사:람두 일종에 동:무리거든. 그러차나? 움직이겐 동:무리야.  
{그게, 사람을 일컬어서 천지, 동, 사람도 일종의 동물이거든. 그렇잖아? 움직이니까 동물이야.}
- 10301 #동:무린데 천:지에 대:표무른 사:라미래는 거야.  
{동물인데 천지의 대표물은 사람이라는 거야.}
- 10301 #그러던데, 지금 하루에 얘:기해찌면 일러늘 비춰보자구 우리.  
{그러던데, 지금 하루에 얘기했지만 일년을 비춰보자고, 우리.}
- 10301 #일:러늘 비추며는, 일:러는 열뚜달 시비지, 열뚜다리구 삼뱅뉴씨빌, 음:너그루 삼뱅뉴씨비리구 양려근 삼뱅뉴씨보이리라 마랏.  
{일년을 비추면, 일년은 열두달 십이, 열두달이고 삼백육십일, 음력으로 삼백육십일이고 양력은 삼백육십오일이라 말이야.}
- 10301 #요:, 요: 가운데네 네:번 벼놔가 이짜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이 가운데엔 네 번 변화가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 10301 #하루에는 이:십사:시가네 네:번 벼놔 인는데 일러는 삼뱅뉴씨비리 네:번 벼놔가 이따 마리아.  
{하루에는 이십사시간에 네번 변하는데 일년은 삼백육십일이 네 번 변화가 있단 말이야.}
- 10301 #근, 보페 허는 일: 따루 이꾸, 여르페 허는 일: 따루 이꾸. 가:으레 허는 일 따루 이꾸 겨:우레 허는 일. 거 철:마다 허는 이:리 따루 이따 마리지.  
{그, 봄에 하는 일 따로 있고, 여름에 하는 일 따로 있고, 가을에 하는 일 따로 있고 겨울에 하는 일. 거 철마다 하는 일이 따로 있단 말이지.}
- 10301 #그러기 때메 지금, 말썬다 말썬다 마리아. 이런 얘:기드를 마:니 허구, 지금 선처는 가구 후:치니다 마리지 이런 얘기를 인제 마:니들 허는데.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세다 말세다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걸 선천이다 후천이다 말이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는데.}
- 10301 #후:처는 뭐냐. 선천과 후:처는 뭘: 가지고 선천과 후:처를 가련느냐.  
{후천은 뭐냐. 선천과 후천은 뭘: 가지고 선천과 후천을 가렸냐.}
- 10301 #봄 여름은 선천니구, 가을 겨울은 후:처니라구 한다 마랏.  
{봄 여름은 선천이고, 가을 겨울은 후천이라고 한단 말이야.}
- 10301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점심때가 지나서 해가 서쪽그루 기우러져따 그래찌.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점심때가 지나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랬지.}
- 10301 #그거이, 그기 뭐 뭐:냐면.  
{그게, 그게 뭐냐면.}
- 10301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야.}
- 10301 #그이 뭐:냐, 뭐:냐머는 봄 여름 요거 선천인데 아침나절 즈:습나절 이거이 선천니구 오:후와 바문 이제 후:처니랜데.  
{그게 뭐냐면 봄 여름 이거 선천인데 아침나절 점심나절. 이게 선천이고 오후와 밤은 이제 후천이라는데.}
- 10301 #해가 서쪽그루 살짝 기우러지니께는, 후:천.  
{해가 서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니까는, 후천.}
- 10301 #이제 대학생드리 와서. 뭐 그대루 얘기를 허는 거야.  
{이제 대학생들이 왔어. 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 10301 #바쁘면 이제 그만 허구.  
{바쁘면 이제 그만 하고.}
- 10301 #이:거스루 미루어 볼 때, 엔:나레다 지금 가따 델 그거시가 안 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옛날에다 지금 갖다 델 그것이 안 돼.}
- 10301 #아까 교통 애:기허다 마라찌만, 그, 그때는 그러케 인제, 그니겐 엔:나렌 여기선 그관 병:나면 그냥 죽, 중는 거바께 업써.  
{아까 교통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그때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선 급한 병 나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
- 10301 #병:위네 가야 갈 시가니 인나?  
{병원에 갈래야 갈 시간이 있나?}
- 10301 #근데 지그른 이 예:쁘다 살기 조아지, 수시루 가니께는, 전:기뿔 드러와찌, 이제 여기, 여기두 인:천 서울 부럽찌 아나.  
{그런데 지금은 이 옛보다 살기 좋아지, 수시로 가니깐, 전깃불 들어왔지, 이제 여기도 인천서울 부럽지 않아.}
- 10301 #이, 도시 부럽찌 안타구. 외:려 도시사람들보덤 퍼나내.  
{이, 도시 부럽지 않다고. 오히려 도시사람들보다 편안해.}
- 10301 #여름처럼 농사 지, 농사 짓는 거? 어유, 농사두 인제 드러누워 지어 드러누워. 노, 노네 드러가서 짓는 게 아니라 방아네 드러누워 지어.  
{여름처럼 농사 지, 농사 짓는 거? 어유 농사도 인제 드러누워서 지어, 드러누워서. 노, 논에 들어가서 짓는 게 아니라 방안에 드러누워서 지어.}
- 10301 #왜. 돈:만 주면 돼 돈:만.

- {왜. 돈만 주면 돼 돈만.}
- 10301 #거, 논 가는 거? 돈 주께 오나 가라.  
{그거, 논 가는 거? 돈 줄께 와서 갈아.}
- 10301 #거 노타리 놔. 노타린 쓰:릭쩔 하는 거야.  
{거기 로타리 놔. 로타리는 써레질 하는 거야.}
- 10301 #아이 그래두 가르켜 줘야지. 이걸, 이걸 알:기 위해서 오신 거니께는.  
{아이 그래도 가르켜 줘야지. 이걸, 이걸 알기 위해서 오신 거니깐.}
- 10301 #그이, 벼, 벼 비, 벼 벼:?  
{그, 벼, 벼 벼?}
- 10301 #벼 비:는 건 돈: 주면 와서 다 벼:서 가따 말:려서 쌀루 찌어까지 주는데?  
{벼 벼는 건 돈 주면 와서 다 벼어서 갖다 말려서 쌀로 찢어까지 주는데?}
- 10301 #김: 매? 아간 저 산:파 여 김: 맨다 해찌. 무슨 기물 매. 약싸다가 훌훌 이러케 뿌려빠리면 그거루 끈나빠리구.  
{김매? 아간 저 산파 여 김맨다 그랬지. 무슨 김을 매. 약사다가 훌훌 이렇게 뿌려버리면 그거 끝나버리고.}
- 10301 #에:이러 지금 농촌 싸라미, 도시 사는 사라몬 그 월:급 쫘 바들려면 나:미 고용사리 하다시피 가서 일:허구 아치메 나가따 저녁게 느께 퇴:그너구 허지만 여:기 싸람 내 지바네 가마:니 드러눠서 농사 짓는 거야.  
{오히려 지금 농촌 사람이, 도시사는 사람은 그 월급 좀 받으려면 남의 고용살이 하다시피 가서 일하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하지만 여기 사람 내 집에 가만히 드러누워 농사 짓는 거야.}
- 10301 #바패? 여자들 바패? 밥 아내.  
{밥해? 여자들 밥해? 밥 안해.}
- 10301 #허유, 퍼나, 퍼나나기 짝, 바블 해 뭐:래? 아, 뭐 무슨 이래? 저 대:룡리 나가. 가서, 음식, 뭐:라는 거야 음식.  
{아이구, 편안, 편안하기 짝, 밥을 해먹으래? 아 뭐 무슨 이래? 저 대룡리 나가. 가서, 음식, 뭘 하는 거야 음식.}
- 10301 #엔:나래는 그노무거 아:러머는 지비서 그거 보리방아 찌어가지구 바블 해서 뭐 김치에 국쫘 맨드러가 지구, 여자들 참: 고생 만:치.  
{옛날에는 일하면 집에서 그거 보리방아 찢어가지고 밥을 해서 뭐 김치에 국 쫘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참 고생 많지.}
- 10301 #그면, 지금 안: 그래. 아이, 저, 해, 저러:케 해:다주는 거 머꾸 돈만 내밀만, 만:사는 끝, 해결되는 건데. 뭐:를 고생을 하나?  
{그러면, 지금 안 그래. 아이 저 해, 저렇게 해다주는 거 먹고 돈만 내밀면 만사는 끝, 해결되는 건데. 뭐를 고생을 하나?}
- 10301 #자네들 조:은 세상에 태:나서. 아프로 더 조아질텐데.  
{자네들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 10301 @ 네에.  
{네.}
- 10301 @ 그러면 오늘 지금 할머니두 오셔쓰니까, 쫘 쉬시구 저히 내일 차자벨게요. 오느른.  
{그럼 오늘 지금 할머니도 오셨으니까, 쫘 쉬시고 저히 내일 찾아볼게요. 오늘은.}

10301 #그러케 해. 응.  
{그렇게 해. 응.}

## 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 10201 @ 하라버님 저이 할머님두 빼:짜나요. (#응.)  
{할아버님, 저희 할머님도 뵈었잖아요. (#응.)}
- 10201 @ 할머니른 어디서 나셔썬요? 할머님도 교동에서 나셔썬요? (#교, 어, 아냐.)  
{할머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할머님도 교동에서 나셨어요? (#교, 어, 아냐.)}
- 10201 #교동면 동산니. (@ 동산니.) 응.  
{교동면 동산리. (@ 동산리.) 응.}
- 10201 #동산니라고 저:썬게서 이서. (@ 저썬 뭐 무항니 그썬.)  
{동산리라고 저 썬에서 있어. (@ 저 썬 뭐 무항리 그썬.)}
- 10201 #무항니는 이썬기고  
{무항리는 이 썬이고.}
- 10201 #동산니는 이썬기고. 저, 저이 산 뵈:자나? 고 거 너머똥네.  
{동산리는 이썬이고. 저, 저기 산 보이잖아? 그 건너 동네.}
- 10201 @ 거기구나, 동산니에 사셔꾸나. 금 동산니에서 어뜨케 여기 고구리까지 시지보셔썬요?  
{거기구나, 동산리에 사셨구나. 그럼 동산리에서 어떻게 여기 고구리까지 시집오셨어요?}
- 10201 #어 그때는, 지그른 여:내지마는, 중매야. (@ 중매.)  
{어 그때는, 지금은 연애지마는, 중매야. (@ 중매.)}
- 10201 #그 아:는 사라미 인제 소개가, 소개해: 가지구 중매.  
{그 아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소개해가지고 중매.}
- 10201 #그, 지그른 여:내에서 밤나지 만나지만, 겨로날 때꺼지 여 색:씨 얼굴 함번두 모:뻐서.  
{그, 지금은 연애해서 밤낮으로 만나지만, 결혼할 때까지 여 색시 얼굴 한 번도 못 뵈어.}
- 10201 @ 아. (#응.)  
{아. (#응.)}
- 10201 #야콘, 그니썬 지그문 이제 야콘이라 그르지? 그땐 사:주 보낸다고 해. (@ 아.)  
{약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혼이라 그러지? 그땐 사주 보낸다고 해. (@ 아.)}
- 10201 #예, 실랑찌뻐션 신부찌브루. 사:주, 사:주뻐자는 실랑에 생년위리를 적꾸, 신부의 이제 저고리나 치맛감 하나 이게 해:서, 거기다, 예, 실랑의 생년위릴 해:서 그걸 보내는 걸 사:주 보낸다고래.  
{예,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 사주뻐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고. 신부의 이제 저고리나 치맛감 하나 이게 해서, 거기에다, 예, 신랑의 생년월일 해서 그걸 보내는 걸 사주 보낸다고 해.}
- 10201 #사:주가 뉘냐면 네: 귀둥이야. (@ 네.) 연, 월, 일, 시, 요 니: 기둥을 사:주라구 해서 그게 사:주를 보낸다는 거야.  
{사주가 뉘냐면 네 기둥이야. (@ 네.) 연월일시, 이 네 기둥을 사주라고 해서 그게 사주를 보낸다는 거야.}
- 10201 #그 사, 사:주 그니썬 지금 약, 지그르루 얘기하면 야콘시기.  
{그 사, 사주 그러니까 지금 약,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혼식이.}
- 10201 #야콘식 허구두 삼년마네 겨론헌데 삼:년동안 어, 색:씨 얼굴도 모:뻐서.  
{약혼식 하고도 삼 년 만에 결혼했는데 삼 년 동안 어, 색시 얼굴도 못뵈어.}

10201 @ 삼녀니나 기다려야 돼요?  
 {삼 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10201 #그니젠, 열일곱째 저이키니 사주 보내구, 열아덱째 보내구 스무사레 장:개가시니께는.  
 {그러니까, 열일곱살에 저렇게 사주 보내고, 열여덱살에 보내고 스무살에 장가갔으니까.}

10201 @ 아아.  
 {아아.}

10201 #그땐 스무사리면 느즌 거야.  
 {그 땐 스무살이면 늦은 거야.}

10201 @ 그거, 열려덱 짜레 보내션는데 왜 삼녀니나 기다리셔썸요?  
 {그거, 열여덱살에 보내셨는데 왜 삼 년이나 기다리셨어요?}

10201 #그건 뭐, 하여간 뭐 어떠케, (@ 그냥 보내고 쫓미따 고향 하시지.) 어어, 근데, 흐니 그냥 이 고향 하는데.  
 {그건 뭐, 하여간 뭐 어떻게, (@ 그냥 보내고 좀있다 곧장 하시지.) 어어, 그런데,흐히 그냥 이 곧장 하는데.}

10201 #나는 유:독 인제 여기서 삼녀니라는, 어, 만큼 세워리 홀러서.  
 {나는 유독 이제 여기서 삼년이라는, 어, 만큼 세월이 흘렀어.}

10201 #그때는 남자는 열시사리면 장:개가.  
 {그 때는 남자는 열세살이면 장가가.}

10201 @ 아아.  
 {아아.}

10201 #아? 여기 여 교동에서 열, 열시살 열니:사레 저, 어리내 난: 사라미 이 이썸데 그저네 하라버지.  
 {아? 여기 여 교동에서 열, 열세살 열네살에 저, 어리내 낳은 사람이 이, 있었는데 그전에 할아버지.}

10201 @ 어머.  
 {어머.}

10201 #어? 어머가 아냐. 그, 실지야.  
 {어? 어머가 아냐. 그, 실제야.}

10201 @ 허 어떠케 그럼 저는 마:니 느전네요.  
 {허 어떡해 그럼 저는 많이 늦었네요.}

10201 #그니젠, 실랑, 그 어제 얘:기애, 그저젠가 얘:기해짜나. 그 당시만 해더래두 양에 기우니 시:기 때메, 실랑은 나이가 즉:꾸, 신부는 나이가 망:꾸.  
 {그러니까, 신랑, 그 어제 얘기에, 그저께인가 얘기했잖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신랑은 나이가 적고 신부는 나이가 많고.}

10201 @ 마자요 마자요.  
 {맞아요 맞아요.}

10201 #그니께는, 신부는 여릴곱 여라서썸 머그니깐 어리넬 날: 썸 이따 마리아.  
 {그러니까, 신부는 열일곱 열여섯살 먹으니까 어린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10201 @ 마자요 마자요.  
 {맞아요 맞아요.}

10201 #그 이 실랑은 열시살 열니살 돼:두 어리넬 난:는 거지.  
 {그러니 신랑은 열세살 열네살 되어두 어린애를 낳는 거지.}

10201 @ 근데 하라버진 스무사레 겨론하셔서.

{그런데 할아버지는 스무살에 결혼하셔서.}

10201 #스무살은 그땐 느전 거야 느저.  
{스무살은 그땐 늦은 거야, 늦어.}

10201 @ 할머니는 며살때.  
{할머니는 몇살 때.}

10201 #여라오베. (@ 여라오베.) 나보덤 한 살 아래야.  
{열아흠에. (@ 열아흠에.) 나보다 한 살 아래야.}

10201 #이게 그, 할머니 지금 여든사리니께는.  
{이게 그, 할머니는 지금 여든살이니까.}

10201 @ 그때는 그래두 그때 겨로내쉴 당시에는, 할면님드리 보통 더 나이가 만타구 하셔짜나요.  
{그 때는 그래도 그 때 결혼했을 당시에는 할머니들이 보통 더 나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10201 #아:냐, 고편은 비스태서, 우리만 해더래두, (@ 그때는, 그때부터 나이가 비스태서.) 응, 그럼.  
{아냐, 그 때는 비슷했어 우리만 하더라도 (@ 그 때는, 그 때부터 나이가 비슷해서.) 응, 그럼.}

10201 #그때는 인제 실랑신부 나이가 비스태서. 응, 고편만 해더래두.  
{그 때는 이제 신랑신부 나이가 비슷했어. 응, 그 때만 하더라도.}

10201 @ 응, 그러구 이제 그러면 그러케 해서 사주 보내시고, 삼년 이따가 (@ 응.) 이제 다시 할머니미  
이제 고구리로 오셨네요. 사주, 단자, 보낸 사주판자 들고. (@ 그러치.) 그쵸.  
{응,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주 보내시고, 삼년 있다가 (@ 응.) 이제 다시 할머니미  
이제 고구리로 오셨네요. 사주, 단자, 보낸 사주단자 들고. (@ 그렇지). 그지요.}

10201 @ 그러고, 그럼 그때 오셔쉴 때 그러며는 하라버님 부모님도 다 계시고.  
{그러고, 그럼 그 때 오셨을 때 그러면 할아버님 부모님도 다 계시고.}

10201 #나는, 네:살때 어머니가 도라가서 내 생모가 도라가셔서.  
{나는 네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서, 내 생모가 돌아가셨어.}

10201 #이게, 그 인제, 그 당시에 인는 어머니는 계 계:모루, 계:모가 나쁜 소리가 아니구.  
{이게 그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어머니는 계 계모로, 계모가 나쁜 소리가 아니고.}

10201 #이, 어머니 대:신 이어들은 분 보구 계, 그 계:모라구 허머는 호니 모르는 사라픈 아주 나쁜 소리로  
아:는데.  
{이, 어머니 대신 이어 들어온 분 보고 계, 그 계모라 그러면 흔히 모르는 사람은 아주 나쁜  
소리로 아는데.}

10201 #계:모는 나쁜 소리가 아냐. 그 왜 저 테리비에두 계:비라구 허자나. (@ 네네.) 중저니 죽꾸나면  
(@ 네.) 다시 중저늘 계:비라구 허자나. (@ 네네.)  
{계모는 나쁜 소리가 아냐. 그 왜 저 텔레비전에도 계비라 그러잖아. (@ 네네.) 중전이 죽고나면  
(@ 네.) 다시 중전을 계비라 그러잖아. (@ 네네.)}

10201 #이어서 드러온 걸 계:비라구 하는 거야.  
{이어서 들어온 걸 계비라고 하는 거야.}

10201 @ 한짜가 계 짜가.  
{한자가 계 자가.}

10201 #그럼, 이을 계 짜야.  
{그럼, 이을 계 자야.}

10201 @ 으응.  
{으응.}

- 10201 #그, 그러기 때때, 내 생모는 도라가시구 계:모가 계셔찌.  
{그,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모는 돌아가시고 계모가 계셨지.}
- 10201 @ 그부니랑 그럼 아버지미랑.  
{그 분이랑 그럼 아버님이랑.}
- 10201 #아, 아버니는 생존애, 아:부지가 생존께 계, 계:모를 (@ 예예.) 드, 드러와찌.  
{아, 아버지는 생존애, 아버지가 생전이니까 계모를 (@ 예예.) 드, 들어왔지.}
- 10201 @ 그리구 그러면, 뭐 하라버니몬 그러면, 어떠케 돼세요 형제가?  
{그리고 그러면, 뭐 할아버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형제가?}
- 10201 #형제? 나는 형제 형님 하나에 누님 한 부니야.  
{형제? 나는 형제 형님 하나에 누님 한 분이야.}
- 10201 @ 그럼 그때 할머니 오셔쓸 때 형님미랑 누님미랑 다 나가셔쨌네요.  
{그럼 그 때 할머니 오셨을 때 형님이랑 누님이랑 다 나가셨겠네요.}
- 10201 #그러치 출가해찌 그지.  
{그렇지 출가했지 그지.}
- 10201 @ 출가하셔쨌네요. 그러면.  
{출가하셨겠네요 그러면.}
- 10201 #근데, 나:두, 내 어머니두, 내 어머니두 계:모야.  
{근데, 나도, 내 어머니도, 내 어머니도 계모야.}
- 10201 #아버지가 세:버늘 취쳐해싱게는.  
{아버지가 세 번을 취쳐했으니까.}
- 10201 #크너머니가 도라, 크너머니가 인제 내 형허구 누님허구 나:쿠선 도라가시니켄 우리 어머니께 바루  
또 장:갈 가신 거야 그냥 데려온 거이 아니구.  
{큰어머니가 돌아, 큰어머니가 이제 내 형하고 누남하고 낱고선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께  
바로 또 장가를 가신 거야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 10201 #장:개 가서 인제 어머닐 인제 모셔완는데, 또 어머니가 나 나쿠는 도라가셔서.  
{장가 와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셔왔는데, 또 어머니가 나 낱고는 돌아가셨어.}
- 10201 #응. 그게 다시 또 인제 어머닐 모신 거지.  
{응. 그게 다시 또 이제 어머니를 모신 거지.}
- 10201 #내 팔자가 이래.  
{내 팔자가 이래.}

### 3. 전통적 결혼식

- 10201 @ 그러면, 그때에는 그러면 그러케 사주 하고 나서, 이제 겨론시글 또 치르자나요. 요새는 예식장  
가서 이케 서양시그로 하자나요.  
{그러면, 그 때에는 그러면 그렇게 사주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또 치르잖아요. 요새는 예식장  
가서 이렇게 서양식으로 하잖아요.}
- 10201 #으응.  
{으응.}
- 10201 @ 그때는 이르케 마찌라고, (#어, 그러치, 그 그때는.) 밥 가운데 노코. (#사, 사무관대 한대는 거야  
그건.) 예.  
{그 때는 이렇게 맞절하고, (#어, 그렇지, 그 그때는.) 밥 가운데 놓고. (#사, 사모관대 한대는

거야 그건.) 예.)

10201 #사:모는 이거 쓰고, 관 관대는 요거 요 요거 띠 띠고. 사:무관대 한대는 거야. 여자는 쪽두리 쓰고.  
{사모는 이거 쓰고, 관 관대는 요거 요거 띠고. 사모관대 한대는 거야. 여자는 쪽두리 쓰고.}

10201 @ 그, 실랑잡 아페서요?  
{그, 신랑집 앞에서요?}

10201 #신부잡 아페서지.  
{신부잡 앞에서지.}

10201 @ 신부잡 아페서. 그러면 할머니, 아니 하라번니미 (#글 글러리 인제 가 가서 인제.) 동산나까지 가서쨌네  
요. 가서.  
{신부잡 앞에서. 그러면 할머니, 아니 할아버님이 (그, 그리로 이제 가 가서 이제.) 동산리까지  
가셨겠네요. 가서.}

10201 #그 인제 초례 지꼬, 초 초례라 그래. 초례 지내군 데루구 오는 거지,  
{그 이제 초례 짓고, 초 초례라 그래. 초례 지내고는 데리고 오는 거지.}

10201 @ 그럼 그때는 보통 잔치하자나요, 마을잔치. (@ 응, 잔치야. 그러치.) 뭐, 뭐 먹어요?  
{그러면 그 때는 보통 잔치하잖아요. 마을잔치. (@ 응, 잔치야. 그렇지.) 뭐, 뭐 먹어요?}

10201 #잔치국수라 그러자나. 흐 흐니 국수 국수야.  
{잔치국수라 그러잖아. 흐 흐니 국수, 국수야.}

10201 @ 요새 그래서 그런 마리 꽤 꽤니 인는 게 아니, 언제 국수 머겨줄꺼야, 이런 거, 언제 겨로날 꺼야  
할 때 국수 머겨줄 꺼야 하는게.  
{요새 그래서 그런 말이 꽤, 괜히 있는 게 아니,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런 거, 언제 결혼할  
거야 할 때 국수 먹여줄 거야 하는 게.}

10201 #그게 그 유래야 그거이.  
{그게 그 유래야 그게.}

10201 @ 거기서부터. 그러며는 그때 국수 드시고.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 때 국수 드시고.}

10201 #응.  
{응.}

10201 @ 뭐, 뭐 내놔요? 뭐 이러케 국수 다: 이러케 마을 사람드란테 돌리는 거예요?  
{뭐, 뭐 내놔요? 뭐 이렇게 국수 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10201 #그이 잔치지 뭐야.  
{그게 잔치지 뭐야.}

10201 @ 아. (#응.)  
{아. (#응.)}

10201 @ 그러면 그 음식은 누가 해요? 저긴 지배서.  
{그러면 그 음식은 누가 해요? 저기 집에서.}

10201 #아 저 지배서두 허구 이 지배서두 하지.  
{아 저 집에서도 하고 이 집에서도 하지.}

10201 @ 두번 해요?  
{두번 해요?}

10201 #아니. 두번 허는 게 아니라 저집넌 자기네 친척클 불르는 거구, 여기는 우리 동네싸람허구 우리  
친척 불르는 거구.

- {아니. 두 번은 아니라 저집네는 자기네 친척을 부르는 거고,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하고 우리 친척 부르는 거고.}
- 10201 @ 두번 하는 거 아니고.  
{두 번 하는 거 아니고.}
- 10201 #아, 두:버니 아니지. 저 집네는 한, 저 집네도 한 번 여기서두 한 버니지.  
{두 번이 아니지. 저 집네는 한, 저 집네도 한 번 여기서도 한 번이지.}
- 10201 @ 그니까 저쪽 한 번, 이쪽 한 번.  
{그러니까 저 쪽 한 번, 이 쪽 한 번.}
- 10201 #그럼, 두:진네가 다 한 번씩 하는 거지 며.  
{그럼, 두집네가 다 한 번씩 하는 거지 뭐.}

#### 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 10201 @ 그러쿠나. 그러면, 어떠케 지내셔써요 재미쓰셔써요?  
{그러쿠나.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 10201 #재미::래는 거는, 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장:개 가던 해가 경인녀니야. 바로 유기오 나던 해야.  
{재미, 라는 거는, 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장가 가던 해가 경인년이야. 바로 육이오 나던 해야.}
- 10201 @ 힘드셔쨌네.  
{힘드셨겠네.}
- 10201 #유 유기오 난는데, 그때는 이 교동이 아:주 흥녀니야.  
{유 육이오 났는데, 그때는 이 교동이 아주 흥년이야.}
- 10201 #응. 그냥 머 곡씨기라면 벼 벼 심꼬 형 게 하나도 머근 게 읍써.  
{응. 그냥 뭐 곡식이라면 벼 벼심고 하나도 먹은 게 없어.}
- 10201 #그게 가무러가주구.  
{그게 가물어가지고.}
- 10201 #지그른 이제 저:수지가 이서서 무리 이서가지구 이게 모들 내:구 이게 그 흥년 업시 농사 지찌만 그때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하늘만.  
{지금은 이제 저수지가 있어서 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모들 내고 이게 그 흥년 없이 농사 짓지만 그때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하늘만.}
- 10201 #그니쨌, 저번날 얘:기한 대루 논: 저 보메 갈:구선, 벼씨를, 산:파루 뿌리, 뿌려노쿠선, 거기서 인제 씨 나:면 그거 호미 가지구 나중에 저 그 매:구.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대로 논 저 봄에 갈고선, 벼씨를, 상판에 뿌리, 뿌려놓구선, 거기에서 이제 씨 나면 그거 호미 가지고 나중에 저기 매고.}
- 10201 #그니쨌, 수왓두 읍:마 읍:써. 그쨌, 그러니께는 얘:기해짜나. 아침빠베 저녁 묵냐, 조반석쭈기나 허냐.  
{그러니까, 수확도 얼마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얘기했잖아. 아침밥에 저녁 먹냐, 조반석죽이나 허냐.}
- 10201 #흐 흐니 허는 마리 그 호니날 때.  
{흐, 흔히 하는 말이 그 혼인할 때.}
- 10201 #응 신랑찌비서 인지 신부찌비 인지 중매 노코 오머는 신부찌비서 그런 얘기 한단 마리아.  
{응 신랑집에서 이제 신부집에 이제 중매 놓고 오면 신부집에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10201 #고 신랑찌비 어쩌케 조반석쭈기나 하나? 아침빠베 저녁기나 멩나?  
 {그 신랑집이 어떻게 조반석죽이나 하나? 아침밥에 저녁이나 먹나?}

10201 #아침빠베 저녁 머구머는 저 저녁 죽 머그머는 그건 부:자니까는.  
 {아침밥에 저녁 먹으면 저 저녁 죽 먹으면 그건 부:자니깐.}

10201 #그 그 그러케 하는데 비가, 경인녀네 유기오 나던 해는 비가 야:주 안와서.  
 {그 그렇게 하는데 비가, 경인년에 육이오 나던 해는 비가 아주 안왔어.}

10201 #베가 이래 자라다가 패:지 모터구 그냥 전부 말라 주근 거야.  
 {벼가 이렇게 자라다가 패지 못하고 그냥 전부 말라 죽은 거야.}

10201 #그런데다가, 여기 교동 씨람들 무척 고생 마:니 한 사람이야. 이거 그 당시에 교동국, 교동민구기라 해서, 대:한민구기 아니라 교동민가라 해서.  
 {그런데다가, 여기 교동 사람들 무척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야. 이거 그 당시에 교동국, 교동민국이라 그랬어. 대한민국이 아니라 교동민이라 그랬어.}

10201 #그, 유기오 나니까는, 전부 파:란 나간다 마리아.  
 {그럼, 육이오 나니깐, 전부 피난 나간다 말이야.}

10201 @ 그러쿠나.  
 {그렇구나.}

10201 #전부 피 파:란 나간는데, 그 그때 유기오 때는 미쳐 다 나가지, 유기오 나면서 바짝 드러오니까는 나가지 모태서.  
 {전부 피 피난 나갔는데, 그 그때 육이오 때는 미쳐 다 나가지, 육이오 나가서 바짝 들어오니까는 나가지 못했어.}

10201 #여기, 나두 그 당시에 여기두 이꾸 여기두 인민구니 여기 드러와꾸.  
 {나도 그 당시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인민군이 여기 들어왔고.}

10201 @ 아아.  
 {아아.}

10201 #인민구니 드 드러와가지구, 뭐 행패 마:니 부러찌 인민군드리.  
 {인민군이 드 들어와가지고, 뭐 행패 많이 부렸지 인민군들이.}

10201 #그거이, 지금 자네드른 몰:라.  
 {그게, 지금 자네들은 몰라.}

10201 #공산당이래두 아우 그거뚜 거 사:람 사는 데지 뭐 초:치 뭐 해가지구, 지금 이:부글 가따 공산진영을 가따 차:냥하는 절픈 사람도 이찌만 그거 정신 빠진 사라미라구.  
 {공산당이래두 아우 그것도 거 사람 사는 데지 뭐 좋지 뭐 해가지고, 지금 이북을 갖다 공산진영을 갖다 찬양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10201 #그, 겨겨본 사라는 공산당이면 체 체머리 들렁들렁 흔드러.  
 {그, 겪어본 사람은 공산당이면 체, 체머리를 들렁들렁 흔들어.}

10201 #그래 가지구 그 사람드리 여기 드러와 이따가, 구이팔, 구월이시파릴탈 여기서 매가더 장구니 인천 상:류카지 아나서.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가 구이팔, 구월 이십팔일날 여기서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지 않았어? 어.}

10201 #사 상육 해:서 인제 치민 게이 구월이시파리라 구이파리라 마랴.  
 {사 상륙 해서 이제 치민 게 구월 이십팔일이라, 구이팔이라 말이야.}

10201 #구이파레 얘:드리 쫓겨 드러가꺼든.

{구이팔에 애들이 쫓겨 들어왔거든.}

10201 #쫓겨드러 드러가 드러완는데 여 국꾼드리 난 그땐 구니네 안 나가찌.  
{쫓겨들어 들어가 들어왔는데, 여 국군들이, 난 그땐 군인에 안 나갔지.}

10201 #에 구꾼드리 저, 압록강까지 건 건저 다: 미러완는데 중공구니 내몰리지 아나서.  
{에 국군들이 저, 압록강까지 건 거진 다 밀어왔는데 중공군이 내몰리지 않았어?}

10201 #고거 일사후:퇴야. 이월사일 일사후:퇴야.  
{그게 일사후퇴야. 일월사일 일사후퇴야.}

10201 #일사후:퇴에, 전부 인제, 절문 사람들 전부 저리 내려간 거야. 아래루낭.  
{일사후퇴에, 전부 이제, 젊은 사람들 전부 저리 내려간 거야. 아래로.}

10201 #그땐 나두 청방으루 이 이 교동에 처 청방으루 뛰었는데  
{그땐 나도 청방으로, 이 교동에 처 청방으로 뛰었는데.}

10201 #이 교동사람들두 전부 광아루 건너가서 광아서 인제, 저그 김포루 건너가서 아래 아랫너그루 전부 피란 내려간 거지.  
{이 교동사람들도 전부 강화로 건너가서 강화에서 이제, 저기 김포로 건너가서 아래 아랫널에 전부 피난 내려간 거지}

10201 #그: 당시에, 저러키니 뭐 저, 뭐야 수원 대전까지두 인제 중공군 인민군드리 또 내려가구 했는데두, 교동에는 그, 그 사람드리 드러오지 안 모:태 안 안 와서.  
{그 당시에, 저렇게 뭐 저, 뭐야 수원, 대전까지도 이제 중공군, 인민군들이 또 내려가고 했는데도, 교동에는 그,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 안 했어.}

10201 #그건 왜 그러냐, 교동이 떠러진 서:미거든.  
{그건 왜 그러냐, 교동이 떨어진 섬이거든.}

10201 #저:리만 내려가뿌면 여긴 자동저그루 와따가따 하는 데란 마라 그땐 여긴 드러오진 아난는데 여긴 뭐: 이선냐, 타이커 여다니라는 거 이서서. 타이커 여단.  
{저리만 내려가 버리면 여긴 자동적으로 왔다갔다 하면 된단 말야. 그러니까 여긴 들어오지 않는데 여긴 무엇이 있었냐, 타이커 여단이라는 것이 있었어. 타이커 여단.}

10201 @ 타이커 여단?  
{타이커 여단?}

10201 #타이커 여단. 거 마: 마:군 마: 팔구네 소속 이 그 이 마라자면 그런데, 그 사람드리 뭐:냐머는 저: 이:부게서, 연백. 이:부게서 쫓겨나온 사람드리야. 절문 사람, 거 절문 사람드리지.  
{타이커 여단. 거 미, 미군, 미 팔군에 소속 이 그 이 그 말하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저 이북에서, 연변. 이북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 거 젊은 사람들이지.}

10201 #거 거그서 이제 이:부게서 그 사람들두 이제 절머스니까 뭐, 청방이니 뭐니, 해:파는데 재:드란테 쫓겨선 혼나구 혼나선 내려온 거지.  
{거, 거기서, 이제 이북에서 그 사람들도 이제 젊으니까 뭐, 청방이니 뭐니, 하엿다는데 재들한테 쫓겨선 혼나구 혼나선 내려온 거지.}

10201 #나려와서 이 교동으로 건너와서 교동서 그 사람드리 행패 부린 거야.  
{내려와서 이 교동을 건너와서 교동에서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 거야.}

10201 #인:민군보담두 더 행패를 부린 거야 이 사람드리.  
{인민군보다도 더 행패를 부린 거야 이 사람들이.}

10201 #버비 읍:꺼든. 뭐 경찰치고 치안이 여기 하나두 읍쓰니젠.  
{법이 없거든. 뭐 경찰이고 치안이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 10201 #에. 그이게는, 그냥 거기서 너 너머운데 피:란 온 사람드리 즈이만 너머오나? 가족뜰두 데리구와찌.  
{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너, 넘어오는 데 피란 온 사람들이 자기들만 넘어오나? 가족들도 데리고 왔지.}
- 10201 #가족뜨른 나미 사랑만 이스면 여 바로 처.  
{가족들은 남의 사랑방만 있으면 바로 처.}
- 10201 #거기 가따 노쿠, 낭구 해오나.  
{그걸 가져다 놓고, 나무 해와.}
- 10201 #즈이가 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른 사람들 보구 낭구 해오나.  
{저희가 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남은 사람들 보고 나무 해와라.}
- 10201 #즈이는 가마니 안자가지구, 낭구해오나. 낭구 해오면 인제 불 땐:다 마리아.  
{저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나무 해와라. 나무 해오면 인제 불 땐단 말이야.}
- 10201 #그리구 즈이들 싱량은 뭐냐문 마: 팔구네서 이 알랑미라구 이서.  
{그리고 자기들 식량은 뭐냐면 미 팔군에서 이 안남미라고 있어.}
- 10201 #알랑미 거튼 걸 인제 주 주는데 이 교동 사람드리 알랑미가 뭐:야. 응?  
{안남미 같은 걸 인제 주, 주는데, 이 교동 사람들이 안남미가 뭐야. 응?}
- 10201 #저번날 얘기해튼 밀마까리. 밀마까리는 호:사야. 밀기우리.  
{저번날 얘기했던 밀가루. 밀가루는 호사야. 밀기울.}
- 10201 #지그르루 마라면 밀 가:라가지구 이제 가루는 뽕짜나? 뽕브면 찌꺼기 남짜나? 그이 글 밀기우리라 한단 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밀 갈아서 이제 가루는 뽕잖아? 뽕으면 찌꺼기 남잖아? 그것을 밀기울이라 한단 말이야.}
- 10201 #밀기울 이:걸 사 사다가 그거루다 주글 끄리는 거야. 그걸 죽, 근데 그거뚜 읍:서서.  
{밀기울 이걸 사, 사다가 그거로다 죽을 끓이는 거야. 그걸 죽, 근데 그것도 없었어.}
- 10201 #콩. 콩, 콩나물 요마난 거 기르면 이마나자나. 질: 마나지지나. 콩나물 길러가지구 거기다 콩나물 녀:가지구. 배가 고프니까는.  
{콩. 콩.콩나물 이만한 거 기르면 이만하잖아. 제일 많아지잖아. 콩나물 길러 가지고 거기다 콩나물 넣어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 10201 #그거뚜, 그거뚜 모태, 노:니 그때 인제 가물러선, 노:니 전부 무거시니까 아무것도 모태, 거기에 가:미 나.  
{그것, 그것도 못해, 논이 그때 인제 가물어선, 논이 전부 묵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거기에 김이 나.}
- 10201 #비, 기:미 난 데 세:비르미라는 인제 푸리 이서. 여 여기 대가 구 굶:꾸 인제 좀 물렁물렁허야.  
{비, 김이 난 데 쇠비름이라는 인제 풀이 있어. 여 여기 대가 구, 굶고 인제 좀 물렁물렁해.}
- 10201 #그걸 그걸 뜨더다 그걸 살마서 멍는데, 그거만 살마며금 이래 부증이 나, 부어.  
{그걸, 그걸 뜯어다 그걸 삶아서 먹는데, 그것만 삶아 먹으면 이리 부증이 나. 부어.}
- 10201 @ 아아.  
{아아.}
- 10201 #부으, 며 며칠 굴으며 주 츠 주러드는 거야.  
{부으면, 며, 며칠 굶으면 주, 줄어드는 거야.}
- 10201 #근데 그 밀기우리 쪼끔 머 쪼끔 웬마난 사라문 밀기우리 사다가 콩나물 너코 그걸 훌:훌 좀 마시머는 그거 으:다 머그러 드러오는 사라미 대:무니 산해. 가치 좀 머급시다, 가치 좀 머급시다.

- {근데 그 밀기울이 조금 뭐, 조금 웬만한 사람은 밀기울 사다가 콩나물 넣고 그걸 훌훌 좀 마시면 그거 얻어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때문에 산해(?) 같이 좀 먹읍시다, 같이 좀 먹읍시다.}
- 10201 #이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이 너머온 그 사람들, 이 즈이들 알량미 보리쌀 이런 거 주머는 이걸 일반 가정에 가따, 그 그 사람들 바블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해메겨.  
{이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이, 넘어온 그 사람들은, 저희들 안남미 보리쌀 이런 거 주면 이걸 일반 가정에 갖다, 그, 그 사람들 밥을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해 먹여.}
- 10201 #오늘 저 저 아침은 이집네서 허구 저녁은 저집네서 허구, 허는데 그 쌀을 한테씩 주머는 어:서 구허든지 쌀을 구해다 쌀바블 해줘야대.  
{오늘 저, 저 아침은 이 집에서 하고 저녁은 저 집에서 하고, 허는데 그 쌀을 한 뒷박 주머는 어디서 구하든지 쌀을 구해다 쌀밥을 해 줘야돼.}
- 10201 #아:내주머는 그냥 불 붙짜바다 막 드리 패:니켈.  
{안 해주면 그냥 붙잡아다 막 들이 패니까.}
- 10201 #그니 매:일 무서우니께는 무:슨 도둑찌리라두 해서라두 쌀을 어:드런 수단을 써서라두 쌀을 구해다 바블 해 바쳐야대. 그럼.  
{그러니 매일 무서우니까 무슨 도둑질이라도 해서라도 쌀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쌀을 구해다 밥을 해 바쳐야 돼. 그럼.}
- 10201 #이와 가치 교동엔, 해온 이 일짜리아.  
{이와 같이 교동엔, 해온 일자리아.}
- 10201 #그이, 게다 그뿌닌가? 사람도 마:이 주겨찌, 그사람드란데.  
{그, 게다 그 뿌인가? 사람도 많이 죽었지. 그 사람들에게.}
- 10201 #즈:이드리 그 빨갱이드란데 호니 나끼 때메, 여기서 빨갱이 활동 한 사라미 미쳐 피란 모간 사라문 전부 부짜바다 썩:주겨따 마랴.  
{저희들이 그 빨갱이들한테 혼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빨갱이 활동 한 사람이 미쳐 피난 모간 사람은 전부 붙잡아다 썩 죽였단 말야.}
- 10201 #그 당시에 난 구니넬 나가찌.  
{그 당시에 난 군인엘 나갔지.}
- 10201 @ 아아.  
{아아.}
- 10201 #구 구니는, 구니네 나가, 나가서, 그땐 구닌 고생도 마:니 해서.  
{구, 군인은, 군인에 나가, 나가서, 그땐 군인 고생도 많이 했어.}
- 10201 #뭐 지금, 아 지금 구닌드른 그, 뭐 저, 뭐:라 그래 저 소:풍가서 뭐 저러키니 여행이나 가따올까 그 정도지.  
{뭐 지금, 아 지금 군인들은 그, 뭐 저, 뭐라그래, 저 소풍 가서 뭐 저렇게 여행이나 갔다 올까 그 정도지.}
- 10201 #훈:련소에서 훈:련 받 바든데, 바 받는데, 지그른 이래는 걸 모르자나.  
{훈련소에서 훈련 받, 받는데, 바, 받는데, 지금은 이래는 걸 모르잖아.}
- 10201 #이 오솔 벼꼬 화장시레 가서 벼꼬 보머는 저 이가 갱 새카매.  
{이 옷을 벗고 화장실에 가서 벗고 보면 저 이가 그냥 새까매.}
- 10201 #이이, 근데 호니 오셴니는 하:야코 머린니는 거머커든?  
{이, 근데 흔히 옷엇니는 하얗고 머릿니는 거머거든?}
- 10201 #오:세니가 그 새:카매, 그 때에 무더서 그런지.

{웃었니가 그, 새카매. 그, 때에 묻어서 그런지.}

10201 #그니 이진 자바 주길 수가 읍썌. 버서서 이 이 터 터:는 거지.  
{그러니 이것은 잡아죽일 수가 없어. 벗어나서 이, 이 터, 터는 거지.}

10201 #게:다가 뭐 띠 띠야기라고 뿌려노면 그건 때만 때만 끼지 뭐.  
{게다가 뭐 띠, 띠약이라고 뿌려 놓으면 그건 때만, 때만 끼지 뭐.}

10201 #근데 그거이 그거꺼지 존:데, 배가 고파.  
{그런데 그것이 그것까지 좋은데, 배가 고파.}

10201 #배가 고파서, 그리, 잠 잠도 제대로 모짜지.  
{배가 고파서, 그리, 잠, 잠도 제대로 못 자지.}

10201 #그이 후 흘:련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선 그리구나선 인제 전방에 전투하라, 싸머러 전방에 나가.  
{그이 후, 훈련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나선 이제 전방에 전투하러, 싸움하러 전방에 나가.}

10201 #나가 거기 나가서두 배가 고파.  
{나가 거기 나가서도 배가 고파.}

10201 #금새 쥐기, 저 싸우다가 주글 주글 사라민데, 왜그렇게 배를 곱려?  
{금새 죽이, 저 싸우다가 죽을, 죽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배를 곱려?}

10201 #근데 하루 식량은 제 양은 그런대루 머글 만큼 나오는데, 중:가네서 다 띠어머거챤다마랴. 이 너픈, 너픈 사람드리. 응?  
{그런데 하루 식량은 제 양은 그런대로 먹을 만큼 나오는데, 중간에서 다 떼먹어챤단 말야. 이 높은, 높은 사람들이. 응?}

10201 #그거 그, 지금 주글째 내:일 주글째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 인제 군, 병, 병:사드를 그러구 배를 곱려논단 마랴.  
{그거 그,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 인제 군, 병사들을 그렇게 배를 곱려 놓는단 말야.}

10201 #그러니, 보:춘 서야지. 보:초 언:제 어르러케 될 줄 모르니겐 보:초 서야지, 그겐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배는 고파지.  
{그러니, 보초는 서야지. 보초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보초 서야지, 그러니깐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배는 고파지.}

10201 #그니겐 윈:, 너 뭐:이 워:니냐면, 배불리 한 번 머꼬 잠 한 번 실컷 자며는 그냥 누가 와서 목 당장 후려 가두 윈: 읍까따 마랴.  
{그러니깐 윈, 너 무엇이 윈이냐면, 배불리 한번 먹고 잠 한번 실컷 자면은 그냥 누가 와서 목 당장 베어 가도 윈 없겠단 말야.}

10201 #왜그르냐면, 어:채피 주겨야 된단 마랴. 주겨야지 온다 마랴. 응?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죽어야 된단 말야. 죽어야지 온단 말야. 응?}

10201 #그땐 제:대란 마리 저너 읍:스니께는.  
{그땐 제대란 말이 전혀 없으니까.}

10201 #그니, 전:, 그이 후:방에 인는 사람들이 외:려 전, 거이, 전방에서 전:투 허다가 여 곧 잠깐 좀 썰:라고 우 후:방 부대허구 교체 헌단 마랴. 교체하면 저저끔 전방으루 나갈려구 나갈려 그래.  
{그러니, 전, 그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외려 전, 거의, 전방에서 전투하다가 여기 곧 잠깐 좀 쉬려고 우 후방 부대하고 교체를 헌단 말야. 교체하면 제가끔 전방으로 나가려고 해.}

- 10201 #저기 나오면 주굴쫄 알:면서두. 어차피 주굴 꺼니께는, 에 싸우다 주까따 마리아. 응?  
{적이 나오면 죽을 줄 알면서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싸우다 죽겠단 말이야.}
- 10201 #배고픈 고생허구 잠 못자는 고생하니 어:채피 주굴 꺼니겐 나가서 싸우, 저놈들 하나 주기군 나 주그먼 응 퍼나가따 마리지.  
{배고픈 고생하고 잠 못자면 고생하니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가서 싸워, 저놈들 하나 죽이곤 나 죽으면 편하겠단 말이지.}
- 10201 #이 생가기니겐 허지 아 지금처럼 퍼나내 봐. 누가 전방에 나가거 주그라면 거기 나갈려는 사람 인나? 그러케 되니겐 전투가 되드라구.  
{이 생각이니까 하지 아 지금처럼 편안해 봐. 누가 전방에 나가 죽으려면 거기 나가려는 사람 있나? 그렇게 되니깐 전투가 되더라고.}
- 10201 #그러케 허는 걸 오:심유개월 똥아늘 군대생와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오십육개월 동안을 군대 생활했어, 내가.}
- 10201 @ 그럼 할머니 그동안 계속 교동에서 기다리셔꾸요? (#그러치.) 그 시부몬님 모시고? (#그럼.)  
{그럼 할머니 그동안 계속 교동에서 기다리셨고요? (#그렇지.) 그 시부모님 모시고? (#그럼.)}
- 10201 #기니 뭐뭐, 머글 꺼 읍써 중 머그면서, 응? 나무가 인나? 그이, 사네 올라가서 이 풀 까까야 하는데, 내가 업스닌게 누가 해.  
{그러니 뭐뭐, 먹을 거 없어 죽 먹으면서, 응? 나무가 있나?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이 풀 깎아야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누가 해.}
- 10201 #이 할머니가 인제, 새색씨지. 새색씨가 치마, 치마저고리 이꼬 가서 이 풀 까까선 이, 아:여다가 불 때구.  
{이 할머니가 인제, 새색시지. 새색시가 치마, 치마저고리 입고 가서 이 풀 깎아선 이, 이어다가 불 때고.}
- 10201 @ 그때 할머니 그럼 그 자식분이 계셔, (@ 읍:씨찌.) 그땐 업쓰셔꼬. (@ 응.)  
{그때 할머니 그럼 그 자식분이 계셔, (@ 없었지.) 그땐 없으셨고. (@ 응.)}
- 10201 #장:개는 스무, 저러키니, 스무사래 가서두 우리 큰 따를 내 스물 여섯세 나, 여, 스물 일곱살 먹든 보메 나꾸나.  
{장가는 스무, 저러니까, 스무살에 갔어도 우리 큰딸을 나 스물 여섯에 나, 여, 스물 일곱살 먹던 봄에 낳았구나.}
- 10201 @ 장가 가시구 그럼 (@ 그, 그러치.) 군대는 언제 가신 거예요? 군대 가자마자? (@ 응?) 장가 가고 그 이드메, (@ 응 그 이드메 간 거지.)  
{장가 가시고 그럼 (@ 그, 그렇지.) 군대는 언제 가신 거예요? 군대 가자마자? (@ 응?) 장가 가고 그 이듬해, (@ 응 그 이듬해 간 거지.)}
- 10201 @ 하면 할머니님두 저긴데 신혼 때 힘드셨제네요. (@ 어유) 겨론 하자마자 서방 보내구. (@ 어유 지금 그 얘기해봐. 어이구, 눈물 흘리지.) 네.  
{하면 할머니도 저긴데 신혼 때 힘드셨제네요. (@ 어유.) 결혼 하자마자 서방 보내고. (@ 어유 지금 그 얘기해 봐. 어이구, 눈물 흘리지.)}
- 10201 @ 혼자 시부모니를 육년똥안 모시구.  
{혼자 시부모님을 육년동안 모시고.}
- 10201 #그거이 내 뭐 인는 거 인나. 배는 고프구, 이른 해야되가꾸.  
{그거 뭐 있는 거 있나. 배는 고프고, 일은 해야 되겠고.}
- 10201 #아 시어머, 시아버이 보고 일:허라구 혈 쏜 읍꾸 마리지. 그러차나. 고생 마:니 현 사라미야.

10201 {아 시어머, 시아버지 보고 일 하라고 할 순 없고 말이지. 그렇잖아.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10201 @ 근데 그래두, 육년동안 자식뽀늘 먼저 나오셔쓰면 육년동안 자식 키우시면서 그래두.  
 {근데 그래도, 육년동안 자식분을 먼저 낳으셨으면 육년동안 자식 키우시면서 그래도.}

10201 #그, 그 그러치. 거 거기다 정: 들 건데, (@ 예, 좀 수월해쓸 텐데.) 아무거꾸 읍:쓰니젠. 내 몸똥아리 하나지 뭐.  
 {그, 그 그렇지. 거, 거기다 정 들 건데, (@ 예, 좀 수월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몸똥아리 하나지 뭐.}

10201 @ 그러며는, 군대에서 이제 오시고. 그러고 인제 그때부터 아든님, 아든님 세분 다 아든님미신가요?  
 {그러면, 군대에서 이제 오시고. 그러고 인제 그때부터 아든님, 아든님 세분 다 아든님이신가요?}

10201 #세, 세:슨 아들, 아드리고 하나는 따리아. 그이 마:지가 따리아. 지금 마:지가 지금 썬:다서짜리아.  
 그, 그때 난: 따리.  
 {세, 셋은 아들,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야. 그 맏이가 딸이야. 지금 맏이가 지금 썬다섯 살이야. 그, 그때 낳은 딸이.}

10201 @ 다녀오시구 군대에서 인제 오시구 (@ 응.) 그 다음에 나셔꾸나.  
 {다녀오시고 군대에서 인제 오시고 (@ 응.) 그 다음에 낳으셨구나.}

10201 @ 그러며는, 그때에도 인제 배길잔치랑 이런 거 다 하셔썬요?  
 {그러면, 그때에도 인제 백일 잔치랑 이런 거 다 하셨어요?}

10201 #배길잔치 헐 여유가 업서. (@ 그때두.) 머글 꺼 이꾸 뭐 이서야 배길잔치두 허지.  
 {백일잔치 할 여유가 없어. (@ 그때도.) 먹을 거 있고 뭐 있어야 백일잔치도 하지. 백일잔치 할 여유가 없어.}

10201 @ 그러면, 그 육, 육년동안 (@ 응.) 그러면 어머님, 할머니메 부모님드른 동산니에 계셔쓸 꺼 아니에요.  
 그러며는 그동안 좀 이르케 오가고 하셔썬까요?  
 {그러면, 그 육, 육년동안 (@ 응.) 그러면 어머님, 할머니의 부모님들은 동산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좀 이렇게 오가고 하셨을까요?}

10201 #그러케, 그랜까지 뭐 그건. 친정에 와따가따 해까찌.  
 {그렇게, 그랬겠지 뭐 그건. 친정에 왔다갔다 했겠지.}

10201 #그러구 군, 군대생와랄 때에, 군대생와랄 때 얘기 좀 해: 주지.  
 {그리고 군, 군대생활할 때에, 군대생활할 때 얘기 좀 해 주지.}

10201 #배가 고프겐 말야. 배가 고프니께는, 후, 훌:련소에선, 훌:련소에선 고 훌:련병드리 죽, 지그른 식땅이구 허지만 그땐 저 취:사바니 이서. 지금 밥 허는 데가 이서.  
 {배가 고프니깐 말야. 배가 고프니까, 후, 훈련소에선, 훈련소에선 그 훈련병들이 죽, 지금은 식당이고 하지만 그땐 저 취사반이 있어. 지금 밥 하는 데가 있어.}

10201 #밥 허는 데가 이스면 그 저, 즘, 조:바니구 즘시미구 저녀기구 하루 세:번식 이 빠게쓰를 들구 가서 바블 타와.  
 {밥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저, 점, 조반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하루 세번씩 이 양동이를 들고 가서 밥을 타와.}

10201 #바블 타오는데, 인제 고 이제 부, 분대, 분대 별루. 분대 별루 열: 명이면 열: 명치 주구.  
 {밥을 타오는데, 이제 고 이제 부, 분대, 분대별로. 분대별로 열 명이면 열 명치 주고.}

10201 #이 야, 열:명인데 사브루다 찢러서 사브루다 이 재:서 주는 거지.  
 {이 야, 열 명인데 삼으로 찢러서 삼으로 재서 주는 거지.}

10201 #한, 면명, 면명에 요거 한삽 준대는 그거루 해가지구 사브루다 찢러서 인제 이 빠게스다 주구.

- {한, 몇 명, 몇 명에 요거 한 삽 준대면 그걸로 해 가지고 삽으로 찢어서 인제 이 양동이에다 주고.}
- 10201 #이제 국. 구기래는 건 저러키니 겨:우레는 콩나물두 과:해. 시래기꼭.  
{이제 국. 국이라는 건 저렇게 겨울에는 콩나물도 과해. 시래기국.}
- 10201 #게, 그거 된:장두 소 소구미지 소금. 응?  
{그, 그거 된장도 소, 소금이지 소금. 응?}
- 10201 #이거는 이리그 저 빠게스다 주머는 향고라고 이서, 지금. 자네드리 향고를 알간는지 모르간네.  
향고라고, 요로:케 생긴 그르시 이서.  
{이거는 이리그 저 양동이를 주면 향고라고 있어, 지금. 자네들이 향고를 알는지 모르겠네. 향고라고, 어떻게 생긴 그릇이 있어.}
- 10201 #헌데 향고 속:따까리가 이꾸, 거따까리가 이서. 속:따까리 이리 누르고 거따까리.  
{그런데 향고 속뚜껑이 있고, 겉뚜껑이 있어. 속뚜껑 이렇게 누르고 겉뚜껑.}
- 10201 #그 향고에다, 향고는 뭐:에 피료하냐면 전:투때에 이 배:낭 여이다 지구 땡기다가, 여, 배고프면  
그 향고에다 뿔: 끄러서 이 거러노코 볼 때면 이 소테, 이 냄비 행세두 한다구.  
{그 향고에다, 향고는 뭐에 필요하냐면 전투때에 이 배낭 여이다 지고 다니다가, 여, 배고프면  
그 향고에다 뿔 끓여서 이 걸어놓고 볼 때면 이 술에, 이 냄비 행세도 한다고.}
- 10201 #그러케 머 멍는 그 향고가 이서.  
{그렇게 머 먹는 그 향고가 있어.}
- 10201 #그니 향고 따까리라고 속:따까리라고 쪼꼬마: 해찌 거 쪼그마 해. 거따까린 좀 크구.  
{그러니 향고 뚜껑이라고 속뚜껑이라고 쪼그맣게 노란 거 쪼그마해. 겉뚜껑은 좀 크고.}
- 10201 #건 향고 속:따까리에 바블, 퍼서 요렇게 다르면 아마 크게 수갈루 뜨면 다서쭈까리나 여서쭈갈  
뜨면 다: 뿔꺼야.  
{건 향고 속뚜껑에 밥을 퍼서 요렇게 담으면 아마 크게 수갈로 뜨면 다섯 수갈이나 여섯 수갈  
뜨면 다 뿔 거야.}
- 10201 #그러구 그 거뚜, 거뚜꺼리에는 건지가 어디서. 궁, 소, 궁마루, 말구기지.  
{그리고 그 겉뚜, 겉뚜껑에는 건지가 어디 있어고 국, 소, 국물, 국물이지.}
- 10201 #그거 이래 주머는, 그걸 머꾸 아 장:정드리 그거 배, 가:네 기벼리나 가나?  
{그거 이렇게 주면, 그걸 먹고 아 장정들이 그거 배, 간에 기별이나 가나?}
- 10201 #그냥 노냥 굶:따가 고 당버늘 도라가면서 해.  
{그냥 노상 굶다가 고 당번을 돌아가면서 해.}
- 10201 #도라가, 도라가면서 허머는 그 당번 되기만 허면, 되기만 기다리는 거야. (@ 그 순간 밥 멍는 거구.)  
그럼.  
{돌아가, 돌아가면서 허면은 그 당번 되기만 허면 되기만 기다리는 거야. (@ 그 순간 밥 먹는  
거구.) 그럼.}
- 10201 #조, 조바늘 일찌저치 주니께는 인제 그 내:무바네 가따노코 이 구, 구서게다 가따노면 꺾꺼매서  
잘, 쪽, 식사대형으로 안저 하면, 쪽: 두: 줄로 이짜게 이짜게 두: 줄로 안는단 마랏.  
{조, 조반을 일찌감치 주니까 인제 그 내무반에 갖다 놓고 이 구, 구석에다 갖다 놓으면 꺾꺼매서  
잘, 쪽, 식사대형으로 앉아 하면, 쪽 두 줄로 이쪽에 이쪽에 두줄로 앉는단 말야.}
- 10201 #그 안즈면서, 안자서 저 바라봐야 봐:지도 아너 킴킴허니겐.  
{그 앉으면서, 앉아서 저 바라봐야 보이지도 않아 꺾꺼매서.}
- 10201 #기니까는 이 밥 푸면서 그냥 이 소느로 푸면서 이 소느로 집, 그냥 막 지버 넘는 거지 머. 응.

{그러니까 이 밥 푸면서 그냥 이 손으로 푸면서 이 손으로 집, 그냥 막 집어 넣는 거지 뭐. 응.}

10201 #아 내 배버텨 채우, 그러니깐 당번하고 나면 설싸한다구 그냥 누니 쾡하게 드러가 버려.  
{아 내 배부터 채우, 그러니까 당번하고 나면 설사한다고 그냥 눈이 쾡하게 들어가 버려.}

10201 @ 안떡따가 머그니.  
{안떡다가 먹으니.}

10201 #그럼. 그건 누구든지 당번허구 나면 그건 으레 설싸할 줄 아:라야 하는 거니께는.  
{그럼. 그건 누구든지 당번하고 나면 그건 으레 설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니까.}

10201 #그니깐 당번하면 저누른 또 오늘 실:퀸 처머꾸 인제 설싸하가따.  
{그러니까 당번하면 저놈은 또 오늘 실컷 처먹고 인제 설사하겠다.}

10201 #이와 가치 군대 생활을 한 거야.  
{이와 같이 군대 생활을 한 거야.}

10201 @ 그럼 짐 아드니미랑 따니미랑 다: 서우레 계세요? 따님도 서우레 계세요?  
{그럼 지금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다 서울에 계세요? 따님도 서울에 계세요?}

10201 #이, 인치니 이서. (@ 따니른 인치네 계세요? 아드님드른 다 서우레.) 크, 크나이는 인제 서울서  
고등야꼬 교:사루 이찌. (@ 네.)  
{이, 인천에 있어. (@ 따님은 인천에 계세요? 아드님들은 다 서울에.) 크, 큰 아이는 인제 서울서  
고등학교 교사로 있지. (@ 네.)}

10201 @ 그르구 뭐, 공무원, 다:들 공무원이니시라고.  
{그리고 뭐, 공무원, 다들 공무원이니시라고.}

10201 #둘째어구, 둘째하구 세:째는 인제 인:천시 한노른 구:청에 이꾸 한노른 동:사무소에 이꾸 그러치.  
{둘째하고, 둘째하고 셋째는 인제 인천서 한놈은 구청에 있고, 한놈은 동사무소에 있고 그렇지.}

10201 @ 그러며는, 머느니미랑 다 이제 와요? 설랄때 뭐 그러케 교동 드러와요? (#어어 그건 당연한 거지.)  
그지여.  
{그러면 머느님이랑 다 이제 와요? 설날 때 뭐 그렇게 교동 들어와요? (#어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요.}

10201 #그런데 아놀 수 인나. 은데 크닐 나서, 저 어:름 때메. (@ 어:러가지구. 오래 힘드실 거 가타요.)  
오, 오늘두 가, 간:텐누미 저:좌해서 아유 어:르미 짝 차때는데 어드러케요.  
{그런데 안을 수 있나. 그런데 큰일 났어, 저 얼음 때문에. (@ 얼어가지고 올해 힘드실 거 같아요.)  
오, 오늘도 가, 가운데놈이 전화해서 아유 얼음이 짝 찻대는데 어떡해요.}

10201 #어:름 차스면 모, 아노면 될 거 아냐 허긴 해:찌마는 예그, 어:름때메 야다니야.  
{얼음 찻으면 모, 안 오면 될 거 아냐 허긴 했지만 예그, 얼음 때문에 야단이야.}

10201 @ 아 이월따레는 그래도 어름 쯤 풀릴 거 가타요.  
{아 이월달에는 그래도 얼음 쯤 풀릴 거 같아요.}

10201 #아유 뭐 이월따리 지금 뭐 여, 한 여름바께 만나만는데 뭐.  
{아유 뭐 일월달이 지금 뭐 여,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뭐.}

10201 @ 안 풀리면 저이도 몬나가요. 안돼요.  
{안 풀리면 저희도 못 나가요. 안돼요.}

10201 #계, 계:다가 차가 여기 좀 만카네?  
{계, 계다가 차가 여기 좀 많아?}

10201 #아:유, (@ 마저요.) 여 집짐마다 다: 이따시피 헌데 뵤.  
{아유, (@ 맞아요.) 여기 집짐마다 다 있다시피 헌데 뵤.}

- 10201 #헌데 거기서 오는 늑드른 다: 차몰고 온다 마리아. (@ 예에.)  
 {그런데 거기서 오는 놈들은 다 차 몰고 온단 말이야. (@ 예에.)}
- 10201 #차, 차모는 거, 읍:음 또 뭐 어때.  
 {차, 차몰, 없으면 또 뭐 어때.}

## 5. 회갑 잔치

- 10201 @ 그러면 환:갑잔치는 어, 어떻게 하셔쎄요.  
 {그러면 환갑잔치는 어, 어떻게 하셔어요.}
- 10201 #어어. 환:갑잔치, 저:, 저: 위에 향:갑잔치 사진 걸려따구, 마루에.  
 {어어. 환갑잔치. 저, 저 위에 환갑잔치 사진 걸렸다고, 마루에.}
- 10201 @ 아, 봐편 거다. (#예에.)  
 {아, 봤던 거다. (#예에.)}
- 10201 #그이, 하, 환:갑잔친 인천서 해:찌.  
 {그이, 화, 환갑잔치는 인천서 했지.}
- 10201 @ 인천가서 하셔꾸나. 인천네 저기, 큰따니미 해주셔쎄요?  
 {인천 가서 하셔구나. 인천에 저기, 큰 따님이 해주셔어요?}
- 10201 #어, 큰따니미 헐:냐구?  
 {어, 큰따님이 했냐고?}
- 10201 @ 예, 인천네 따님 큰따님 계신다구.  
 {예, 인천에 따님, 큰따님 계신다고.}
- 10201 #어어 인:처네 큰딸두 이꾸 아들두 이꾸 헌데.  
 {어어, 인천에 큰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헌데.}
- 10201 @ 아들두 인천.  
 {아들도 인천.}
- 10201 #뭐 개드리 해 준 저거 다름 읍:찌 뭐.  
 {뭐 개들이 해준 거나 다름 없지 뭐.}
- 10201 @ 그러머는 환:갑, 저는 환갑잔치 한 번두 안가봐꺼든뇨. 환:갑잔친 상:을 어터게 차려요 보통?  
 {그러면 환갑, 저는 환갑잔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환갑잔치는 상을 어떻게 차려요 보통?}
- 10201 #어어 향:갑잔치 상이라머는.  
 {어어, 환갑잔치 상이라면은.}
- 10201 @ 예저니랑 요즈미랑 달라요?  
 {예전이랑 요즘이랑 달라요?}
- 10201 #글쎄 요:조문 뭐 내가 나이 머저시니젠 그런 데 가보지 아나서 모루간는데.  
 {글쎄 요즘은 뭐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 10201 #환:갑잔치라구 하는 거슨 지그른 간소와 마니 돼:찌. 근데.  
 {환갑잔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간소화 많이 됐지. 근데.}
- 10201 @ 예저네는 환갑까지 살면 굉장:장히 오래 산 거연는데. (#아우 그럼 만, 아:유 잘사라찌.) 요새는.  
 {예전에는 환갑까지 살면 굉장:장히 오래 산 거였는데. (#아우 그럼 만, 아유 잘 살았지.) 요새는.}
- 10201 #아, 저기 저, 한번 그 사진 봐봐.  
 {아, 저기 저, 한번 그 사진 봐봐.}
- 10201 #그럭허구. 뭐 행사허는 거? 행사허는 건 자시, 자식뜨리 저 부모에게 잔 올리면서 절허는 거지.

{그렇게 하고. 뭐 행사하는 거? 행사하는 건 자시, 자식들이 저 부모에게 잔 올리면서 절하는 거지.}

## 6.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01 @ 그러면, 이제 사라미 주그면 장:례를 치르자나요. 거면, 요새는 이르게 마니들 그거 하자나요. 그 납골당에 마니 이르게 하자나요. 예저네는 무조건 묘:를 저짜나요. (#그러치.) 그러면 그 전통저긴 그런:게 어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이렇게 많이들 그거 하잖아요. 그 납골당에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묘를 지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전통적인 그런 게 어떻게 돼요?}

10201 #긴데, 사:라미 인제 일쌍일싸야. 한번 나면 한번 중는 건 정헌 이친데.

{그러는데, 사람이 인제 일쌍일싸야. 한번 나면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10201 #사:라미 어려서 인제 태어난다마랴.

{사람이 어려서 인제 태어난단 말야.}

10201 #태어나 노머는 그: 어리, 어리내가 세:살까진 부모에 소니 가야만 키운다 마랴.

{태어나 놓으면 그 어리, 어린애가 세 살까진 부모의 손이 가야만 키운단 말야.}

10201 #그러차나. 저 세살, 세:살 더 머꾸 나서는 모르지만 세:살까지는, 까지는 기자구 가라 껴줘야 하구 전 메겨야 돼구 응?

{그렇잖아. 저 세 살, 세 살 더 먹고 나서는 모르지만 세 살까지는, 까지는 기저귀 갈아 껴 줘야 되고 젓 먹어야 되고. 응?}

10201 #전부 부모가 가꿔서, 기, 길러야 툰다 마랴.

{전부 부모가 가꿔서, 기, 길러야 툰단 말야.}

10201 #그냥 내똥면 죽짜나.

{그냥 똥두면 죽잖아.}

10201 #헌데, 부모가 도라가시면 지그른 그냥 사네서 그냥 땡일루 그냥 \*\*\*\*\* 또 잘:허는 사라른 인제 이 사밀만에 탈, 그걸 보구 탈쌍한다 그래. 이, 상을 번는다구. 허구, 헌데.

{헌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지금은 그냥 산에서 그냥 땡일로 그냥 \*\*\*\*\* 또 잘 하는 사람은 인제 이 삼일만에 탈, 그걸 보고 탈상한다 그래. 이, 상을 번는다고. 하고, 그런데.}

10201 #예:저넨 삼:년상이야. (@ 예.)

{예전엔 삼년상이야. (@ 예.)}

10201 #계, 삼:년상을 왜: 삼년상을, 긴: 그 삼년 퐁아이나 긴: 시가늘.

{그, 삼년상을 왜 삼년상을, 긴 그 삼 년 동안이란 긴 시간을.}

10201 #효, 효:자는 삼년, 삼년퐁아는 매일가지 성묘하구 상온넙구 이러커구 이따 마리지.

{효, 효자는 삼 년, 삼 년 동안은 매일같이 성묘하고 상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10201 #그 왜 그르, 바:답스럽게 하나 마리지.

{그 왜 그러, 유난스럽게 하난 말이지.}

10201 #부모의 은덕클 감는 거야.

{부모의 은덕을 갚는 거야.}

10201 #나 나, 나 나:서 우리 부모가 삼년퐁아늘 그만큼 고생을 하셔꺼든.

{나 나, 나 낳아서 우리 부모가 삼 년 동안을 그만큼 고생을 하셨거든.}

10201 #나두 부모의 그 으네를 삼년퐁아늘 가파주, 가파야, (@ 도리가.) 도, 도:리 아냐?

{나도 부모의 그 은혜를 삼 년 동안을 갚아 주, 갚아야, (@ 도리가.) 도, 도리 아냐?}  
 10201 #그래서 삼년상이 이쁜 건데.  
 {그래서 삼년상이 있던 건데.}  
 10201 #지그몬 내 그, 저 강:이할 때 내 그러지.  
 {지금은 내 그, 저 강의할 때 내 그러지.}  
 10201 #지금 왜 저러키니 도:레, 도:레 버꾸 당일 버꾸, 효도 왜 안하냐구. 효도 바라지 마라 지그몬.  
 {지금 왜 저렇게 둘에, 둘에 벗고 당일 벗고, 효도 왜 안하냐고. 효도 바라지 마라 지금은.}  
 10201 #엔:나레는 그냥 전메기구 기자구 같구, 지그몬 나:노면 그냥 송아지절 가따 소 우유가따 드려 메겨노쿠  
 선 무에 효:도를 바라는가 마리지.  
 {옛날에는 그냥 젓 먹이고 기저귀 같구, 지금은 낱아 놓으면 그냥 송아지젓 갖다 소 우유갖다  
 들어먹여놓고선 무에 효도를 바라는가 말이지.}  
 10201 #이런 애기두 우스면서 해:찌마는.  
 {이런 애기도 웃으면서 했지만.}  
 10201 #지그몬 시대가 이러케 배껴. 근젠, 인젠 나:만 노머는, 엄마 읍서두 자라. 응?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는 낱아만 놓으면, 엄마 없어도 자라. 응?}  
 10201 #그냥 기자구나 좀 가라 채:주고 인제 보살피문 되는 거야.  
 {그냥 기저귀나 좀 갈아 채워 주고 인제 보살피면 되는 거야.}  
 10201 #게 부모가 지금 부모 노르슬 다: 모:터고 인는 거야.  
 {그러니 부모가 지금 부모 노릇을 다 못하고 있는 거야.}  
 10201 #등안시해지. 소:오래, 자시게게.  
 {등한시하지. 소홀해, 자식에게.}  
 10201 #그니 자식두 부모에 대해 소:오랄 수바께 더이서?  
 {그러니 자식도 부모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더 있어?}  
 10201 #나는 그저 자시게게 아:무리카곤 자식뜨른 내게 효:도허라구, 그거 부, 불공평허지.  
 {나는 그저 자식에게 아무렇게 하곤 자식들은 내게 효도하라고, 그거 부, 불공평하지.}

## 7.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01 #그니젠, 그 당시엔 그렇게 돼:서 인제 사:라미 주그머는, 제:사를 열뚜번 지내.  
 {그러니깐, 그 당시엔 그렇게 되어서 인제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열두번 지내.}  
 10201 #아마 그 제:사 이름 꼬부래면 잘 꿈는 사람 읍슬꺼야.  
 {아마 그 제사 이름 꿈으라면 잘 꿈는 사람 없을 거야.}  
 10201 #거 한 번 꼬바 보까?  
 {그거 한 번 꿈아 볼까?}  
 10201 @ 저는 모꼬바요 꼬바주세요.  
 {저는 못 꿈아요 꿈아주세요.}  
 10201 #트키 자네드른, 근 생각뚜 모털꺼지.  
 {특히 자네들은, 그것은 생각도 못할 거지.}  
 10201 #주그몬, 보통 처:메 초완부터 모여 초완.  
 {죽으면, 보통 처음에 초혼부터 모여 초혼.}  
 10201 #이제 성보글 해. 성보기래는 건 보글 입기 시자카는 거지.  
 {이제 성복을 해. 성복이라는 건 복을 입기 시작하는 거지.}

- 10201 #또 고다메는 인제 이, 이판. 관네다 너:머는 인제, 이판예가 이찌.  
{또 그 다음에는 인제 이, 입관. 관에다 넣으면 인제, 입관례가 있지.}
- 10201 #또 그 관늘, 하여간 시시는 가주구 움지긴 대루 고:해야대. 관늘 영:기게 대면 천: 천:고 강고 천:  
강고.  
{또 그 관을, 하여간 시신은 가지고 움직인 대로 고해야 돼. 관을 옮기게 되면 천, 천고 감고.}
- 10201 #그리구 나서는 에에 뭐냐면 조전. 조저나라구 이서, 조전.  
{그리고 나서는 에에, 뭐:냐면 조전. 조전이라고 있어, 조전.}
- 10201 #조전 지내구 나서는 인제 바린. 상여 나갈, 나갈, 나갈 때 바린.  
{조전 지내고 나서는 인제 발인. 상여 나갈, 나갈, 나갈 때 발인.}
- 10201 #바린, 바리내 가면 사네 가서 에 참파투 지내. 산신에게. 참파투 지내지?  
{발인, 발인해 가면 산에 가서 에 참파투 지내. 산신에게. 참파투 지내지?}
- 10201 #또 그거이 고 다메 이제 참파투 지내는 건 산신에게 여기 누구 가따 무끼 위에서 구덩이 팝니다,  
이 구슬 파니께는.  
{또 그것이 고 다음에 이제 참파투 지내는 것은 산신에게 여기 누구 갖다 묻기 위해서 구덩이 팝니다, 이 곳을 파니까.}
- 10201 #그리곤, 이, 시:시는 제 하:관허구 나선 바로 그다멘 평:토라고 이서. 그 평토, 평토젤 지내.  
{그리곤, 이, 시신은 이제 하관하고 나선 바로 그 다음엔 평토라고 있어. 그 평토, 평토제를 지내.}
- 10201 #그 평토, 평토 지내구나서는, 뚜 뭐:냐면 거기서 인제 반흔제를, 반흔, 인제 도라갑니다 마랴. 인제  
도라갑니다.  
{그 평토, 평토 지내고 나서는, 또 뭐냐면 거기서 인제 반흔제, 반흔. 인제 돌아갑니다 말야.  
인제 돌아갑니다.}
- 10201 #도, 도라갑니다 하고 또 제: 지내지? 지비 와서는 또 초:우젤 지내.  
{도, 돌아갑니다 하고 또 제 지내지? 집에 와서는 또 초우제를 지내.}
- 10201 #초우제는 이제, 사, 초우 재우 사무 이러케 지내, 지내거든.  
{초우제는 이제, 사, 초우 재우 삼우 이렇게 지내, 지내거든.}
- 10201 #그께 초우제 지내지? 그 이, 그 이튿날 야:치메 재:우제 지내지?  
{그러니까 초우제 지내지? 그 이, 그 이튿날 아침에 재우제 지내지?}
- 10201 #그 다음, 거 거 이틀랄 밤쯤, 사무라 그먼 흐:니 사:홀마네, 사흘째 되는 날 지낸 줄 아는데 그건  
에유 잘못 썩가카는 거야.  
{그 다음, 거, 거 이틀날 밤쯤, 삼우라 그러면 흔히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 지낸 줄 아는데  
그건 에유, 잘못 생각하는 거야.}
- 10201 #장:사: 지내구 이:틀째 된 날 밤중에 지내는 거야. 밤중에 거이 사무라구 하는 거야.  
{장사 지내고 이틀째 된 날 밤중에 지내는 거야. 밤중에. 그것을 삼우라고 하는 거야.}
- 10201 #그니 이러케 되면 열뚜버니 되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되면 열두번이 되는 거지.}
- 10201 #그이 지내는데 왜: 지사는 바:메 지내냐.  
{그 지내는데 왜 제사는 밤에 지내냐.}
- 10201 #시는, 구시는 어둔 걸 조야해. 영. 발근 걸 시러허거든.  
{신은, 귀신은 어두운 걸 좋아해. 응. 밝은 걸 싫어하거든.}
- 10201 #게 도깨비 놀:다두 다기 울고 개:가 지즈면 읍찌진다구 허자나. 그게, 시:는, 시는 발근 걸 시러허구

- 어둔걸 조아하기 때메 밤쫓.
- {그러니 도깨비 놀다가도 닭이 울고 개가 짖으면 없어진다고 하잖아. 그게, 신은, 신은 밝은 걸 싫어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중.}
- 10201 #게 그걸 조아하기 때메 밤쫓에, 제:사는 그니 바:메 지내자나. 이:치가 그런 거야.  
{그러니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중에, 제사는 그러니 밤에 지내잖아. 이치가 그런 거야.}
- 10201 @ 그럼 이러케 지구 가면서 왜 노래두 부르구. (@ 사, 그거 상여소리. 운:구허는 소리야.) 에에 운구하는 소리. 어트게 내요? 뭐.  
{그럼 이렇게 지고 가면서 왜 노래도 부르고. (@ 사, 그거 상여소리. 운구하는 소리야.) 에에 운구하는 소리. 어떻게 내요? 뭐.}
- 10201 #아 그건 자, 자기드리 자, 자이, 저이들 맘:대루 꾸며서 부, 허는 거야. 건 뭐 뭐 (@ 따키.) 노, 노래마냥 가사가 인는 거이 아냐.  
{아 그건 자, 자기들이 자, 자이, 자기들 맘대로 꾸며서 부, 하는 거야. 건 뭐 뭐 (@ 딱히.) 노, 노래마냥 가사가 있는 것이 아냐.}
- 10201 @ 그러머는 겨론해쓸 때에는 그 잔치국수 머거짜나요. (#응.) 그면 장네에쓸 때에는, 뭐 머거썩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에는 그 잔치국수 먹었잖아요 (#응.) 그러면 장례했을 때에는, 뭐 먹었어요?}
- 10201 #어, 국빠비아. (@ 장네엔 국빠.) 그래, 응응.  
{어, 국밥이야. (@ 장례엔 국밥.) 그래, 응응.}
- 10201 #초상에는 정시넙꾸 국빠베만 정시이꾸.  
{초상에는 정신없고 국밥에만 정신있고.}
- 10201 #저, 저레 저러키니 불공 드리러 가면 저, 정 정성엔 정시넙꾸 제:빠, 그 또, 저레선 제:빠비라 구 해.  
{저, 저래 저랬으니 불공 드리러 가면 저, 정, 정성엔 정신없고 젓밥, 그 또, 절에선 젓밥이라고 해.}
- 10201 #제:빠베만 정시니때는, 그 속담메들 허, 얘:기허자나. (@ 아, 그 제빠비.) 제:빠비 저레서 하는 거야.  
{젓밥에만 정신판, 그 속담메들 허, 얘기하잖아. (@ 아, 그 젓밥이.) 젓밥이 절에서 하는 거야.}
- 10201 @ 그러면, 제사 음식기랑 그런 거는 다: 이제 머느리나 이제 어머니미랑 이러케 다: 해가주구 다: 바치구 사람들 나나주구.  
{그러면, 제사 음식이랑 그런 거는 다 이제 머느리나 이제 어머니미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바치고 사람들 나눠주고.}
- 10201 #그러지 나너명은 거지.  
{그렇지. 나눠먹는 거지.}
- 10201 @ 제사는 그럼, 제사에는, 저이는 잘 모르는데요. 제사 이러케 음식 상을, 아까두 여쭙는데 어:느 음식기 어느쫓게 꼭 가야되고, (@ 응.) 불근 음식근 이쫓게 가야대고 뭐, 이케 뭐라고 하자나요. 응. 동일, (@ 진:설. 그이 진:서리라구 해, 진:설.) 진:설 그게 어트게 돼요?  
{제사는 그럼, 제사에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제사 이렇게 음식 상을, 아까도 여쭙 봤는데 어느 음식이 어느 쫓에 꼭 가야 되고, (@ 응.) 붉은 음식은 이쫓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응. 동일, (@ 진설. 그것을 진설이라고 해, 진설.) 진설 그게 어떻게 돼요?}
- 10201 #진:서를 허는데, 지금 여기서 허는 진:서리고 여이 텔레비 나온 인제 설:라리나 추서게 인제 제:사쌍 차린 그 인제 진:설한 거 나온단 마랴. 근데.  
{진설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진설하고 여기 텔레비전에 나온 인제 설날이나 추석에 인제 제삿상 차린 그 인제 진설한 거 나온단 말야. 근데.}

- 10201 #거기 그 사람드리 하는 거티고 여기 교동에 허는 사람드러군 참 시기 달라.  
{거기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여기 교동에 하는 사람들하곤 참 식이 달라.}
- 10201 @ 고장마다 조금씩 다르고.  
{고장마다 조금씩 다르고.}
- 10201 #에 그리, 근데, 요:거는 가타. 흥동백씨. (@ 아 흥동백씨.) 조율이시. (@ 조유리시.) 외:정내탕, 아:동육씨.  
{에 그리, 그런데, 이것은 같아. 흥동백서. (@ 아 흥동백서.) 조율이시. (@ 조율이시.) 외적내탕, 어동육서.}
- 10201 #고, 어. 그, 그거는. 그거는 가, 말:루는 가튼데, 노는 위치가 달라져.  
{고, 어. 그, 그거는. 그거는 가, 말로는 같은데, 놓는 위치가 달라져.}
- 10201 @ 조금씩 위치도. (@ 으응.) 음식뚜 그니까 종류두, 그 지방에서 나는 생서느루 올라가니까. (@ 그, 그러치.) 그거뚜 조금씩 달라지구. (@ 그러치, 고거 뚜 좀 달르구.) 으응.  
{조금씩 위치도. (#으응.) 음식도 그러니까 종류두, 그 지방에서 나는 생선으로 올라가니까. (#그, 그렇지.) 그것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지, 그것도 좀 다르고.)}
- 10201 @ 그럼 여기에는 뭐뭐 올라가요 교동은? (#근데, 그 근데 그자:슬 나는 이러케 생가캐.)  
{그럼 여기에는 뭐뭐 올라가요 교동은? (#그런데, 그, 근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 10201 #도라가신 지 아버지랑 어머니 제:사 지낸다 마리지. 논는 순서는 아무러케 놔:도 된다.  
{돌아가신 지 아버지랑 어머니 제사 지낸다 말이지. 놓는 순서는 아무렇게 놔도 된다.}
- 10201 #아니 뭐 뭐 그 논는 순서 모르는 사라픈 지:사두 모찌내게.  
{아니 뭐 뭐 그 놓는 순서 모르는 사람은 제사도 못 지내게.}
- 10201 #제:슬 장만할 때, 마:니 장마나면 더 조치면.  
{제수를 장만할 때, 많이 장만하면 더 좋지만.}
- 10201 #살리미 비, 저러키 비나나며는, 마:니 장마날 수 읍서.  
{살림이 비, 저렇게 빈한하면, 많이 장만할 수 없어.}
- 10201 #한: 가지 두: 가지 장마내때두 내: 정성껏, 내: 성이껏 제:수 장마내가지구, 내: 정성껏 부모에 제:살 드러라.  
{한 가지 두 가지 장만했다도 내 정성껏, 내 성의껏 제수 장만해가지고, 내 정성껏 부모에게 제사를 드러라.}
- 10201 #그리, 그러면 그거시 바루 효, 정성이다.  
{그리, 그러면 그것이 바로 효, 정성이다.}
- 10201 #그냥 마:니 차려노쿠, 이간 뭐 지사 지내 무:해? 응? 메뉴리가 지, 저, 지사음식 만들며 이까지꺼 뭐 이거 무슨 노무 지:살 지낸다구, 이러면 그이 뺑:만가지 상 차려놔 봐야 그건 불경이야.  
{그냥 많이 차려놓고, 이깟 뭐 제사 지내 뭐해? 응? 며느리가 지, 저, 제사음식 만들며 이까지꺼 뭐 이거 무슨 놈의 제살 지낸다고, 이러면 그것이 백만가지 상 차려놔 봐야 그건 불경이야.}
- 10201 #그니까 하나를 차려두 내 성이가 드러가구 정성이 드러간 거. 응?  
{그러니까 하나를 차려도 내 성의가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간 거. 응?}
- 10201 #그 음식 노쿠, 내 정성껏 성이껏 제:사 지내면 그거시 효:도다 이거지.  
{그 음식 놓고, 내 정성껏 성의껏 제사 지내면 그것이 효도다 이거지.}
- 10201 @ 그러면.  
{그러면.}
- 10201 #근데 예:저넨 그거이 아:니야.  
{그런데 예전엔 그것이 아니야.}

- 10201 #이 저어키니 소:상 대:상, 왜 그 주근지 알:런마네 지 지, 고 알:런되는 그 도라가신 날 그날 지내는 걸 소:상이라 그래.  
{이 저어키 소상 대상, 왜 그 죽은 지 일 년 만에 지 지, 고 일 년 되는 그 돌아가신 날 그날 지내는 걸 소상이라 그래.}
- 10201 #그리구 삼년째 되는 그날 가따 대:상이라구. 그이 대:상 지나면서 탈쌍을 허지 인제. 그땐 상오슬 다: 버서 태워버리구.  
{그리고 삼 년 짜 되는 그날을 대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상 지나면서 탈쌍을 하지 인제. 그땐 상옷을 다 벗어 태워버리고.}
- 10201 #근데, 소:대상이른 그리 상 차라 노쿠 이 상주는 예고:예고: 하구 인제 고글 허면 조:문, 조객뜨리 온다 마랴.  
{그런데, 소 대상이면 그리 상 차려 놓고 이 상주는 예고예고 하고 인제 곡을 하면 조문, 조객들이 온단 말야.}
- 10201 #조:객뜨리 오머는 이 드러서 제:청에 드러서 조:문 얼른 조:문허는 게 아니라 이 지:사쌍 차려는 거부터 휘: 둘러봐.  
{조객들이 오면은 이, 들어와서 제청에 들어서 조문, 얼른 조문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삿상 차려놓은 것부터 휘 둘러봐.}
- 10201 #이 지바네두 제대루 저 진:설혈 줄 아:는 사라미 인나 옴나, 이거 아:는 유세를. 그거 우리 조상드른 그 습파니 망허다는거야.  
{이 집안에도 제대로 저 진설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 아는 유세를. 그거 우리 조상들은 그 습관이 망허다는 거야.}
- 10201 #점 안, 점 안:대는 사라른 모르는 사람 무시해치구 만:다 마랴.  
{좀 안, 좀 안대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만단 말이야.}
- 10201 #그, 그걸 때때 이거 여기두 진:설 조그미라두 허는 사라미 인나 옴나 하구 휘: 도라보군.  
{그, 그것 때문에 이거 여기도 진설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휘 돌아보군.}
- 10201 #우리 조상드리 그 근성이 틀려서.  
{우리 조상들이 그 근성이 틀렸어.}
- 10201 #뭐 아:무러케나 봐습 어더킬래 근 디려다보구 뭐. 그 나미 지사에 왜 나미 지사에 감: 나라 배 나라 해? 그자나.  
{뭐 아무렇게나 봐두면 어떻게래 그걸 들여다보고 뭐. 그 남의 상에 왜 남의 상에 감놔라 배놔라 해? 그렇잖아.}
- 10201 #근데 진:설도이가 조울아:시루 인는 데가 이꾸, 조울시이가 이, 아:는 뭐냐면 배 이, 시는 감: 시짜거든.  
{그런데 진설도가 조울이시로 있는 데가 있고, 조울시이가 이, 이는 뭐냐면 배 이, 시는 감 시 짜거든.}
- 10201 #가:미 먼저 드러가는 데가 이꾸 배가 먼저 드러가는 데가 이서.  
{감이 먼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배가 먼저 들어가는 데가 있어.}
- 10201 #그니 나미 지사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해?  
{그러니 남의 상에 뭐 감놔라 배놔라 해?}
- 10201 @ 그래서 감놔라 배놔라구나.  
{그래서 감놔라 배놔라구나.}
- 10201 #그러치 그거이. 그, 그래서 뭘: 허면 그 나미 지사에 뭐 감:나라 배나라를 왜 해.  
{그렇지 그게. 그, 그래서 뭘 하면 그 남의 상에 뭐 감놔라 배놔라를 왜 해.}

- 10201 #그, 그마리 거기 인는 거야.  
{그, 그 말이 거기 있는 거야.}
- 10201 @ 그러쿠나.  
{그렇구나.}

### 1.3. 생업 활동

#### 1. 논농사

- 10301 @ 그러큰, 교동은, 교동에 싸리 되게 유명하잖나요 벼가. (#응응.) 그러며는 이게 다른 거예요 품종이?  
벼 품종이? 지역마다?  
{그러면, 교동은, 교동에 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벼가. (#응응.) 그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품종이?  
벼 품종이? 지역마다?}
- 10301 #품:종이 교동에두 마나. (@ 아. 교동에도.) 그럼.  
{품종이 교동에도 많아. (@ 아. 교동에도.) 그럼.}
- 10301 @ 교동 쌀 뭐라고 하던데. 이르미 이편데.  
{교동 쌀 뭐라고 하던데. 이름이 있던데.}
- 10301 #고:품. 고시히까리. (@ 에에 마자요 마자요.) 저 추천. 인, 저 아끼바리. (@ 저 고시히까리.)  
{고품. 고시히까리. (@ 에에 맞아요 맞아요.) 저 추천. 인, 저 아끼바리. (@ 저 고시히까리.)}
- 10301 @ 고시히까리 드러본 거 가태요. 교동 해가지구. (#고시히까리. 아키바리.)  
{고시히까리 들어본 것 같아요. 교동 해가지고. (#고시히까리. 아키바리.)}
- 10301 @ 그럼 벼 농사는 그 품종에 상관 업씨 여기는 그 건판?  
{그럼 벼 농사는 그 품종에 상관 없이 여기는 그 건판?}
- 10301 #지그른 건파 읍씨.  
{지금은 건파 없지.}
- 10301 @ 지그른 건파 업꾸.  
{지금은 건파 없고.}
- 10301 #아우 읍씨. 누가 건파를 해. (@ 건판 예저네.) 그럼. 아이 무리, 무리 사:방에 철렁철렁한데. (@ 이제 저수지 만나서.) 그럼.  
{아우 없지. 누가 건파를 해. (@ 건파는 예전에.) 그럼. 아이 물이, 물이 사방에 철렁철렁한데.  
(@ 이제 저수지 많아서.) 그럼.}
- 10301 #이제 건파는 몰라.  
{이제 건파는 몰라.}
- 10301 @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젠 건파 안하고 모. (#모, 모.) 모 놔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젠 건파 안하고 모. (#모, 모.) 모 놔다가.}
- 10301 #모:는 모:두 모:허는데두, 상자가 이서. (@ 네.)  
{모는 모두 모한대도, 상자가 있어. (@네.)}
- 10301 #여그여그 돼뜰 미테 두구 그저네 상자가 이찌만 지그문 농사 모:찌니께는 쓰질 안치만  
{여기여기 텃돌 밑에 두고, 그전에 상자가 있지만 지금은 농사 못 지으니깐 쓰질 않지만.}
- 10301 #그 상자에다가 보페 어득카냐면, 상, 그니젠 퍼나난 거야 퍼나내.  
{그 상자에다가 봄에 어떡하냐면, 상, 그게 편안한 거야 편안해.}

- 10301 #그저넨 호글 파다 헨는데 인젠 흑뚜 안파구 상토희글 사와.  
{그전엔 흑을 파다 했는데 인젠 흑도 안 파고 상토희를 사와.}
- 10301 #상토희, 상토희글 여이, 파, 파는 걸 농여베서 이 사다 줘.  
{상토희, 상토희글 여이, 파, 파는 걸 농협에서 이 사다 줘.}
- 10301 #그른 돈: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돈만 내면 되는 거야.}
- 10301 #상토희게다가 베셀, 그거뚜 기계루 허는 거야. 사라미 허는 게 아니라 그거이.  
{상토희에다가 벵씨를, 그것도 기계로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 10301 #기계다 이, 이러이, 상자 이러케 기계다 너:머는 이게 상자가 죽. 가면 여기서 상토희기 떠러져가지구  
요 쪼끔 가면 씨가 요기 놔:지구.  
{거기다 이, 이렇게, 상자 이렇게 기계에다 넣으면 이게 상자가 죽 가면 여기서 상토희가 떨어져가  
지고 요 조금 가면 씨가 요기 놔지고.}
- 10301 #또 조:쪼 나가면 더플, 덩꾸.  
{또 저기쪼 나가면 덮을, 덮고.}
- 10301 #기니켄, 씨 놔:서 더픈 거 사:라미 가따 인제 가따 싸:키만 허는 거야.  
{그러니깐, 씨 놔서 덮은 거 사람이 가져다 인제 갖다 쌓기만 하는 거야.}
- 10301 #싸으면 고그 요 며칠 가머는 바라가 되거든? 싸기 요러케 나오거든?  
{쌓으면 거기 요 며칠 가면 발아가 되거든? 싹이 요렇게 나오거든?}
- 10301 #거 쌓나면 노네 가따 모:짜리에다 가따 이 죽. 놔.  
{그거 싹 나면 눈에 갖다 못자리에다 갖다 이 죽 놔.}
- 10301 #노, 노:른 거기서 이제 거 비닐 위에 씨어, 씨워 노면 거기서 자라거든.  
{노, 놓으면 거기서 이제 그거 비닐 위에 세워, 세워 놓으면 거기서 자라거든.}
- 10301 #자라다가 이마큼 자라머는 그땐 노, 노네 물 저 나라시러지  
{자라다가 이만큼 자라면 그땐 노, 눈에 물 저 \*\*\*\*\*.}
- 10301 #로:타리 놔서 쪽: 고르게 맨든 거 기계가 와서 그이 상자에, 떼어다가 기계 위루 노곤 기계 노곤  
기계 물론, 위, 기계 위 안자서 죽: 몰구 가면 뒤에가 다: 꼬치는 거지 머.  
{로타리 놔서 쪽 고르게 만든 거 기계가 와서 그이 상자에, 떼어다가 기계 위로 놓고, 기계 놓고,  
기계 놓고 그냥 기계 위, 기계 위 앉아서 죽 물고 가면 뒤쪽이 다 꽃히는 거지 뭐.}
- 10301 #농사꾸니 젤: 퍼나내. 도시짜람덜, 그저넨 저이 그 건파 매:구 보리마당 이러구.  
{농사꾼이 제일 편안해. 도시 사람들, 그전엔 저기 그 건파 매구 보리마당 이러구.}
- 10301 #이루 말: 모터지, 보리마당 하면 따미 비, 비오드터는데 그 깔꺼란 거, 이거 저러키니 땀 쏘게서  
보리 태지러구 그럴러면. 증:말 연:날, 연:날 하라버이들 고생 무척 험 거야.  
{이루 말 못하지. 보리마당 하면 땀이 비, 비오듯 하는데 그 깔꺼란 거, 이거 저렇게 땀 속에서  
보리 태질하고 그럴러면. 정말 옛날, 옛날 할아버지들 고생 무척 한 거야.}
- 10301 #데, 도시짜람드른 아치메 나가 출그내가지구 가서 돈:버느라구 무슨 나:미, 나미 회:사에 가서 나미  
눈치 보구.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 출근해 가지고 가서 돈 버느라구 무슨 남의, 남의 회사에  
가서 남의 눈치 보구.}
- 10301 #이건 뭐, 눈치 볼 건 무어 이서. 내 맘대루 자구시프면 자구 놀:구시프면 놀:구.  
{이건 뭐, 눈치 볼 것 뭐 있어. 내 맘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 10301 #이 농촌 사람드리 젤: 퍼나내.

{이 농촌 사람들이 젤 편안해.}

10301 #지금 봐. 도시사람들 지금 전부 출근해가지구 이, 전부 가서 인제 일:허구 인제 할 꺼라구.  
{지금 봐. 도시 사람들 지금 전부 출근해가지고 이, 전부 가서 인제 일하고 인제 할 거라고.}

10301 #여기 아래 인는 게이트볼 장에 가봐, 자네거튼 절믄 여자들 서서 이 게이트볼 친다구.  
{여기 아래 있는 게이트볼 장에 가봐, 자네 같은 젊은 여자들 서서 이 게이트볼 친다구.}

10301 #즘:스른 떠꾸캐다 노쿠선 줌:슴 끄러머꾸. 이:르케 퍼난해.  
{점심은 떡국해다 놓고선 점심 끓여 먹고. 이렇게 편안해.}

10301 @ 예저네는 그 무리 업:써서 힘드런는데.  
{예전에는 그 물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10301 #그럼. 아이 무리 마:느니께는.  
{그럼. 아이 물이 많으니까.}

10301 @ 이젠 물, 그럼 물 어트케 여기까지 다 끌구와요. 뭐 이케.  
{이젠 물, 그럼 물 어떻게 여기까지 다 끌고 와요? 뭐 이케.}

10301 #아이 수로가 이찌. (@ 수로로.) 어 그럼. 그 수로루 다.  
{아이 수로가 있지. (@ 수로로.) 어 그럼. 그 수로로 다.}

10301 #논:마다 수로, 저 가선, 요, 요러케 문짱만 열면 무리 광광. (@ 이제 그런 거 업켄네요? 그 뭐라고 하지. 아전인수?) 응?  
{논마다 수로, 저기 가서는, 이, 이렇게 문짝만 열면 물이 팔팔. (@ 이제 그런 거 없겠네요? 그 뭐라고 하지. 아전인수?) 응?}

10301 @ 나메 노네 물. (#아, 응.)  
{남의 눈에 물. (#아, 응.)}

10301 #아우, 물도독찌를 왜 그래 업찌. 그이 물도독찌른 아우 무리 평평 나리는데, 나미 노네 무를.  
{아우, 물도독질을 왜 그래 업찌. 그게 물도독질은 아우, 물이 평평 내리는데, 남의 눈에 물을.}

10301 #엔:나레는 이, 그, 저 운노네 물 이스면 바:페 나가서 슬그머이 터러서 허구 해:찌만.  
{옛날에는 이, 그, 저 웃눈에 물 있으면 밤에 나가서 슬그머니 틀어서 하고 했지만.}

10301 #지그른 무리 그냥 저러케 헤갈려 인네 뭐:.  
{지금은 물이 그냥 저렇게 흔한데 뭐(?)}

10301 @ 엔나레 건파:할 시절레는 무를 어터케 헤써요? 무를 그 그때두 그래두 무를 끌구 와야 되저?  
{옛날에 건파 할 시절에는 물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그, 그때도 그래두 물을 끌고 와야 되죠?}

10301 #끌:구 오긴 뭇 끌구 와. 무리 이서야 끄러오지. 하느레서 비 떠러져야지. (@ 그건만 기다리고.)  
그럼. 천수다비아 그거이.  
{끌고오긴 뭇 끌고 와. 물이 있어야 끌어오지. 하늘에서 비 떨어져야지. (@ 그것만 기다리고.)  
그럼. 천수답이야 그것이.}

10301 #하느레서 비 쥐야지 비, 어:서, 어디에 무슨 무리 이서서, 무를 끄러와. (@ 그럼 여기 저수지 생기고 수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늘만 봐써요?) 그러치, 거 하늘만 쳐다보구 인는 거지 떠.  
{하늘에서 비 쥐야지 비, 어서, 어디에 무슨 물이 있어서, 물을 끌어와, (@ 그럼 여기 저수지 생기고 수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늘만 봤어요?) 그렇지, 거 하늘만 쳐다보구 있는 거지 뭐.}

10301 @ 뭐 이러케 뭐, 이러케 뭐 펌프루 뭐 이러케 하구 그런 거 업써써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펌프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10301 #그, 그 그거뚜, 이: 글:러네.  
{그, 그, 그것도, 이 근년에.}

- 10301 #요 글:려네 와서 지하수라구, 그거뚜 좀 머리가 발팔되니께는 이 땅쓰그루 풀쿠서는 응 빠이프 디러 바가가지구 기계루다 뽀바 올리는 거지.  
{요 근년에 와서 지하수라고, 그것도 좀 머리가 발팔되니까 이 땅속을 뚫고서는 응, 파이프 들어 박아가지고 기계로 뽑아 올리는 거지.}
- 10301 #그거뚜 이: 글:려네 생긴 거야 이 글:려네.  
{그것도 이 근년에 생긴 거야 이 근년에.}
- 10301 @ 그 왜, 초벌 매구 두벌 매구 뭐 아이 매구 뭐 이런.  
{그 왜, 초벌 매구 두벌 매구 뭐 아이 매구 뭐 이런.}
- 10301 #애: 매구 두:벌 매구. 애:, 애:. 참: 매는 걸 애: 맨다구 허지. (@ 처으뎨 애: 맨다 그래요?)  
{애 매구 두벌 매구. 애, 애. 처음 매는 걸 애 맨다고 하지. (@ 처음엔 애 맨다 그래요?)}
- 10301 #애:불 맨다구 허는 거야.  
{애불 맨다구 하는 거야.}
- 10301 @ 왜, 왜 애: 맨다 그래요?  
{왜, 왜 애 맨다 그래요?}
- 10301 #참: 매는 걸 가주구 애:불 맨다 그래. (@ 애불 맨다.)  
{처음 매는 걸 가지고 애불 맨다 그래. (@ 애불 맨다.)}
- 10301 @ 그, 뭐가 달라요? 애불 매는 거랑, 두벌 매는 거랑.  
{그, 뭐가 달라요? 애불 매는 거랑, 두벌 매는 거랑.}
- 10301 #애:불 매는 덴 에유, 건, 벼 시머노쿠서 춤: 인제 매:니쨌 기미 다 요이 자질구레헌 건 마:니 나오지. 고거이 애:불 매는 거구.  
{애불 매는 덴 에유, 건, 벼 심어 놓고서 처음 인제 매니깐 김이 다 요이 자질구레헌 건 많이 나오지. 그것이 애불 매는 거고.}
- 10301 #두:부레는, 기:미 저 빠:져뎨 기미 자라올라오니깐 기:미 크지.  
{두벌에는, 김이 저다 빠졌던 김이 자라 올라오니깐 김이 크지.}
- 10301 @ 그래서 기미 다 업써질 때까지 애불 매고, (#그럼.) 두벌 매구, 세벌 매구.  
{그래서 김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애불 매고, (#그럼.) 두벌 매고, 세벌 매고.}
- 10301 #세, 세벌까지 맬 수 인는 시가니 업찌.  
{세, 세벌까지 맬 수 있는 시간이 업찌.}

## 2. 밭농사

- 10301 @ 그럼 여기는 싸:리 유명해서 노니 마는데, 그럼 바:슨 업써요?  
{그럼 여기는 쌀이 유명해서 논이 많은데, 그럼 밭은 업써요?}
- 10301 #여기 교동에는 반뽀뎨두 노니 마나.  
{여기 교동에는 밭보다도 논이 많아.}
- 10301 @ 김 바:슨 별루 업네요?  
{그럼 밭은 별로 업네요?}
- 10301 #아이 바뚜 이깁 이찌머는. (@ 여기 고구만 바:세다 할 켜 아니에요.) 그러찌. 고구마는 바테 심는 거지. 콩이나 고구마는 바테 심는 거.  
{아이 밭도 이깁 있지만. (@ 여기 고구마는 밭에다 할 켜 아니에요.) 그러찌. 고구마는 밭에 심는 거지. 콩이나 고구마는 밭에 심는 거.}
- 10301 @ 그러면, 고구마는 어터케 해요 바:세서?

- {그러면,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밭에서?}
- 10301 @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는 그 아네 수머이짜나요, 이러케 입싸귀 크게 나고. (#응응.) 그러며는 그거를 이러케 이랑: 고랑 마쳐가지구, 그거는, 그거뚜 이러케 기계 있.(#아이 아이야. 그건 소느루.) 그건 소느루 해요?
-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는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잎사귀 크게 나고. (#응응.)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랑 고랑 맞춰 가지고, 그거는, 그것도 이렇게 기계 안에 있, (#아이 아니야. 그건 손으로.)}
- 10301 #건, 밭, 이랑은 기계루다 맨들지. 반니랑은 기계루다 맨드는데 심:는 건 소느루다 심는 거야.  
{건, 밭, 이랑은 기계로 만들지. 밭이랑은 기계로 만드는데 심는 건 손으로 심는 거야.}
- 10301 @ 그러면, 요새는, 예전에는 밭농사가 더 쉬워쓸쓰두 인는데, 요새는 논농사가 훨씬 쉽겠네요. 요새는 기, 논농사는 기계루 다 할수 이쓰니.  
{그러면, 요새는, 예전에는 밭농사가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논농사가 훨씬 쉽겠네요. 요새는 기, 논농사는 기계로 다 할 수 있으니.}
- 10301 #그럼.  
{그럼.}
- 10301 @ 밭농사도 김 매요?  
{밭농사도 김 매요?}
- 10301 #어: 그럼 밭농사도 기, 김매, 바텐 김: 안 나나?  
{어 그럼 밭농사도 기, 김 매. 밭엔 김 안 나나?}
- 10301 @ 금 밭농사도 애크매고.  
{그럼 밭농사도 애크 매고.}
- 10301 #아 그, 그럼. (@ 두불까지두 매구.) 그, 근데 지그른 바테두 반니랑에다 전부 비닐을 씌어 빼려.  
{아 그, 그럼. (@ 두불까지도 매고.) 그, 그런데 지금은 밭에도 밭이랑에다 전부 비닐을 씌워 버려.}
- 10301 @ 그러면 기미 안나나. (#김.)  
{그러면 김이 안 나나. (#김.)}
- 10301 #비:니루 쩌네 비니루 어트게 기, 기:미 나오나. 몬나오지.  
{비닐을 씌워 났는데 비닐로 어떻게 기, 김이 나오나. 못 나오지.}
- 10301 @ 그른, 왜 바세 이케 콩 심꼬 고구마 심꼬 하면:, 그니까 노네서 벼는, 일러늘 가을까지 죽: 애가 자라야 하니까 모타는데, 이제 고구마나 콩 가튼 거는 서리해오고 그러자나요.  
{그러면, 왜 밭에 이렇게 콩 심고 고구마 심고 하면, 그러니까 논에서 벼는, 일년을 가을까지 죽 애가 자라야 하니까 못 하는데, 이제 고구마나 콩 같은 거는 서리해오고 그러잖아요.}
- 10301 #나미꺼?  
{남의 꺼?}
- 10301 @ 응. 아니면 자기집 거뚜 도중에 이르케, 아버지 몰래 이러케 서리 해오, 아니.  
{응. 아니면 자기집 것도 도중에 이렇게, 아버지 몰래 이렇게 서리 해오, 아니.}
- 10301 #제 꺼야 뭐러이허든 거 서리래는 건 도둑찌런데.  
{제 꺼야 뭘 어이 하든. 거 서리라는 건 도둑질인데.}
- 10301 @ 서리, 서리.  
{서리, 서리.}
- 10301 #서, 서리랜 남 모, 몰:래 가서 개:오는 거 서리라 험다 마랏. (@ 그럼 자기,) 쪼끔 말: 덜끼 조으라구

- 도둑지리라고 허잔쿠 서리한다 그르지.  
 {서, 서리란 남 모, 몰래 가서 가져오는 걸 서리라고 한단 말야. (@ 그럼 자기,) 조금 말 듣기  
 좋으라고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서리한다고 그러지.}
- 10301 @ 아 그러구나. 그럼 교동에선 서리 별루 아내, 아나서썩어?  
 {아 그렇구나. 그럼 교동에선 서리 별로 안 해, 안 하셨어요?}
- 10301 #그저네는 고:구마나 그런 거뚜 서리두 야간 이찌머는, 그저넌 여기다 채:밀 마니 놔서.  
 {그전에는 고구마나 그런 것도 서리도 약간 있지만, 그전엔 여기다 참외를 많이 놔어.}
- 10301 @ 채미.  
 {참외.}
- 10301 #어어. 기니젠, 건파만 부치니께는 노니 전부 무거.  
 {어어. 그러니까, 건파만 붙이니까 논이 전부 묵어.}
- 10301 #무곤젠 물 잘 빠:지는 덴 이 하느레서 비가 와두 무리 잘 빠져야 바슬 허지.  
 {묵으니까 덴 물 잘 빠진 데는 이 하늘에서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져야 받을 하지.}
- 10301 #기니, 그런데는 이 콩두 심구, 채밀 마니 심지.  
 {그러니, 그런 데는 이 콩도 심고, 참외를 많이 심지.}
- 10301 #에, 채미 시든 원두막기 수:읍씨 거 지킨다구 마글 지어노쿠는.  
 {에, 참외 심은 원두막이 수없이 거 지킨다고 막을 지어 놓구는.}
- 10301 #그런 덴 채:미 서리라고 해 그건. 절문 사람들 피야안자서 야 우리 채미서리 가자 마랴.  
 {그런 덴 참외 서리라고 해 그건. 젊은 사람들 모여 앉아서 야 우리 참외서리 가자 말야.}
- 10301 #그 나미 바테 드러가선 따다 멍는 거. 그걸 그걸 보고 서리라 구래는 거야.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선 따다 먹는 거. 그걸, 그걸 보고 서리라고 하는 거야.}
- 10301 @ 그 왜, 어제, 어젠지 어썩젠지 말씀하실 때, 왜 무슨 방아는 살만하게? 보리방아는 힘들지 뭐  
 그러셔짜나요. (#응.) 그게 방아사 보리방아랑 또 모:가 이썩요? 방아가.  
 {그 왜, 어제, 어젠지 엇그젠지 말씀 하실 때, 왜 무슨 방아는 살만하게? 보리방아는 힘들지  
 뭐 그러셨잖아요. (#응.) 그게 방아가 보리방아랑 또 뭐가 있어요? 방아가.}
- 10301 #보리, 보리방안가? 보리방아뿌니가? 벼두 방아 썩야지.  
 {보리, 보리방아인가? 보리마방뿐인가? 벼도 방아 썩어야지.}
- 10301 @ 그 방아두 종류가 여러가지가 이짜나요.  
 {그 방아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 10301 #베, 벼방아, 벼, 이: 글:려네, 이, 그거뚜 이: 글:려네 생긴 거야. 이제 밭똥기라고.  
 {벼, 벼방아, 벼, 이 근년에, 이, 그것도 이 근년에 생긴 거야. 이제 밭똥기라고.}
- 10301 #기계가 도라가문서 해서 씨를 이러케 뽀바내 맨드러내는데 그저네는 그거이 아냐.  
 {기계가 돌아가면서 해서 쌀을 이렇게 뽀아내 만들어내는데 그전에는 그것이 아냐.}
- 10301 #쌀:두, 이 벼두, 탈고캐서 인제 이 벼알을 거뒀노면 그걸 절, 절구에다 썩어야 대 씨를.  
 {쌀도, 이 벼도, 탈곡해서 이제 이 벼알을 거뒀노면 그걸 절, 절구에다 썩어야 돼 쌀을.}
- 10301 @ 그럼, 밀:방아 보리방아 뭐 이르케 (#그러치.) 인는 거죠. 그게 좀 다르죠? 어뜨게 달라요 하는  
 거?  
 {그럼, 밀방아 보리방아 뭐 이렇게 (#그러치.)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하는  
 거?}
- 10301 #아이 썩:는 건 다 마찬가지로지.  
 {아이 썩는 건 다 마찬가지로지.}

- 10301 @ 모양두 또까꾸요?  
{모양도 똑같고요?}
- 10301 #그르치, 그 절구에 너:쿠서 그, 도, 돌:구에다 찢:는 거지 머.  
{그렇지, 그 절구에 넣고서 그, 도, 돌:구에다 찢는 거지 뭐.}
- 10301 @ 그럼 밀방아랑 보리방아랑 또까튼 거예요 그럼? (#어, 어, 그러치.)  
{그럼 밀방아랑 보리방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 어, 그렇지.)}
- 10301 @ 그러면, 그런 건 다른 거자나요. 그냥 뭐 디딜방아, (#아, 디디.) 물레방아, 연:자방아 이런 거 다르게 생긴 거죠 다.  
{그러면, 그런 건 다른 거잖아요. 그냥 뭐 디딜방아, (#아, 디디.) 물레방아, 연:자방아 이런 건 다르게 생긴 거죠 다.}
- 10301 #디딜방아는 발루다 이려는 거이 디딜방아.  
{디딜방아는 발로 이려는 것이 디딜방아.}
- 10301 #물:레방아는 저이 무:자위 모양 무리 도라가서 이 쿵:덕쿵:덕 허는 게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저기 무자위 모양으로 물이 돌아가서 이 쿵덕쿵덕 하는 게 물레방아.}
- 10301 #앤데 여긴 그런 거이 읍:, 연:자방안 이서서.  
{그런데 여긴 그런 것이 없, 연:자방아는 있었어.}
- 10301 @ 연:자방안 머예요?  
{연:자방아는 뭐예요?}
- 10301 #연:자방아, 어, 연:자방아는 미테 그이 매편리야 매편 그거이. 매편고 아냐?  
{연:자방아, 어, 연:자방아는 밑에 그것이 매편리야 매편 그거이. 매편고 아냐?}
- 10301 @ 예, 이르케 이르:케. (#이, 이거 가는 거.) 응.  
{예,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거 가는 거.) 응.}
- 10301 #매편리야 그런, 매편리 크:지 이 미테가 커:  
{매편리야 그런, 매편리 크지. 이 밑에가 커.}
- 10301 #크군, 우이가 똥:그런 도, 동:매야 그건. 동:매가 이서가지구 여기 가운데 기둥을 사:구, 여기인제 이 동매 구녀글 뿌러가지구, 구, 그러키니 연결을 시켜야 된다마라.  
{크고, 위가 동그런 도, 돌맹이야 그건. 돌맹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여기 인제 이 돌맹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야.}
- 10301 #연결시켜노쿠 옆사람이 막대기를 매:노곤 소, 소를 이제 이 막대기다 미:구서는 소를 모라.  
{연결시켜 놓고 옆사람이 막대기를 매 놓고 소, 소를 이제 이 막대기애다 매구서는 소를 몰아.}
- 10301 #소: 몰:머는 이거이 이르구, 한 쪼근 조꾸 한쪼근 이르, 널:브니켄 이르이 빙빙 돌꺼 아냐.  
{소 몰면 이게 이렇고, 한 쪽은 좁구 한쪽은 이르, 넓으니까 이렇게 빙빙 돌 거 아냐.}
- 10301 #이르케, 이르이 빙빙빙빙 도는 거야. 그거이, 연:자방아야.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거야. 그것이, 연:자방아야.}
- 10301 @ 연:자방아가 제일 퍼나겐네요, 사람 힘이.  
{연:자방아가 제일 편하겠네요, 사람 힘이.}
- 10301 #그르치, 그이 연:자방아 인제 그냥 이, 이르카면 이 빠져나오거든? 기니켄 인제 거, 거무래 가지구 이래 디려, 디려 미러만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연:자방아 인제 그냥 이, 이렇게 하면 이 빠져나오거든? 그러니까 인제 고, 고무래 가지구 이렇게 들어, 들어 밀어만 주면 되는 거지.}

### 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 10301 @ 그러면, 곡씨글 이케 타:자글 하자나요. 타작하구나서 이케 갈무리를, 이르게 벼를, 걸 어트게 이르게 해요?  
{그러면,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하고 나서 이렇게 갈무리를, 이렇게 벼를,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요?}
- 10301 @ 엔나레는 그걸 일리리 이르게 어트게 싸아씨요? 요새는 기계로 싸아주죠?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어떻게 쌓았어요? 요새는 기계로 쌓아주죠?}
- 10301 #싸아?  
{쌓아?}
- 10301 @ 기, 벼: 일케 다 추수하구 나서 나쁜 걸, (#집?: 집.) 엔나레는 일리리 손으루 이르게 무껴씨요?  
{기, 벼 이렇게 다 추수하고 나서 남은 걸, (#짚? 짚.)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 10301 #묵꺼찌, 소노로 무껴찌 퍼.  
{묶었지, 손으로 묶었지 뭐.}
- 10301 @ 일리리 이르게 다 주서서 하시고. (#아이, 그럼.) 요새는 어트게, 요새는 기계루 그냥 다 해주저?  
{일일이 이렇게 다 주워서 하시고 (#아이, 그럼.) 요새는 어떻게, 요새는 기계로 그냥 다 해주죠?}
- 10301 #아이 지그른 무꾸 자시구 할 께이 읍:씨.  
{아이 지금은 묶고 자시고 할 게 없어.}
- 10301 #저 벼 이르게 자라면 콤바이 가따 드리대면 콤바이가 이러이 쪽: 지나가면 여기서 이, 비:자나?  
{저 벼 이렇게 자라면 콤바인 갖다 들이대면 콤바인이 이렇게 쪽 지나가면 여기서 이, 베잖아?}
- 10301 #비:먼 이노미 이러이 올라가서 탈고글 해 기계에서.  
{베면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서 탈곡을 해 기계에서.}
- 10301 #여기서 탈곡허면 여기서 또 불려. 기계에서. 근, 비:면서 이제 탈고캐서 불리머는 요이, 알:매이만 올루 쪽: 빠져나와.  
{여기서 탈곡하면 여기서 또 불려. 기계에서. 근, 베면서 이제 탈곡해서 불리면 요, 알맹이만 이리로 쪽 빠져나와.}
- 10301 #알매이만 쪽 빠져나오면 알매미, 거이 큰: 잘래기에다 다마서 건조기루 바로 시 싸:간다 마랴.  
{알맹이만 쪽 빠져나오면 알맹이, 그걸 큰 자루에다 담아서 건조기로 바로 쌓아간단 말야.}
- 10301 #건조기에 가면 건조기서 딱: 마려서 그냥 싸아놔두지 뭐.  
{건조기에 가면 건조기서 딱 말려서 그냥 쌓아놔 두지 뭐.}
- 10301 #기면 가서 저거 우리 거기 좀 도정해, 찌어.  
{그러면 가서 저거 우리 거기 좀 도정해, 찌어.}
- 10301 #허면, 싸, 쌀:루 나오는 거지. 아이 서서 소꾸락쩨만 하몬 돼. 그럼.  
{하면 싸, 쌀로 나오는 거지. 아이 서서 손가락질만 하면 돼. 그럼.}
- 10301 @ 그러머는 엔나레는 겨우레 머글 읍:씨글 따루 저장애놔짜나요 (#그럼.) 요새는 그냥 뭐 다 비닐하우스에서 겨울려름 뭐 할 께 업씨 나오는데. (#응.)  
{그러면 옛날에는 겨울에 먹을 음식을 따로 저장해 놔잖아요. (#그럼.) 요새는 그냥 뭐 다 비닐하우스에서 겨울 여름 뭐 할 거 없이 나오는데. (#응.)}
- 10301 @ 그러머는 여기두 이르게 뭐 파:서 어디다 녀:노쿠 그래씨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뭐 파서 어디다 넣어 놓고 그랬어요?}
- 10301 #아아. (@ 땅 파서.) 땅 파:서 뭐 곡씨글 땅파서 무찔 안쿠.  
{아아. (@ 땅 파서.) 땅 파서 뭐 곡식을 땅 파서 묻진 않고.}

- 10301 #겨우레 머글꺼 인제 쌀: 거튼 건 인제 지, 뭐 글썤 쌀: 마:니두 머 하나니께 이거 찌, 찌어서 멍는 거니겐 조금씩 찌:면 도기짜나, 독.  
{겨우레에 먹을 거 인제 쌀 같은 건 인제 지, 뭐 글썤 쌀 많이도 뭐 안 하니까 이거 찌, 찌어서 멍는 거니까 조금씩 찌으면 독 있잖아, 독.}
- 10301 #도게 너:노, 너:노쿠 멍는 거지 뭐.  
{독에 넣어, 넣어 놓고 멍는 거지 뭐.}
- 10301 @ 그러면, 여기 전:기 드러온지 한 이삼:년?  
{그러면, 여기 전기 들어온 지 한 이십 년?}
- 10301 #이:십년 좀 너머슬겜 아마?  
{이십 년 좀 넘었을 걸 아마?}
- 10301 @ 그정도바께 안돼따고 하선는데, 그럼 그전까지는 무슨 불로 다.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전까지는 무슨 불로 다.}
- 10301 #등잔빨.  
{등잔불.}
- 10301 @ 등잔빨. 등잔빨도 종류 여러개 인는 거 아네요? 뭐 호롱빨.  
{등잔불. 등잔불도 종류 여러 개 있는 거 아네요? 뭐 호롱불.}
- 10301 #드, 등잔뿌리라곤, 요 막때, 막때기가 요러:케 이, 인는데 요, 요기다 인제 종발거튼 거. 그거이 등자니아.  
{드, 등잔불이라곤, 요 막대, 막대기가 이렇게 이, 있는데 여기다 인제 접시같은 거. 그것이 등잔이 야.}
- 10301 #드, 등자네 기름 너쿠 심:지해서 키구.  
{드, 등잔에 기름 넣고 심지해서 켜고.}
- 10301 #그: 이:저네는 이제, 서규거튼 거 읍:슬 때는 찌 무슨 기름. 이 시규 기름 무슨 기름 이 기름거튼 거 요러케 요러케 조 종바레다 요러케 다마, 담:꾸선 새:발심지라구 자근 거 마라서 요러:케 빠져노곤, 그러면 요 요이 기르메 대:서 여가 부리 분는다 그래.  
{그 이전에는 이제, 석유같은 게 없을 때는 저 무슨 기름, 이 식유 기름 무슨 기름 이 기름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저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 담고선 새발심지라고 작은 거 말아서 이렇게 뺏쳐놓고, 그러면 요 요기 기름에 대서 여기가 불이 붙는다 그래.}
- 10301 #꼬져, 고저시 새:발심지라구 허는 거지.  
{그거, 그것이 새발심지라고 하는 거지.}
- 10301 #게 그러케 해서 불키, 불키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해서 불키, 불 켜는 거지.}
- 10301 @ 뭐 그, 그거 말고 초빨 양초 이런 거뚜.  
{뭐 그, 그거 말고 촛불 양초 이런 것도.}
- 10301 #아유 초뿌른 이 글:려네 생, 증가네 생긴 거지 초뿌리 어디가 인나 초뿌리.  
{아유 촛불은 이 근년에 생, 중간에 생긴 거지 촛불이 어디가 있나 촛불이.}
- 10301 @ 그러머는 전기 드러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전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 10301 #초뿌리, 초빨두 이뜨래찌만 초빨두 비싸니깐 모, 모:싸서.  
{촛불이, 촛불도 있더랬지만 촛불도 비싸니깐 모, 못 샀어.}
- 10301 #그냥 든, 등잔뿌레 그 어:둔 등잔뿌레서 그냥 여자드른 양:말 기:꾸.

{그냥 등, 등잔불에 그 어두운 등잔불에서 그냥 여자들은 양말 킵구.}  
 10301 #양:마리 새 양마리 어디가 이서. 뿌러지면 기:꾸. 버서니지 버선.  
 {양말이 새 양말이 어디가 있어. 뚫어지면 킵고. 버선이지 버선.}

#### 4. 소 먹이기와 일손

10301 @ 요새, 소: 날리자나요. 구제역. 소 무슨.  
 {요새 소 난리잖아요. 구제역. 소 무슨.}  
 10301 #구제역?  
 {구제역?}  
 10301 @ 예. 소: 날린데, 엔:나레는 여기, 교동에서두 소 길러쪄? 지금두 기르저?  
 {예. 소 난리인데, 옛날에는 여기, 교동에서도 소 길렀쪄? 지금도 기르쪄?}  
 10301 #아유 소, 소:가 재산인데. 소가 이서야 노:늘 같지.  
 {아유 소, 소가 재산인데. 소가 있어야 논을 같지.}  
 10301 @ 그저그저. (#그럼.) 그러머는, 여기두 이제 뭐 마구간, 어터게 다들 공동으루.  
 {그쪄그쪄. (#그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 마구간, 어떻게 다들 공동으루.}  
 10301 #아: 이, 공동이 아니라, 한 마리, 저 한 마리 가주구 두: 지비서 열러 메기기두 허구 세: 지비 열러서  
 메기기두 허구.  
 {아이, 공동이 아니라, 한 마리, 저 한 마리 가지고 두 집에서 열러서 먹이기도 하고 세 집이  
 함께 먹이기도 하고.}  
 10301 #젠, 그 집집마다 그 지베 저 바카테 우, 우앵까나라구 이서. 그걸 보구 우앵까나라구 한다구.  
 {그, 그 집집마다 그 집에 저 바깥에 우, 외양간이라고 있어. 그걸 보고 외양간이라구 한다고.}  
 10301 #쇠 우 짜. 우앵까나라구 이서. 이제, 겨우렌 드려 매구 여르멘 한:데 매구 허는 거지.  
 {소 우 자. 외양간이라고 있어. 이제, 겨울엔 들어 매고 여름엔 한:데 매고 하는 거지.}  
 10301 #집집마다 소 몬매겨. 어이그 그거 뭐 부:자게.  
 {집집마다 소 못 먹여. 어이그 그거 뭐 부:자게.}  
 10301 @ 그러면 그 뭐지. 뭐 여물죽?  
 {그러면 그 뭐지. 뭐 여물죽?}  
 10301 #여물죽.  
 {여물죽.}  
 10301 @ 여물죽 그건 뭐, 뭐메기는 거예요? 버지비랑. (#집, 집, 지브.)  
 {여물죽 그건 뭐, 뭐 먹이는 거예요? 버짚이랑. (#짚, 짚, 짚)}  
 10301 #벼찌비아 벼짚.  
 {벼짚이야 벼짚.}  
 10301 @ 벼짚만 메기는 거예요 뭐 뜨거운 물 부어 주구?  
 {벼짚만 먹이는 거예요 뭐 뜨거운 물 부어 주고?}  
 10301 #벼찌블, 영:을 쓰러가지구 큰 가마솥, 가마소테다 가따 너쿠션 부를 때, 이켜. 그래섬 주는 거지.  
 {벼짚을, 이영을 쓸어가지고 큰 가마솥, 가마솥에다 갖다 넣고선 불을 때. 익혀. 그래서 주는  
 거지.}  
 10301 @ 왜 그냥 주면 안돼요?  
 {왜 그냥 주면 안돼요?}  
 10301 #그저넌 그러케 안췌서. 지그른 마:느니께 그냥 생집 가따주구 허지 그저넌 꼭, 게 쇠죽순다 그지.

- {그전엔 그렇게 안 줘서. 지금은 많으니까 그냥 생짱 갖다주구 하지 그전엔 꼭, 그 쇠죽 쏜다고 그러지.}
- 10301 @ 아. 그계 소 잘머그라구 그런 거뚜 이찌만 양이 마:나지는군요. 그죠.  
{아. 그계 소 잘 먹으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양이 많아지는군요. 그죠.}
- 10301 #쇠죽쏜다는 거야.  
{쇠죽 쏜다는 거야.}
- 10301 @ 아. 그러면, 혹시, 그러면 그 각 집마다 다 소가 업따고 하셔짜나요. (#응.)  
{아. 그러면, 혹시, 그러면 각 집마다 다 소가 없다고 하셔잖아요. (#응.)}
- 10301 @ 배넛쏘라고 해서, 이르케 나메집 소 이르케 대신 길러주구.  
{배넛쏘라고 해서, 이렇게 남의 집 소 이르케 대신 길러주고.}
- 10301 #어어 반, 반:재기. (@ 반재기.) 그 그이 반:재기라 그래.  
{어어 반, 반재기. (@ 반재기.) 그, 그것을 반재기라고 해.}
- 10301 #그 가주, 가따가, 송아지 가따 길러노쿠 큰소되면 마:는 내꺼되구 마:는 주인네 꺼이, 그이 반:재기라 구래.  
{그 가주, 가지고, 송아지 가져다 길러놓고 큰 소 되면 반은 내꺼 되고 반은 주인네 것, 그것을 반재기라고 해.}
- 10301 @ 반재기. 그러며는 그계 크면 절반 절반 이리기루 조건 하고 기르는 거네요?  
{반재기. 그러면 그계 크면 절반 절반 이리기로 조건 하고 기르는 거네요?}
- 10301 #그러치.  
{그렇지.}
- 10301 @ 그러며는, 소 길드릴 때 왜, 이케.  
{그러면, 소 길들일 때 왜, 이렇게.}
- 10301 #코, 코뿔른다 그러지. 굽뜰. 그거 굽뜨리야 굽뜨리. 이 코 막대기에다 끼야, 굽뜨리.  
{코, 코 뿔는다 그러지, 굽뜰, 그거 코뚜레야 코뚜레. 이 코 막대기에다 끼워, 코뚜레.}
- 10301 @ 그르구 거기에 이르케 다라서 고비, (#고삐.) 고삐. 해가지구 이르케 그러면 뭐 이르케 이라이라 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달아서 고비, (#고삐.) 고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이라이라 뭐.}
- 10301 #고, 고. 뭐야 고삐 축축 찬다 그자나.  
{고, 고. 뭐야 고삐 축축 찬다 그러잖아.}
- 10301 @ 그까, 그르면 고삐를 축축 채면서 소를 부리자나요 인제. (#응, 응.) 연자방아가튼 거 할 경우에. 일루 도라라 해야되고. 그럼 뭐 오른쪄그로 도라라 할 때는 뭐.  
{그러니까, 그러면 고삐를 축축 채면서 소를 부리잖아요 인제. (#응,응.) 연자방아 같은 거 할 경우에. 이리로 돌아야 해야 되고. 그럼 뭐 오른쪽으로 돌아라 할 때는 뭐.}
- 10301 #오려, 마:려. 오른쪄기면 오려오려.  
{오려, 마려. 오른쪄기면 오려오려.}
- 10301 @ 오려오려 하고. 왼쪄그로 하면.  
{오려오려 하고. 왼쪽으로 하면.}
- 10301 #마려마려.  
{마려마려.}
- 10301 @ 마려마려 하고. 아프로 가라는.

{마려마려 하고. 앞으로 가라는.}

10301 #근 이려.  
{그건 이려.}

10301 @ 이려. 머, 멈추는 게 이려,  
{이려. 머, 멈추는 게 이려.}

10301 #워:  
{워.}

10301 @ 멈추는 건 워. (#그럼.) 이려이려하는 게 가는 거고 (#가는 거고.) 멈추는 거 워. 하고. (#응 그럼.)  
{멈추는 건 워. (#그럼.) 이려이려 하는 게 가는 거고 (#가는 거고.) 멈추는 거 워 하고. (#응 그럼.)}

10301 @ 개가 다 아라드러요 소가?  
{개가 다 알아들어요 소가?}

10301 #어 다 아지.  
{어 다 알지.}

10301 #다: 아라. 워: 하면 딱 스구.  
{다 알아. 워 하면 딱 서고.}

10301 @ 이견 이케 고삐를 해서 애가 아는 게 아니라 말.  
{이견 이케 고삐를 해서 애가 아는 게 아니라 말.}

10301 #그러치 이랴! 하면 가지.  
{그렇지. 이랴! 하면 가지.}

10301 @ 아, 그러쿠나. 소두 근데 종류가 만:차나요.  
{아, 그렇구나. 소도 근데 종류가 많잖아요.}

10301 #응.  
{응.}

10301 @ 여기에 인는 소드른 다: 무슨 소예요? 그냥 아, 저기 황소? 얼룩소, 뭐 황소.  
{여기에 있는 소들은 다 무슨 소예요? 그냥 아, 저기 황소? 얼룩소, 뭐 황소.}

10301 #얼:루근 저 털이 그 얼룩얼룩한 것을 얼룩소라고 하고 누러면 황소구. 암소, 수소.  
{얼룩은 저 털이 얼룩얼룩한 것을 얼룩소라고 하고 누러면 황소고. 암소, 수소.}

10301 @ 보통 여긴 다.  
{보통 여긴 다.}

10301 #누렁, 누렁, 누렁, 누렁이야 누렁.  
{누렁, 누렁, 누렁, 누렁이야 누렁.}

10301 @ 그러믄, 소두 이르케 뿌리 이쨌요? (#응.) 그럼 소 뿔 모양에 따라서.  
{그러면, 소도 이렇게 뿔이 있어요? (#응.) 그럼 소 뿔 모양에 따라서.}

10301 #으응. 이려:케 나온 삼태뿔. 이려:케 나오면 그냥 끝, 그냥 그건 뿌리구.  
{으응. 이렇게 나오면 삼태기 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 그냥 그건 뿔이고.}

10301 @ 응. 삼태뿌리 조아요?  
{응. 삼태뿔이 조아요?}

10301 #아이 조:나 마나. 이거 뭐 뿔, 뿔 달린 거니젠 뭐. 삼태뿌리라 그래서 특수하게 무슨 역할 허는 건 아니니께는.  
{아이 좋으나 마나. 이거 뭐 뿔, 뿔 달린 거니깐 뭐. 삼태뿔이라 그래서 특수하게 무슨 역할

하는 건 아니니까.)

10301 @ 그럼 소두 나이:를 뭐 이러케 세:는 게 이썬요? 우리는 한살 두살. (#이썬)  
 {그럼 소두 나이를 뭐 이렇게 세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살 두살.}

10301 #건 소는 이빨 보고 아라. (@ 이빨 보고.) 이블, 이 아가리를 들추지. 그 운니빨 보구선, 아라.  
 {그건 소는 이빨 보고 알아. (@ 이빨 보고.) 입을, 이 아가리를 들추지. 그 웃이빨 보고선, 알아.}

10301 @ 그럼 뭐, 마:르면 나이가 점점,  
 {그럼 뭐, 많으면 나이가 점점.}

10301 #아:이, 마:는 게 아니라 이빨리 크구 자근 거.  
 {아이, 많은 게 아니라 이빨이 크고 작은 거.}

10301 @ 아아. 그러면, 개두 뭐. 나이:를, 이케, 하릅, 두릅 이런.  
 {아아. 그러면, 개도 뭐. 나이를, 이케, 하릅, 두릅 이런.}

10301 #음 사릅쏘. 세:사리면 사르비아.  
 {음 사릅소. 세 살이면 사릅이야.}

10301 @ 세 사리면 차릅, 사릅.  
 {세 살이면 차릅, 사릅.}

10301 #나릅.  
 {나릅.}

10301 @ 나릅.  
 {나릅.}

10301 #네: 사른 나릅.  
 {네 살은 나릅.}

10301 @ 네 살 나릅.  
 {네 살 나릅.}

10301 @ 그러면 조:은 소는 이르케 봐썬 때 뭐 이:가 튼트나고 뭐 이런 조꺼니 이썬요?  
 {그러면 좋은 소는 이렇게 봤을 때 뭐 이가 튼트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10301 #물론 이, 이가 잘생긴 소도 이꾸 모썬긴 소두 이썬. 이에, 이에두 달려썬.  
 {물론 이, 이가 잘생긴 소도 있고 못생긴 소도 있지. 이에, 이에도 달려썬.}

10301 @ 근데 조:은, 왜 우시장 가면, 조:은 소 골라서 사와야 되자나요. 그러면 뵤: 보고 이케 뭐.  
 {그러는데 좋은, 왜 우시장 가면 좋은 소 골라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뵤 보고 이렇게 뭐.}

10301 #으, 으 응:땡이가 편퍼내야 새낄 잘란데. (@ 아.) 난 소장사 안해니께 그건 몰루지.  
 {으, 어, 엉땡이가 편편해야 새낄 잘 낳는데.(@ 아.) 난 소장사 안하니까 그건 모르지.}

10301 @ 아 그러쿠나. 그러머는, 그, 교동에두 머:스미 이썬썬요 계속?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교동에도 머슴이 있었어요 계속?}

10301 #머슴 이썬.  
 {머슴 있지.}

10301 @ 머슴. 그러면.  
 {머슴. 그러면.}

10301 #움:는 사라미 머슴 사는 거지.  
 {없는 사람이 머슴 사는 거지.}

10301 @ 이러케 나메 지베 드리가서 옆, 겨빵에서 살구.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옆, 곁방에서 살고.}

- 10301 #사랑방에서.  
{사랑방에서.}
- 10301 @ 그러며는 그 머슴드른 어트게 쥐요 푸물?  
{그러면 그 머슴들은 어떻게 쥐요 품을?}
- 10301 #베루 주, 베루두 주고 허지. 벼, 나락.  
{벼로 주, 벼로도 주고 하지. 벼, 나락.}
- 10301 @ 매일 쥐요, 아니면?  
{매일 쥐요, 아니면?}
- 10301 #아유, 일련삭.  
{아유, 일 년 샅.}
- 10301 #일:려네 인제 일:려네 열:까만 열:까마 인제, 일:구까만 일구까마 인제 지정을 허구서는 허는 거지.  
{일 년에 인제 일 년에 열 가마면 열 가마 인제, 일곱가마는 일곱 가마 인제 지정을 하고서는 하는 거지.}
- 10301 @ 그며는, 그 뭐 새해에 시자카자마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새해에 시작하자마자 주는 거예요?}
- 10301 #아니 일 끝나야 주지.  
{아:니 일 끝나야 주지.}
- 10301 @ 끝내야, 그럼 마:레?  
{끝내야, 그럼 말에?}
- 10301 #그럼.  
{그럼.}
- 10301 @ 아아. 그러면 여기두 푸마시랑 한대짜나요.  
{아아. 그러면 여기도 품앗이랑 한땀잡아요.}
- 10301 #푸마시 자래, 마:니해찌.  
{품앗이 잘해, 많이 했지.}
- 10301 @ 그러며는 그거 어터케요 오늘 뭐 어느네 지비다 하고, (#응 그러치 요 오늘 가,) 순서가 이르케 정해져 이씨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오늘 뭐 어느 네 집이다 하고, (#응 그렇지 요 오늘 가,)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10301 #그러치 그거이 인제.  
{그러치 그것이 인제.}
- 10301 #내 개:별루 인제 사는 거슨 인제 도:늘 주고 인제 좀 해:달라 해:달라니께 이건 맘:대루지만 고 푸:마시 허는 사람드러군 열:씨기문 열:씩 다서씨기면 다서씩 메서 의노늘 허지.  
{내 개별로 인제 사는 것은 인제 돈을 주고 인제 좀 해달라 해달라니까 이건 맘대로지만 고 품앗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이 모여서 의논을 하지.}
- 10301 #거 누집네가 먼저하고 누집네, 순번저그루 차례차례.  
{거 누구네가 먼저 하고 누구네, 순번적으로 차례차례.}

## 1.4. 의생활

### 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 10301 @ 그러면 여기서 오:슬, 여기서도 이제 어먼님드리 베틀로 온: 지어썬요?  
{그러면 여기서 옷을,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베틀로 옷 지었어요?}
- 10301 #어우 그럼.  
{어우 그럼.}
- 10401 @ 그럼 여기서 모:좌랑 이런 거뚜 다 길러썬요? (#모좌두. 그러치, 시머까찌 시머까찌.) 아 모좌를 여기서, 여기서도 모좌를. (#영 시머찌 그럼.) 그럼 모좌가튼 거는 어먼님드리 재배하세요?  
{그럼 여기서 목화랑 이런 것도 다 길렀어요? (#목화도. 그렇지, 심었겠지 심었겠지.) 아 목화를 여기서, 여기서도 목화를. (#영 심었지 그럼.) 그럼 목화같은 거는 어머님들이 재배하세요?}
- 10401 #아이 거 재:배어는 거는 뭐 남자허구 여자허구 구벼리 인나 뭐? 싱꾸 따구 허는 거야?  
{아이 거 재배하는 거는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별이 있나 뭐? 심고 따고 하는 거야?}
- 10401 @ 그럼 모좌는 언:제 시머요?  
{그럼 목화는 언제 심어요?}
- 10401 #보메 심찌.  
{봄에 심지.}
- 10401 @ 모좌도 보메 심꼬 (#그럼.) 개 언제 거더요?  
{목화도 봄에 심고. (#그럼.) 개 언제 거뒤요?}
- 10401 #그이, 치뤄레.  
{그거, 칠월에.}
- 10401 @ 아 갠 좀 빨리 걷네요?  
{아 개는 좀 빨리 걷네요?}
- 10401 #응.  
{응.}
- 10401 @ 그러면 개는 이케, 어뜨케, 벼는 이르케 기계로 이르케 요샌 하는데, 요새는 모카 아나저?  
{그러면 개는 이렇게, 어떻게, 벼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요샌 하는데, 요새는 목화 안하죠.}
- 10401 #아내.  
{안해.}
- 10401 @ 요샌 안하고, 예저네는 그럼 그거 어뜨케 따:썬요?  
{요샌 안하고, 예전에는 그럼 그거 어떻게 땀어요?}
- 10401 #거 소느루다 따는 거지. (@ 소느루 다 일이리 하나씩 하나씩.) 그럼.  
{거 손으로다 따는 거지. (@ 손으로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 10401 #모카, 모카 송아리가 요로:케 똥:그라케 인게, 나:중에 이케 여, 저기 여물, 다: 되머는 요이 아 아가리가 딱: 버그러져. 빠그러지면 소:미 요러케 빼조:커게 나와.  
{목화, 목화 송아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중에 이케 여, 저기 여물, 다 되머는 이 아, 아가리가 딱 버그러져. 빠그러지면 숨이 요렇게 빼죽하게 나와.}
- 10401 #그거 소:물 좀, 숨:만 요러 빼:는 거지.  
{그거 숨을 좀, 숨만 요렇게 빼는 거지.}
- 10401 @ 빼요? (#응.) 그럼 소미 이리케 썬 빠져요? (#그럼.)  
{빼요? (#응.) 그럼 숨이 이렇게 썬 빠져요? (#그럼.)}

- 10401 @ 그러면, 모과로 해서는 이제 면: 만들고.  
{그러면, 목화로 해서는 이제 면 만들고.}
- 10401 #그거 모, 모과는 인제 씨를 빼:거든. (@ 예 실 빼서 실루 이러케.)  
{그거 모, 목화는 인제 씨를 빼거든.}
- 10401 #씨 빼:가지구 물레, 물레다 해:가지구 씨를 빼:는 거지.  
{씨 빼가지고 물레, 물레로 해서 씨를 빼는 거지.}
- 10401 @ 그러며는, 여기, 삼베가 대마라구 하셔짜나요. 대마두 여기서 길러쨌네요? (#그러치.) 그럼 대마는 언제 시머요?  
{그러면 여기, 삼베가 대마라고 하셨잖아요. 대마도 여기서 길러쨌네요? (#그렇지.) 그럼 대마는 언제 심어요?}
- 10401 #대마, 그거뚜 보메 시머.  
{대마, 그것도 봄에 심어.}
- 10401 @ 그거뚜 사멸쯔메. (#응.) 그럼 개두 치뤄레. (#그치 그거뚜 치뤄레.)  
{그것도 삼월쯔메. (#응.) 그럼 개도 칠월에. (#그치 그것도 칠월에.)}
- 10401 @ 개네는 다 온, 애드리, 그럼 모시도 또 만드셨나요?  
{개네는 다 옷, 애들이, 그럼 모시도 또 만드셨나요?}
- 10401 #여긴 모, 여긴 모신 업서.  
{여긴 모, 여긴 모시는 없어.}
- 10401 @ 여긴 모신 업써요? 그러면, 어. 그게 다 달려요? 무명이나 삼, 그 뭐지, 베:나 삼베나. 필, 이라구 하자나요 한 필. 그 기리가 또까태요 다?  
{여긴 모시는 없어요? 그러면, 어. 그게 다 달려요? 무명이나 삼, 그 뭐지, 베나 삼베나. 필, 이라고 하잖아요. 한 필. 그 길이가 똑같아요 다?}
- 10401 #스무 자 한 피리지.  
{스무 자 한 필이지.}

## 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 10401 @ 그러면, 여기서 그럼 비단두 짜써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비단도 짰어요?}
- 10401 #으응, 그런 건 업서. (@ 비단은 안 짜고.)  
{으응, 그런 건 없어. (@ 비단은 안 짜고.)}

## 3. 옷 만들기

- 10401 @ 그러며는, 어머님들 이케 온, 온 다 지베서 옰나렌 만드셔쨌네요? 저히 할머니님두 그럼 온 만드셔써요? (#그, 그럼.) 그 베틀로다가?  
{그러면, 어머님들 이렇게 옷, 옷 다 집에서 옛날엔 만드셨겠네요? 저희 할머니님도 그럼 옷 만드셨어요? (#그, 그럼.) 그 베틀로다가?}
- 10401 #으응.  
{으응.}
- 10401 @ 그러면, 어느집 누가 온 뭐 자란다더라 뭐 이려고.  
{그러면, 어느 집 누가 옷 뭐 잘한다더라 뭐 이려고.}
- 10401 #그 바누질 자라는 사라미 이찌.

{그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있지.}

10401 @ 그러쿠나. 그러면, 저희는 요새 한복글 안이버서 잘 모르자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는 요새 한복을 안 입어서 잘 모르잖아요.}

10401 @ 이런, 보면 이게 명칭이 뭐 이런 흰색 이건 동정, 뭐, (#응. 요 요기 인는 깐.) 깐.  
{이런, 보면 이게 명칭이 뭐 이런 흰색 이건 동정, 뭐, (#응. 요, 요기 있는 깐.) 깐.}

10401 #요 소매.  
{이건 소매.}

10401 @ 소매. 여기, 여기 이름, 여기, 고름?  
{소매. 여기, 여기 이름, 여기, 고름?}

10401 #여:기 오꼬름.  
{여기 웃고름.}

10401 @ 오꼬름. 그러구, 저기 뭐지. 그럼 이런 거를 어머님드리 다 이러케 바느지를 하시자나요. (#응.)  
바느지를 일일리 해서 이러케 한복 만드셔쓸 거 아녜요 예저네는.  
{웃고름. 그러구, 저기 뭐지. 그럼 이런 거를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잖아요. (#응.)  
바느질을 일일이 해서 이렇게 한복 만드셨을 거 아녜요 예전에는.}

10401 @ 그러며는, 이건 뭐, 그, 어트케 해요. 바느지를 뭐 이르케, 뭐라고 하지. 호, 혼:다고 해요 아니면.  
{그러면, 이건 뭐, 그, 어떻게 해요. 바느질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호, 혼:다고 해요 아니면.}

10401 #혼, 츠:메 허는 건 호:는 거구, 나중에 찌저진 거는 꼬매는 거구.  
{혼, 처음에 하는 건 호는 거고, 나중에 찢어진 거는 꿰매는 거고.}

10401 @ 아 그럼, 어 엔나레는 어머님들 빨래를, 세탁기 업써쓰니까 다 가서 하셔쓸 거 아녜요. (#그 그러치.)  
{아 그럼, 어 옛날에는 어머님들 빨래를, 세탁기 없었으니까 다 가서 하셨을 거 아녜요. (#그렇지.)}

10401 #내, 내:까우레두 가서 허구 운물까에서두 허구.  
{내, 냇가울에도 가서 하고 우물가에서도 하고.}

10401 @ 여기가 내가가 고구촌.  
{여기가 냇가가 고구촌.}

10401 #내:까, 그저네 여기 저 큰: 내:가가 이서서. 근데 지그른 전부 이제 상:수도 허구 허느라고 말랐지.  
{냇가, 그전에 여기 저 큰 냇가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부 이제 상수도 하고 하느라고 말랐지.}

10401 @ 음, 그러며는 빨래두 다 하시구 이제, 다리미두 인두루 하시구. (#그럼.) 다 그러케 하셔꾸나.  
그러면, 그때 여기서 염색뚜 다 해서 이브셔써요?  
{음, 그러면 빨래도 다 하시고 이제, 다리미도 인두루 하시고. (#그럼.) 다 그렇게 하셔꾸나.  
그러면, 그때 여기서 염색도 다 해서 입으셨어요?}

10401 #염:새:근 인제 물까미라구 이찌. 이 고 인제 꺼먼, 꺼먼 물감 파란 물감 빨간 물감 거 물까미 이서.  
{염색은 인제 물감이라고 있지. 이 고 인제 검은, 검은 물감 파란 물감 빨간 물감, 거 물감이 있어.}

10401 @ 음.  
{음.}

## 1.5. 식생활

### 1. 채소 재배와 요리 / 2. 나물 채취와 요리

- 10501 @ 요기:는 인제 그 뭐 봄 대면 (#응.) 봄 대면 이르케 사나나 드래 가서 나물 뜨더다 먹짜나요.  
{여기는 이제 그 뭐 봄 되면 (#응.) 봄 되면 이렇게 산이나 들에 가서 나물 뜯어다 먹잖아요.}
- 10501 #그러치.  
{그렇지.}
- 10501 @ 그럼 어떤 나물 뜨더다 뭐 이르케 어더케 해 잡수꾸 그러셔쨌요?  
{그럼 어떤 나물 뜯어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 잡숫고 그러셨어요?}
- 10501 #어어. 여기서는 흔히 저기야. 저:기 저 부칸 저기 바라다 보이는 데, 거기 가서 저 취나물, 그런 거 저기허지 뭐.  
{어어. 여기서는 흔히 저기야. 저기 저 북한 저기 바라다 보이는 데, 거기 가서 저 취나물, 그런 거 저기하지 뭐.}
- 10501 #산나물. (#2 저, 고들, 고들빼기도 하자나.) 저, 고사리. 고로 고사리 그런 거. 취나물, 고사리.  
{산나물. (#2 저, 고들, 고들빼기도 하잖아.) 저, 고사리. 고사리 그런 거. 취나물, 고사리.}
- 10501 #그런거허구 또 요기 드:레 이르케 논뚜러메 다니민 인제 저기 고들빼기, 그런 거 캐다가 고들빼기 김치 담구.  
{그런 거허구 또 여기 들에 이렇게 논뚜렁에 다니면 이제 저기 고들빼기, 그런 거 캐다가 고들빼기 김치 담고.}
- 10501 @ 네.  
{네.}
- 10501 #또 나물 썸바구, 뭐 사라구, 그런 거 해:다가 머꾸 그르지 뭐. 호니, 보메는, 여기는.  
{또 나물 썸바귀, 뭐 사라구(왕고들빼기), 그런 거 해다가 먹고 그러지 뭐. 흔히, 봄에는, 여기는.}
- 10501 @ 고려케 캐다가, 그러면 지배서 인제 반찬을 해머글래면 어더케.  
{그렇게 캐다가, 그러면 집에서 이제 반찬을 해먹으려면 어떻게.}
- 10501 #고들빼기는, 기냥 이르케 저기 액쩌세다 인제 김치담 담그구. 취나물 가튼 거는 쌀마서 뽀까머꾸, 그러지 며. 고사리 그런 거.  
{고들빼기는, 그냥 이렇게 저기 액젓에다 이제 김치도 담그고 취나물 같은 거는 삶아서 볶아먹구, 그러지 뭐. 고사리 그런 거.}
- 10501 #저기허구. 저, 사, 썸바구 그런 거꾸. 쌀마서 말려따두 보까머꾸, 저장해따 멩는 거는.  
{저기허구. 저, 썸바귀 그런 것도. 삶아서 말렸따도 볶아 먹고, 저장했다 먹는 거는.}
- 10501 #그러케두 해:머꾸 지금더른 장아찌 만:이 당으니깐 또 장: 꼬려뵤서 장아찌로도 당아서 머꾸 그래.  
{그렇게두 해 먹고 지금들은 장아찌 많이 담그니까 또 장 끓여서 장아찌로도 담가서 먹고 그래.}
- 10501 #고들빼기 김치두 허지마는, 인제 이 썸바구 그런 거는. 뚜 꼬려뵤두 머꾸 그래. 장: 꼬려뵤서.  
{고들빼기 김치도 하지만, 이제 이 썸바귀 그런 거는. 또 끓여셔도 먹고 그래. 장 끓여셔.}
- 10501 @ 아 그러면 저기, 그러케 사네서 캐고 드래서 캐는 거 말고, (#응.) 바테서 심:는 거는 뭐 어떤 채소들 주로 시머서 머꾸 그러나요?  
{아 그러면 저기, 그렇게 산에서 캐고 들에서 캐는 거 말고, (#응.) 밭에서 심는 거는 뭐 어떤 채소들 주로 심어서 먹고 그러나요?}
- 10501 #보메?  
{봄에?}

- 10501 @ 아니 뭐 보미든 뭐 여르미든. (#으응.)  
 {아니 뭐 봄이든 뭐 여름이든. (#으응.)}
- 10501 #여그서는 흐니 저기 이른 보메는 인제 이 명일만 쇠마는, 시근치. 시근치 바테다가 뿌리구. 뿌려서  
 해:서 길러서 나물 해먹구.  
 {여기서는 흔히 저기 이른 봄에는 이제 이 명일만 쇠면, 시금치. 시금치 밭에다가 뿌리고. 뿌려서  
 해서 길러서 나물해 먹고.}
- 10501 #또 봄배추 시머따가 저러케 그냥 해:서 김치 담가 머꾸. 봄무이 심꾸. (#2 상추 시머머꾸.) 상추  
 심꾸.  
 {또 봄배추 심었다가 저렇게 그냥 해서 김치 담가 먹고. 봄무 심고. (#2 상추 심어먹고.) 상추  
 심고.}
- 10501 #인저는 저런 걸 마:니 하니까 엔:나레는 상추만 시머 머건는데, 지그문 뭐 양생추, 뭐 저런 거 다.  
 씨아시 이시니깐, 다: 사다 시머서 해머거.  
 {이제는 저런 걸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상추만 심어 먹었는데, 지금은 뭐 양상추, 뭐 저런 거  
 다 씨앗이 있으니깐 다 사다 심어서 해먹어.}
- 10501 #뭐 쭈카시고, 뭐 뭐 근대 뭐, 그런 거 주로 다: 시머서 해:먹찌 뭐. 지금도 다 모 뭐:노쿠서 (#2  
 그거 뭐야 그 저 민들레 가튼 거, 그거뚜 이짜나.)  
 {뭐 쭈갓이고, 뭐 뭐 근대 뭐, 그런 거 주로 다 심어서 해먹지 뭐. 지금도 다 모 부어놓고서.  
 (#2 그거 뭐야 그 저 민들레 같은 거. 그것도 있잖아.)}
- 10501 #음? 민들레? (#2 아니, 이 저, 뭐라 그러나.) 치커리. (#2 으응, 치커리. 그런 거 다 시머서.) 치커리,  
 뭐 민들레. 거 민들레가 조:타 그러자나.  
 {음? 민들레? (#2 아니, 이 저, 뭐라 그러나.) 치커리. (#2 으응, 치커리. 그런 거 다 심어서.)  
 치커리, 뭐 민들레. 거 민들레가 좋다 그러잖아.}
- 10501 #(#2 민들레도 인젠 가따 여그서 그냥 시머서 다 머거여.) 다: 시머.  
 {(#2 민들레도 이제 갖다 여기서 그냥 심어서 다 먹어요.) 다 심어.}
- 10501 #우덜도 가따 저러케 시몬걸. (#2 다:들 저런 데서 와서 캐가기 때메.) 민들레 그거 인제 캐다가서는,  
 뿌리할라 캐다가서는 그냥 깨:끄시 시쳐서 그느레다가, 그느레다 말려서 찧아서 그 무를 머그만 그거  
 그러케 가:네 조태자나.  
 {우리들도 갖다 저렇게 심은걸. (#2 다들 저런 데서 와서 캐 가기 때문에.) 민들레 그거 이제  
 캐다가서는, 뿌리까지 캐다가서는 그냥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다가, 그늘에다 말려서 삶아서 그  
 물을 먹으면 그거 그렇게 간에 좋대잖아.}
- 10501 #우리도 인제 또 저:기 채다네, 말려논. 다 말라가네. 조기 그느레다가, 해:놔뜨니.  
 {우리도 이제 또 저기 채반에, 말려 놓은. 다 말라가네. 저기 그늘에다가 해놔더니.}
- 10501 @ 그러믄 여긴 뭐, 채소 가튼 거는 사다 멍는 건 업꾸 다 그냥 길러서.  
 {그러면 여긴 뭐, 채소 같은 거는 사다 먹는 건 없고 다 그냥 길러서.}
- 10501 #(#2 그러치.) 그러치, 그럼.  
 {(#2 그렇지.) 그렇지, 그럼.}
- 10501 #아 그러게 우리 사위 마:리 이짜나. 요즘도 어끄저께두 다 인천서 와편 손님드리 그르게, 그저,  
 나가만 뭐, 그저 텨:장 그냥 끄려서 꼬:추고 뭐:고 다: 그냥 뜨더다가 멍는 거지 뭐, 사나?  
 { 아 그러게 우리 사위 말이 있잖아. 요즘도 옛그저께도 다 인천에서 왔던 손님들이 그르게,  
 그저, 나가면 뭐 그저 텨장 그냥 끓여서 고추고 뭐고 다 그냥 뜯어다가 먹는 거지 뭐, 사나?}
- 10501 #우리 큰사위 말:쫄로 여르메 오른 나가면 해오니까는 저기 깡이라구, 야채깡이라구 그리자나. 다

- 저기 해다 머그니깐.  
 {우리 큰사위 말줄로 여름에 오면, 나가면 해 오니까는 저기 밭이라고, 아채밭이라고 그러잖아.  
 다 저기 해다 먹으니깐.}
- 10501 #바테 나가면, 근데 우리더리 그러케 마:니 심찌. 우리는 아더리 식땅을 허니깐, 배:추고 뭐:구. 그러게  
 인제 가연 할머니두 올라오민, 배:추 또 모 뵈네, 그러게. 뷔서, 또 모 뷔서 인제 한 판 또 나:짜나.  
 {밭에 나가면,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심지. 우리는 아들이 식당을 하니까, 배추고 뭐고.  
 그러게 이제 가연 할머니도 올라오면, 배추 또 모 뵈네 그러게. 뷔서, 또 모 뷔서 이제 한 판  
 또 났잖아.}
- 10501 #그냥 또 저 해가구.  
 {그냥 또 저 해 가고.}
- 10501 #저기허구, 인제 화:과네두 인제 그냥 다. 김치 해:가구 무:이 시머따네가 깎띠기 해서 어저께 다  
 시러다가 놔, 뵈는데.  
 {저기하고, 이제 회관에도 이제 그냥 다 김치 해 가고 무 심어놨다가 깎뚜기 해서 어저께 다  
 실어다가 놔, 뵈는데.}
- 10501 #우린 저 인:천서 아이들 식땅에두 다 여기서 해:가.  
 {우린 저 인천서 아이들 식당에도 다 여기서 해 가.}
- 10501 #그냥, 무이두 다 뽀바가구 배:추두 다 해:서 뽀바서 실:꾸 가구, 우더리 바빠서 모까면 아더리 또  
 오나서 시러 가구.  
 {그냥, 무도 다 뽀아가고 배추도 다 해서 뽀아서 싣고 가고, 우리들이 바빠서 못 가면 아들이  
 또 와서 실어 가고.}
- 10501 #2 그러케 머그니깐 머저본 사람드리, 마시 달르대.  
 {그렇게 먹으니깐 먹어본 사람들이, 맛이 다르대.}
- 10501 @ 그러쵸.  
 {그렇쵸.}
- 10501 #꼬추가루도 다 여기 꼬추가루만 쓰는데 오래는 비가 이러케 너무 장마가 일찍 와서 비가 마:니  
 와가지구 꼬:추니 뭐니 다 틀려서.  
 {고추가루도 다 여기 고추가루만 쓰는데 올해는 비가 이렇게 너무 장마가 일찍 와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니 뭐니 다 틀렸어.}
- 10501 #인제가테서, 다 해서 떠러지구 저러케 그르자나. 이파리 그런 거. 저기해서.  
 {이제같아서, 다 해서 떨어지고 저렇게 그러잖아. 이파리 그런 거. 저기해서.}
- 10501 @ 그럼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그 김장을 해야 되자나요.  
 {그럼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그 김장을 해야 되잖아요.}
- 10501 #인제 이, 파월 인제 한 심뉴길 심치릴 되마는, 인제 김장배추 다 또 이제 모 분는 거야. 이 파월.  
 {이제 이 파월 이제 한 심육일 심칠일 되면, 이제 김장배추 다 또 이제 모 붓는 거야. 이 파월.}
- 10501 #그저넌 이 파월 이 저기 시보이리만 다. 배:추 모뵈따 하고 그랜는데 인제는 좀 일찍 허니깐, 너무  
 소기 판따나게 들러두, 김장허기두 힘들구, 틀리더라구.  
 {그 전엔 이 파월 이 저기 심오일이면 다 배추 모 뵈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일찍 하니까,  
 너무 속이 너무 단단하게 틀어도 김장하기도 힘들고, 틀리더라고.}
- 10501 #그래서 인전 심치릴서버텀 한 이:시빌 경에 그러케 모를 뷔.  
 {그래서 이제 심칠일서부터 한 이십일 경에 그렇게 모를 부어.}
- 10501 #그러케 뷔:따 허마는 퍼서:커구 그러마는 김장 허기두 조:꾸, 저기, 마시쵸. 대레, 판따나게 드런

- 거보다.
- {그렇게 봤다 하면 피석하고 그러면 김장 하기도 좋고, 저기, 맛있어. 대개 단단하게 들은 것보다.}
- 10501 @ 그럼 그 김장할 때 인제 어뜨게 하는지, 순서가 어뜨게 대고 방버비 어뜨게 대고 요런 거 좀 알려주시게써요?
- {그럼 그 김장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고 방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 10501 #김:장 인제 그러케 시머따가서는 김장할 때 되마는 입똥, 인제 저기 허마는 뭐, 대레 입똥이 구월 입똥에는 대레 안:꾸 허구 시:월 입똥은 지구 현다 그리구.
- {김장 이제 그렇게 심었다가서는 김장할 때 되면 입똥, 이제 저기 하면 뭐 대개 입똥이 구월 입똥에는 대개 안고 하고 시월 입똥은 지고 한다 그러고.}
- 10501 #그리는데 인제 날씨 추워지만 그냥 뭐 입똥만 지나만 그냥 그쪼케버터른 여기 싸람드른 기냥 김장 해.
- {그리는데 이제 날씨 추워지면 그냥 뭐 입똥만 지나면 그냥 그쪼케부터는 여기 사람들은 그냥 김장 해.}
- 10501 #(#2 근데 김장하는 과정을, 배추 뽀바서 다드머가지구, 저려 저려서,) 배추 뽀바서 저기 허우리마는, 소금 간쪽 타서, 저려서.
- {(#2 그런데 김장하는 과정을, 배추 뽀바서 다듬어가지고, 절여, 절여서.) 배추 뽀바서 저기 하면, 소금 간국 타서, 절여서.}
- 10501 #저려서 인제 오늘거치 (#2 하를 재:가지구.) 인제 오늘거치 기냥 이맘때 저리마는.
- {절여서 이제 오늘같이 (#2 하루를 새 가지고.) 이제 오늘같이 그냥 이맘때 절이면.}
- 10501 #인제 그냥 한, 저녁때 되마는 인제 뒤:저려서 그냥 꺾꺾 인제 간꾸개서 뒤저려.
- {이제 그냥 한, 저녁때 되면 이제 뒤절여서 그냥 꺾꺾 이제 간국 해서 뒤절여.}
- 10501 #인제 우:이꺼는 들: 절자나요? 그리닌까는 그 우:이꺼는 이르케 통에다 다마노꼬.
- {이제 위의 거는 덜 절잖아요? 그러니깐 그 위의 거는 이렇게 통에다 담아놓고.}
- 10501 #인제 그 미테꺼를 또 건져서 인제 다른 통에다 당:꾸, 우:이꺼 건져논 걸 미트루 느:꾸. 그러케 해서 저려따가서는.
- {이제 그 밑의 거를 또 건져서 이제 다른 통에다 담고, 위의 거 건져놓은 걸 밑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절였다가서는.}
- 10501 #그 이튼날, 오늘거치 저리만 널: 이맘때 저기허만 시쳐.
- {그 이튼날, 오늘같이 절이면 내일 이맘때 저기하면 씻어.}
- 10501 #시쳐서 다 건져와:따가서는 물 쪽: 빼마는 다 속: 버무려서 인제 속:뚜 무이체 양녀물 다: 저너게 해: 노치.
- {씻어서 다 건져왔다가서는 물 쪽 빠지면 다 속 버무려서 이제 속도 무채 양념을 다 저녁에 해 놓지.}
- 10501 #다: 쓰러서 해: 와:따가서는 그러케 해따가서는 인제 배:추 씨쳐노코 그러커고 인제 소:글 다 버무려.
- {다 썰어서 해왔다가서는 그렇게 했다가서는 이제 배추 씻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속을 다 버무려.}
- 10501 #버무려서 간: 머꾸 그리마는, 인제 그 배:추 물 쪽: 빼온 거 인제 그쪼게는 속: 싸는 거지 뭐.
- {버무려서 간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배추 물 쪽 뺀 거 이제 그쪼에는 속 싸는 거지 뭐.}
- 10501 #그러케 허지 뭐 어뜨케.
- {그렇게 하지 뭐 어떡해.}

- 10501 @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자나요. (#응.) 그때 뭐뭐 그러케 담그세요?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응.) 그때 뭐뭐 그렇게 담그세요?}
- 10501 #여기서는 주로 저기야. 배:추김치하구 (#2 포기김치.) 하구 이제 저기 이찌 그냥 석박찌루두 무:이김치 두 담그구.  
{여기서는 주로 저기야. 배추김치하고 (#2 포기김치.) 하고 이제 저기 있지 그냥 석박찌로도 무김치도 담그고.}
- 10501 #파금치두 허구, 수무김치허구, 그런 거 허는 거지 뭐 주로.  
{파김치도 하고, 순무김치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주로.}
- 10501 #저 아랫녘에선 갓김치 그런 걸 마니 허지? (#2 여그는 알타리. 알타리김치도) 알타리. 그조 알타리김치.  
{저 아랫녘에선 갓김치 그런 걸 많이 하지? (#2 여기는 알타리, 알타리김치도.) 알타리. 그렇쥬. 알타리김치.}
- 10501 #수무김치, 그냥 또 석박찌로따가 무:이 그냥 짹짹 빼글러서, 그러케두 허구.  
{순무김치, 그냥 또 석박찌로다 무 그냥 짹짹 빼개서, 그렇게도 하고.}
- 10501 #그리구 파금치두 허구. 파금치.  
{그리고 파김치도 하고. 파김치.}
- 10501 #주로 여기 시고레션 그냥 그거 허는 거야.  
{주로 여기 시골에선 그냥 그거 하는 거야.}
- 10501 #파금치, 머 갓김치 그런 건 아내. 가슬, 가슬 시머따가 이제 배:추 속 싸는데다 쓰러너쿠 마:니 나므만 또 냉:중에 쪼끔 또 해보기도 하구. 그러지.  
{파김치, 뭐 갓김치 그런 건 안 해. 갓을, 갓을 심었다가 이제 배추 속 싸는 데다 쓸어넣고 많이 남으면 또 나중에 조금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
- 10501 #뭐 생새우 사다가 놔:따가서는 생새우 치구 저쪽 여그서 이제 저 남산포, 알자나 거 새우젓 짬는 데.  
{뭐 생새우 사다가 놔다가서는 생새우 치고 젓국 여기서 이제 저 남산포, 알잖아 거 새우젓 짬는 데.}
- 10501 #거그서 새우젓 사다가 저러따가, 그거 느쿠. 생새우 너쿠. 아이 근데 지그른 저꾸근 마니 안쳐.  
{거기서 새우젓 사다가 절였다가, 그거 넣고. 생새우 넣고. 아이 근데 지금은 젓국은 많이 안 쳐.}
- 10501 #생새우 이제 느쿠, 그냥 저쪽 사완 거 그거 조금씩 느쿠. 그러커구 그냥, 버무리지.  
{생새우 이제 넣고, 그냥 젓국 사온 거 그거 조금씩 넣고. 그렇게 하고 그냥, 버무리지.}
- 10501 #온:날처럼 저꾸글 마:니 그러케 안쳐.  
{옛날처럼 젓국을 많이 그렇게 안 쳐.}
- 10501 #생새우 마:니 치구, 그리구 보메 머글 꺼는, 생새우도 마:니 치만 틀리드라구. 여름메 머글 꺼는.  
{생새우 많이 치고, 그리고 봄에 먹을 거는, 생새우도 많이 치면 틀리더라고. 여름에 먹을 거는.}
- 10501 #그러케 허지 뭐 그냥. 주로, 그러케 허는 거야 김치.  
{그렇게 하지 뭐 그냥. 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김치.}

### 3. 밑반찬의 조리

- 10501 @ 그럼 이제 김장해노쿠 이제 설: 되면, 설: 되면 또 설: 음식 준비해야 되자나요. (#응.) 그럼 설: 음식 줌 어떤 음식 어트게 준비하는지 그걸 줌 말쓰메 주시게써요?

- {그럼 이제 김장해놓고 이제 설 되면, 설 되면 또 설 음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응.) 그럼 설 음식 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10501 #여기서? 여기 시골에서는 설: 인제 음식 장만한 데야.  
{여기서? 여기 시골에서는 설 이제 음식 장만한 데야.}
- 10501 #흐니 인제 여기서 인제 제:사지내마는 저런데서는 뭐 그냥 뭐 동:태전 뭐 이런 무슨 저:늘 마:니들 허드만?  
{흐니 이제 여기서 인제 제사지내면 저런 데서는 뭐 그냥 동태전 뭐 이런 무슨 전을 많이들 하더만?}
- 10501 #여기선 주로 그냥 그저 그저네 연:날시그로 우리드른 여태, 쌀 바:다가, 찹쌀라구 멍쌀라구 서껴서 바:다가, 그냥 흔, 지지미루다가 제사상에 노는 거 똥:그라케 이러케 해. (#2 부치, 부치기라 그러지.) 부치기.  
{여기선 주로 그냥 그저 그전에 옛날식으로 우리들은 여태, 쌀 빵아다가, 찹쌀하고 멍쌀하고 섞어서 빵아다가, 그냥 흔, 지지미로다가 제사상에 놓는 거 동그랄게 이렇게 해. (#2 부치기, 부치기라 그러지.) 부치기.}
- 10501 #그러케 허구, 또 행:적 네:모지게 이러케 해서 또 여기다 김치 너쿠 인제 파를 느튼지 김치를 느튼지 김치를 주로 마:니 너, 무근김치.  
{그렇게 하고, 또 행적 네모지게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김치 넣고 이제 파를 넣든지 김치를 넣든지 김치를 주로 마니 넣어, 묵은 김치.}
- 10501 #그냥 이마:너케 잘라서 여기 가운데다가서는 하나씩 세:개씩 이러케 여기다 이러케 노쿠.  
{그냥 이만하게 잘라서 여기 가운데다가서는 하나씩 세개씩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 10501 #그러케 해서 네모지게 해. 커다라케 두투:머게.  
{그렇게 해서 네모지게 해. 커다랄게 두툼하게.}
- 10501 #그러케 해서 뒤지버서 이그마는 거기다 겨란, 노란자에 이퍼. 이러케 이러케 수갈로다 이퍼서 그러케 해서 또, 허구.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익으면 거기다 계란, 노른자에 입혀. 이렇게 이렇게 순갈로 입혀서 그렇게 해서 또 하고.}
- 10501 #또 겨란 부치기도 허구. 녹두, 녹두 부치기 이제 막 머글 꺼는 돼지고기 인제 가라다 너쿠. 김치 쓰러 느쿠.  
{또 겨란부치기도 하고. 녹두, 녹두부치기 이제 막 먹을 거는 돼지고기 이제 갈아다 넣고. 김치 쓸어 넣고.}
- 10501 #다 양념 해서 그러케 해서 그건 크:다너케 이러:케 허구.  
{다 양념해서 그렇게 해서 그건 커다랄게 이렇게 하고.}
- 10501 #또 제:사상에 논는 건 요리:케, 똥:그라케 그냥. 고러케 허구.  
{또 제사상에 놓는 건 이렇게, 동그랄게 그냥. 그렇게 하고.}
- 10501 #그러케 해:서 허구, 두부 부치구.  
{그렇게 해서 하고, 두부 부치고.}
- 10501 #그러구 동:태, 여기서 흐니 이제 명일 음식 저기허만 동:태전 인제 부치고 또 뭐 다른 거 좀 그냥 사다가 해:서 그냥 좀 전: 좀 이르케 해:서.  
{그리고 동태, 여기서 흐니 이제 명일 음식 저기허면 동태전 이제 부치고 또 뭐 다른 거 좀 그냥 사다가 해서 그냥 좀 전 좀 이렇게 해서.}
- 10501 #그냥 뭐 똥:그랑땡두 두부 허구, 고기 느쿠, 양념해서, 똥:그랑땡.

{그냥 뭐 동그랑땡도 두부 하고 고기 넣고 양념해서, 동그랑땡.}

10501 #그러게서 양념해서, 또, 겨란 이퍼서, 그러게서 허구.  
{그렇게 해서 양념해서, 또 계란 입혀서 그렇게서 하고.}

10501 #다른 거 인제 저기허구 그르만 뭐, 그냥 도라지 가튼 거뚜 허구, 저.  
{다른 거 이제 저기하고 그러면 뭐, 그냥 도라지 같은 것도 하고, 저.}

10501 #그런 거 주로, 그냥 여기선 그런 거 해. 저런 아랫넬에선 뭐 그, 저:기드만. 그냥, 여러가지 다 해서 너트만.  
{그런 거 주로, 그냥 여기선 그런 거 해. 저런 아랫넬에선 뭐 그 저기더만. 그냥 여러가지 다 해서 넣더만.}

10501 #아랫넬엔, 고기두 그러쿠.  
{아랫넬엔, 고기도 그렇고.}

10501 #여기선, 제:사상에 넣는 건, 부겨. 노쿠, 또 저기 송:어 이짜나. 송:어 그거 말려따가 그거 찌서 노쿠.  
{여기선, 제사상에 넣는 건 북어. 노고, 또 저기 송어 있잖아. 송어 그거 말려다가 그거 찌서 넣고.}

10501 #조기 느쿠, 노쿠. 여기선 기냥 제사상에 그런 거 그러케 놔.  
{조기 넣고, 놓고. 여기선 그냥 제사상에 그런 거 그렇게 놔.}

10501 #과:일 삼:색 과:일 노쿠. 인전 근데 뭐, (#2 시캐, 시캐나 저 수정과 가튼 거.) 그럼, 수정과 가튼 거, 그런 거 허구 그저 그러는 거지.  
{과일 삼색 과일 놓구. 이젠 그런데 뭐, (#2 식혜, 식혜나 저 수정과 같은 거.) 그럼, 수정과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그저 그러는 거지.}

10501 #다 또까태, 저런 데서 멍는 거, 다 또까태. 그러케 해.  
{다 똑같아, 저런 데서 먹는 거, 다 똑같아. 그렇게 해.}

10501 @ 여슨 안 고으써썬요?  
{옛은 안 고으셨어요?}

10501 #응?  
{응?}

10501 @ 열, 여슨 안 고으, (#2 엔나렌 관:는데, 사다머겨요 인자는.)  
{옛, 옛은 안 고으, (#2 옛날엔 고았는데, 사다먹어요 이제는.)}

10501 #엔나레는 관:는데, 지그문, 지금두 저기야, 딱 찌거머꾸 그리니라구 열 그거 싸래기, 잔싸래기, 싸래서 띠어진 그런거루다가 곤는 사람도 이썬.  
{옛날에는 고았는데 지금은, 지금도 저기야, 딱 찌어먹고 그러느라고 옛 그거 싸래기, 잔싸래기, 쌀에서 떨어진 그런 거로다가 고는 사람도 있어.}

10501 #근데 우더른, 여뚜 안머겨. 그냥 저기야 꼬추장 보메 꼬추장 당글 때, 찹쌀 바:다가 인제 꼬추장 인제 저기 새겨가지구 저기허마는, 그 저기 그 여시 방부제 세겨서 저기자나.  
{그런데 우리들은, 옛도 안 먹어. 그냥 저기야 고추장 봄에 고추장 담글 때, 찹쌀 빵아다가 이제 고추장 이제 저기 삭혀가지고 저기하면, 그 저기 그 옛이 방부제 섞여서 저기잖아.}

10501 #너으마는 꼬추장두 꼬시 안나드만. 저런 데서 사멍는 거 모양으루.  
{넣으면 고추장도 꼬시 안 나더만. 저런 데서 사먹는 거 모양으로.}

10501 #그리닌겐 기냥 고런 거 쫌:꼬만 거 하나 사다가 찹쌀 인제 바:다가서는 소테다가 새겨서 인제 그거 장작뿔 때구 인제 그거 쫌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쫌그만 거 하나 사다가 찹쌀 이제 빵아다가는 솔에다가 삭혀서 이제

- 그거 장작불 때고 이제 그거 졸여.}
- 10501 #쫄:리마는, 쫄꼬만 거 하나 사다가서는 꼬를 때.  
{졸이면, 조그만 거 하나 사다가서는 끓을 때.}
- 10501 #여끼리미 사다가 그거 새켜서 인제 인제 저기 해:가지구 꼬리자나. 그리마는, 인제 열, 그걸 너어야 인제 꼬시 들: 나드라구.  
{엿기를 사다가 그거 삭혀서 이제 저기 해가지고 끓이잖아. 그러면, 이제 엿, 그걸 넣어야 이제 꼬시 들 나더라고.}
- 10501 #그 인제 막 어드런 사라픈 열꼬추장만 당그구 그리는데, 우더른 그런 거 저:기허니깐, 쫄:꼬만 거 하나 사다가 그거 다 꼬러서 쫄:를 때 좀 쫄:다서 허만 꼬시 들: 나드라구.  
{그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엿고추장만 담그고 그리는데, 우리들은 그런 거 저기하니까, 조그만 거 하나 사다가 그거 다 끓어서 졸을 때 좀 쏟아서 하면 꼬시 들 나더라고.}
- 10501 #그래서 그냥 고거 쫄:그만 거 하나 사다가 그러케 해서 다마서 꼬추장두 머꾸 그르지, 그냥 뭐 열 그런 거 마니 사다 안네.  
{그래서 그냥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사다가 그렇게 해서 담아서 고추장도 먹고 그러지, 그냥 뭐 엿 그런 거 많이 사다 안 넣어.}
- 10501 #그리구 그냥 저기 요리당 여시라구, 이짜나 병에 요런 데 드렁거.  
{그리고 그냥 저기 요리당 엿이라고, 있잖아 병에 이런 데 들은 거.}
- 10501 #그렇 거 인제 그냥 머르치라도 보꾸 그냥 그럴 때 좀씩 쓰이라구, 고런 거 사다가 그냥 이르게 쓰구 그래.  
{그런 거 이제 그냥 멀치라도 볶고 그냥 그럴 때 조금씩 쓰느라고, 그런 거 사다가 그냥 이렇게 쓰고 그래.}
- 10501 @ 근데 그 열:나레 열 고으실 때는, (#응.) 그때는 어뜨게 고안는지 열: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옛날에 엿 고으실 때는, (#응.) 그 때는 어떻게 고았는지 옛날 생각하면서.}
- 10501 #아우 열:나레, 그르게 아유, 술두 마:니 허구 여뚜 마:니 고꾸 그냥 가마소테다가서는, 열 그거 그냥 과:가지구서는, 해:가지구, 쌀 튀기구 콩 튀기구, 그런 거 해다 다: 강정하지 뭐.  
{아우 옛날에, 그르게 아유, 술도 많이 하고 엿도 많이 고고 그냥 가마솥에다가서는, 엿 그거 그냥 고아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쌀 튀기고 콩 튀기고, 그런 거 해다 다 강정하지 뭐.}
- 10501 #강정해서 잘라서, 그러캐서 쓰구 머꾸. 그래서 근데 인제 안해. 귀차느니까 그렇거.  
{강정해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쓰고 먹고. 그래서 근데 이젠 안 해. 귀찮으니까 그런 거.}
- 10501 #누가 그러케 그거 머거 또. 그냥 찌꺼끼때 이베 무꾸 그런 거.  
{누가 그렇게 그거 먹어 또. 그냥 찌꺼기 입에 묻고 그런 거.}
- 10501 #애들두 머거? 인제 그런 거? 그리킨 안해 그런 거.  
{애들도 먹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안 해 그런 거.}
- 10501 #그저네는 그냥 아주 열 그러케 과:서 아주 그거이 멩일때만 아주 그거 하니라구 그거이 아주 저기야.  
{그 전에는 그냥 아주 엿 그렇게 고아서 아주 그게 멩일 때면 아주 그거 하느라고 그게 아주 저기야.}
- 10501 #쌀 그냥 한 메페씩 튀겨다가서는 그냥 그거 상에다가 그냥 비니루 깔구서는 해:서 쪽. 해:서 그냥 해:짜 다 잘라서 그러케 해서.  
{쌀 그냥 한 몇 되씩 튀겨다가서는 그냥 그거 상에다가 비닐 깔고서는 해서 쪽 해서 그냥 해놔다 다 잘라서 그렇게 해서.}
- 10501 #저기 허구, 콩두 튀겨다 그러커구. 근데 지그른 아내.

- {저기하고, 콩도 튀겨다 할 거고. 그런데 지금은 안 해.}
- 10501 #2 그냥 피어나게 사, 사:는 세상이 돼서.  
{#2 그냥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돼서.}
- 10501 #그럼, (@ 그러쵸.) 그러케. (#2 연꼴려면 그냥 그 이런 온돌뽕에다가 장작 가따 드려 때구 메칠씩 봐야 되거든.)  
{그럼, (@ 그렇쵸.) 그렇게. (옛 꼴려면 그냥 그 이런 온돌방에다가 장작 갖다 들어 때고 며칠씩 봐야 되거든.)}
- 10501 #그럼. 엔:나렌 여기 인제 소만지 걸:구서는 다: 거기다 허구 그냥 이거이 다 낭구까니야. 어끄저께두 우리 인:천서 엔:나레 여기 살:던 사람드리 저 인:쳐느루 가서 이사가서 사:는데 여그 오나서 여그서 하루뽕들 자구 그러카구 가짜만.  
{그럼. 옛날엔 여기 이제 솔단지 걸고선 다 거기다 하고 그냥 이게 다 나뭇간이야. 옛그저께도 우리 인천에서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저 인천으로 가서 이사가서 사는데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룻밤들 자고 그렇게 하고 갔지만.}
- 10501 #그래서, 언니, 여기가 낭구까니구 뭐 어찌구 낭구, 다: 그냥, 아유.  
{그래서, 언니, 여기가 나뭇간이고 뭐 어찌고 나무, 다 그냥, 아유.}
- 10501 #그러케 인제 허리 아프구 그러니까는 엔:날 소리 들허지 내가.  
{그러게 이제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옛날 소리 덜 하지 내가.}
- 10501 #이 뒤에가 그냥 낭구 그 솔까지 석짱 쳐다 그냥 한무리씩 짜만 그걸 저 노할머이, 시할머이. 시할머이 업구 그걸 다: 꼬러다 때씨니.  
{이 뒤에가 그냥 나무 그 솔가지 삭정이 쳐다 그냥 한 무리씩 쌓면 그걸 저 노할머니, 시할머니. 시할머니 업고 그걸 다 끌어다 뺐으니.}
- 10501 @ 근데 이 친구드른 연 고:는 거 어트게 고으는 건지 모르자나요. (#응.) 아마 고걸 들으면 아주 재미쵸 할 거 가태요. 그니까 옛날 여슬 어트게 침:부터 이르케, (#응.) 뭘 준비해서. (#으응.) 어트게.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옛 고는 거 어떻게 고는 건지 모르잖아요. (#응.) 아마 고걸 들으면 아주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옛을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응.) 뭘 준비해서. (#으응.) 어떻게.}
- 10501 #인제 저기야. 싸를 인제 뽕싸를 당가. 응?  
{이제 저기야. 쌀을 이제 뽕쌀을 담가. 응?}
- 10501 #한 마를 여슬 골라온 뽕싸를 당가따가서는, 인제 시루에다가, 시루 이짜나 그저네. 응?  
{한 말을 옛을 고려면 뽕쌀을 담갔다가서는 이제 시루에다가, 시루 있잖아 그 전에. 응?}
- 10501 #시루에다 이러케 구멍 뽕뽕 뚫린 거. 거기다가서는 시루미시라구 이러케 뽕:그러케 짜.  
{시루에다 이렇게 구멍 뽕뽕 뚫린 거. 거기다가서는 시루밀이라고 이렇게 등그렇게 짜.}
- 10501 #짜는 거 이서. 지브루두 이러케 해서 짜는 거 이꾸 또 엔:나레 그 나이롱 실루다가 이러케 가게바눌리라 구 양발두 뜨구 뭐 저런 거 다, 엔:나렌 우더른 다: 저기자나.  
{짜는 거 있어. 짚으로도 이렇게 해서 짜는 거 있고 또 옛날에 그 나이론 실로다가 이렇게 가게바늘 이라고 양발도 뜨고 뭐 저런 거 다, 옛날엔 우리들은 다 저기잖아.}
- 10501 #저러케 해때포 이런 벼게다 거:는 거, 그런 거뚜 다 수: 노차나 바메 자잔쿠?  
{저렇게 헛대포 이런 벼게다 거는 거, 그런 것도 다 수 놓잖아 밤에 자지 않고?}
- 10501 #가게수 노쿠 뭐 그러케서 수:를 놔가지구서는, 해:다가 다 치구 그런데, 어태 그거 뒤:서 인는 사람도 이때. 근데 우더른 다 저기야 버려서 읍쵸.  
{가게쓰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수를 놔가지고서는, 해다가 다 치고 그러는데, 여태 그거 뒤서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저기야 버려서 없어.}

10501 #그러커구, (#2 거 열 켜는 과정을 좀 가르쳐 줘요.) 으응.  
{그렇게 하고, (#2 거 열 고는 과정을 좀 가르쳐 줘요.) 으응.}

10501 #그래 저기 여슨 쌀 한 마를 골:려면 쌀을 당가.  
{그래 저기 었은 쌀을 한 말을 고려면 쌀을 담가.}

10501 #인제 오늘저치 당가따가 널: 인제 그거 다 부른 대메 그 시루에다가 인제 인제 철숯, 소슬 여기다 다: 거리짜나 엔:나레는?  
{이제 오늘같이 담갔다가 내일 이제 그거 다 불은 다음에 그 시루에다가 이제 이제 철숯, 솔을 여기다 걸었잖아 옛날에는?}

10501 #갈:만 그 시루 안, 인제 시루 만는 소시 이서. 그러마는 고기다가서는, 시루를 거기다 마춰서 사찌.  
{걸면 그 시루 안, 이제 시루 맞는 솔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서는 시루를 거기다 맞춰서 샀지.}

10501 #그러마는 인제 거기다 시루미슬 깔:구 그러카구 거기다 쌀을 찌.  
{그러면 이제 거기다 시루미를 깔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쌀을 찌.}

10501 #부를 때:서. 그냥 김이 풍풍: 올라서 인제 쌀을 인제 찌:는 거야.  
{불을 때:서. 그냥 김이 풍풍: 올라서 이제 쌀을 이제 찌는 거야.}

10501 #그러면 그거이 아주 꼬:두바비아 아주.  
{그러면 그게 아주 고두밥이야 아주.}

10501 #그냥 술두 인제 그러커자나. 나두 이른 보메두 그러케 찌서 술두 해서.  
{그냥 술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 나도 이른 봄에도 그렇게 찌서 술도 했어.}

10501 #약 사다가 버무려서, 튀겨가지구 술두 해:써.  
{약 사다가 버무려서, 튀겨가지고 술도 했어.}

10501 #헐써, 못자리들 허는 사람들 다 머거찌 걸러줘서.  
{했어, 못자리들 하는 사람들 다 먹었지 걸러줘서.}

10501 #그랜데 그러케 찌. 그러면 인제 그거를 연끼리미를 사다가서는, 연끼리미를 그저네는 사질 안쿠 우더리 보리농사하니까 걸러찌.  
{그랬는데 그렇게 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엿기름을 사다가서는, 엿기름을 그 전에는 사질 않고 우리들이 보리농사하니까 걸렸지.}

10501 #그래 그걸 가라서 인제 걸러. 인제 체에다가.  
{그래 그걸 갈아서 이제 걸러. 이제 체에다가.}

10501 #걸러서 소테다가선 그걸 바블 퍼부어.  
{걸러서 솔에다가선 그걸 밥을 퍼 부어.}

10501 #인제 퍼부만 연끼리미 인제 걸러서,  
{이제 퍼 부으면 엿기름 이제 걸러서,}

10501 #그러케 해서 인제 그 연끼리미를 소테다 뷔서 흥그르를: 허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엿기름을 솔에다 부어서 흥그르를하게 해서,}

10501 #한: 솔 안쳐, 요러케 짚람짚람하게.  
{한 솔 안쳐, 이렇게 짚람짚람하게.}

10501 #그러면 이제 그거이 인제 여서찌간 일곱찌가니만 사가, 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여섯시간 일곱시간이면 삭아, 다.}

10501 #아주 이르케, 바바를 이케 민대기마는, 아주 요기서 다 노가. 그러만 그쪼게는 찌:는 거야.  
{아주 이렇게, 밥알을 이렇게 민대기면, 아주 여기서 다 녹아. 그러면 그 쪽에는 찌는 거야.}

- 10501 #인제 그냥 이 잘래기에다가, 베, 베잘래기 그냥 그런데다가 짜.  
{이제 그냥 이 잘래기에다, 베, 베잘래기 그냥 그런 데에다가 짜.}
- 10501 #그걸 인제 짜가지구, 짜가지구 인제 이 소테다가 부꾸 그걸 장작뽕을 다 때:서 인제 그냥.  
{그걸 이제 짜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이 솥에다가 붓고 그걸 장작뽕을 다 때서 이제 그냥.}
- 10501 #여시, 되드락, 여: 테레비두 나오자나, 여시 되드락 인제 쪼려.  
{엇이 되도록, 여기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 엇이 되도록 이제 줄여.}
- 10501 #그 이제 그냥 쪼:리마는 인제 그냥 한 반: 그러케 뉘서 인제 이러케 주거그로 이러커면 아주 인제 흘러내리구 저기허게 쫄:면 아주 그거이 발그스름허게 저기 되자나, 그 연무리.  
{그 이제 그냥 졸이면 이제 그냥 한 반 그렇게 되서 이제 이렇게 주격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이제 흘러내리고 저기허게 졸면 아주 그게 발그스름허게 저기 되잖아, 그 엇물이.}
- 10501 #그러만 아주 그 연무리 무척 마시서. 아주 이러케 이런 새까리루 그냥 저러케 될때.  
{그러면 아주 그 엇물이 무척 맛있어. 아주 이렇게 이런 색깔로 그냥 저렇게 될 때.}
- 10501 #그러구서는 이제 그걸 인제, 되, 누군 여탈라만 떡 찌거머께 헐라만 주거그로 이러:케 떠서,  
{그리고선 이제 그걸 이제 되, 누군 엇하려면 떡 찌어먹게 하려면 주격으로 이렇게 떠서.}
- 10501 #이러케 똑:똑 흘러내리마는 연 찌거머글 꺼 건 떠노쿠.  
{이렇게 똑똑 흘러내리면 엇 찌어먹을 건 떠 놓고.}
- 10501 #또 인제 강정허구, 인제 번드래기 여스루다가 헐라마는 그냥 주거게서 이러케 주거게서 인제 그냥 아주 떠러지지 아날 정도 이러:케 내려오자나.  
{또 이제 강정하고, 이제 번드래기 엇으로다가 하려면 그냥 주격에서 이렇게 주격에서 이제 그냥 아주 떨어지지 않을 정도 이렇게 내려오잖아.}
- 10501 #그리마는 그쪼게는 인제 부를 안 때구.  
{그러면 그쪼에는 이제 불을 안 때고.}
- 10501 #다: 인제 그냥 고무종이를 깨:끄시 해:다가서는 깔구.  
{다 이제 그냥 고무종이를 깨:끗이 해다가서는 깔고.}
- 10501 #떠다가 거기다 인제 한 국짜씩 이러케 노:마는, 똥:구라케 이러케 번드래기가 되자나. 번드래기.  
{떠다가 거기다 이제 한 국자씩 이렇게 놓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번드래기가 되잖아 번드래기.}
- 10501 #그러구 인제 강정헐건 또 이르 그르세다 퍼노쿠. 강정헐꺼. 바발강정허구 콩강정헐건.  
{그리고 이제 강정할 건 또 이렇게 그릇에다 퍼 놓고. 강정할 거. 밥알강정하고 콩강정 할 건.}
- 10501 #그러커구서는 인제 그러케 해서 번드래길 쭈욱: 이러케 해봐 이러케, 이러케.  
{그렇게 하고선 이제 그렇게 해서 번드래기를 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 10501 #해:노만, 해:노쿠서는 또 그걸 해:노쿠.  
{해놓으면, 해놓고서는 또 그걸 해 놓고.}
- 10501 #인제 강정헐꺼는 또 함박게다가서는.  
{이제 강정할 거는 또 함박에다가서는.}
- 10501 #그저넌 함박뚜 그러케 해꾸 또 먼저 나와쓸 때는 양은다라이야.  
{그 전엔 함박도 그렇게 했고 또 먼저 나왔을 때는 양은대야야.}
- 10501 #양은다라이에다가서는 인제 그 바발티기를 노쿠, 여:술 다마다가 거기다가 놔.  
{양은대야에다가서는 이제 그 밥알튀기를 놓고, 엇을 담아다가 거기다가 놔.}
- 10501 #거기다 이러케 국자루다 떠 뷘. 그르만 인제 묻짜나.  
{거기다 이렇게 국자로다 떠 부어. 그러면 이제 묻잖아.}
- 10501 #그르만 그냥 이러케 버무려서 또 고무종이에다가서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또 고무종이에다가서는.}

10501 #이러케 퍼노쿠서는 짹:짹 그냥 그 저 국수 미는 저거 방망이루다가 짹:짹 이러케 미리.  
{이렇게 퍼놓고서는 짹:짹 그냥 그 저 국수 미는 저거 방망이로다가 짹:짹 이렇게 밀어.}

10501 #미러서 도둑:허게 이러케 머글만치 되, 그러케 해서 맨드러와따가 꾸득꾸득:키마는. 잘르지 뭐.  
칼루다가.  
{밀어서 도둑:허게 이렇게 먹을만치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다가 꾸득꾸득하면. 자르지 뭐.  
칼로다가.}

10501 #다: 잘라서 이러케서 함바게다 다마노쿠.  
{다 잘라서 이렇게 해서 함박에다 담아놓고.}

10501 #또 열빤드래기 이러케 해와면 건 다 짹:짹 이러나만 또 해:서 또 콩가루하고 뭐 저런 거 해서 술술  
뿌리만 켜켜이 해서, 다마와따가서는.  
{또 열빤드래기 이렇게 해와던 건 다 짹:짹 일어나면 또 해:서 콩가루하고 뭐 저런 거 해서 술술  
뿌리면 켜켜이 해서, 담아놨다가서는.}

10501 #다마와따 하나씩 해:다가서는 손님들 오구 또 머글 땀 짹:짹 이러케 빼글러서, 때려서, 그러케 해서  
머꾸 그러지 뭐.  
{담아놨다 하나씩 해:다가서는 손님들 오고 또 먹을 땀 짹:짹 이렇게 빼개서, 때려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지 뭐.}

10501 #그러케 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10501 @ 그럼 아까 술두 담가서 드셔따 그래짜나요. (#그럼.) 수른 또 이케 순서대로 좀 이케 한번 말쓰를  
해주시게쵸요?  
{그럼 아까 술도 담가서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술은 또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한  
번 말쓰를 해주시겠어요?}

10501 #수른? 수른 술두 인제 싸를 당가.  
{술은? 술은 술도 이제 쌀을 담가.}

10501 #인제 열빤찌듯. 그러케 당, 해:따가 시루에다 또 찌. 아주 꼬:두바브루.  
{이제 열빤 찌듯. 그렇게 담, 했다가 시루에다 또 찌. 아주 고두밥으로.}

10501 #그르만, 엔:나레는, 그걸 잘래기에다 다마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자루에다 담았어.}

10501 #인제 그 벼잘래기.  
{인제 그 벼 자루.}

10501 #그런데다 다마서 저:기다가선 이러케 노쿠서는 이런 걸 더퍼노쿠 그러케해서 한. 이트리구 얼마구  
그걸 띄여.  
{그런데다 담아서 저:기다가선 이렇게 놓고선 이런 걸 덮어놓고 그렇게 해서 한 이틀이고 얼마고  
그걸 띄워.}

10501 #그걸 떠:마는, 그 잘래기에서 그냥 이러:케 허만 아주 그 꼬:두바비 그 술랴글 해서 버무려서 노마는,  
{그걸 띄우면, 그 자루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아주 그 고두밥이 그 술약을 해서 버무려서 놓으면,}

10501 #아주 하:야케 퍼, 새:똥, 꼭 새:똥겨찌 뭐.  
{아주 하얗게 퍼, 새똥, 꼭 새똥 같지 뭐.}

10501 #새:똥모, 모양으루 퍼야지 이제 그걸 수를 다마.  
{새똥모, 모양으로 퍼야지 이제 그걸 술을 담아.}

- 10501 #그러커마는 새:똥거치 한 이틀마네 파:마는, 그거를 인제 향아릴 여그다 드러다노코 오지향아릴 드러다노코,  
{그렇게 하면 새똥같이 한 이틀만에 피면, 그거를 이제 향아리를 여기다 들여다놓고, 오지향아릴 들여다놓고,}
- 10501 #그러커구 인제 그 다 편, 아주 새:똥거치 그냥 이르케 바스러지게 퍼지마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 편, 아주 새똥같이 그냥 이렇게 바스러지게 퍼지면,}
- 10501 #그걸 여그다가 가따가서는 저기 노쿠 그걸 거기 향아리에다 다마.  
{그걸 여기다가 갖다가서는 저기 놓고 그걸 거기 향아리에다 담아.}
- 10501 #당:꾸 인제 무를 인제 시:마리구 너:마리구,  
{잠고 이제 물을 이제 서 말이고 너 말이고,}
- 10501 #인제 한말 저기해싱께는 한 그냥 서너말 되게 무를 여기다가 뷁:놔.  
{이제 한 말 저기했으니깐 한 그냥 서너말 되게 물을 여기다가 부어 놔.}
- 10501 #그러구 누룩 이짜나 또. 말:, 말: 해:서 인제 누루글.  
{그리고 누룩 있잖아 또. 밀, 밀 해서 이제 누룩을.}
- 10501 #누루글 또 인제 해:서 맨드러서 띄여서, 엔 | 나레는 띠:, 띠:지.  
{누룩을 또 인제 해서 만들어서 띄워서, 옛날에는 띄, 띄우지.}
- 10501 #그 인제두 저런, 인제 그 누루근 먼 누루기야 나두 인제 저 강화으베서 사와보지만.  
{그 이제도 저런, 이제 그 누룩은 뭘 누룩이야 나도 이제 저 강화음에서 사와보지만.}
- 10501 #우더런 그냥 마:를 아주 빵에다가 곱:따너케 이러케 어니 정도 가라가주구 누루글 맨드러찌. 똥:그라케.  
{우리들은 그냥 밀을 아주 방아에다가 곱단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갈아가지고 누룩을 만들었지. 동그랗게.}
- 10501 #이러케 그냥. 그저네두 누룩 판두 인는데 그냥 베보재기에다가 해:서 이러케 그냥 뭉치면 똥:그라케 돼.  
{이렇게 그냥. 그 전에도 누룩 판도 있는데 그냥 베보자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그냥 뭉치면 동그랗게 돼.}
- 10501 #그러만 그냥 그거 띄여가지구 누룩 맨드러서.  
{그러면 그냥 그거 띄워가지고 누룩 만들었어.}
- 10501 #그러케해서 누루글 이제 한장이구 두:장이구 또 쿡쿡 인제 바슬러 저 돌:절구에다 찌어. 송괘이루다. 곱다너케.  
{그렇게 해서 누룩을 이제 한 장이 있고 두 장이 있고 또 쿡쿡 이제 부슈. 저 돌절구에다 찢어. 방망이로다, 곱단하게.}
- 10501 #찌어서 그러케해서 여그다 가따가서는 이제 그거 술 밥 띠:언 거 여기다 허만 거기따가선 한장이구 두:장이구 그 누룩뚜 쫌 너어.  
{찌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가서는 이제 그거 술밥 띄운 거 여기다 하면 거기다가선 한 장이고 두 장이고 그 누룩도 쫌 넣어.}
- 10501 #그러만 그거 인제 누룩술 데는 거야.  
{그러면 그거 이제 누룩술 되는 거야.}
- 10501 #한지 일:주이리구 한 파릴, 파리리구 그러케 해서 인제 데마는 그거 인제 게:자나. 꿀럭꿀럭꿀러카구.  
{한 지 일주일이고 한 팔일, 팔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 그거 이제 고이잖아. 꿀럭꿀럭하고}
- 10501 #떠올라서 게:. 그러구서는 한 반 정도 게:마는, 이러케 찌거머거보면 아주 달크무르를 허구 그러면섬두 마시찌 뉘.

- {떠올라서 고여. 그리고선 한 반 정도 고이면, 이렇게 짝어먹어보면 아주 달큰하고 그러면서도 맛있지 뭐.
- 10501 #그래서 그거이 인제 다 게:마는 또 찹쌀, 삼, 찹쌀 주글 썬:. 바블 허든지 주글 썬:  
{그래서 그제 이제 다 고이면 또 찹쌀, 찹쌀 죽을 썬. 밥을 허든지 죽을 썬.}
- 10501 #그러켄 멍쌀루 해:두 되구 그런데 찹쌀주글 해:서 썬만, 썬:서 여기다가 흥그를허게 또 무를 해:가지구 여기다 뷘:  
{그렇게는 멍쌀로 해도 되고 그런데 찹쌀죽을 해서 썬면, 썬서 여기다가 흥그를허게 또 물을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
- 10501 #그리마는, 찹쌀주글 해:부마는 수리 호리호리허구 달크믈허구 마시꾸 아주.  
{그러면, 찹쌀죽을 해 부으면 술이 호리호리하고 달큰하고 맛있고 아주.}
- 10501 #멍싸를 허만 좀 들 호로로허구, 그래.  
{멍싸를 하면 좀 들 호로로하고 그래.}
- 10501 #그러케 해서 인제 또 다: 게:마는 그쫂게 저런 그 그쫂게는 아주 그냥 저 찹쌀주글 해:서 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 고이면 그쪽에 저런 그 그쪽에는 아주 그냥 저 찹쌀죽을 해서 부어서,
- 10501 #한 사미리구 사:이리구 데마는 다 게:마는, 아주 동 다: 가라양꾸 아주 동동주가 데는 거야.  
{한 삼일이구 사일이구 되면, 다 고이면면 아주 동, 다 가라앉고 아주 동동주가 되는 거야.}
- 10501 #아주 노:라케 그냥. 그 누루기구 뭐구 그런 건 기냥 야간 뜨구, 다: 가라안저.  
{아주 노랄게 그냥. 그 누룩이고 뭐고 그런 건 그냥 약간 뜨고, 다 가라앉아.}
- 10501 #그리곤 그냥 그리만 그냥 바가지루다 이러케 마:러서 그냥 가따 떠다가두 그냥 머꾸,  
{그리고는 그냥 그러면 그냥 바가지로다 이렇게 밀어서 그냥 갖다 떠다가도 그냥 먹고,}
- 10501 #청주루두 떠서 인제 체에다 바타서 그냥 병에다 다마노코두 머꾸.  
{청주로도 떠서 이제 체에다가 밭아서 그냥 병에다 담아놓고도 먹고.}
- 10501 #근데 그냥 막걸리루 머글라만 더러는 그러카구, 그냥 막 걸러서, 걸러서 다마노쿠 먹찌 뭐.  
{그러는데 그냥 막걸리로 먹으려면 더러는 그렇게 하고, 그냥 막 걸러서, 걸러서 담아놓고 먹지 뭐.}
- 10501 #그리구 항아리에 그냥 저 썬느런 데 내:다노쿠 그냥 머글 때만 저기해서.  
{그리고 항아리에 그냥 저 썬늘한 데 내다놓고 그냥 먹을 때만 저기해서.}
- 10501 #그럼 인젠 허는 사람 음:썬, 안해. 내:나 저기해서 허지.  
{그럼 이젠 하는 사람 없어, 안 해. 나나 저기해서 하지.}
- 10501 #내나 저기해서 허지, 인제두 저:런데 저 고구쳐네 그쫂 사람드리 좀 마:니 해.  
{나나 저기해서 하지, 이제도 저런 데 저 고구촌에 그쫂 사람들이 좀 많이 해.}
- 10501 #할머니들두 그러꾸 절믄 사람들두 그러구. 근데 이쫂게선 허는 사람 별루야, 안해.  
{할머니들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그런데 이쪽에선 하는 사람 별로야, 안 해.}
- 10501 #난 기냥 여기 우리 저 삼추니 그저네 이:장 보구 그럴 때 여기 처뚜마리 드러오는, 창꼬 인는 데 그 삼추니,  
{난 그냥 여기 우리 저 삼춘이 그전에 이장보고 그럴 때 여기 첫머리 드러오는, 창고 있는 데 그 삼춘이,}
- 10501 #이:장두 보구 저 면:사무소 사람들두 그냥 며, 마:니 그냥 손님들두 오구 그냥 그리마는,  
{이장도 보고 저 면사무소 사람들두 그냥 며, 많이 그냥 손님들도 오고 그냥 그러면,}
- 10501 #저기, 형수가 한: 막걸리가 조:타구 그냥 저:기헌다구 그래니까,  
{저기, 형수가 한 막걸리가 좋다고 그냥 저기한다고 그러니까,}

- 10501 #해:주만, 그니겐 그걸 인천 가따 와따 가따허는 저:기 시장에서,  
{해주면, 그러니까 그걸 인천 갔다 왔다 갔다하는 저기 시장에서,}
- 10501 #사가지구 와서 당가서 그냥 내가 주구, 이:럴 때두 머꾸 그냥 그런다구 그래서 내가 이 보메두  
한번 해찌.  
{사가지고 와서 담가서 그냥 내가 주고, 일할 때도 먹고 그냥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 봄에도  
한 번 했지.}
- 10501 #해:서 모짜리들 허는 날 그냥 걸러서 그러케서 빠케스에다 해:서 올려보내, 가따머그라구,  
{해서 못자리들 하는 날 그냥 걸러서 그렇게 해서 양동이에 해서 올려보내, 갖다먹으라고,}
- 10501 #가따들 머꾸, 오민가민 그냥들 머꾸 그러게 그래따구드라구. 저기해서.  
{갖다들 먹고, 오며가며 그냥들 먹고 그러게 그랬다고 하더라고. 저기해서.}
- 10501 @ 마시켄네요 아주. (#응?) 마시께썬요.  
{맛있겠네요 아주. (#응?) 맛있겠어요.}
- 10501 @ 그리구 아까 또 그 연 만드는 과정에서 시캐 얘기도 잠깐 하셔짜나요. (#영.) 시캐는 또 어뜨게  
만드는.  
{그리고 아까 그 옛 만드는 과정에서 식혜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영.) 식혜는 또 어떻게  
만드는.}
- 10501 #시캐는 그저넌 소테다가 여쨌기들 그러케 새겨서. (#2 그 해서 좀 해서 좀 줄걸 그래꾸만.) 그러케해서  
그냥 저기해서 그러는데.  
{식혜는 그 전엔 솔에다가 옛 삭이듯 그렇게 새겼어. (#2 그 해서 좀 해서 좀 줄 걸 그랬구만.)  
그렇게 해서 그냥 저기해서 그러는데.}
- 10501 #근데, 그냥 이 양바니 그런, 그걸 조아해 시캐를.  
{그런데, 그냥 이 양반이 그런, 그걸 좋아해 식혜를.}
- 10501 #근데 인제 이 저:기에두 강:기가 드러서 저기허구 바:메두 그냥 뭘 저기허만 잡썬스만 허니까는  
이 여르메두 저기야.  
{그런데 이제 이 저:기에도 감기가 들어서 저기하고 밤에도 그냥 뭘 저기하면 잡썬으면 하니깐  
이 여름에도 저기야.}
- 10501 #장차 해:서, 그래 해서 두:버늘 해서 잡썬, 근데 인저는 소테다 안허지.  
{장차 해서, 그래 해서 두 번을 해서 잡썬, 그런데 이제는 솔에다 안 하지.}
- 10501 #밥통, 보:온밥, 밥통 이짜나.  
{밥통, 보온밥, 밥통 있잖아.}
- 10501 #거그다 바패가지구, (#2 거기다 하몬 조아.) 그냥 열끼, 열끼리미 사다가서는 그냥.  
{거기다 밥해가지고, (#2 거기다 하면 좋아.) 그냥 열끼, 열끼름 사다가서는 그냥.}
- 10501 #한 봉 사다 걸러서 밥 줌 해, 인제 그냥.  
{한 봉 사다 걸러서 밥 줌해, 이제 그냥.}
- 10501 #\*\* \*\* \*\* 업시 그러케 해.  
{\*\* \*\* \*\* 없이 그렇게 해.}
- 10501 #그러만 요런 밥 해:명은 솔 거기다가서는 해:가지구서는 한 봉, 시캐 한 봉 사다 걸러서,  
{그러면 이런 밥 해먹는 솔 거기다가서는 해:가지구서는 한 봉, 식혜 한 봉 사다 걸러서,}
- 10501 #그러케 해서 그냥 가라안쳐서 그러케 해서 인제 바비 다: 되마는 다 되서 저기허구 그리마는 거  
걸러놔면 여끼리미.  
{그렇게 해서 그냥 가라안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이 다 되면 다 되서 저기하고 그러면 거,

- 걸러냈던 옛기름.}
- 10501 #그걸루 그냥 밥통에다가 뵤.  
{그걸로 그냥 밥통에다가 부어.}
- 10501 #뵤:뵤서 그냥 이러케 해:노만 그거는 감주는 다섯시간 그러케 되만 사가.  
{부어 뵤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는 감주는 다섯시간 그렇게 되면 삭아.}
- 10501 #다서여서찌간. (#2 그러면 지베서 해머끼 조아.)  
{다서여섯시간. (#2 그러면 집에서 해먹기 좋아.)}
- 10501 #그러커마는 그냥 저기야. 엔:나렌 그거 소판지에다 똑 이러케 그냥 뵤:가지구서 까:쓰에다 끄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저기야. 옛날엔 그거 솔단지예다 똑 이렇게 그냥 부어가지고서 가스예다 끓이는데.}
- 10501 #그걸루다가 한:손 꿀깍 안치마는 인제 요런 양은냄비에다가 더러 질러서 부꾸.  
{그걸로다가 한 솔 꿀깍 안치면 이제 이런 양은냄비에다가 더러 질러서 붓고.}
- 10501 #까:쓰에다 끄리구, 그냥 그거 인제 저기 취사를 놀러. 그러면 거기서 끄러.  
{가스예다 끓이고, 그냥 그거 이제 저기 취사를 놀러. 그러면 거기서 끓어.}
- 10501 #그러면 그냥 설탕 조금 너꾸, 인제 여끼리미가 덜: 달자나.  
{그러면 그냥 설탕 조금 넣고, 이제 옛기름이 덜 달잖아.}
- 10501 #그니깐 좀 달다:너케 머글라머는 설탕을 좀 너. 끄려서 쪼:릴 때.  
{그러니까 좀 달달하게 먹으려면 설탕을 좀 넣어. 끓여서 졸일 때.}
- 10501 #그러캐서 그냥 해:노쿠서는 저 김치냉장고에 너어노쿠 저너기마는, (#2 그저네 지비서 하는 여끼리미는 아주 진짜루 조완는데, 이젠 사다쓰는거 가지구 조차나.) 그럼 인제는 보리를 안심짜나.  
{그렇게 해서 그냥 해놓고선 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이면, (#2 그전에 집에서 하는 옛기름은 아주 진짜로 좋았는데, 이젠 사다쓰는 거 가지고 좋잖아.) 그런 이제는 보리를 안 심잖아.}
- 10501 #그러니까는. (#2 그 설탕을 야간 너야, 머끼가 조아.) 저기허구.  
{그러니까. (#2 그 설탕을 약간 넣어야, 먹기가 좋아.) 저기하고.}
- 10501 #응, 그러캐섬 그래서 이 저기 여르메두 강:기드러서 저기허구 그냥 기침나구 그리만 저기호만 바:메 그냥 하나: 업씨나 그러케 되마는 또,  
{응,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저기 여름에도 감기들어서 저기하고 그냥 기침나고 그러면 저기하면 밤에 그냥 하나 없이나 그렇게 되면 또.}
- 10501 #저기 기침나서 저기호만 찬 거 잡쭈만 저기하니까 또,  
{저기 기침나서 저기하면 찬 거 잡수면 저기하니까 또.}
- 10501 #내, 좀 냄:비에다 좀 끄려서 따끄년 거 잡쭈 적뚜 이꾸, 어드런 땀 그냥 퍼다 잡쭈 적뚜 이꾸, 그러치.  
{내, 좀 냄비에다 좀 끓여서 따끈한 거 잡쭈 적도 있고, 어떤 땀 그냥 퍼다 잡쭈 적도 있고, 그렇지.}
- 10501 #그러케 해 머저, 저기두. (#2 그런 건 쉬워. 지베서 해머끼 조꾸.) 그건 쉬워, 인전, 지베서 해멍는건.  
{그렇게 해: 먹어, 저기도. (#2 그런 건 쉬워. 집에서 해:먹기 좋고.) 그건 쉬워, 이제, 집에서 해먹는 건.}
- 10501 #엔:나렌 그저 소테만 새겨서 불만 때:야대는 줄 안테 인제는 전:기밥쏘시 이짜나.  
{옛날엔 그저 솔에만 삭혀서 불만 때야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기밥솔이 있잖아.}
- 10501 #나미 자리가 데서 저기지? 자물 저기해서 줄: 줄:리나봐.  
{남의 자리가 되서 저기지? 잠을 저기해서 줄, 줄리나봐.}
- 10501

(#2 가마 씨 이 아가씨는 여기 침이나?) 침 완나봐? (@2 처음 와썬요 애는.)  
 {(#2 가만 있어, 이 아가씨는 여기 처음이나?) 처음 왔나봐? (@2 처음 왔어요 애는.)}

10501 #퍼나니 안저, 발저려.  
 {편안히 앉아, 발 저려.}

10501 #2 학교 마쳐 가치? (@2 예, 이제 대학원 이제 드려와썬요 이버네.)  
 {#2 학교 마쳐 갔지? (@2 예, 이제 대학원 이제 들어왔어요 이번엔.)}

10501 #어어.  
 {어어.}

10501 @ 지애는 석사를 이제 바다꾸요 이버네, 바다꾸, 저친구도 이제 곧 이제 해서 바, 열썬미 해서 바다야 하구요.  
 {지애는 석사를 이제 받았고요, 이번에, 받았고, 저 친구도 이제 곧 이제 해서 바, 열심히 해서 받아야 하고요.}

10501 @ 그럼 된장 간장 꼬추장도 다 담가 잡썬신 거예요 엔나레는?  
 {그럼 된장 간장 고추장도 다 담가 잡썬신 거예요 옛날에는?}

10501  
 (#2 지금두 당가떡찌.)#지금두 당가떡찌 그렇거야.  
 {(#2 지금도 담가 먹지.) 지금도 담가 먹지, 그런 거야.}

10501 #이유, 인제 화:과네두 어저께 그냥 한:거시기 퍼가서, 저거. (#2 아주 된장 마신는내 난다그러던데.)  
 그러지요?  
 {아유, 이제 회관에도 어저께 그냥 한 거시기 퍼 갔어, 저거. (#2 아주 된장 맛있는 내 난다 그러던데.) 그렇지요?}

10501 #응, 아주: 그냥 저기헌 사람들 매, (#2 우린 꼬추장 된장 다 허는 거 가튼데) 된:장, 된:장을 담가다 머그만 아유 우린 인제두 저기두 양배추 찌서 그냥 저기자나.  
 {응, 아주 그냥 저기헌 사람들 매, (#2 우린 고추장 된장 다 허는 거 같은데) 된장, 된장을 담가다 먹으면 아유 우린 이제도 저기도 양배추 찌서 그냥 저기잖아.}

10501 #그 인:천사람들 온데 그저 받 나가서 꼬추 따다 찌거머꾸.  
 {그 인천사람들 온 데 그저 받 나가서 고추 따다 찍어먹고.}

10501 #그냥 저기 요런 냄:비에다 끄려서 꼬추장하고 된:장하고 떠다가서는, 그냥 끄려선 멩는데 마시따꾸들 허데.  
 {그냥 저기 이런 냄비에다가 끓여서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떠다가서는, 그냥 끓여선 먹는데 맛있다 고들 하데.}

10501 #어저께두 그러게, 여기 동네 된:장덜, 그러게 된:장 그런 거 짜야지 되자나.  
 {어저께도 그러게, 여기 동네 된장들, 그러게 된장 그런 거 짜야지 되잖아.}

10501 #된:장 그런 거 짜야지, 안짜면 좀 틀리자나. (#2 여름에 벌레나자나.)  
 {된장 그런 거 짜야지, 안 짜면 좀 틀리잖아. (#2 여름에 벌레 나잖아.)}

10501 #버, 아이, 벌레두 짜두 저기허긴 허지마는, 그러케 저:기야.  
 {버, 아이 벌레도 짜도 저기허긴 허지만, 그렇게 저기야.}

10501 #된:장이 싱거마는 시크므르해요. 그래서 짜게 당그자나.  
 {된장이 싱서우면 시큼해요. 그래서 짜게 담그잖아.}

10501 #그러니깐 그냥 이러케 찌거머끼는 좀 저기라구려는데, 어저께 거 퍼간는데 그래요, 아유: 된:장 만만 음는데 무어이 아주머이 어드러타 그래요 그러게.

-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찍어먹기는 좀 저기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거 퍼갔는데 그래요, 아유 된장 맛만 없는데 뭐가 아주머니 어땠다 그래요 그러게.}
- 10501 #짜게 당그니켄 마시꾸 그냥, 그저넨 이 고기 귀머꼬 동네서 그냥 이 사네 올라서 고기귀그 마, 머꾸 그리만 그저 우리 된장만 퍼다먹찌.  
{짜게 담그니깐 맛있고 그냥, 그 전엔 이 고기 구워 먹고 동네에서 그냥 이 산에 올라가서 고기 구워 마, 먹꾸 그러면 그저 우리 된장만 퍼다 먹지.}
- 10501 #여 내가 그냥 다: 내가 끄려서 가따주구, 뭐 미끼리탕허구,  
{여 내가 그냥 다 내가 끓여서 갖다주고, 뭐 미꾸라지탕하고,}
- 10501 #올:다니만 이 사네다가서는 양은술 가따노쿠 불 때구 그냥 그 나무 그 사네서 그냥 때:니깐.  
{올라다니면 이 산에다가서는 양은술 갖다놓고 불 때고 그냥 그 나무 그 산에서 그냥 때니까.}
- 10501 #해:서 머꾸, 저 서울 사람드리 아저씨드리 오만 그저네, 그러게 호준 어머니가 늘? 그 소리 허자나.  
{해서 먹고, 저 서울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오면 그 전에, 그러게 호준 어머니가 늘 그 소리 하잖아.}
- 10501 #에유:, 그럴때가 아주먼네 사네서 미끼리루 탕끄려서 머꾸 그럴 때가 조은 시저리지 인진.  
{에유, 그럴 때가 아주먼네 산에서 미꾸라지로 탕끓여서 먹고 그럴 때가 좋은 시절이지 이제.}
- 10501 #그저 까스에만 허구 그냥 저기허구 그래.  
{그저 가스에만 하고 그냥 저기하고 그래.}
- 10501 #난 어끄저께두 저기 저 양은소테다 바괘가지구 바블 다 놀려서 해:머거뵈네.  
{난 엇그저께도 저기 저 양은술에다 밥 해가지고 밥을 다 놀려서 해먹어뵈네.}
- 10501 #저기 누룽지 해머글랴구.  
{저기 누룽지 해먹으려고.}
- 10501 #아이 그런데, 저기야. 그 현:미쌀리 조타구그래서 현:미쌀을 십기로 사다가 바블 해멍는데,  
{아이 그런데, 저기야. 그 현미쌀이 좋다고 그래서 현미쌀을 십기로 사다가 밥을 해멍는데,}
- 10501 #그 현미쌀리 조타그래두 탁탁타타커구 저기야. (#2 딱따캐.)  
{그 현미쌀이 좋다 그래도 탁탁탁탁하고 저기야. (#2 딱딱해.)}
- 10501 #암넉쏘테다가 허닝까는 해먹지.  
{압력술에다가 하니까는 해먹지.}
- 10501 #그런켄 현:미, 찹쌀, 그리께는 찹쌀러구 멍쌀러구는 저기허는데,  
{그러니까 현미, 찹쌀, 그러니까는 찹쌀하고 멍쌀하고는 저기하는데,}
- 10501 #현:미쌀을 십기로를 사다가 찹쌀러구 멍쌀러구 서견 데다가 그거를 호:나블 해가지구 하는데,  
{현미쌀을 십기로를 사다가 찹쌀하고 멍쌀하고 섞은 데다가 그거를 혼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 10501 #암넉쏘테다가 허마는 좀 난:데, 그냥 이러케 허니까는 더 탁, (#2 그런건 마스루 멍나 조:대니깐 멍는거지.) 탁타그려.  
{압력술에다가 하면 좀 나운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더 탁,}
- 10501 #거 응 서리태콩하구 서껴서 그냥 해:멍는데, 저기드라구.  
{거 응 서리태콩하고 섞어서 그냥 해멍는데, 저기더라고.}
- 10501 #꼬추장 된:장 다 저기지, 그럼.  
{고추장 된장 다 저기지.}
- 10501 #이 기우리만 인제 콩농사를 해가지구, 기우리만 인제 콩타자글 호마는 인제, 저기야.  
{이 \*\*\*\* 이제 콩농사를 해가지고, \*\*\*\* 이제 콩타작을 하면 이제, 저기야.}
- 10501 #이 저기 아래, 뭐야, 메:주를 썬. 소테다가.  
{이 저기 아래, 뭐야, 메주를 썬.}

- 10501 #소테다 인제 콩을 인자 한마리구, (#2 가마이썬, 동지아래 쏘나?) 그러묘. 아래 쏘쥬.  
{솔에다 이제 콩을 이제 한 말이고, (#2 가만 있어, 동지 아래 쏘나?) 그럼요. 아래 쏘쥬.}
- 10501 #아유 이 저기 김장만 끝나만, 김장만 끝나만 메:주 쏘는 거야.  
{아유 이 저기 김장만 끝나면, 김장만 끝나면 메주 쏘는 거야.}
- 10501 #메주를 썬서, 그러케 해서 인제 메주를 맨드러서 놔따가서는.  
{메주를 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메주를 만들어서 놔다가서는.}
- 10501 #인제 뿌득뿌득 말르머는 지브루다가, 지브루다가 여겨서 저:기다가서는 마당에 인제 저런 눈: 안오구  
해뻐뚜 좀 썬구 그런 데다가 매:다라.  
{이제 뿌득뿌득 마르면 짚으로다가, 짚으로다가 엮어서 저기다가서는 마당에 이제 저런 눈 안  
오고 햇볕도 좀 세고 그런 데에다가 매달아.}
- 10501 #매:다라따가서는 그거 인제 서:팔, 음넉 음넉 서:팔, 구뭉, 명일 인제 델 임바캐서,  
{매달았다가서는 그거 이제 선달, 음력 음력 선달, 그믐, 명일 이제 될 임박해서.}
- 10501 #그걸 떠어다가서는 박스에다가서는 재: 이러케, 뜨드턴데 노쿠. 집 노쿠, 그러커구 메:주를, 재:.  
{그걸 띄워다가서는 박스에다가서는 재. 이렇게, 뜨듯한 데 놓고. 짚 놓고, 그렇게 하고 매주를,  
재.}
- 10501 #그러마는 인제 뜨자나? 그러만 멩일 세구, 정월짱을 담가야 장:을 인제 저기야, 모짜리 허기 저네  
쫘:리구 그린다구.  
{그러면 이제 뜨잖아? 그러면 명일 쇠고, 정월짱을 담가야 장을 이제 저기야, 못자리 하기 전에  
줄이고 그런다고.}
- 10501 #인제 그냥 정월, 한 저기야, 센:지 한 이시보일, 그 저기 이십사이리나 이시보일 그 경에는 장을  
담가.  
{이제 그냥 정월, 한 저기야, 신지 한 이십오일, 그 저기 이십사일이나 이십오일 그 경에는 장을  
담가.}
- 10501 #당가따가서는, 당가따 한달. (#2 거 으 음료술 하나씩, 한잔씩 주니.) 음료수두, (#2 우리 조은 거  
이썬.) 응?  
{담갔다가서는, 담갔다 한달. (#2 거 으 음료를 하나씩, 한 잔씩 주지.) 음료수도, (#2 우리  
좋은 거 있지.) 응?}
- 10501 (#2 그 쏘무를 조금씩 줘.) 으응, 응, (#2 쏘, 쏘.) 저기야.  
{(#2 그 쏘물을 조금씩 줘.) 으응, 응, (#2 쏘, 쏘) 저기야.}
- 10501 #이걸 뽐바야지. (#2 뜨더다가.) 저기에다가, 인제 매:시리구 뭐구 다 효:소만들자나. 쏘뚜 인제 그러케  
한:거지 머.  
{이걸 뽐바야지. (#2 뜯어다가.) 저기에다가, 이제 매실이고 뭐고 다 효소 만들잖아. 쏘도 이제  
그렇게 한 거지 뭐.}
- 10501 #2 이 할머니가 맨드른 거, 저 쏘내 향기나구 조아. 쏘기 사:랑께두 조차나.  
{이 할머니가 만든 거, 저 쏘내 향기나고 좋아. 쏘이 사랑께도 좋잖아.}
- 10501 #2 또 이 해:풍마즌 쏘기 조타, 강화쏘기 그래서 조타 그러지.  
{또 해풍 맞은 쏘이 좋다, 강화쏘기 그래서 좋다 그러지.}
- 10501 @2 강화 약쏘. (#2 그림. 바다 근처에꺼 다 찢라다가서.)  
{강화 약쏘. (#2 그림. 바다 근처에 거 다 찢라다가서.}
- 10501 #2 그거 일련 돌만에 짜가지구 먹찌.  
{그거 일 년, 돌만에 짜가지고 먹찌}

- 10501 #2 근데 그런 거이 조:은데, 해머끼 귀차느니께 그냥 해:서 저러케 두구 우덜두 커:피만 머거.  
{그런데 그런 게 좋은데, 해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해:서 저렇게 두고 우리들도 커피만 먹어.}
- 10501 #2 난 다리가 시원칠 아나서 이러커구 이서.  
{난 다리가 시원칠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 10501 @ 예 아유아유 괜차느습니다, 예.  
{예, 아유아유 괜찮으십니다.}
- 10501 #2 나 삼급장애야.  
{나 삼급장애야.}
- 10501 @ 된장을 만들다 마라썬요, 아까. (#된장?) 아까 메주 떼워 띄워노쿠.  
{된장을 만들다 말았어요, 아까. (#된장?) 아까 메주 떼워, 띄워놓구.}
- 10501 #메:주를 인제 그러케해서 띄어. 뽕쓰에다가서는 인제 지블 인제 한케씩 너쿠, 인제 띄여가지구서는,  
{메주를 이제 그렇게 해서 띄워. 박스에다가서는 이제 짚을 이제 한 켠씩 넣고, 이제 띄워가지고서  
는,}
- 10501 #정월 인제 저기 한 이시보일 그러케 되마는 인제 장:을 당가. 소금무를 타.  
{정월 이제 저기 한 이십오일 그렇게 되면 이제 장을 담가. 소금물을 타.}
- 10501 #인제 메:주 메:주 한마를 썬마는, 닷때.  
{이제 메주, 메주 한 말을 썬면은, 닷 되.}
- 10501 #다때를 메주 다때를 한마를 썬:마는 인제 소금두 인제 동가블 해.  
{닷 되를 메주 닷 되를 한 말을 썬면 이제 소금도 이제 동갑을 해}
- 10501 #소금두, 소금두 동가블 해서 인제 무를 인제 시:마리구 얼마구 인제 저기야 노켜. 소금 한마레다가.  
{소금도, 소금도 동갑을 이제 물을 이제 서 말이고 얼마고 이제 저기야 녹여. 소금 한 말에다가.}
- 10501 #그러케서 노켜서, 인제 그냥 다: 소그미 노그마는 체에다 인제 그 무를 바타.  
{그렇게 해서 녹여서, 이제 그냥 다 소금이 녹으면 체에다 이제 그 물을 받쳐.}
- 10501 #바타서, 인제 향아리를 장또까네다 가따가, 그 장 당으는 향아리가 이짜나.  
{밭아서, 이제 향아릴 장독간에다 갖다가, 그 장 담그는 향아리가 있잖아.}
- 10501 #그르만 거기다가서는 향아리를 노쿠선, 인제 장또까네다가 노쿠서는,  
{그러면 거기다가서는 향아리를 놓고선, 이제 장독간에다가 놓고서는,}
- 10501 #메:주를 인제 띄여겨를 다: 인제 그냥 다: 이러케 깨끄시 인제 썬치. 다: 갈가내구.  
{메주를 이제 띄운 거를 다 이제 그냥 이렇게 깨끗이 이제 씻어. 다 갈아내고.}
- 10501 #인제 저:기자나 시:서리 남:짜나, 곱팡이, 그 저:기가 나야 메주가 그이 뜨는거야. 이러케 새까마케.  
{이제 저기잖아 시설이 남잖아, 곱팡이, 그 저기가 나야 메주가 뜨는 거야. 이렇게 새까말게.}
- 10501 #그러만 인제 그냥 무레다 그걸 다 따까서, 바구니에다가 건져 놔따가, 햇볕에다가 인제 좀 꺼덕꺼덕  
게 말려.  
{그러면 이제 그냥 물에다 그걸 다 닦아서, 바구니에다 건져 놔다가, 햇볕에다가 이제 좀 꺼덕꺼덕  
하게 말려.}
- 10501 #그러케다가서는 장:간 타서 가따가서는 향아리에다가 부언 데다가서는 그 메 메:주 말링거 그걸  
가따가 거기다 느:치 뭐.  
{그렇게 해다가서는 장간 타서 갖다가서는 향아리에다 부은 데다가서는 그 메, 메주 말린 건  
그걸 갖다가 거기다 넣지 뭐.}
- 10501 #너:쿠서는 순뚜 두어덩어리 느쿠, 대:추도 느쿠. 그냥 꼬:추도 빨간 꼬추도 좀 느쿠.  
{넣고서는 숯도 두어 덩어리 넣고, 대추도 넣고. 그냥 고추도 빨간 고추도 좀 넣고.}

- 10501 #그러케 해서, 장:을 당그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장을 담그는 거야.}
- 10501 #그러마는 그거이 인제 저기 그저네는 한달 되만 쫓:린다고 옛날 할머이드른 그랜는데,  
{그러면 그제 이제 저기 그전에는 한 달 되면 졸인다고 옛날 할머니들은 그랬는데,}
- 10501 #인전 당근지 한 이:시보일, 그저 한 이:심뉴길 그러케 되마는, 저기야, 쫓:려.  
{이젠 담근지 한 이십오일, 그저 한 이십육일 그렇게 되면, 저기야, 졸여.}
- 10501 #된:장때이를 엔:나레는, 된:장을 그거 된:장땡이만 그저 건져서 인제 소금쳐서, 인제 향아리에다  
저련는데,  
{된장 덩이를 옛날에는, 된장을 그거 된장 덩이만 그저 건져서 이제 소금 쳐서, 이제 향아리에다  
절였는데,}
- 10501 #지그든, 그거뚜 내가 여기선 새봄 내떠래서, 이동네서.  
{지금은, 그것도 내가 여기선 새 본을 냈더랬어, 이 동네에서.}
- 10501 #인제 콩을 인제 신데 두:리구 얼마구 살마.  
{이제 콩을 이제 신데 들이고 얼마고 삶아.}
- 10501 #살마서 그냥 지비서 그냥 저 절구에다 쿡쿡 썰, 그냥.  
{삶아서 그냥 집에서 그냥 저 절구에다 쿡쿡 썰, 그냥.}
- 10501 #그냥 곱다너케 다 찌꾸 그냥 저기허게 인제 그냥 고게 그냥 뭐 지 찢:쑤나 이야 힘들구 그러니까  
기냥 절구에다 그냥 찌어가지구,  
{그냥 곱단하게 다 찢고 그냥 저기허게 이제 그냥 그제 그냥 뭐 지 찢을 수나 이야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절구에 다 그냥 찢어가지고,}
- 10501 #그러케가지구서는 인제 된:장때이 건질 때, 가치, 가치 버무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된장땡이 건질 때, 같이, 같이 버무려.}
- 10501 #그르겐 막된장이야, 인제 막된장들 맨드러서 먹짜나.  
{그러니까 막된장이야. 이제 막된장들 만들어서 먹잖아.}
- 10501 #그러케선 그냥 거기다가 짹:라게 소금치지 뭐, 소그물 너.  
{그렇게 해선 그냥 거기다가 짹짹하게 소금 치지 뭐, 소금물 넣어.}
- 10501 #너:서 그냥 가치 버무려. 그냥 거기 콩살믈거허구 된:장때이 건진거허구,  
{넣어서 그냥 같이 버무려. 그냥 거기 콩 삶은 거하고 된장땡이 건진 거하고,}
- 10501 #그러케해서 다라이에다 다: 건져서 노쿠 아주 그냥 다 주물러서 그러케서 그냥 버무려 곱따나케  
다 주물러 깨트려서.  
{그렇게 해서 다라이에다 다 건져서 놓고 아주 그냥 다 주물러서 그렇게 해서 그냥 버무려,  
곱단하게 다 주물러 깨트려서.}
- 10501 #엔:날 할머이드른 그저 된:장향아리 그냥 된:장때이 건지구 소금 술술 뿌리구 그냥 이러케서 저려찌.  
{옛날 할머니들은 그저 된장향아리 그냥 된장땡이 건지고 소금 술술 뿌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절였지.}
- 10501 #인전 그냥 다라이에다 된장때이 건져서 콩 삶은 거 찌언 거허구 소금 너쿠 그러케서 버무려.  
{이젠 그냥 대야에다 된장땡이 건져서 콩 삶은 거 찢은 거하고 소금 넣고 그렇게 해서 버무려.}
- 10501 #그러케해서 그리구 꼬추씨, 꼬추씨 그런 거 가라다 좀 너어. 얼크나라구.  
{그렇게 해서 그리고 고추씨, 고추씨 그런 거 갈아다 좀 넣어. 얼큰하랴구.}
- 10501 #꼬추씨좀 가라서 그냥 가따가서는 너:타, 그 꼬추씨가 조차나.  
{고추씨 좀 갈아서 그냥 갖다가서는 넣다, 그 고추씨가 좋잖아.}

- 10501 #그거좀 느쿠 그러커구 버무려, 버무려서는 그러커서 된:장항아리에 당:꾸서는 그냥, 꺾꺾 눌러서 그러커서 노쿠선.  
{그거 좀 넣고 그렇게 하고 버무려, 버무려서는 그렇게 해서 된장항아리에 담고서는 그냥, 꺾꺾 눌러서 그렇게 해서 놓구선.}
- 10501 #인제 오래 저린 건 내너네 머꾸, 먼저 저린 거 인제 머꾸, 재장너네 저린 건 오래 머꾸, 오래 저린 건 인제 내너네 먹찌.  
{이제 올해 절인 건 내년에 먹고, 먼저 절인 거 이제 먹고, 재작년에 절인 건 올해 먹고, 올해 절인 건 이제 내년에 먹지.}
- 10501 #근데 오래 저린 거뚜, 그러케 해서 저려떠니, 저기야 괜차나. 그냥 막똥장 청국장거치, 청국똥장 거뜨라구. 꼬러머그니까.  
{그런데 올해 절인 것도, 그렇게 해서 절였더니, 저기야 괜찮아. 그냥 막똥장 청국장 같이, 청국똥장 같더라고. 끓여 먹으니까.}
- 10501 #오래 한: 거, 그러케해. 저기 장: 당으는거. (#2 니들두 다 그러케 해머거야대 이다메 시집까머는.)  
{올해 한 거, 그렇게 해. 저기 장 담그는 거.}
- 10501 #그러게 인제 우리 며누리가,  
{그러게 이제 우리 며느리가,}
- 10501 #며누리가 접:때도 오나, 오나서 인제 아드라고 저 쌀 머 식량 그런 거 가질러 와서, 배:추 뭐 김치 그런 거.  
{며느리가 저번 때도 와, 와서 이제 아들하고 저 쌀 뭐 식량 그런 거 가지러 와서, 배추 뭐 김치 그런 거.}
- 10501 #우더리 좀 뜬:허게 가, 가뜨니. 그래가지구서는 저, 가질러 오나는데.  
{우리들이 좀 뜬하게 가, 갔더니. 그래가지고서는 저, 가지러 오는데.}
- 10501 #뭐야, 그냥 저런 거 두부를 내가 해찌. 국 오만 떠머글 거 업서서 두부를 해서.  
{뭐야, 그냥 저런 거 두부를 내가 했지. 국 오만면 떠먹을 거 없어서 두부를 했어.}
- 10501 #저 바닷물 떠다가 놔:따가.  
{저 바닷물 떠다가 놔다가.}
- 10501 #바닷물 떠다놔따가서는 콩을 조금 당가따가 두부를, 인전 두부도 그저네 그냥 소테다가 허구, 그러겐 멥일가튼 때 여럿 머글 땀 소테다 허구,  
{바닷물 떠다놔다가서는 콩을 조금 담갔다가 두부를, 이제 두부도 그 전에 그냥 솔에나가 하고, 그러니까 멥일 같은 때 여럿 먹을 땀 솔에다 하고,}
- 10501 #우리끼리 머글 땀 그냥 밥통에다 해:두 돼, 까:쓰에 해두 돼. 쪼끔씩 허는 건.  
{우리끼리 먹을 땀 그냥 밥통에다 해도 돼, 가스에 해도 돼. 쪼끔씩 하는 건.}
- 10501 #그러커서 순두부를 맨드러 놔뜨니, 저기, 어므니 이거 여기 저 인천 가서 내가 해머거두 되나, 되나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두부를 만들어 놔더니, 저기, 어머니 이거 여기 저 인천 가서 내가 해먹어도 되나, 되나요 그래, 그래서,}
- 10501 #해머거두 되지 그럼, 내가 짬물 기러다는 거 꼬러서 그러케 해서 음료수똥에다가 하나 가지구 가서,  
{해먹어도 되지 그럼, 내가 짬물 길어다놓은 거 끓여서 그렇게 해서 음료수병에다가 하나 가지구 가서,}
- 10501 #콩 가주구 가서 그러케 해서 허마는 밥통에다 꼬러서 해:두 까쓰에 꼬러서 해:두 되구 그러니깐

해:두 된다, 내가 그랜, 그러니깐,  
 {콩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하면 밥통에다 끓여서 가스에 끓여서 해도 되고 그러니깐 해도 된다, 내가 그랜, 그러니깐,}

10501 #내가 한번 해:봐야지요 그런, 그래드라구.  
 {내가 한 번 해:봐야지요 그런, 그러더라고.}

10501 #그래서, 저기 해:라. 뭐 어려울 꺼 인냐. 콩 당가따가, 다: 부른대야 믹서에다 가라서 주머이에다 짜서, 매:뻥 짜지 그건 아주 말간 무리 나드락 콩 두부하는 건.  
 {그래서, 저기 해:라. 뭐 어려울 거 있냐. 콩 담갔다가, 다: 붙은 다음에 믹서에다 갈아서 주머이에다 짜서, 몇 번 짜지 그건 아주 말간 물이 나도록 콩 두부하는 건.}

10501 #그러케서 짜서 소테다가 꼬려.  
 {그렇게 해서 짜서 솥에다가 끓여.}

10501 #꼬려가지구서는 우루루, 간:데 꼬려서 꼬르마는, 좀 놔:뒤따가 그르마는 이제 혼니부리 짜:가져.  
 {끓여가지고서는 우루루, 가운데 끓여서 끓으면, 좀 놔:뒤다가 그러면 이제 흠이불이 작아져.}

10501 #이러케 두꺼께, 아주 짜:가지면 고거 가서 요러케 허마넌 아주  
 {이렇게 두껍게, 아주 작아지면 그거 가서 이렇게 하면 아주}

10501 #두껍따: 허는 혼니불, 이라구 그거 요러케 지버져. 그러면 그거 건져내구,  
 {두껍다 하는 흠이불 이라고 그거 이렇게 집어져. 그러면 그거 건져내구,}

10501 #거기다가 인제 바닷물 짠물 기러운 거를  
 {거기다가 이제 바닷물 짠물 길어온 거를.}

10501 #한물 한번 꼬려따가서는 꼬린거를 거기따가서는 이러케 가늘 주는 거야. 그제 간준다 그래.  
 {한 물 한 번 끓였다가서는 끓인 거를 거기에다가서는 이렇게 간을 주는 거야. 그제 간준다 그래.}

10501 #사발에다가 두:리 되든지 세:시 되든지 인제 거기다가 인제 그 콩물 꼬린 데다가 줘.  
 {사발에다가 돌이 되든지 셋이 되든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콩물 끓은 데다가 줘.}

10501 #그러마는 한번 주마는 그냥, 그냥 고대로 이렇게 그냥 물대루 두구 뽀:안 게 그냥 이서.  
 {그러면 한 번 주면 그냥,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물대로 두고 뽀:안 게 그냥 있어.}

10501 #그리구 또 두:번째 또 주마는 망울망울:해져.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주면 망울망울:해져.}

10501 #그걸 덴: 간을 덴통 주마는 두부가 안 나오. 안 당겨, 안돼.  
 {그걸 된 간을 된통 주면 두부가 안 나오, 안 담겨, 안돼.}

10501 #그냥 그걸 또 두:번째 두만 이러케, 망울망울:하게 인제 돼.  
 {그냥 그걸 또 두번째 두면 이렇게, 망울망울:하게 이제 돼.}

10501 #그럼 또 세:번째 또, 또 줘. 인제, 그 간수를.  
 {그러면 또 세 번째 또, 또 줘. 이제, 그 간수를.}

10501 #그러면 그쪼게는 그냥 이러:케 덩어리가 지게 엉겨.  
 {그러면 그 쪽에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가 지게 엉겨.}

10501 #세:번 줘서도 또 들 들, 어 인제 가늘 뜨게 주니까.  
 {세 번 줘서도 또 들 들, 어 이제 간을 뜨게 주니까.}

10501 #뜨게 줘:야 두부두 마:니 나구 두부가 말랑말랑한 게 마시찌,  
 {뜨게 줘야 두부도 많이 나고 두부가 말랑말랑한 게 맛있지.}

10501 #대:버네 그냥 저기허구 그리마는 우리 여기 삼춘 말투로 우리,

- {대번에 그냥 저기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삼촌 말투로 우리,}
- 10501 #저, 지년어머이 허는 두부는 저 벽돌두부라구, 판따나다구. 인제 그르지.  
{저, 진현 어머니 하는 두부는 저 벽돌두부라고, 딱딱하다고. 이제 그러지.}
- 10501 #형수가 허는 건 말랑말랑한테 그냥 우리 지년어머이가 허는 건 벽돌두부야 벽돌두부야 그냥, 그래.  
{형수가 하는 건 말랑말랑한테 그냥 우리 진현어머이가 하는 건 벽돌두부야 벽돌두부야 그냥, 그래.}
- 10501 #그러케 해. 그냥 그러케 해서 또 세:번 주고도 가니 그냥 이러케 놀:루게 또 안되구 좀 명술명술허만 가늘 쪼끔 더줘.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세 번 주고도 간이 그냥 이렇게 부르게 또 안 되고 좀 명술명술하면 간을 조금 더 줘.}
- 10501 #그러만 인제 놀:루게 돼. 그러만 강 노:라케 그냥 그 저거가, 뭐야, 무리, 촌무리 생겨.  
{그러면 이제 놀르게 돼. 그러면 그냥 노랗게 그냥 그 저거가, 뭐야, 물이, 솟물이 생겨.}
- 10501 #그러만 그걸 좀 질루 그러커구 보재기 피구 그러커구서는, 또 놀러서 머글래만 모루 해서 머꾸, 또 순두부 다:러 퍼노쿠.  
{그러면 그걸 좀 질로 그렇게 하고 보자기 피고 그렇게 하고서는, 또 놀러서 먹으려면 모로 해서 먹고, 또 순두부 더 퍼놓고.}
- 10501 #그러커구 두부두 해머꾸. (#2 바단무레다 허면 두부가 더 말랑말랑하구 조야.) 말랑말랑해.  
{그렇게 하고 두부도 해먹고. (#2 바닷물레다 하면 두부가 더 말랑말랑하고 좋아.) 말랑말랑해.}
- 10501 #소금, 인제 간수라 그러자나 간수.  
{소금, 이제 간수라 그러잖아 간수.}
- 10501 #그거는 소금짬래기를 가따가 놔:두마는 인제 여기다가 인제 소금짬래기를 올려놔.  
{그거는 소금 자루를 갖다가 놔두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금짬래기를 올려 놔.}
- 10501 #그리구서는, 요:기다가서는 인제 그르슬 놔:두만 그 소그미, 그거이 인제 노가서 여기에 간수가 떠러지는 거야. 그러마는, (#2 소금치면 안돼지.)  
{그리고선, 여기다가서는 이제 그릇을 놔 두면 그 소금이, 그제 이제 녹아서 여기에 간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2 소금치면 안되지.)}
- 10501 #그걸루다가서는, 그걸 병에다가 다마놔:따가서는.  
{그걸로다가선, 그걸 병에다 담아놔다가서는.}
- 10501 #그걸루 인제 두부허는 거야. 근데 그걸로다허마는, 인제 되긴 허는데 좀,  
{그걸로 이제 두부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하면, 이제 되긴 허는데 그것도 좀,}
- 10501 #그것도 인제 그냥, 저:기허게 아주 짜게 그냥 서:서히 허마는 괜찬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저기허게 아주 짜게 그냥 서서히 하면 괜찬는데,}
- 10501 #된: 가늘 질러서 허만 두부가 판따나고 마시 업써.  
{된 간을 질러서 하면 두부가 딱딱하고 맛이 없어.}
- 10501 #우리는 그냥 흐니 바단무를 마니 떠다 꼬려노코 해. 인제도 저기도 꼬려서 다마노쿠.  
{우리는 그냥 흔히 바닷물을 많이 떠다 끓여놓고 해. 이제도 저기도 끓여서 담아놓고.}
- 10501 #저 음료수뽕 그런데다 다마노쿠. 이런 병에다가서는. 다마노쿠 그러커구, 두부도 그러케 해서 머꾸 그러지 뭐.  
{저 음료수병 그런 데다 담아놓고. 이런 병에다가서는. 담아놓고 그렇게 하고, 두부도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지 뭐.}
- 10501 @ 아까 된장은 만드셨는데 고추장 만드는 건 말쓰를 안해주셨는데.

- {아까 된장은 만드셨는데 고추장 만드는 건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 10501 #꼬추장은? (@ 네.) 꼬추장은 또 꼬추장은 인제 찹쌀꼬추장을 당을라마는 멍쌀 찹쌀을 차 찹쌀만 바:다두 새기구.  
{고추장은? (@ 네.) 고추장은 또 고추장은 이제 찹쌀고추장을 담그려면 멍쌀 찹쌀을 차 찹쌀만 뽕아다가도 삭히고.}
- 10501 #인제 그냥 마:니 인제 한말씩 허만 저런 큰 소테다 새기구.  
{이제 그냥 많이 이제 한 말씩 하면 저런 큰 소테다 삭히고.}
- 10501 #인제 그냥 저 이러케 부를 때:가민 미지근:하게 해:서 새기구, 근데 인저는 (#2 새키는 과정을 아:르켜줘야지.)  
{이제 그냥 저 이렇게 불을 때가며 미지근하게 해:서 새기고, 그런데 이제는 (#2 삭히는 과정을 가르쳐줘야지.)}
- 10501 #그르케 인제 여끼리를 사다 또 걸러 그거뚜. (#2 응.)  
{그르케 이제 옛기름을 사다 또 걸러 그것도. (#2 응.)}
- 10501 #당가따가, 메:빼늘 짜 아주 말간 무리 나드락.  
{담갔다가, 몇 번을 짜 아주 말간 물이 나도록.}
- 10501 #짜서 그냥 이런 다라이에다가서는 그냥 해:서 걸러가지구선 그냥 그 뽕:안 무를 그냥 곧:체에다가 바타서 여이 다라이에다 이러케 다마놔.  
{짜서 그냥 이런 대야에다가서는 그냥 해:서 걸러가지고서 그냥 그 뽕안 물을 그냥 고운 체에다가 밧아서 여이 대야에다 이렇게 담아 놔.}
- 10501 #다마노쿠, 그 무레다가 개:. 인제 가루, 쌀가루 바:온 걸.  
{담아 놓고, 그 물에다가 개. 이제 가루, 쌀가루 뽕아온 걸.}
- 10501 #인제 개:. 큰소테다 할려면 그냥 거기다 다마서, 그 기리민무를 그냥 부어가면 몽:그:러케 그냥 해.  
{이제 개, 큰 솔에다 하려면 그냥 거기다 담아서, 그 (옛)기름물을 그냥 부어가며 몽근하게 그냥 해.}
- 10501 #그르케 해:서, 소테다가 부를 때:야지 그거이 미지근허든지 따드터든지 해야 사글 꺼 아냐.  
{그렇게 해:서, 솔에다가 불을 때야지 그게 미지근하든지 띠뜻허든지 해야 삭을 거 아냐.}
- 10501 #그르케서 새키구 소테다 하는 건. 그르케 해:서 허구.  
{그렇게 해:서 새기고 솔에다 하는 건. 그렇게 해:서 하고.}
- 10501 #또 쫄:꿈 하는 건 인제 밥통이 큰:거 이짜나. 그러면 밥통에다 큰: 밥통에다가서는  
{또 조금 하는 건 이제 밥통이 큰 거 있잖아. 그러면 밥통에다 큰 밥통에다가서는}
- 10501 #저기야, 뒤:서식 새겨.  
{저기야, 두어서씩 삭혀.}
- 10501 #그, 연끼리미를 개:가지구. 그 가루를 개:가지구, 누구누굴허게.  
{그 옛기름을 개 가지고. 그 가루를 개 가지고, 누구누굴허게.}
- 10501 #그르케해:서 그냥 곧자서, 보:오느로 곧자노마는 그냥 아주 다서씨가니만 다 사가. 다서여서씨가니만, 그거뚜.  
{그렇게 해:서 그냥 꽃아서, 보온으로 꽃아놓으면 그냥 아주 다섯 시간이면 다 삭아. 다서여섯 시간이면, 그것도.}
- 10501 #그르케만 아주 말:간 무리 돼. 그 가루, 이러케 되:지커게 해:서 다마노은 거이, 아주 말:간 무리 돼. 다 사그마는.  
{그러면 아주 말간 물이 돼. 그 가루, 이렇게 되직하게 해:서 담아놓은 게, 아주 말간 물이 돼.

다 삭으면.}

10501 #그러만 그찌겐 쪼:리는 거야. 때:서, 인제.  
{그러면 그때엔 즐이는 거야. 때:서, 이제.}

10501 #되:다너케 해서 꼬추까루 쳐서, 저기할 정도로 때:.  
{되단하게 해서 고춧가루 쳐서, 저기할 정도로 때:}

10501 #이러케 주거그로 이러케 해:바가민.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해봐가며.}

10501 #그러면 꼬추까루가 드러가마는 그러케 해서 되마는 다 인제,  
{그러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되면 다 이제,}

10501 #대려서 인제 될 열 꼬추장이 될 정도 되마는 다라이에다 그 무를 퍼.  
{대려서 이제 될 열 꼬추장이 될 정도 되면 대야에 그 물을 퍼.}

10501 #푸마는 그찌게는 메주까루, 메주, 메주 말려서 방:거.  
{푸면 그때에는 메줏가루, 메주, 메주 말려서 뺏은 거.}

10501 #그거, 꼬추까루, 그러케 치구서는 그냥 버무리, 꼬, 버무리지 뭐.  
{그거 고춧가루, 그렇게 치고서는 그냥 버무리, 꼬, 버무리지 뭐.}

10501 #그러케 해서 꼬추장 당으는 거지 뭐. (#2 저런 데서 파는 건 그러케 아날거야.)  
{그렇게 해서 고추장 담그는 거지 뭐. (#2 저런 데서 파는 건 그렇게 안 할 거야.)}

10501 #그러케 해서 다마노치 뭐. 단적찌에다, 단적찌에다 그냥. (#2 지베서 멍는 건 그러케 머거야돼.)  
{그렇게 해서 담아놓지 뭐. 단지, 단지에다 그냥.}

10501 #그러케 해서 멍는 거야. 꼬추장. 그러케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고추장. 그렇게 해서.}

10501 @ 인제 된장 만들고 꼬추장 만드려쓰면 이제 짱아찌도 좀 만드려야 될거예요.  
{이제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었으면 이제 장아찌도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10501 #짱아찌? (@ 예.) 짱아찌는 뭐 여기서는 그러기는, 인제 저기허드만. 이 마늘쫑 나오는 거 이짜나 짱아찌 당을라만.  
{장아찌는 뭐 여기서 그러기는, 인제 저기허드만. 이 마늘쫑 나오는 거 있잖아 장아찌 담그러면.}

10501 #그러케 뭐 저런데서는 호:방, 아 저기 이 콩이파리 짱아찌도 된:장에 바가따 머꾸들 그래자나.  
{그러케 뭐 저런 데서는 호박, 아 저기 이 콩이파리 장아찌도 된장에 박았다 먹고들 그러잖아.}

10501 #여긴 그런 거 아내. 아랫녘 싸람드리 콩닙 그런 거 먹찌.  
{여긴 그런 거 안 해. 아랫녘 사람들이 콩잎 그런 거 먹지.}

10501 #그러케 이제, 마늘짱, 마늘쫑두.  
{그러케 이제 마늘짱, 마늘쫑도.}

10501 #마늘쫑두 저기야. 해:서 인제 가따가서는 소금무레다가 인제 그걸 저려.  
{마늘쫑도 저기야. 이제 갖다가서는 소금물에다 이제 그걸 절여.}

10501 #저려따가서는, 그걸 가니 머그마는, 건져서 좀 뿌득뿌득: 말린대.  
{절였다가서는, 그걸 간이 먹으면, 건져서 좀 뿌득뿌득 말린대.}

10501 #말려따가서는, 꼬추장을 버무려서, 그리겐 다른, 그러커마는 꼬추장, 이 단적찌에다 허만 꼬추장을 버리자나.  
{말려다가서는, 고추장을 버무려서,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하면 고추장, 이 단지에다 허만 고추장을 버리잖아.}

10501 #그러니까는, 따로 쪼금 인제 머글만치 이런, 저기 김치통 거튼 데다 담아서

{그러니까, 따로 조금 이제 먹을만큼 이런, 저기 김치통 같은 데다 담아서.}

10501 #요만큼씨커게 잘라서 머끼 조케 그 마늘짱아찌를.  
{이만큼씩하게 잘라서 먹기 좋게 그 마늘장아찌를.}

10501 #콩을, 잘라서 꼬추장을 떠서, 거기다 인제 버무려서 인제 다마노쿠.  
{콩을, 잘라서 고추장을 떠서, 거기다 이제 버무려서 이제 담아놓고.}

10501 #그이, 그거이 짱아찌야.  
{그, 그게 장아찌야.}

10501 #짱아찌, 허는 건, 그리구 다른 거뚜 인제 된:장을 헐래두 된:장을 따루 그러케 허구,  
{장아찌, 허는 건,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된장을 하려도 된장을 따로 그렇게 하고,}

10501 #여기선 그냥 된:, 저기야. 그리구, 오:이지.  
{여기선 그냥 된, 저기야. 그리고, 오이지.}

10501 #오:이지 다, 또 당가따가. 노:라케 당가따가.  
{오이지 다, 또 담갔다가. 노랄게 담갔다가.}

10501 #그거뚜 인제 저기해서 좀 짜니까, 짜니까 조금 쓰러서 당가따가서는 놀:리아돼. 망짜, 이런 보재기에다 해서.  
{그것도 이제 저기해서 좀 짜니까, 짜니까 조금 쓸어서 담갔다가서는 놀러야 돼. 망짜, 이런 보재기에다 해서.}

10501 #놀:러따가서는, 꼬추장이나 된장에 바가서 짱아찌 해:멍는 건, 통에다 따루 해:서,  
{놀렀다가서는,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아서 장아찌 해먹는 건, 통에다 따로 해서,}

10501 #엔날 사람드른 그거뚜 그냥 덴:장 향아리에다 무더씨, 통으루.  
{옛날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된장 향아리에다 묻었어, 통으로.}

10501 #그러만 그냥 덴:장이 저기 무리 생기구, 그전 사람드른 몰라서, 미려내서 그냥 그저 너:따 끄내서 머꾸 그래찌.  
{그러면 그냥 된장이 저기 물이 생기구, 그전 사람들은 몰랐어. 미려해서 그냥 그저 넣었다 꺼내서 먹고 그랬지.}

10501 #인저는 고런 거뚜 짱아찌를 당을라만 좀 우:려서, 보재기에다 해서 망짜글 놀러서 무리 짝 뺨:대메.  
{이제는 그런 것도 장아찌를 담그려면 좀 우려서, 보재기에다 해서 망짜(맷돌짜)을 놀러서 물이 짝 빠진 다음에.}

10501 #뺨:대메 이런 통에다가구 된:장을, 거기다가 당가서 이러케 버무려서. 놀러노쿠 그저 냉장고 이쓰께 냉:장고에 노쿠.  
{빠진 다음에 이런 통에다가 된장을, 거기다가 담가서 이렇게 버무려서. 놀러놓고 그저 냉장고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고.}

10501 #그러케 먹찌, 인제는. 엔:날 싸람드른 향아리에다 그냥 그.  
{그렇게 먹지, 이제는. 옛날 사람들은 향아리에다 그냥 그.}

10501 #그러구 짱:금치두 그러케 해서여. 짱:금치두 먹따 나브마는.  
{그리고 장김치도 그렇게 했어요. 장김치도 먹다 남으면.}

10501 #근데 그거이 엔:나렌 그게 질: 조타구 그러는 거야. 이 하라버이 인제두 그러커라구이짜나.  
{그러던데 그게 옛날엔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 할아버지 이제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잖아.}

10501 #짱금치를 머꾸 나쁜 거를, 가으레 인제 해빠람 나구 그르자나.

- {장김치를 먹고 남은 거를, 가을에 이제 햇바람 나고 그러잖아.}
- 10501 #그르먼 인제 그냥 통에다가 그 짱김치를 짹짹 빼글러서 당가.  
{그러면 이제 그냥 통에다가 그 장김치를 짹짹 빼개서 담가.}
- 10501 #그걸 아주 매:칠씩 우려, 아주 하:야트락.  
{그걸 아주 며칠씩 우려, 아주 하양도록.}
- 10501 #우리만 주를 쭉: 매구 그걸 가따가 척척 이러케 그냥 짹짹 빼글러서 그냥 그걸 통째 인제 말리,  
꾸득꾸득 말리자나.  
{우리면 줄을 쭉 매고 그걸 갖다가 척척 이렇게 그냥 짹짹 빼개서 그냥 그걸 통째 이제 말리,  
꾸득꾸득 말리잖아.}
- 10501 #그른대매 그냥 가따가서는 그걸 된:장에다가 그냥 바, 는:는거야.  
{그런 다음에 그냥 갖다가서는 그걸 된장에다가 그냥 바, 넣는 거야.}
- 10501 #너:따가서는 그거 한 쪽씩 끄:내다가서는, 기우레 그냥 그거 쯤 쓰, 송덩송덩 쓰러느쿠, 된:장 끄러머꾸.  
{넣었다가서는 그거 한 쪽씩 꺼내다가서는, 겨울에 그냥 그거 쯤 쓰, 송덩송덩 썰어넣고, 된장  
끓여먹고.}
- 10501 #근데 인제는 그러케 안하지, 거기다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지, 거기다는.}
- 10501 #허마는, 된:장이 틀려. 인제는 허마는 따루따루따루 다.  
{하면, 된장이 틀려. 이제는 하면 따로따로따로 다.}
- 10501 #뭐 저런 고들빼기구 뭐구 다 그런 거 무더서 머글랴문 따루따루. 인젠 그러케 해멍는 거지 뭐.  
{뭐 저런 고들빼기고 뭐고 다 그런 거 묻어서 먹으려면 따로따로. 이젠 그렇게 해멍는 거지  
뭐.}
- 10501 #그, 그러케 먹지 뭘, 쟁아찌 당오는 거뚜. 그런 시그루 하는 거지 뭐.  
{그, 그렇게 먹지 뭘, 장아찌 담그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 10501 @ 그 이쪼게선 떠근 어떤 떡뜨를 주로 해머겨쪼요?  
{그 이쪼게선 떡은 어떤 떡들을 주로 해머었어요?}
- 10501 #떠근, 옛:나레는 인:절미를 마니 해찌. 아이구, 옛:나레는,  
{떡은, 옛날에는 인절미를 많이 했지. 아이구, 옛날에는,}
- 10501 #옛:나레는 저기 떡뚜 인제 시집짱개 보내자나 이사람, 이 하라버이 이제 누이던 누이든지, 동생이든지  
장겘 보내자나?  
{옛날에는 저기 떡도 이제 시집장가 보내잖아 이 사람, 이 할아버지 이제 누이든지, 동생이든지  
장가를 보내잖아?}
- 10501 #그리마는 새길 보낸다구 보내, 인제. 누이는 인제 어드루 시지블 보내자나?  
{그러면 새 길 보낸다고 보내, 이제. 누이는 이제 어디로 시집을 보내잖아?}
- 10501 #저 고:구리, 고구촌 인는 데루 인제 시지블 보낸다 그래?  
{저 고구리, 고구촌 있는 데로 이제 시집을 보낸다 그래?}
- 10501 #그리만 거기다 보내만 인제 조그미따 지비 친정에루 오나.  
{그러면 거기다 보이면 이제 조금 있다 집에 친정으로 와.}
- 10501 #오:나만, 오마는 여그 와서 그냥 한 여리리구 이:시비리구 인제 이 친정에서 쉬어따 가.  
{오면, 오면 여기 와서 그냥 한 열일이고 이십일이고 이제 이 친정에서 쉬었다 가.}
- 10501 #그르마는 저기 해:서 보낸다구, 큰기레서 보낸다구, 찻싸를 당가따가서는, 지비서 인제 시루에다  
찌가지구.

- {그러면 저기 해서 보낸다고, 큰길에서 보낸다고, 찹쌀을 담갔다가서는 집에서 이제 시루에다 찌가지고.}
- 10501 #두:벌 찌지, 한벌 찌마는 꼬드꼬드커자나? 그리니까는 인제 두:버를 찌마는,  
{두 벌 찌지, 한 벌 찌면 꼬득꼬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벌 찌면,}
- 10501 #바가지에다가 인제 소금무를 좀 건겨:나게 타서 그걸 그 시루에다 그냥 퍼너쿠 인제 무를 쥐.  
{바가지에다 이제 소금물을 좀 건건하게 타서 그걸 그 시루에다 그냥 퍼놓고 이제 물을 쥐.}
- 10501 #무를 쥐가지구, 그거를 또 한김 올라오드락 그냥 부를 때:. 그러케 허만 그 바비 찌득:찌득:캐요.  
{물을 쥐가지고, 그거를 또 한김 올라오도록 그냥 부를 때. 그렇게 하면 그 밥이 찌득찌득해요.}
- 10501 #그러면 퍼다가서는, 그저네 나무절구. 저러케 돌:절구나 이서나.  
{그러면 퍼다가서는, 그 전에 나무절구. 저렇게 돌절구나 있었나.}
- 10501 #그 절구두 이런데다가 그냥 이런 냥:구칸 이런데다 노쿠서는,  
{그 절구도 이런 데다가 그냥 이런 나뭇간 이런 데다 놓고서는,}
- 10501 #그거를 그냥 저기, 뭐야, 메,(#2 멩메.) 멩메, 그거루다가서는 사:라미 쳐.  
{그거를 그냥 저기, 뭐야, 메, (#2 떡메.) 떡메, 그걸로다가서는 사람이 쳐.}
- 10501 #쳐서, 물루다가 그냥 이러케 깨껴느미 쳐.  
{쳐서, 물로다가 그냥 이렇게 깨껴 넣으면서 쳐.}
- 10501 #그르만 차떡, 인절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차떡, 인절미가 되는 거야.}
- 10501 #그르만 파슬 쌀마서 쿡쿡 그냥 찌가지구 똥그란떡 인제 속: 싸서 엔:나렌 뭐 속: 싸서 똥그라케나 해나.  
{그러면 팔을 삶아서 쿡쿡 그냥 찌가지고 똥그란 떡 이제 속: 싸서 옛날엔 뭐 속: 싸서 똥그랄게나 했나.}
- 10501 #이러케 보리차떡 모양으루. 그 파슬 싸구 이마:너케, 이러케 이러케 맨드러서 그냥 상에다 쪽 다라.  
{이렇게 보리차떡 모양으로. 그 팔을 싸고 이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상에다 쪽: 달아.}
- 10501 #그러케서 그냥 이런 함:지에다가서는 그걸 하:낙씩 해서, 해서 저 엔:나레는 무슨 차가 이서 뭐 이서. 뭐 경운기가 이서 뭐 이 트랙타가 이서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런 함지에다가서는 그걸 하나씩 해서, 해서 저 옛날에는 무슨 차가 있어 뭐 있어. 뭐 경운기가 있어 뭐 이 트랙터가 있었어.}
- 10501 #저, 동:차라구 그런 거 이짜나. 거기다가 해:서 실:꾸 데려다 주는 거야.  
{저, 동차라고 그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해서 실고 데려다 주는 거야.}
- 10501 #아유, 언더리나게 떡두 허구 아주 이 하라버이가 골지를 다 우리게.  
{아유, 언더리나게 떡도 하고 아주 이 할아버지가 골질을 다 우리게.}
- 10501 #동생덜 다, 아들 새명제, 딸 성제. 다 해:서, 그런 거 해:서 보내구.  
{동생들 다, 아들 삼형제, 딸 삼형제. 다 해서, 그런 거 해서 보내고.}
- 10501 #그러케 떡, 그리구 시루떡.  
{그렇게 떡, 그리고 시루떡.}
- 10501 #서:파레, 서:팔 되마는 인제 멩일 설:라마는  
{선달에, 선달 되면 이제 멩일 쇠려면}
- 10501 #인제 새루 농사 진 거라구 쌀 뒤:파가서는 그걸 바:다가서는 파슬 케케두구 그러커구서는  
{이제 새로 농사 지은 거라고 쌀 뒀다가서는 그걸 뺏아다가서는 팔을 켜켜이 그렇게 하고서는}

- 10501 #고:사떡, 인제 다 교회나가구 저기하니깐 안쓰도 그걸 다. 떠글 찌다가서는 그냥 저런데다가 노쿠 또 할머니더리 또 빌:구 그러드만. 예, 엔:날 할머니들.  
{고사떡, 이제 다 교회나가구 저기하니깐 그걸 안 쓰도, 그걸 다 떡을 찌다가서는 그냥 저런 데다가 놓고 또 할머니들이 또 빌고 그러드만. 예, 옛날 할머니들.}
- 10501 #그러케, 고사 지낸다구. 고사 지내구 그르, 그레 그러케 허더라구. 엔날 우리 시할머이 우리 시어머이 서.  
{그렇게, 고사 지낸다고. 고사 지내고 그르, 그레 그렇게 허더라고. 옛날 우리 시할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 10501  
(#2 시루떡 찌는 거뚜 가르켜줘야지. 떠까루 바:서.) 시루떡 찌는 거 뭐, 저기 시루떡 찌는 거는,  
{(#2 시루떡 찌는 것도 가르켜 줘야지. 떡가루 빵아서.) 시루떡 찌는 거 뭐, 저기 시루떡 찌는 거는,}
- 10501 #인제 바:, 그저네는 뭐 저런 기계가 인나? 지비서 그거뚜 다 바:찌.  
{이제 바, 그전에는 뭐 저런 기계가 있나? 집에서 그것도 다 빵았지.}
- 10501 #그러케다 체에 다. 그걸 처.  
{그렇게다 체에 다 그걸 처.}
- 10501 #한벌 바서 치구, 또 두벌 바서 치구, 아주 그거이 떡무거리가 요만큼 남뜨락 바. 바서 곤:체에다 처.  
{한 벌 빵아서 치고, 또 두 벌 빵아서 치고, 아주 그제 떡무거리가 이만큼 남도록 빵아. 빵아서 고운체에다 처.}
- 10501 #그러케가지구, 파슬 쌀마가지구 인제 해:가지구서는 인제 저, 뭐야, 이런 저이 냉:면대접 가튼 거루다가 시루를 노쿠.  
{그렇게 해서, 팔을 삶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선 이제 저, 뭐야, 이런 저 냉면대접 같은 걸로다가 시루를 넣고.}
- 10501 #그러커구선 거기다 하나 둘, 이러케 시루에다가 해:서 요리케 요리케 피구서는 또 파슬 케케 또 노쿠.  
{그렇게 하고선 거기다 하나 둘, 이렇게 시루에다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퍼고서는 또 팔을 켜켜이 또 넣고.}
- 10501 #또 떠까루 노쿠 또 팔 노쿠, 그러커구서는 한 서너너더켜씩 시루가  
{또 떡가루 놓고 또 팔 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한 서너너더켜씩 시루가}
- 10501 #인제 이거 시루래만 그냥 이러케 떠러지드락 이만큼 한 서너너더켜씩 노쿠  
{이제 이거 시루라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만큼 한 서너너더켜씩 놓고}
- 10501 #그러카구선 또 소테다 안쳐서 시루빼늘 다 발르지 뭐.  
{그렇게 하고선 또 솔에다 안쳐서 시룻번을 다 바르지 뭐.}
- 10501 #시루뻐 발르구 그러커구서는 또 디려따 때 그거 익뜨락.  
{시룻번 바르고 그렇게 하고서는 또 들입다 때 그거 익도록.}
- 10501 #때:서 인제 김: 올라서 놔:뒤따가서는 또 이진나 아니진나 인제 저갈짝 찌거보마는,  
{때서 이제 김 올라서 놔뒀다가서는 또 익었나 안 익었나 이제 젓가락씩 찍어보면.}
- 10501 #거기가 인제 하:얀 가루가 안 무더나만 이경 거야.  
{거기가 이제 하얀 가루가 안 묻어나면 익은 거야.}
- 10501 #그르만 그냥, 이런 보재기 피구 거기다 가따 시를 쏘다.

- {그러면 그냥, 이런 보자기 펴고 거기에 갖다 시루를 쏟아.}
- 10501 #쏟:꾸 시루밑 띠구 그러커구 다: 찰라서 그러면 아주 케가 짹다 다 이러나지 뭐.  
{쏟고 시루밑 떼고 그렇게 하고 다 찰라서 그러면 아주 켜가 짹다 다 일어나지 뭐.}
- 10501 #그러만 다라이에다 다: 케로는, 다마서 노쿠 두구두구 먹기두 허구. 그러케 하지 뭐. 시루떡 찌는 거.  
{그러면 대아에다 다 켜로는, 답아서 놓고 두고두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뭐. 시루떡 찌는 거.}
- 10501 @ 그러고보니까, 그 팔, 파꼬물 이케 켜켜로 노쿠 한 게 고게 시루떡이구요. (#그러치.) 그다음에 또 시루에 찌는 띠근 또 모가 이썬요 그러믄?  
{그러고보니까, 그 팔, 팔고물 이렇게 켜켜로 놓고 한 게 그게 시루떡이구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시루에 찌는 띠근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 10501 #막떡? (@ 막떡근 어떤.) 막떡근 그냥 저 저기 서리태 콩이나 무슨 콩 두고 가루에다가, (#2 송편 가튼 거 만드는 거뚜, 건 송편은 쌀가루에 해서 그냥 맨드러가지구 찌지.)  
{막떡? (@ 막떡은 어떤.) 막떡은 그냥 저 저기 서리태 콩이나 무슨 콩 두고 가루에다가, (#2 송편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건 송편은 쌀가루에 해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찌지.)}
- 10501 #그럼. 찌기두 허구, 삼:끼두 하구 엔:나렌. 그러커지 뭐, 그냥.  
{그럼.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옛날엔. 그렇게 하지 뭐 그냥.}
- 10501 #경거, 솔잎 따다가서는 경글러코. 경글러코 송편은.  
{경거, 솔잎 따다가서는 섞고, 섞고 송편은.}
- 10501 (#2 그런 거 잘해.) 막떡? 막시루떡? 막시루떡근 가루를 바:서, 인제 서리태나 무슨 등피기콩이나 뭐 속: 퍼런 거나 그런 걸 너코 그냥 막 버무려.  
{(#2 그런 거 잘해.) 막떡? 막시루떡? 막시루떡은 가루를 뺏아서 이제 서리태나 무슨 등피기콩이나 뭐 속: 퍼런 거나 그런 걸 넣고 그냥 막 버무려.}
- 10501 #그러커구선 그냥 시루에다 그냥 케를 안너코 막 퍼부어.  
{그렇게 하고선 그냥 시루에다 그냥 케를 안 넣고 막 퍼부어.}
- 10501 #그러케서 찌서 그냥 툽툽 떠어서 멩는 게 막떡이지 뭐.  
{그렇게 해서 찌서 그냥 툽툽 떠어서 멩는 게 막떡이지 뭐.}
- 10501 @ 그 막떡근 찹쌀로 하는 거구요?  
{그 막떡은 찹쌀로 하는 거고요?}
- 10501 #그건 찹쌀 너:두 대구 안너두 대구 그래, 그건. 너:두, (#2 찹쌀 너면 좀 떠기, 부드럽꾸 찢기지.) 부드럽꾸, 그럼.  
{그건 찹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 그건. 넣어도, (#2 찹쌀 넣으면 좀 떡이, 부드럽고 질기지.) 부드럽고, 그럼.}
- 10501 #(#2 멩쌀 너으면 좀 헤실헤실허구.) 멩쌀루 허는 건 인제 콩을 너:서 저기하만 거기다 무를 좀 너쿠 버무려.  
{(#2 멩쌀 넣으면 좀 헤실헤실하고.) 멩쌀로 하는 건 이제 콩을 넣어서 저기하면 거기다 물을 좀 넣고 버무려.}
- 10501 #메, 찹쌀을 안느면. 그래야 좀 찌만 부드러니까.  
{메, 찹쌀을 안 넣으면. 그래야 좀 찌면 부드러우니까.}
- 10501 #인제 떡뺏아까네서 바:는 거뚜 인제 찹쌀 안 느쿠

- {이제 떡방앗간에서 빵는 것도 이제 찹쌀 안 넣고}
- 10501 #그냥 인제 그걸 내릴 때 거기다가 무를 좀 이러케 함지에 인제 내리자나 인제 기계에서. 그러면 거기다 무를 느쿠, 그냥 이러케 버무려.  
{그냥 이제 그걸 내릴 때 거기다가 물을 좀 이러케 함지에 이제 내리잖아 이제 기계에서. 그러면 거기다 물을 넣고, 그냥 이러케 버무려.}
- 10501 #그러케해서 또 바:구, 또 바:구 그러자나 인제.  
{그렇게 해서 또 빵고, 또 빵고 그러잖아 인제}
- 10501 #근데 되레 인제는 기계에다 그러커는 떠기 찹쌀 너은 거는 그냥 좀 시그마는 이내는 갠차나두 시그마는 그냥 이내 구셔.  
{근데 되레 이제는 기계에다 그렇게 하는 거는 떡이 찹쌀 넣은 거는 그냥 좀 식으면 이내는 갠찰아도 식으면 그냥 이내 딱딱해.}
- 10501 #그리구, 그냥 막떡찌는 거. 그러커서 무를 풍겨가민 바:가지구 찌는 거는 오래 먹뜨락 되레 부슬부슬 현거이 마시썸, 그거이. 그러케 해.  
{그리고, 그냥 막 떡 찌는 거. 그렇게 해서 물을 품어 가며 빵아서 찌는 거는 오래 먹어도 되려 부슬부슬 한 것이 맛있어. 그렇게 해.}
- 10501 @ 이러케 그 콩 넣는 거 말고, 또 저기 뭐 썩까튼 거 너:서 이르케 또 하:야케 찌는 그 시루에 찌는 떡뚜 이찌 안나요? (#2 썩떡.)(#어어 썩빠무리?) 썩빠무리예요?  
{이렇게 그 콩 넣는 거 말고, 또 저기 뭐 썩같은 거 넣어서 이러케 또 하얗게 찌는 그 시루에 찌는 떡도 있지 않나요? (#2 썩떡.)(#썩버무리?) 썩버무리예요?}
- 10501 #그럼. 그 썩빠무리지 뭐. 썩 그냥 삶아서 짜가지구 그냥 막 버무려. 콩허구 그거허구 서껴서 그거뚜 그냥 썩버무리두 그거뚜 막떠기야. 막떡.  
{그럼. 그 썩버무리지 뭐. 썩 그냥 삶아서 짜가지고 그냥 막 버무려. 콩하고 그거하고 섞어서 그것도 그냥 썩버무리도 그것도 막떡이야. 막떡.}
- 10501 #그리구 또 지그른, (#2 저저저, 송편 가튼 거는 한데 찌치, 쭈글 너쿠.) 그럼. 송편 인제 썩떠커는 거는 썩때비리 그런 거는 쭈커구 밭:때 가치 내려, 가치.  
{그리고 또 지금은, (#2 저저저, 송편 같은 거는 한데 찌지, 썩을 넣고.) 그럼. 송편 인제 썩떡히는 거는 썩대빌이 그런 거는 썩하고 빵을 때 같이 내려, 같이.}
- 10501 #가치 내려서, 그러커는 거야.  
{같이 내려서, 그렇게 하는 거야.}
- 10501 #그러커고 그냥, 또 이 그냥, 또 인절, 그냥 절편.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이 그냥, 또 인절, 그냥 절편.}
- 10501 #절편두 썩 느쿠 헐라만 쭈커구 막 바:서, 또 그거는 인제 찌가지구, 시루에다 찌가지구 기계에다 절편 내리구.  
{절편도 썩 넣고 하려면 썩하고 막 빵아서, 또 그거는 이제}
- 10501 #또 하얀절편 헐라만 그냥 또 저기, 허는 거구.  
{또 하얀 절편 하려면 그냥 또 저기, 하는 거고.}
- 10501 #이제 우리 화:과네는 가마는, 이제 절편, 여르미 돼서 그냥 절편 뽀바서. 한 말 뽀바.  
{이제 우리 회관에는 가면, 이제 절편, 여름이 돼서 그냥 절편 뽀아서, 한 말 뽀아.}
- 10501 @ 그건 기계로, 절편은 기계로 뽀바내는 거구요?  
{그건 기계로, 절편은 기계로 뽀아내는 거고요?}
- 10501 #그럼, 기계. 엔:나렌 여기서 지비서 어 자끄만 주물러서 또 이러케 물발라가미 짤라서 해찌.

{그럼, 기계. 옛날엔 여기서 집에서 어 자꾸만 주물러서 또 이렇게 물 발라가며 잘라서 했지.}  
 10501 #근데 인젠 기계로 허니께는 인젠 여기서는 지베선 그런 거 안허지. 안해. 그런 거.  
 {그런데 이젠 기계로 하니깐 이제 여기서는 집에선 그런 거 안 하지, 안 해. 그런 거.}

## 1.6. 거주 생활

### 1. 집짓기

10601 @ 여기 지금 집 보니까 이거 새로 지으신 지비자나요. (#응.)  
 {여기 지금 집 보니까 이거 새로 지으신 집이잖아요. (#응.)}  
 10601 @ 그러며는, 예저넨 여기 이 집 터에 지비 이쓰셔면 거예요? (#응.) 그거 허물고 이케 새 집 신시그루 지으신 거예요? 그럼 예저네는.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 이 집 터에 집이 있으셨던 거예요? (#응.) 그거 허물고 이렇게 새 집 신식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10601 #기역짜집. 여 여기 호니 그저넨 기역짜지비아 기역짜루.  
 {기역 자 집. 여, 여기 흔히 그 전엔 기역 자 집이야 기역 자로.}  
 10601 #기역짜지비 이은바치물 해지. 행낭. 그거이, 안채, 왜 안채라그리구 행낭이라 그런다 마리아.  
 {기역 자 집에 니은 받침을 하지. 행랑. 그게 안채. 왜 안채라 그러고 행랑이라 그런단 말이야.}  
 10601 #행낭엔 기역, 안채는 호니 기역짜지베 행낭이 이은짜루다니께, 그런켄 입꾸짜가 되는 거지.  
 {행랑에는 기역, 안채는 흔히 기역 자 집에 행랑이 니은 자로다니까, 그러니까 입 구 자가 되는 거지.}  
 10601 #그러케들 지어따구.  
 {그렇게들 지었다고.}  
 10601 @ 그러며는, 지블 어떠케 뭐, 터를 닦꼬 기초 다지고 기단 싸꼬 뭐 이러케 막 다 이런 순서가 이짜나요 이 집.  
 {그러면 집을 어떻게 뭐, 터를 닦고 기초 다지고 기단 쌓고 뭐 이렇게 막 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이 집.}  
 10601 #아니 그니께는 전, 천상에 기초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는 천, 천상 기초를 해야지.}  
 10601 #기소를 해야자나. 기초는 터를 골르구.  
 {기초를 해야잖아.) 기초는 터를 고르고.}  
 10601 @ 그럼 이 지븐 누가 지으셔썬요?  
 {그럼 이 집은 누가 지으셨어요?}  
 10601 #목쭈가 지:찌.  
 {목수가 짓지.}  
 10601 @ 아뇨아뇨 이집 말구, 이 전집. 옛날집.  
 {아뇨아뇨, 이 집 말고, 이 전 집. 옛날집.}  
 10601 #목쭈야 그게.  
 {목수야 그게.}  
 10601 @ 그 목쭈가 이케 (#목쭈 목쭈, 목,) 주인이 이르케 어떠케 좀 말하면서 지어요?  
 {그 목수가 이렇게, (#목수는 목수, 목,) 주인이 이렇게 어떻게 좀 말하면서 지어요?}

10601 #아 아이 거 주이는 인제 어드런 형체로 지어 달라.  
{아 아니 거 주인은 이제 어떤 형체로 지어달라.}

10601 #거 주인이 세:밀, 지금두 그러차나. 세:밀허게 아는 사라른 내가 지블 저두 요러케 요러케 구조를 무러 요러케 해달라구 허지마는, 모르는 사라른 그 지 집 짓는 사라메게 어 어떤 형식그루 좀 지어줘 허마는 그 사라미 구조를 맨들자나.  
{그 주인이 세밀, 지금도 그렇잖아. 세밀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집을 지어도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물어 해달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지 집 짓는 사람에게 어 어떤 형식으로 지어줘 하면 그 사람이 구조를 만들잖아.}

10601 #그 옴:나리나 지그미나 마찬가지로지 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지 뭐.}

10601 @ 옴:나렌 그, 이젠 지금 그 뭐라고 하지 난방이.  
{옛날에는 그, 이젠 지금 그 뭐라고 하지 난방이.}

10601 #온돌방?  
{온돌방?}

10601 @ 네, 이러케 구드를. (#응, 구들짱.) 에에 그거를 어떠케 까라씨요? 이케 지금처럼 모든 방에 다 이러케.  
{네, 이렇게 구들을. (#응, 구들장.) 에에 그거를 어떻게 깔았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모든 방에 다 이렇게.}

10601 #으응. 기니께는 인제 지그른 뭐 더퍼노코 공구리 허구선 여 깔:지마는 그저넨 이 아:궁이서 부를 때:야자나.  
{으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덮어놓고 콘크리트 하고서는 여기 깔지만 그 전엔 이 아궁이에서 불을 때야 하잖아.}

10601 #불을 땀:켄 그 아궁이서 고:리라 그런다구 골:. 이 골:. 호글 요러케 싸:서, 여기 이러케 싸:쿠 여기 구녀글 냉겨노쿠 여기 또 싸:쿠.  
{불을 때니까 그 아궁이에서 골이라 그런다고 골. 이 골. 흠을 요렇게 싸서, 여기 이렇게 쌓고 여기 구멍을 남겨놓고 여기 또 쌓고.}

10601 #그래 불 때:문 이 고 골:루 드러올 꺼 아나. 그리군 그거슨 뭐:냐면 돌:루다 이래 착착차착 깎:다 마랴. 그걸 구들짱이라구 해.  
{그래 불 때면 이 고 골로 들어올 거 아나.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돌로 이렇게 착착차착 깎단 말이야. 그걸 구들장이라고 해.}

10601 #그리군 그 우:이다 호글 발르구 자리 까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다 흠을 바르고 자리 까는 거지.}

10601 @ 그리구 이제 마루 깔구 뭐.  
{그리고 이제 마루 깔고 뭐.}

10601 #마:루는 저 송파늘 까라야 마:루지.  
{마루는 저 송판을 깔아야 마루지.}

10601 @ 그럼 그 자리 깔구 그 위에 인제.  
{그럼 그 자리 깔고 그 위에 이제.}

10601 #자리 깔문 그건 다:야.  
{자리 깔면 그건 다야.}

10601 @ 그럼 그 옛날 그 구들짱 이젠 그 집,에는 위에 지붕을 뭐로 지으써씨요?

{그럼 그 옛날 그 구들장 있던 그 집에는 위에 지붕을 뭘로 지으셨어요?}

10601 #지비지 집.  
{짚이지 짚.}

10601 @ 이영, 영:여꺼서? (#영으루다.) 그러면 영:으로 여끈 지븐 무슨 지비라 그래요?  
{이영, 영:여꺼서? (#영으루다.) 그러면 영:으로 엮은 집은 무슨 집이라 그래요?}

10601 #초가집.  
{초가집.}

10601 @ 네 초가집. 그럼.  
{네 초가집. 그럼}

10601 #개와로 인는 와가.  
{기와로 이는 와가.}

## 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0601 @ 아. 그러면, 음.  
{아 그러면, 음.}

10701 @ 옛날에는 그러면 민속 신앙이 이짜나요. 이러케, 조왕신, 뭐 터주때감, 뭐 이런 거.  
{옛날에는 그러면 민속신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왕신, 뭐 터쫓대감, 뭐 이런 거.}

10701 #어어. 그 개이네 지베서 저, 위하는 귀:신?  
{어어, 그 개인의 집에서 저, 위하는 귀신?}

10701 @ 네, 네.  
{네, 네.}

10701 #음, 거긴 성주. 또 칠썰.  
{음 거긴 성주. 또 칠성.}

10701 @ 성주는 뭐예요?  
{성주는 뭐예요?}

10701 #성주는 그 집 잘: 때 켈: 먼저 세우는 성주, 그 성주기둥이야.  
{성주는 그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세우는 성주, 그 성주기둥이야.}

10701 @ 네.  
{네.}

10701 #그 성주기둥이 처:느루다 이러 매다라노치. 성주.  
{그 성주기둥에 천으로다 이렇게 매달아놓지. 성주.}

10701 @ 칠썰. 칠썰은 인제 자손 읍쓰면 칠썰님께 빈다 그러자나. 칠썰.  
{칠성. 칠성은 이제 자손 없으면 칠성님께 빈다 그러잖아. 칠성.}

10701 #대:감. (@ 대가른 뭐예요?) 대 대:가미라는 건 뭐 뭐이 성 성가신 거지만 뭐이 이 무슨 대:감 무슨 대:감 하는 거이.  
{대감. (@ 대감은 뭐예요?) 대 대감이라는 건 뭐 뭐 성가신 거지만, 뭐 이 무슨 대감 무슨 대감 하는 게.}

10701 @ 으응.  
{으응.}

10701 #거이키니, 업쭈. 업쭈래는 건 그 집 인제 그건 바까테 에 업쭈까리라 하지.  
{그, 업쭈. 업쭈래는 건 그 집 이제 그건 바깥에 어 업쭈까리라 하지.}

- 10701 #어븐, 어븐 보글 가따주는 거.  
{업은, 업은 복을 갖다주는 거.}
- 10701 @ 그럼 조왕시는?  
{그럼 조왕신은?}
- 10701 #조:왕시는 저, 조:왕시는 인저 여기 저 부뚜마기 이스면 부뚜마게 인는 바름뻑. 그거이 그계 주, 조:왕이야.  
{조왕신은 저, 조왕신은 이제 여기 저 부뚜막이 있으면 부뚜막에 있는 바름뻑. 그계, 그계 주, 조왕이야.}
- 10701 @ 그러면 옛날엔, 옛날찌베는 샘물도 이쓰셔쨌요? 우물, 우물?  
{그러면 옛날엔, 옛날집에는 샘물도 있으셨어요?}
- 10701 #움물?  
{우물?}
- 10701 @ 네.  
{네.}
- 10701 #엔:날찌베 움물 인는 지비 쉬운가? 동:네움무리지.  
{옛날집에 우물 있는 집이 쉬운가? 동네우물이지.}
- 10701 @ 아 그럼 우물, (#공동움물.) 우무레 시니 이찌?  
{아 그럼 우물, (#공동우물.) 우물에 신이 있죠?}
- 10701 #그건, 움물시는 별루 생기지 아나 인제.  
{그건, 우물신은 별로 생기지 않아 이제.}
- 10701 @ 그럼 외양까는요? 소는, (#외양간, 외양까는 소는, 아까 얘기해짜나. 소.) 거기는 신 업쨌요?  
{그럼 외양간은요? 소는, (#외양간, 외양간은 소는, 아까 얘기했잖아. 소.) 거기는 신 없어요?}
- 10701 #그거뚜 뭐, 저 거러키니 믿는 사라픈 믿꾸 안 믿는 사라픈 안 미꾸.  
{그것도 뭐, 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 10701 @ 그럼 이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조상시를 모셔쨌요? 잘 안모셔쨌요? (#응?) 이 지역 교동에서는 어 어떤 조상시를 주로 모셔쨌요? 잘 안모셔쨌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조상신을 모셨어요? 잘 안모셨어요? (#응?) 이 지역 교동에서는 어 어떤 조상신을 주로 모셨어요? 잘 안모셨어요?}
- 10701 #조상시니란 내, 내 조상들 제:사지내는 지:방지가 이찌 뭐. 그걸 그거보구 시나라군 모타지.  
{조상신이란 내, 내 조상들 제사 지내는 지방지가 있찌 뭐. 그걸 그거 보고 신이라고는 못하지.}
- 10701 #지성을 아주 종이에다 써서 인제 그 사당이라구 한단 마리아. 종묘 사당이라 그러자나.  
{지성을 아주 종이에다 써서 이제 그 사당이라구 한단 말이야. 종묘 사당이라 그러잖아.}

### 3. 금기 생활

- 10701 @ 뭐 정초에는 바늘 빌리러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이쨌쨌요? (#응?) 금, 해서는 안될 일 가튼 게 이쨌쨌요? (#금기사항?) 네. 음력 세시 뭐 이런 때. 정초에 뭐.  
{뭐 정초에는 바늘 빌리러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응?) 금, 해서는 안될 일 같은 게 있었어요? (#금기사항?) 네. 음력 세시 뭐 이런 때. 정초에 뭐.}
- 10701 #정초에 여기서 가례는 건, 음:려구루 정월달, 정월초하루 지나자나. 정월초하루날 토끼나를 가례. 묘:일, 묘:이리지.  
{정초에 여기서 가리는 건, 음력으로 정월달, 정월초하루 지나잖아. 정월초하루날 토끼날을 가려.}

- 묘일, 묘일이지.)
- 10701 #묘:일, 묘:이른 여자드리 나미 집 제일 먼저 안 가.  
{묘일, 묘일은 여자들이 남의 집 제일 먼저 안 가.}
- 10701 #그 나른 남:자가 인제 이우찌베 인저 가서 아치밀찌금 가서 아:궁에 저, 불 불살라 주지.  
{그 날은 남자가 이제 이웃집에 이제 가서 아침일찍 가서 아궁이에 저, 불 불살라 주지.}
- 10701 #술라주며는, 그 지비선 또 술, 술 대:저패주고. 그거시 풍소기어서.  
{살라주면, 그 집에선 또 술, 술 대접해 주고. 그것이 풍속이었어.}
- 10701 #기허는 건 별루 업꼬 정월 지나고 나서 철 묘:일. 철 토끼날.  
{기허는 건 별로 없고, 정월 지나고 나서 첫 묘일. 첫 토끼날.}
- 10701 #그 나를, 가, 지금두 지금두 가려서 가려. 저 정월 처 토끼나른 여자들 아치밀찌근 나가지 마라라 마리아. 그런 거 이서.  
{그 날을 가, 지금도 지금도 가려서 가려. 저 정월 첫 토끼날은 여자들 아침일찍은 나가지 말아라 말이야. 그런 거 있어.}
- 10701 @ 그루구 또 겨론 혼사에두 금기사항이 만차나요. 뭐 이케 왜 요새두 혼인날 겨론싱날 자바짜쓰면 어디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라구. (#조 조문 안 간다 그러지. 초상지비 안 가지.) 옛날레두, 옛날부터 이써씨요?  
{그리고 또 결혼 혼사에도 금기사항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왜 요새도 혼인날 결혼식날 잡아났으면 어디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라고 (#조 조문 안 간다 그러지. 초상집에 안 가지.) 옛날에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 10701 #어우 예:선 옛:나렌 더허지.  
{어우 여기서 옛날엔 더하지.}
- 10701 @ 그러면 뭐, 장:네는냐? 이케 관 위로 뭐 고양이 지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써씨요?  
{그러면 뭐, 장례는요? 이렇게 관 위로 뭐 고양이 지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 10701 #그건 뭐, 그건 안 되지.  
{그건 뭐, 그건 안 되지.}
- 10701 @ 그거 말구 또 업써씨요?  
{그거 말고 또 없었어요?}
- 10701 #그거 말구 뭐 관 위로 무어이 지나가 뭐 지나가나. (@ 응 지나갈 게 업쓰니까.)  
{그거 말고 뭐 관 위로 뭐가 지나가 뭐 지나가나. (@ 응 지나갈 게 없으니까.)}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 10701 @ 예저네는, 요새는 병원두 드러서서 괜찬는데, 옛날레는 병원도 업꼬 병도 더 마:나짜나요. (@ 응.) 야기 별로 업써쓰니까. 옛날엔.  
{예전에는, 요새는 병원도 들어서서 괜찬는데, 옛날에는 병원도 없고 병도 더 많았잖아요. (@ 응.) 약이 별로 없었으니까.}
- 10701 #주, 그건 그 지방마다 주:부, 주:부라 그러지. 침 노루 그저 그저 호니 하는 얘:기루 인제 초약가튼 거 아주 뛰지 용모초를 다레 머라 쭈글 다레 머거라 뭐 그걸 주:부라 그지.  
{주, 그건 그 지방마다 주부, 주부라 그러지. 침 놓고 그저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초약같은

거 아주 모지 육모초를 달여 먹어라 쑥을 달여 먹어라 뭐 그걸 주부라 그러지}

10701 @ 그러며는 그 주부, 주부가 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해쎄요? 어떤 질병이 주로 마나쎄요? 뭐 이리케  
버짐 피고, 버짐매두 종류가 만차나요. 이리케 마른 거, 진 거.  
{그러면 그 주부, 주부가 주로 어떤 질병을 치료했어요? 어떤 질병이 주로 많았어요? 뭐 이렇게  
버짐 피고, 버짐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마른 거, 진 거.}

10701 #진 버짐 마른 버짐 하는데 그 야근 그건 난 몰라.  
{진 버짐 마른 버짐 하는데 그 약은 그건 난 몰라.}

10701 @ 응, 그러며는 뭐. 그런 거 민간요법 뭐 이짜나요. 화상 이브면 된장 해라 뭐 그런 거. 그런 건  
여기 뭐 이쎄쎄요? 민간요법? 지베서? 지베서 응급처치루, 임시방편느루 하는 민간요법으로? 뭐가  
이쎄쎄까요?  
{응. 그러면 뭐. 그런 거 민간요법 뭐 있잖아요. 화상 입으면 된장 해라 뭐 그런 거. 그런 거  
여기 뭐 있었어요? 민간요법? 집에서? 집에서 응급처치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민간요법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10701 #글쎄.  
{글쎄.}

10701 @ 그러면 아까 그, 아까 그 취사병 하면. (#응.) 안 먹따가 머거서 막 설사하고 한다고 하셔짜나요.  
그럼 그런 거 말고 음식 때무네 생긴 질병에는 뭐가 이쎄요?  
{그러면 아까 그, 아까 그 취사병 하면. (#응.) 안 먹다가 먹어서 막 설사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거 말고 음식 때문에 생긴 질병에는 뭐가 있어요?}

10701 #체:헌 거.  
{체한 거.}

10701 @ 체한 거. 그리고, 또 음식 머꼬 나서 나타나는 생리저긴 현상에는 어떤 거뜨리 이쎄? 예를 들면  
이케, 이르케.  
{체한 거. 그리고, 또 음식 먹고나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10701 #딸꾹질.  
{딸꾹질.}

10701 @ 네 뭐 그런 거.  
{네 뭐 그런 거.}

10701 #트:림.  
{트림.}

10701 @ 트림. 또, 이리케 혀에 이르케.  
{트림. 또 이렇게, 혀에 이렇게.}

10701 #세빠눌.  
{헛바늘.}

10701 @ 그다베 애가 깜짝 놀라면.  
{그 다음에 애가 깜짝 놀라면.}

10701 #경끼.  
{경끼.}

10701 @ 그 왜 이제. 엔나레는 막 저념, 질병이 진짜 심가칸 질병이 마나짜나요. 이케 처년두, 곰보, 뭐  
이런 거 그런 거 마을 한 번 역뽕 쓴다 그러자나요. 교동은 그런 거 업쎄쎄요?

{그 왜 이제, 옛날에는 막 전염, 질병이 진짜 심각한 많았잖아요. 이렇게 천연두, 곰보, 뭐 이런 거 그런 거 마을 한 번 역병 쓴다 그러잖아요. 교동은 그런 거 없었어요?}

10701 #호녀. 호녀 마:마. 그건 아주 누구든지 한 번 겪어야 하는 거야.  
{홍역. 홍역 마마. 그건 아주 누구든지 한 번 겪어야 하는 거야.}

10701 #그래서 예:저네는 출생신고도 느껴서. 은:제 호녀 마마 혈찌 모르니께는, 호녀카면 까따카면 주꼬 마:마오면 주그니께는. 호녀 마마가 젤: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출생신고도 늦었어. 언제 홍역 마마 할 지 모르니까, 홍역하면 까딱하면 죽고 마마 오면 죽으니깐. 홍역 마마가 제일 무서운 거야.}

10701 @ 하라버지도 겨끄셔썬요?  
{할아버지도 겪으셨어요?}

10701 #물로니지.  
{물론이지.}

10701 @ 그거 걸림 어뜨케 돼요? (#응?) 전 안 걸려 봐꺼든녀.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응?) 전 안 걸려 봤거든요.}

10701 #그이 지그른 주:살 노차나.  
{그게 지금은 주사를 놓잖아.}

10701 @ 걸리면 어때요? 어뜨케 돼요? 이케 모메.  
{걸리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에.}

10701 #그건, 그건 어려, 어려서 다 해.  
{그건, 그건 어려, 어려서 다 해.}

10701 @ 어려서썬.  
{어려서썬.}

10701 #호녀근, 마:마는 이 얼구레 그냥 막 툄툄툄툄 튀어나는 거구.  
{홍역은, 마마는 이 얼굴에 그냥 막 툄툄툄툄 튀어나오는 거고.}

10701 #호녀근 앓, 그냥 앓:른 모양이야.  
{홍역은 앓, 그냥 앓는 모양이야.}

10701 @ 그리구, 이 지역 이 교동에는, 교동에두 무당이 이썬요?  
{그리고 이 지역 이 교동에는, 교동에도 무당이 있어요?}

10701 #아 무:당 마:나찌.  
{아 무당 많았지.}

10701 @ 교동에두 무당 마나썬요? (#아아 그러치.) 서민데? 무당 마나썬요?  
{교동에도 무당 많았어요? (#아아 그렇지.) 섬인데? 무당 많았어요?}

10701 #아유 무:당 마나찌.  
{아유 무당 많았지.}

10701 @ 그러며는, 이케.  
{그러면, 이렇게.}

10701 #구슬 해.  
{굿을 해.}

10701 @ 그럼 굿판두 보시구 그러세요?  
{그러면 굿판도 보시고 그러세요?}

10701 #아 굿판두 봐:찌.

{아 굿판도 봤지.}

10701 @ 아 그러면, 뭐 이르게 무당 마느면 무당에두 종류가 만차나요. 종류별루 다: 이써써요? (#응?)  
무당에두 막 박쑈무당.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무당 많으면 무당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응?)  
무당에도 막 박쑈무당.}

10701 #아이, 박:쑈는 남자무당이 박:쑈지. 근데 교동엔 박:쑈는 읍서서.  
{아이 박수는 남자무당이 박수지. 그런데 교동엔 박수는 없었어.}

10701 @ 박쑈는 읍써꼬 그냥 무당만?  
{박수는 없었고 그냥 무당만?}

10701 #응, 여자가 해.  
{응, 여자가 해.}

10701 @ 그럼, 왜 무당찌븐 쑈: 꺼:리는 경양이 이짜나요. 가까이 하기 꺼리지 아느써써요? 옛날에는 안,  
옛날에는 이케 무당 별로 안조아하구 그래편 거 가튼데.  
{그럼, 왜 무당집은 쑈: 꺼: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꺼리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안,  
옛날에는 이렇게 무당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10701 #안조아하는데 우리 지바네 우:화니 이쓰면 부르던 불러오는 걸 꺼:리구 말 꺼: 뭐: 인나?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부르든 불러오는 걸 꺼리고 말 거 뭐 있나?}

10701 @ 그럼 무당들두 겨로나구 다 그래요?  
{그럼 무당들도 결혼하고 다 그래요?}

10701 #당연하지. 저 겨론 안 하는 건 쑈:, 쑈:이 겨론 안하지.  
{당연하지. 저 결혼 안하는 건 쑈:, 쑈:이 결혼 안 하지.}

10701 @ 그러면, 그런데 막 신내림은 이케 내림 받꼬.  
{그러면, 그런데 막 신내림은 이렇게 내림 받고.}

10701 #그러데. 난 뭐 그거 신내림꾸뚜 현대. 신내리면 굶, 구슬 현대.  
{그러데. 난 뭐 그거 신내림굿도 현대. 신내리면 굶, 굶을 현대}

10701 @ 예 그러머는 무당찌브로 시집까면, 아니 그니까 결, 장, 무당 여자무당이면 장가를 가야 되는  
거자나요.  
{예 그러면 무당집으로 시집가면, 아니 그러니까 결, 장, 무당 여자무당이면 장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10701 #무:덩끼리 장:개간다고?  
{무당끼리 장가간다고?}

10701 @ 아니 그니까, 여자무당이니까 이 사라미 어느 남자한테 시지블 가야 되자나요. 그러면 남자가  
무당이 시지분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여자무당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당이 시집온다고 하면.}

10701 #근데 호니 저 시집까구 나서 무:덩허지 무:덩, 저 시집까지 저네 무:덩허는 사람 읍:때.  
{그런데 흔히 저 시집가고 나서 무당하지 무당, 저 시집가기 전에 무당하는 사람 없대.}

10701 @ 아 그럼 시집까구 나서 무당대면, 쑈:껴나요?  
{아 그럼 시집가고 나서 무당되면, 쑈:껴나요?}

10701 #아:니지 왜 쑈:껴나. 아 꺾나난 거거든. 꺾나난 사라미구. 저 무:덩이네 실랑이야 그르지. 가마니  
안자서 버러다 메기는데 왜 쑈:차?

- {아니지 왜 쫓겨나. 아 편안한 거거든. 편안한 사람이고. 저 무당이네 신랑이야 그러지. 가만히 앉아서 벌어다 먹이는데 왜 쫓아?}
- 10701 #아 고기 잘 머꾸. 구터면 돼, 돼:지 머리 노쿠 허자나. 돼:지머리 가져오구 고기 잘 머꾸.  
{아 고기 잘 먹고. 굿하면 돼, 돼지머리 놓고 하잖아. 돼지머리 가져오고 고기 잘 먹고.}
- 10701 #아 그 쌀:도 쌀:두 가져오구. 가마니 안자서 잘 명는데 왜 쫓아내나?  
{아 그 쌀도, 쌀도 가져오고. 가만히 앉아서 잘 먹는데 왜 쫓아내나?}
- 10701 @ 예저네는 무당이 갠차나, 조, 그러케 안 꺼리는 모양이에요. 요새는. (#아이 뭐 무 무당은 하:대 받는 거지.)  
{예전에는 무당이 갠찰아, 좋, 그렇게 안 꺼리는 모양이에요. 요새는. (#아이 무당은 하대 받는 거지.)}
- 10701 @ 근데 구뚜 종류가 되게 여러가지 이찌 아나요?  
{그런데 굿도 종류가 되게 여러가지 있지 않아요?}
- 10701 #그게 구터는 지비서 여러 가지 종류가 이찌 뭐 무, 말:명꺼리 마 마:누라꺼리 대:감꺼리 성주꺼리 그거 그지베서 인는 거지. 무:당의 종:류가 마는 건 아니지.  
{그게 굿하는 집에서 여러 종류가 있지. 뭐 무, 말명거리 마누라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 그거 그 집에서 있는 거지. 무당의 종류가 많은 건 아니지.}

## 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 10701 @ 그러머는 엔나레는 그러면 약초도 직접 캐시구 그러셔써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면 약초도 직접 캐시고 그러셨어요?}
- 10701 #여긴 약초 별루 업서.  
{여긴 약초 별로 없어.}
- 10701 @ 여긴 약초 별로 업써요? 그러면 절기에 따라서 세시풍속기 여러가지가 이짜나요. 하라번니미 그런 거 굉장히 자라시자나요. 저기 가서 강의도 하시고.  
{여긴 약초 별로 없어요? 그럼 절기에 따라서 세시풍속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할아버님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저기 가서 강의도 하시고.}

## 1.8. 세시 풍속과 놀이

### 1. 세시 풍속

- 10701 #뭘?  
{뭘?}
- 10801 @ 이케 세시 풍속. 뭘 정위레 뭘 설:, 대보름 뭘 성묘, 조왕제 뭘 이런 거. 뭘 정위레 오곡밥 뭘 이런 거.  
{이렇게 세시풍속. 뭘 정월에 설, 대보름 성묘, 조왕제 뭘 이런 거. 뭘 정월에 오곡밥 뭘 이런 거.}
- 10801 #응 정월, 그건 보름날 허자나.  
{음 정월, 그건 보름날 하잖아.}
- 10801 @ 그런 거 말고, 그런 세시풍속에 대해서 이르게. 정위레 뭘하고, 이위레는 뭘하고, 삼위레는 뭘하고 이런 거 가서 강의하시든 저기 저이한테도 해주시면.

{그런 거 말고, 그런 세시풍속에 대해서 이렇게. 정월에 뭐하고 이월에는 뭐하고, 삼월에는 뭐하고 이런 거 강의하시듯 저기 저희한테도 해주시면.}

10801 #다다리는 별로 그, 그런 건 읍서서.  
{다달이는 별로고 그런 건 없었어.}

10801 @ 그럼 굴쩍굴찌칸 걸로.  
{그럼 굵직굵직한 걸로.}

10801 #굴쩍국쩍, 그이 차례를 인제 예:저네는 한식차례두 지내서. 그러게 정월에는 인제 설:리구, 이:위렌 한시기거든? 사머렌 삼진.  
{굵직굵직, 그 차례를 이제 예전에는 한식차례도 지냈어. 그러게 정월에는 이제 설이고, 이월에는 한식이거든? 삼월에는 삼진.}

10801 #사:위렌 파일, 초파일. 오:위렌 다노. 다노에도 차례지내따고. 유:위렌 유두.  
{사월엔 파일, 초파일, 오월엔 단오. 단오에도 차례지냈다고. 유월엔 유두.}

10801 #칠썩, 파뽀른 추석. 그러케도 나누는 거지 뭐.  
{칠석, 팔월은 추석, 그렇게도 나누는 거지 뭐.}

10801 @ 그럼 구워레는.  
{그럼 구월에는.}

10801 #구워레는 구일. 구월, 구월 구일. 시 시워른, 시월 시월 보르미 상, 상:워린가?  
{구월에는 구일. 구월, 구월 구일. 시 시월은, 시월 시월 보름이 상, 상월인가?}

10801 @ 예 상달.  
{예 상달.}

10801 #상:팔 그래. 동지따른 동지. 서:따렌 구뭉.  
{상달 그래. 동짓달은 동지. 설달엔 그믐.}

10801 #그거이 인는 거지 뭐.  
{그게 있는 거지 뭐.}

10801 @ 그러며는 그, 사머레는 뭐한다고 하셔썩? 사머레는.  
{그러면 삼월에는 뭐한다고 하셔썩? 삼월에는.}

10801 #사머렌 무슨 별루 행사하는 거 업서. (@ 사머렌 별로 업썩요?) 한식게는 저러키니 뭐야 도라선 산수들 치산하지.  
{삼월엔 무슨 별로 행사하는 거 없어. (@ 삼월엔 별로 없어요?) 한식에는 저렇게 뭐야 돌아선 산수들 치산하지.}

10801 @ 그러구 그럼 초파일레는 뭐해요?  
{그러고 그럼 초파일에는 뭐해요?}

10801 #초파일레는 그거 서까모니 탄:생한 나린데 뭐 허긴 뭇: 허나.  
{초파일에는 그거 석가모니 탄생한 날인데 뭐 하긴 뭇 하나.}

10801 @ 여기두 그럼 이런 거 달구 그래여 연등?  
{여기도 그럼 이런 거 달고 그래요, 연등?}

10801 #어유 저렌 달지. 광:장하네 지금 하개사에.  
{아유 절엔 달지. 굉장하네 지금 화개사에.}

10801 @ 그러구, 그럼 다노에는.  
{그리고, 그럼 단오에는.}

10801 #다노엔 차례지내.

{단오에는 차례 지내.}

10801 @ 차례지내고 여자드른.  
{차례 지내고, 여자들은.}

10801 #자, 장풍으로 머리강:꾸. 그 그너, 그네매서 그너 뛰고.  
{창포로 머리감고. 그네 매서 그네 뛰고.}

10801 @ 유두는 뭐에여?  
{유두는 뭐예요?}

10801 #유:두는 그 다레 명절 이르므루 제 제켜 인는 거지 뭐.  
{유두는 그 달의 명절 이름으로 적혀 있는 거지 뭐.}

10801 @ 그럼 따키 하는 건 업꼬?  
{그럼 딱히 하는 건 없고?}

10801 #앙 읍:씨.  
{응 없어.}

10801 @ 그럼 칠써게두 따키 하는 거 업씨요?  
{그럼 칠석에도 딱히 하는 거 없어요?}

10801 #칠써근 겨누징녀 만나는 나리지 뭐.  
{칠석은 견우직녀 만나는 날이지 뭐.}

10801 @ 그럼 그날 뭐 이르케 대나무 뭐.  
{그럼 그날 뭐 이렇게 대나무 뭐.}

10801 #오:자꼬야 오:자꼬. 에 까:치가마구가 올라가서 오:작, 오:자기야. 까:마구 까치가 올라가 다리 놔주는 게.  
{오작교야 오작교. 에 까치까마귀가 올라가서 오작교, 오작이야. 까마귀 까치가 올라가서 다리 놔주는 게.}

10801 @ 그럼 그날 뭐 하는 건 업씨요? (#하는 거 읍씨.) 그럼 추석때는?  
{그럼 그날 뭐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거 없어.) 그럼 추석 때는?}

10801 #추석 때 차례지내자나. 그리고 나머진 별루 읍:서. 동지에 파쭈기나 쭈어머꾸.  
{추석 때 차례지내잖아. 그리고 나머진 별로 없어. 동지에 팔죽이나 쭈어 먹고.}

10801 @ 그러쿠나. 그럼 그믐날 잠 안 자구 뭐 이런 거 이씨요?  
{그렇구나. 그럼 그믐날 잠 안 자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10801 #구뭉나른 자머는 머 머리, 누 눈썹비 신다구 그른다나.  
{그믐날은 자면 머리, 눈썹이 신다고 그러잖아.}

10801 #근데 구뭉나른 눈:썹비 시는 게 아이라 지시니 나리, 천시니 나린다는 거야 천신. 하느레서 시니 나린대는 거야.  
{그런데 그믐날은 눈썹이 시는 게 아니라 지신이 내리, 천신이 내린다는 거야 천신. 하늘에서 신이 내린다는 거야.}

10801 #그거이 앙:퀘라 그래. 그 시네 이르플 여기선 앙:퀘라 그른다구 앙:퀘이.  
{그게 앙퀘라 그래. 그 신의 이름을 여기선 앙퀘라 그른다고 앙퀘이.}

10801 #앙:퀘가 내려오니게 그저넨 지그른 전부 신바를 아:네 버찌만 그저넨 뒤편 바께 인제 아이들 신바를 아이들 신바를 늘 전:부 아네 드러놔.  
{야광귀가 내려오니까 그 전엔 지금은 전부 신발을 안에 벗지만 그 전엔 툇돌 밖에 이제 아이들 신발을 아이들 신을 전부 안에 들여놔.}

- 10801 #양:꿨가 내려와서 그 신발 다 시너본다구.  
{야광귀가 내려와서 그 신발 다 신어본다고.}
- 10801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방:지가 뭐냐면 문간 여페다가 체:를 가따 거러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방지가 뭐냐면 문간 옆에다가 체를 갖다 걸어놔.}
- 10801 #그 양:꿨가 드러오다가 그 체꾸녀글 보고선 고저시 구녕 자:꾸 시:다가 나리 방는다는 거지.  
{그 야광귀가 들어오다가 그 체꾸멍을 보고선 그게 구멍 자꾸 세다가 날이 밝는다는 거지.}
- 10801 #그런 풍서리 이서.  
{그런 풍설이 있어.}

## 2. 전통 놀이

- 10801 @ 그러며는, 요새는 뭐 애들 게임만 하구 그러자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게임 말고 전통 노리가 이씨짜나요.  
{그러면, 요새는 뭐 애들 게임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게임 말고 전통 놀이가 있었잖아요.}
- 10801 #윤:노리바께 더 인나.  
{웃놀이밖에 더 있나.}
- 10801 @ 윤노리 말고 자치기 이런 거.  
{웃놀이 말고 자치기 이런 거.}
- 10801 #자치기, 자:기차기.  
{자치기, 제기차기.}
- 10801 @ 제기차기.  
{제기차기.}
- 10801 #제기.  
{제기.}
- 10801 @ 그럼 그거뚜, 뭐 정위레는 널: 뛰고 연날리고. (#연날리고) 그럼 대보름에는 뭐하고 노라씨요?  
{그럼 그것도, 뭐 정월에는 널 뛰고 연 날리고. (#연 날리고) 그럼 대보름에는 뭐하고 놀았어요?}
- 10801 #대:보름 달맞이바께 더 인나.  
{대보름 달맞이밖에 더 있나.}
- 10801 @ 줄다리긴 안해씨요?  
{줄다리기는 안했어요?}
- 10801 #여기는 여기서는 줄다리기 말구 하구 뭐 그 옛:나렌 뭐 그런 거 허나 안 하지. 먹구 살기두 바쁜데 언제 줄다리구 해.  
{여기는 여기서는 줄다리기 말고 하고 뭐 그 옛날엔 뭐 그런 거 하나 안하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줄다리고 해.}
- 10801 @ 그럼 지신밧기는 뭐예요?  
{그런 지신밧기는 뭐예요?}
- 10801 #지:신밧기는 여긴 안해서.  
{지신밧기는 여긴 안했어.}
- 10801 @ 그럼 쥐불로리두요?  
{그럼 쥐불놀이도요?}
- 10801 #쥐, 어 쥐불로린 늘 해:찌.

- {쥐, 어 쥐불놀이인 늘 했지.}
- 10801 #쥐불로린 인제 거리키니 정월 때 나와서 논:뚜러메. 쥐부리 뛰냐면 논:뚜러메 풀 인는 거, 그 푸 푸리, 풀 소게서 각종 해:충드리 거기서 서:시커니깐, 살구 이니깐 그걸 불론는데 그 쥐불로리가 그거에 일종이야. 드렁에 불론는 거야.  
{쥐불놀이는 이제 그렇게 정월 때 나와서 논두렁에. 쥐불이 뛰냐면 논두렁에 풀 있는 거, 그 푸 풀이, 풀 속에서 각종 해충들이 거기서 서식하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걸 불 놓는데 쥐불놀이가 그거의 일종이야. 두렁에 불 놓는 거야.}
- 10801 @ 뭐 이르케 이르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10801 #그게 쥐불로리야. 이러케 허는데 그러커다 인제 드러메 불로쿠 허는 거지.  
{그게 쥐불놀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두렁에 불 놓고 하는 거지.}
- 10801 @ 아. 그러면, 호미씨시가 뭐예요? 백쫑나레 하는 호미씨시? 호미씨끼?  
{아. 그러면 호미씻이가 뭐예요? 백중날에 하는 호미씻이? 호미씻기?}
- 10801 #글썸다, 그건 참: 듣는데. 호미 씨는 건 치털 칠썸기면 기:문 다 매시니게 호미 씨, 김:매는 걸 호미라 그러자나. 거 호미 찢는 거지 뭐.  
{글썸다, 그건 처음 듣는데. 호미 씻는 건 칠월 칠석이면 김은 다 맷으니까 호미 씻, 김 매는 걸 호미라 그러잖아. 그거 호미 씻는 거지 뭐.}
- 10801 @ 호드기 부는 게 뭐예요?  
{호드기 부는 게 뭐예요?}
- 10801 #호:적?  
{호적?}
- 10801 @ 호드기.  
{호드기}
- 10801 #호:데기. 호:데기는 나무가 보메 이 나무에 무리 올르자나. 근데 고기 저 저러키니 깨나리나무가튼 거. 고 꺼져서 비틀면 여기 비트른 무리 올라 비트러진다고.  
{호드기. 호드기는 나무가 봄에, 이 나무에 물이 오르잖아. 그런데 거기 저렇게 깨나리나무 같은 거. 그거 꺾어서 비틀면 여기 비튼 물이 올라 비틀어진다고.}
- 10801 #고거 인제 빼:가지구 나무겐 빼:구서는 고 꺾썸을 요이 다드머가지구 이베 대구 불면 호~~ 하고 이 소리가 난다고. 고게 호:데기야.  
{그거 이제 빼가지고 나무니까 빼고선 그 꺾썸을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입에 대고 불면 호 하고 이 소리가 난다고. 그게 호드기야.}
- 10801 @ 그러면 뭐 누가 더 소리 오래 내나 뭐 이런 거 시하파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더 소리 오래 내나 그런 거 시합하고 그러는 거예요?}
- 10801 #그런 거 시합허는 건 모뻘서.  
{그런 거 시합하는 건 못 봤어.}
- 10801 @ 그냥 소리만 내구 노는 거구나. 그러면. (#게 호들기 꺼꺼 불군다 그러자나.)  
{그냥 소리만 내고 노는 거구나. 그러면, (#그러게 호드기 꺾어 분다 그러잖아.)}
- 10801 @ 자:치기는 어떡케?  
{자치기는 어떻게?}
- 10801 #자:치기. 자:치기는 요만한 막때기 요걸 새끼자라 그러지. 또 이마난 긴: 거 이서.  
{자치기. 자치기는 요만한 막대기 요걸 새끼자라 그러지. 또 이만한 긴 거 있어.}

- 10801 #그래가지구 자:치, 이 땅에다 구테이 파노콘 이 꺾:드러  
{그래가지고 자치, 이땅에다 구여기이 파놓곤 꺾어 들어}
- 10801 #꺾:들면 질:리 나갈 꺼 아냐. 그니 여기 예:미자를 여기다 그걸 들면 저기 상대방에서 거기서 되썩.  
{꺾어 들면 저리로 나갈 거 아냐. 그러니 여기 어미자를 여기다 그걸 들면 저기 상대방에서 거기서 되썩.}
- 10801 #쏘:면 마치는 거야. 마치는 게 고 일단계 이:단계가 이서. 이건 마치며는 그냥 주꾸.  
{쏘면 맞는 거야. 맞는 게 그 일단계 이단계가 있어. 이건 맞으면 그냥 죽고.}
- 10801 #안 마즈면 그땐 또 두:번째로 이러이 들군 치거든? 치머는 저: 멀리 나가자나. 거기서 인제 요기 이 구녀글 향해서 되썩.  
{안 맞으면 그땐 또 두번째로 이렇게 들고 치거든? 치면 저 멀리 나가잖아. 거기서 이제 여기 이 구멍을 향해서 되썩.}
- 10801 #쏘:머는 쏘:머는 여기와서 바로 이 한:자두 모뻘게 허면 이건 중는 거구 여기서 멀찌미 하머는 여기서 자를 여기 세 가. 떠짜다 마랴.  
{쏘면, 쏘면 여기와서 바로 이 한자도 못되게 하면 이건 죽는 거고 여기서 멀찍이서 하면 여기서 자를 여기 세 가. 몇 자다 말아야.}
- 10801 #그, 메짜내기에, 메짜내기 끈넨단 마랴. 그 사:자컬때 그 한단 마랴. 여긴 이제 백짜, 백짜내기헌다 하면 세:서 한버네 열:짜다 마랴. 거 하구.  
{그 몇자내기에, 몇자내기 끝넨단 말이야. 그 시작할 때 그 한단 말이야. 여긴 이제 백자, 백자내기헌다 하면 세서 한번에 열 자다 말야. 그거 하고.}
- 10801 #또 세:번째는 꺾어드러가주구 이거 새끼자가 올라간 다메 여:서 올라간 데 이거 올라간 데 이걸 치머는 그건 딸:리 나가자나.  
{또 세 번째는 꺾어 들어 가지고 이거 새끼자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데 이거 올라간 데 이걸 치면 그건 멀리 나가잖아.}
- 10801 #멀:리 나가면 그걸 또 재:는 거지. 근데 이거 꺾어드러가주 치지 모타면 중는 거구.  
{멀리 나가면 그걸 또 재는 거지. 그런데 이거 꺾어들어가지고 치지 못하면 죽는 거고.}
- 10801 #그게 그거이 상대방이 두: 패가 똤가지구 서루 번가라가면서 허다가 먼저 이 큰 자루다 백짜 재:는 그 팀이 이기는 거지.  
{그게 그게 상대방이 두 패가 되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먼저 이 큰 자로 백 자 재는 그 팀이 이기는 거지.}
- 10801 @ 금 지금 막 눈 엄청 마니 내려짜나요. 눈 싸여 이짜나요 아직뚜. 그러면 막 예저넨 눈싸움 하구 그러셔쨌네요 여기서?  
{그럼 지금 막 눈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눈 쌓여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막 예전엔 눈싸움 하고 그러셨겠네요 여기서?}
- 10801 #그러치 아이드른 눈:싸움두 하구 해지.  
{그렇지 아이들은 눈싸움도 하고 하지.}
- 10801 @ 그럼 엔나레두 이러케 눈싸람두 만들구.  
{그럼 옛날에도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 10801 #그 아이들, 지금두 허구 명절 때, 오:랜 명절, 오면 늘 거 아이들 오면 눈싸람 맨들가썩.  
{그 아이들, 지금도 하고 명절 때, 올랜 명절, 오면 늘 거 아이들 오면 눈사람 만들겠지.}
- 10801 @ 그러면 땅재머끼 이런 건 업써썩요?  
{그러면 땅재먹기 이런 건 없었어요?}

- 10801 #땅채머끼? 별걸 다 문네.  
{땅채머끼? 별 걸 다 문네.}
- 10801 #땅채머끼래는 건 이러:케 땅을 요러:케 땡:그라케 그려. 땅을 땡그라케 그리구 여긴 내 집 요러케 하나 그려노쿠 여기 여기 지블 들:, 상대가 이니겐. 그래가주 요거 꺾:파리 요마:난 걸 가지구 특 쳐.  
{땅채머끼래는 건 이렇게 땅을 요렇게 동그략게 그려. 땅을 동그략게 그리고 여긴 내 집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여기 여기 집을 들, 상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사금파리 이만한 걸 가지고 특 쳐.}
- 10801 #특 쳐가지구 고거이 간 거기서 요, 그거뚜 규칙이 이서. 뭐 어뜨케 허는 줄 아니? 요, 요러:케 해서 뻘 뻘뜨루다 이러케 재:지. 뻘뻘 재서 이러케 한단 마라.  
{특 쳐가지고 그게 간 거기서 이, 그것도 규칙이 있어. 뭐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이, 이렇게 해서 뻘으로다 이렇게 재지. 뻘을 재서 이렇게 한단 말야.}
- 10801 #그니겐 여기 이 지비 먼저 드러가는 거야, 이 여이 내 지베션 이 사람네 지비 먼저 꺾파리가 드러가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이 먼저 들어가는 게, 이 여기 내 집에선 이 사람네 집이 먼저 사금파리가 들어가야 이기는 거야.}
- 10801 #근젠, 요기서 땅 이러케 재:머는 여그서 침에 치던 거야 나:중에 여기 가따 치니까 가까워지자나.  
{그러니까, 여기서 땅 이렇게 재면 여기서 처음에 치던 게 나중에 여기 갖다 치니까 가까워지잖아.}
- 10801 #그거 그거슬 땅뻘끼 땅채머끼라구 하는 거야.  
{그거, 그것을 땅뻘끼 땅채머끼라고 하는 거야.}
- 10801 @ 거 말고 완:전 어려쓸 때에는 그러면 이러케 얘기 달랠 때 어뜨케 하세요?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이거 뭐라구.  
{그거 말고 완전 어렸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 달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라고.}
- 10801 #까공까공.  
{까공까공}
- 10801 @ 뭐 이르케, 뭐라고 하지. 이르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 10801 #도리도리, 죄암죄암, 짹짹, 곤지곤지. (@ 네 그걸 어뜨케, 이르케 하는 거예요?) 곤지곤지.  
{도리도리, 죄암죄암, 짹짹, 곤지곤지. (@ 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곤지곤지.}
- 10801 #이건 곤지곤지, 이건 죄:앰침, 짹짹 이거.  
{이건 곤지곤지, 이건 죄암죄암, 짹짹 이거.}
- 10801 @ 그러면 개가 인제 그러케 완:전 어려쓸 땐 그러고 놀다가 쫓 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기도 하고, (@ 그르치.) 그러고 이제 쥐불로리도 하고 그러는데. 제:기도 차자나요. (@ 제기.) 제:기 차는 거에두 제:기에두 뭐 이케 뭐 종류가 이찌? 차는 거에두, 이르케 차구 뭐 이르케 차구.  
{그러면 개가 이제 그렇게 완전 어렸을 땐 그러고 놀다가 쫓 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기도 하고, (@ 그렇지.) 이제 쥐불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제기도 차잖아요. (@ 제기.) 제기 차는 거에도 제기에도 뭐 이렇게 뭐 종류가 있죠? 차는 거에도, 이렇게 차고 뭐 이렇게 차고.}
- 10801 #어어, 처, 츠:메는 인제 땅에서 이 발루다 여이 제기가 이러이 이스면,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차거든?  
{어어, 처, 처음에는 이제 땅에서 이 발로다 여기 제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차거든?}

10801 #고다 이, 이:단계는 들구, 들구 차기야 이거이.  
{그 다음에 이 단계는 들고, 들고 차기야 이게.}

10801 #그러구 세:번째는 들구 차따 땅에 대따 들구 차따 땅에 대따 그이 삼단계가 인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들고 찻다 땅에 댕다 들고 찻다 땅에 댕다 그 삼 단계가 있는 거지.}

10801 @ 아, 그러쿠나. 그러구 이제 그 사람드리 좀더 크면 이제 뭐하고 노냐면 장기도 두고, (#응.) 바둑도 두고 그러고 놀자나요. 근데 투전, 여기서. (#투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더 크면 이제 뭐하고 노냐면 장기도 두고. (#응.) 바둑도 두고 그러고 놀잖아요. 그런데 투전, 여기서. (#투탄.)}

10801 #투, 투탄 몰라? (@ 예 한번도 모뻬썸.) 아이 저 거러키니 뭐야 이 경기하는 데두 올림픽대:회하는 데두 그거 인는데. 투타이 이, 던지는 거.  
{투, 투탄 몰라? (@ 예 한번도 못 봤어요.) 아이 저 그렇게 뭐야 이 경기하는 데도 올림픽대회하는 데도 그거 있는데. 투탄이 이, 던지는 거.}

10801 @ 그러구 노르셔썸?  
{그리고 노셨어요?}

10801 #응? 그 그건 뭐 보:통 허는 게 아니구 인제 이제 이 교동에서두 인제 무슨 운:동경기 이스면 투탄 경기가 이찌.  
{응? 그건 뭐 보통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교동에서도 이제 무슨 운동경기 있으면 투탄경기가 있지.}

10801 #투타니, 이 땡:구란, 땡:그란 인제 쇠 거튼 거. 이걸 가지구 그거뚜 쏘:는, 지그론 그냥 그거 아주 뽕뽕뽕뽕 돌다 꺾 패대기를 쳐버리지만 그저네 여기서 할땐 그 쇠:땡어리를 귀에다 귀에다 대:따가 던질, 그니 팔, 순 팔심이지. 파리 히미 나가는 거지. 그 그거이 투타니야.  
{투탄이, 이 땡그란, 땡그란 쇠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그것도 쏘는, 지금은 그냥 그거 아주 뽕뽕뽕뽕 돌다 꺾 패대기를 쳐버리지만 그전에 여기서 할 땐 그 쇠땡어리를 귀에다 귀에다 댕다가 던질, 그러니 팔, 순 팔힘이지. 팔의 힘이 나가는 거지. 그 그게 투탄이야.}

10801 @ 여기에두 그 뭐지? 여:팔러 오구 그래썸요 그 각썸리드리?  
{여기에도 그 뭐지? 옛 팔러 오고 그랬어요 그 각설이들이?}

10801 #응?  
{응?}

10801 @ 열, 열. 열 팔러.  
{열, 열. 열 팔러.}

10801 #옛장수?  
{옛장수?}

10801 @ 네, 옛장수.  
{네, 옛장수.}

10801 #에, 여기도 옛장수가 이뜨래서.  
{에, 여기도 옛장수가 있더랬어.}

10801 @ 저이는 옛장수 본 저기 한번두 업꺼든녀.  
{저희는 옛장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0801 #여:장수는 여 뭐야 여:슬, 이 여:슬 고아가지구 자꾸 느르면 역시 인제 하:야케 되면서 요 손가락 모양으루 하:야케 뽕는단 마라. 그거 딱딱딱딱 찢라가지구.  
{옛장수는 여 뭐야 옛을, 이 옛을 고아가지고 자꾸 늘이면 이제 옛이 하얗게 되면서 이 손가락

모양으로 하얗게 뽑는단 말야. 그거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10801 #그게 연모파니, 이러케, 모파니 이찌.  
{그게 옛모판이, 이렇게 모판이 있지.}

10801 #모판은 인제 이야까에 끌:구 대니는 사람두 이꾸 모게 걸:구 다니기두 하구. 가위가 이서, 여짱사 가위.  
{모판은 이제 리어카에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가위가 있어, 옛장사 가위.}

10801 #가위 딱따따 딱 치머는 아이드리 여짜무라 나가는 거지.  
{가위 딱따따 딱 치면 아이들이 옛 사먹으러 나가는 거지.}

10801 @ 여:치기가 뭐예요? (#여치기.)  
{옛치기가 뭐예요? (#옛치기.)}

10801 #여치기는, 여짱사 인제 불러노쿠 상대, 상대방이 이 뭔:다 마라.  
{옛치기는 옛장사 이제 불러놓고 상대, 상대방이 이 모인단 말야.}

10801 #여치기는 여까라기 이러케 이짜나? 그러면 저짜가끔 하나씩 골:래 가져.  
{옛치기는 옛가락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제가끔 하나씩 골라 가져.}

10801 #골:래가지고 딱 꺼껴. 딱 꺼끄면 여세 열 그 가락엔 여긴 구머기 이서.  
{골라가지고 딱 꺾어. 딱 꺾으면 옛에 옛 그 가락엔 여긴 구멍이 있어.}

10801 @ 으응. (#에.)  
{으응. (#에.)}

10801 #구머기 질: 큰 사لامي 이기는 거지, 그 여치기야.  
{구멍이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게 옛치기야.}

10801 @ 그럼 남자드른 그러고 노란는데, 여자드른 그럼 모하고 노라썩요? 고무줄로리 하고 노란나요?  
{그럼 남자들은 그러고 놀았는데, 여자들은 그럼 뭐하고 놀았어요? 고무줄놀이 하고 놀았나요?}

10801 #고무, 옛날 여자드른 고무줄도 몰:르지. (@ 공기?) 느:리나 하고 공기나 하고.  
{고무, 옛날 여자들은 고무줄도 모르지. (@ 공기?) 널이나 하고 공기나 하고.}

10801 @ 느:리 뭐에여?  
{널이 뭐예요?}

10801 #늘:띠기.  
{널뛰기.}

10801 @ 아아. 그러면 저기는 뭐, 사방치기가 뭐.  
{아아. 그러면 저기는 뭐, 사방치기가 뭐.}

10801 #사:방치기. 사:방치긴 또 이러케 요러케 인제 땅에다 그:리틀 그려. 요러케 해서 칸을 마가.  
{사방치기. 사방치기는 또 이렇게 요렇게 이제 땅에다 그림을 그려. 요렇게 해서 칸을 막아.}

10801 #칸을 마가서, 요만 납작칸 동메가 이서. 요이 요기 지비 이꼬.  
{칸을 막아서, 요만 납작한 돌맹이가 있어. 여기 여기 집이 있고.}

10801 #그니 요:그서 이걸 던져노곤, 깨끔발. 한발. 깨끔발 툭 쳐서 요, 그리 가고 또 툭 쳐서 올리 가고. 요기서 서늘 이루고. 가다가 이 그메 걸리면 중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이걸 던져놓곤, 깨끔발. 한발. 깨끔발 툭 쳐서 요, 그리 가고 또 툭 쳐서 이리로 가고. 여기서 선을 이루고. 가다가 이 금에 걸리면 죽는 거야.}

10801 @ 으응. 그러면 안 걸리고 꼬까지 가는 사لامي 이기는 거네요?  
{으응. 그러면 안 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요?}

10801 #그, 근데 그거뚜 아냐. 게 이리케 도라서 한바퀴 도라와따 마랏. (@ 네.) 기먼 처:으메는 요 처까네다 던져찌먼, 고다멘 이 둘째까네다 던져.  
 {그, 그런데 그것도 아냐. 그게 이렇게 돌아서 한바퀴 돌아왔단 말이야. (@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첫칸에다 던졌지만, 그 다음엔 이 둘째칸에다 던져.}

10801 #게 둘:째까네 던지고 고 다멘 세:째까네 던지고. 이거시 완:저니 한바퀴 도:라야 이기는 거야.  
 {그게 둘째칸에 던지고 그 다음엔 셋째칸에 던지고. 이것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이기는 거야.}

10801 #한 번 도라따고 이기는 게 아냐.  
 {한 번 돌았다고 이기는 게 아냐.}

10801 @ 아 그러쿠나. 그럼 그르구나서 이제 좀더 크면 이제 노인분드른 윤:노리하고 뭐, (@ 응, 그지.) 화투하고. 그조? 근데 마:작뚜 하셔썌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좀더 크면 이제 노인분들은 웃놀이하고 뭐, (@ 응, 그렇지.) 화투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작도 하셨어요?}

10801 #마:작뚜 그기 여기는 에 중간에 마적이 생겼어.  
 {마작도 그게 여기는 에 중간에 마적이 생겼어.}

10801 @ 마:저근 저 한:번두 본 저기 업썌요. (#마작?) 그거는 뭐 우리나라 거예요?  
 {마작은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작?) 그거는 뭐 우리나라 거예요?}

10801 #마, 마:저기야. 그거 중구꺼야. (@ 그조?) 마, 마:저기야. 도두, 말 마짜에 도둑 적짜야.  
 {마, 마작이야. 그거 중국 거야. (@ 그조?) 마, 마작이야. 도두, 말 마 자에 도둑 적 자야.}

10801 #그 마:적떼라 그르자나. (@ 으응.) 그, 그이 그 마리아 그이.  
 {그 마작떼라 그러잖아. (@ 으응.) 그, 그게 그 말이야 그게.}

10801 #마, 마:저기라구 이서가지구, 인제 통:수가 이꾸 만:썌가 이서.  
 {마, 마작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통수가 있고 만수가 있어.}

10801 @ 예.  
 {예.}

10801 #통수는 머냐면 점, 저 똥그란 점 꼬꼬꼬꼭 찌근 거.  
 {통수는 뭐냐면 점, 저 동그란 점 꼬꼬꼬꼭 찌은 거.}

10801 #찌근 거고, 만수는 일리삼사루 이 글썌 쓴 거고.  
 {찌은 거고, 만수는 일리삼사로 이 글썌 쓴 거고.}

10801 #게, 만:수가 이꾸 통:수가 인는데 고거시 며시냐며는, 하나서 아홉까지 수:짜루 이꾸, 또 통:수루 아홉까지, 그이 하나, 일짜가 네:시야. 일통이 네:시구.  
 {그게 만수가 있고 통수가 있는데 그게 몇이나면, 하나에서 아홉까지 숫자로 있고, 또 통수로 아홉 가지, 그게 하나, 일 자가 넷이야. 일통이 넷이고.}

10801 #네:씩 네:씩 한 거시 아홉까지 두리야. 그럼 며시지?  
 {넷씩 넷씩 한 것이 아홉까지 둘이야. 그럼 몇이지?}

10801 @ 삼십늑? (#응?) 사, 삼십늑?  
 {삼십육? (#응?) 사, 삼십육?}

10801 #네 네, 이 하 한짜기 네:신데, 요거이 아홉까지 이서. (@ 삼십늑.) 사구 삼십늑이지, 삼십늑기 두리야.  
 {네 네, 이 하 한 짝이 넷인데, 이게 아홉까지 있어. (@ 삼십육.) 사구 삼십육이지, 삼십육이 둘이야.}

10801 @ 칠썌비.  
 {칠십이.}

- 10801 #칠썩비지? 칠썩비인데, 거기다 백, 그 하얀 판. 또, 밭. 바리라구 필 밭짜. 필 밭짜 그거시 넨.  
{칠십이지? 칠십이인데, 거기다 백, 그 하얀 판. 또 밭. 밭이라고 필 밭 자. 필 밭 자 그것이 넷.}
- 10801 #또 중, 가운데 중짜. 중헌 거시 네:시구. 그이, 네:씩 인는 거이 또 세:시 이서.  
{또 중, 가운데 중 자. 중한 것이 넷이고. 그게, 넷씩 있는 게 또 셋이 있어.}
- 10801 #삼, 삼사시비지? 금 며시야. 고거이 통 수짜야. 마저게. 칠썩비에. (@ 팔십짜. 아 그러쿠나.)  
{삼. 삼사십이지? 그럼 몇이야. 그게 통 숫자야. 마적에. 칠십이에. (@ 팔십사. 아 그렇구나.)}
- 10801 @ 그럼 그거는 뭐 어뜨케 맞춰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맞춰서 이기는 거예요?}
- 10801 #음, 그거 그거는 네: 사라미 하는 거야 넨. (@ 아 네 사라미.) 네: 사라미 안자서 인제 허는 거지.  
(@ 서로 짝 이러케 노초?) 아 그러치, 응.  
{음, 그거 그거는 네 사람이 하는 거야 넷. (@ 아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앉아서 이제 하는 거지.}@ 서로 짝 이렇게 놓죠?) 아 그렇지, 응.}
- 10801 #이거 한 사라미 며씩 가진나며는 인제 네:씩 네:씩 세:벌, 세:버를 띤게 삼세피리 열두리지?  
{이거 한 사람이 몇씩 가지나면 이제 넷씩 넷씩 세 벌, 세 벌을 띤 게 삼세필이 열둘이지?}
- 10801 #열두, 열두짜 가주구 허는 거야 이거이 열두짜.  
{열두, 열두짜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열두짜.}
- 10801 #기리구 이건 내:군, 요기서 다시 싸:논 데서 하나 떼오구.  
{그리고 이건 내고, 여기서 다시 쌓아 놓은 데서 하나 떼 오고.}
- 10801 @ 그러며는, 손자랑 손녀랑 이제 설: 때랑 추석 때랑 여기 오, 오자나요 (#응.) 그럼 지금 손자손녀분들 어, 며살쯤 되서썩요?  
{그러면, 손자랑 손녀랑 이제 설 때랑 추석 때랑 여기 오, 오잖아요 (#응.) 그럼 지금 손자손녀분들 어 몇살쯤 되셨어요?}
- 10801 #어, 아:이들 나이가? 에 큰손주가 정, 무기경신, 스물따섯?  
{어 아이들 나이가? 에 큰손주가 정, 무기경신, 스물다섯?}

### 3. 전설과 설화

- 10801 @ 으응. 그러며는 아주 어려쓸 때:, 막 간난쟁이 때, 여서쌀 뭐 다서쌀 일곱쌀 이럴 때: 그럴 때 손주드리 오면:, (#응.) 옛날 얘기 해주고 그러서썩요?  
{으응.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막 간난쟁이 때, 여섯살 뭐 다섯살 일곱살 이럴 때 그럴 때 손주들이 오면, (#응.) 옛날 얘기 해주고 그러셨어요?}
- 10801 #엔:날래기 해:달래면 해:줘야지.  
{옛날얘기 해달라면 해줘야지.}
- 10801 @ 뭐해주서썩요?  
{뭐해주셨어요?}
- 10801 #자네들 엔:날래기 드꼬 시픈가?  
{자네들 옛날얘기 듣고싶은가?}
- 10801 @ 예.  
{예.}
- 10801 #그먼, 효:자 얘기 내 하나 해주, 해주지.  
{그러면, 효자 얘기 내 하나 해 주, 해 주지.}

10801 #예:저네, 홀루 인는 늘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라미 이서.  
{예전에, 홀로 있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

10801 #근데 이 어머니가 기쁜 병:이 드러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깊은 병이 들었어.}

10801 #배가기 무효야. 뭐: 무슨 야글, 야글 지어두 안 나꾸 뭐: 해두 안 나꾸, 뭐 심지어는 구슬 해:두 안 나꾸.  
{백약이 무효야 뭐 무슨 약을, 약을 지어도 안 낫고 뭐 해도 안 낫고, 뭐 심지어는 곶을 해도 안 낫고.}

10801 #그니께는, 아:들 메누리가 아:주 고시메 빠진 거지. 근심걱정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아주 고심에 빠진 거지. 근심걱정애.}

10801 #헨:는데, 하루는 중:이 와서.  
{했는데, 하루는 중이 왔어.}

10801 #중:, 중:이 와서 인제 그 사:주하세요 시주 좀 허세요 대:문까네 인는데 이 메누리가 사 사바레다 싸를 좀 떠가주 가선 중 배랑에다 부어주니젠,  
{중, 중이 와서 이제 그 시주하세요 시주 좀 하세요 대문간에 있는데 이 며느리가 사발에다 쌀을 좀 떠가지고 가선 중 배랑에다 부어주니까,}

10801 #이 중이 이러:이 바라보더니, 아: 지끔 지바네 우:와니 이간는데, 그러구 그리군, 도라 도라서거든?  
{이 중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아 지금 집에 우환이 있겠는데, 그러고 그러곤, 돌아서거든?}

10801 #그니 이 메누리가 어 심상칠 안커든, 어뜨케 우:와니 인는 줄 아:나마라.  
{그러니 이 며느리가 어 심상칠 않거든, 어떻게 우환이 있는 줄 아냐 말이야.}

10801 #그겐 쪼차가선 대:산님 허구 부튼 거지.  
{그러니까 쫓아가선 대사님 하고 붙든 거지.}

10801 #대:산님 지금 뭐:라고 말씀 허셔씀니까, 지비 우:와니 이간는데, 네 우환 이시다 마리아.  
{대사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에 우환이 있겠는데, 네 우환 있습니다 말이야.}

10801 #시어머니가 병, 병:이 난는데 배가기 무웁니다 마라. 어뜨커먼 조:씀니까.  
{시어머니가 병, 병이 났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말이야. 어떡하면 좋습니까.}

10801 #한:참 이뜨니, 아 야근 이긴 인는데? 그리군, 그리군 또 가는 거야.  
{한참 있더니, 아 약은 있긴 있는데? 그러곤, 그러고는 또 가는 거야.}

10801 #아 야근 이때거든. 그래 그땐 중:을 아주 끼여안다시피 부뜰고, 뽕:니까 그 야기 뭐냐.  
{아 약은 있대거든. 그래 그땐 중을 아주 끼안다시피 붙들고, 뽕니까 그 약이 뭐냐.}

10801 #예: 안되는데. 안되구 되는 게 어딴나마라. 마래주시오 마라.  
{예 안 되는데. 안 되고 되는 게 어딴 말야. 말해주시오 말야.}

10801 #그냥 대롱대롱 부짜구 매달기니, 중:이 혈: 수 업시, 예유 혈 수 읍꾸만.  
{그냥 대롱대롱 붙잡고 매달리니 중이 할 수 없이, 예유 할 수 없구만.}

10801 #근데 이거 참 힘드는데. 힘드려두 조:타 마라. 내 목쭈미 끄너저두 조:타 마라.  
{그런데 이거 참 힘드는데. 힘들어도 좋단 말야. 내 목숨이 끊어져도 좋단 말야.}

10801 #그러태면 가르켜줍세만. 지비 세:살 머근 아드리 이간는데.  
{그렇다면 가르쳐줍세만. 집에 세 살 먹은 아들이 있겠는데.}

10801 #중:이 보지도 아나, 저 아드린는 줄두 모르는데 이간는데, 네 이씀니다 마라.  
{중이 보지도 않아, 저 아들 있는 줄도 모르는데 있겠는데, 네 있습니다 말이야.}

10801 #그 애를 살마서 시어머닐 주머는 시어머니가 그 애 살픈 물, 무를 머그면 난는다 마라.

{그 애를 삶아서 시어머닐 주면 시어머니가 그 애를 삶은 물을 먹으면 낫는단 말야.}

10801 #자네거름 헐 수 이서? (@ 아니요.) 모터지? (@ 네.)  
 {자네같으면 할 수 있어? (@ 아니요.) 못하지? (@ 네.)}

10801 #모터지? 그니겐 그 뭐 주거야지. 아나면 중는데 이미.  
 {못하지? 그러니까 그 뭐 죽어야지. 안 하면 죽는데 이미.}

10801 #거 어떡케. 자 시:살머근 거 누네 너:도 아나픈 재롱둥이를 어뜨케 끌른 소테다 삼:난 마리아. 응?  
 {그거 어떡해. 자 세 살 먹은 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재롱둥이를 어떻게 꿩는 솔에다 삶난 말이야. 응?}

10801 #게, 실랑이 드러온 다음에 그 애길 헐 거야.  
 {게, 신랑이 들어온 다음에 그 애길 한 거야.}

10801 #오늘 대:산니미 완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간는데, 이걸 어뜨케야 되냐.  
 {오늘 대사님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0801 #개를 살마서 어머니를 드러야 되냐 어머니 도라가시라고 내:부려 뒤야 하나.  
 {개를 삶아서 어머니를 드러야 되냐.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내버려 뒤야 하나.}

10801 #고 어뜨케. 이거뚜 모터고 저거뚜 모터자나.  
 {그거 어떡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10801 #그냥 이스먼 즈이 어머니 주글 꺼구. 게 매치를 두리 자물 모짤거야.  
 {그냥 있으면 제 어머니가 죽을 거고. 그게 며칠을 돌이 잠을 못 잔 거야.}

10801 #어머니를 도라가시라고 뒤:야 되냐 아드를 주겨야 되냐.  
 {어머니를 돌아가시라고 뒤야 되냐 아들을 죽여야 되냐.}

10801 #그 하면서 매:치를 밤나솔 자물 모짜고 그냥 근심걱정허구 허다 나:중에 결론이 어뜨게 난냐면  
 재 살마 주자.  
 {그 하면서 며칠을 밤낮을 잠을 못자고 그냥 근심걱정하고 허다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재 삶아 주자.}

10801 #부모는 한번 도라가시면 고마니구, 자시근 또 나면 자식 아니냐.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그만이고, 자식은 또 낳으면 자식 아니냐.}

10801 #그래서 재:를 살마서, 어머니를 드리자.  
 {그래서 재를 삶아서, 어머니를 드리자.}

10801 #자 결정은 그러케 해: 낫는데. 그게 되냐 마랴. 응?  
 {자 결정은 그렇게 해 났는데. 그게 되냐 말야. 응?}

10801 #게 결정을 해:노쿠두 매치를 미정미저카구 그냥, 응? 그 더군다나 자물, 자른 더 모짜구 바쁜 더  
 몬먹찌.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도 며칠을 미적미적하고 그냥, 응? 그 더군다나 잠을, 잠은 더 못 자고  
 밥은 더 못 먹지.}

10801 #그래서 뭐 할 수 업따. 이미 결정나구 헐 거니겐, 헐 수바게 업따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이미 결정나고 한 거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10801 #가마소테다 무를 퍼부꾸선 아궁이에다 부를 때:는 거야. 무를 끄리는 거지.  
 {가마솔에다 물을 퍼붓고선 아궁이에다 불을 때는 거야. 물을 끓이는 거지.}

10801 #거 정신 이시 불 땔 꺼야? 게 불 땔겐 아유 무리 아주 벼남업씨 꼬를 꺾 사시리지 펼 펼 이리케  
 소:꾸치면서 끌치.  
 {거 정신 있어 불 땔 거야? 그게 불을 때니까 아유 물이 아주 변함없이 끌을 건 사실이지. 이렇게

숯구치면서 끓지.}

10801 #아 그 무리 그러이 디려 끝는데, 아 거 세:살 머근 아이가 부엌 문턱글 너머서 엄마 허구 드리오거든?  
{아 그 물이 그렇게 들어 끓는데, 아 거 세 살 먹은 아이가 부엌 문턱을 넘어서 엄마 하고 들어오거든?}

10801 #그걸 그냥 그 아이 드리오는 걸 치마루다 이리이 싸선 가따 소테다 지버너쿠션 소맹 뚜껑 다꾸션.  
그 여자는 혼:미해서 쓰러지구 만 거지.  
{그걸 그냥 그 아이 들어오는 걸 치마로 이렇게 싸선 갖다 솔에다 집어넣구선 솔뚜껑 닫고선.  
그 여자는 혼미해서 쓰러지고 만 거지.}

10801 #게 언:마 이따 이제 혼:미해따 인제 정시니 드러 깨, 깬:는데.  
{게 얼마 있따 이제 혼미했다 이제 정신이 들어 깨, 깬는데.}

10801 #깨:니 뭐, 소단, 저이 아드른 소다네 드러가 이스니 벌써 물크러져슬 꺼구.  
{깨니 뭐, 솔 안, 제 아들은 솔 안에 들어가 있으니 벌써 몽크러졌을 거고.}

10801 #그이 정시넙씨 그냥 안저 인는데. 아 그랜는데 뭐이 또 엄마 허곤 부어그루 드러와.  
{정신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아 그랬는데 뭐가 또 엄마 하곤 부엌으로 들어와.}

10801 #아 보니께는 지 아드리야 또. 이거이 어떻게 된 거야.  
{아 보니깐 제 아들이야 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0801 #아 아드른 소테 드러가서 지금 살마져 인는데, 또 어 아드리 드러오니.  
{아 아들은 솔에 들어가서 지금 살아져 있는데, 또 어 아들이 들어오니.}

10801 #아이 좌우간 어뜨게 되뜨지 께:안꾼 얼싸안꾸 울:구불구 현 거지.  
{아이 좌우간 어떻게 됐던지 께안꾼 얼싸안고 울고불고 한 거지.}

10801 #그리면 이 소테 드러간 건 뭐:나 마랴.  
{그러면 이 솔에 들어간 건 뭐난 말이야.}

10801 #게 소슬 열고 보이겐 그건 저이 아:이가 아니라 큰:동:자삼이란 마랴. 인삼.  
{게 솔을 열고 보니까 그건 저희 아이가 아니라 큰 동자삼이란 말이야. 인삼.}

10801 #게 그 인사를 가따 시어머니 주니겐 아 그거 잡쑤꾼 뽕떡 이러나는 거지 뭐야.  
{그게 그 인사를 갖다 시어머니 주니까 아 그거 잡쑤꾼 뽕떡 일어나는 거지 뭐야.}

10801 #게 효:시미 지그카며는 지성이 감쳐니라 이거야, 정성이 지그가면 하느리 감동헌대는 거야.  
{그게 효심이 지극하면 지성이 감천이라 이거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야.}

10801 #젠 그 도:사는, 중:은, 중:이 아이라 어느 산시니라.  
{그 도사는, 중은 중이 아니라 어느 산신이라.}

10801 #그 효:시메 감:동해서, 그 아들며누리 그 효:시메 감동되야서 내려와가지고 그 산사를 내려다 준 거야.  
{그 효심에 감동해서, 그 아들며누리 그 효심에 감동되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산사를 내려다 준 거야.}

10801 #이런 효:도가 이서. 더 바랄 수 업는 효 효:시미지.  
{이런 효도가 있어. 더 바랄 수 없는 효, 효심이지.}

10801 @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자식까지도.}

10801 #그럼. 아 그거 뭐 삼, 사민줄 알구 살만나? 내 아, 내 아드린 줄 알구 살마찌?  
{그럼. 아 그거 뭐 삼, 삼인줄 알고 삶았나? 내 아, 내 아들인 줄 알고 삶았지.}

10801 @ 더 자래야 하는데. 엄마.

{더 잘해야 하는데. 엄마.}

10801 #더, 더, 더해? (@ 아뇨 아뇨.)  
{더, 더, 더해? (@ 아뇨 아뇨.)}

10801 #아우, 이거 대가리가. 그:리몬 어:뜨케 돼뜯지가네.  
{아우, 이거 대가리가. 그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801 #이 번: 바탕이, 우리 태:그끼야 이거이. 요이요이 인제 꽤:는 그릴 꺼구.  
{이 본 바탕이, 우리 태극기야. 이것이. 요기요기 이제 꽤는 그릴 거고.}

10801 #본 바탕이 흰새기야. 아마 이컨 다: 알 꺼야.  
{본 바탕이 흰 색이야. 아마 이컨 다 알 꺼야.}

10801 #힌: 새근 평화를, 평화를 유지하는 거거든 하얀 새근?  
{흰 색은 평화를, 평화를 유지하는 거거든 하얀 색은?}

10801 #그러키 때메 엔:나레도 인제 전:쟁을 허구 해도 이 항보컬 때는 배깅, 하얀 기를 이 장대에 꼬꾸  
이 항보글 헌다 마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제 전쟁을 하고 해도 이 항복할 때는 백기를, 하얀 기를 이 장대에  
꽂고 이 항복을 한단 말이야.}

10801 #그, 항보컬 때는 나는 인젠 저스니겐 우리 평화롭게 잘 삼씨다 그 뜨시야 그거이.  
{그 항복할 때는, 나는 이제 졌으니까 우리 평화롭게 잘 삼시다 그 뜻이야 그게.}

10801 #힌:새근 평화야.  
{흰 색은 평화야.}

10801 #헌데, 요:거시 인제 요기 인제 태그기, 요, 요거슨, 요거시 태그기야.  
{헌데, 요것이 이제 요기 이제 태극이, 요, 요것은, 요것이 태극이야.}

10801 #요 하나 요러:케 그려논 거이 요이 태그기야.  
{요 하나 요렇게 그려논 게 요게 태극이야.}

10801 #아:무거뚜 읊:는 거슬 무그기라구 해 무극.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극이라고 해 무극.}

10801 #아:무거, 이거 이거 읊:는 거 백찌 이는 거슨 이거슨 무그기라구 해.  
{아무거, 이거 이거 없는 거 백지 있는 것은 이것은 무극이라고 해.}

10801 #아:무거뚜 업따 마리지.  
{아무것도 없다 말이지.}

10801 #헌데, 요거이 딱 하나 나오면 태그기야.  
{헌데, 요게 딱 하나 나오면 태극이야.}

10801 #태:그긴데 이거 태그긴데 요 태:그기 나오면서 요기 요 딱: 버러져.  
{태극인데, 이거 태극인데 요 태극이 나오면서 요기 요 따악 벌어져.}

10801 #우리 조:서니 언:마나 지금 세:계에서 상:등구기 뉘냐 하는 거슨 이 구끼에서버텀 나타나고 인는  
거야.  
{우리 조선이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상등이 뉘냐 하는 것은 이 국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야.}

10801 #아프로부터 봐:.  
{앞으로부터 봐.}

10801 #느:이는, 난 느이들, 느이드리라구 해. 나는 느이보곤 뭐 학생들 허구 저네 내 손주딸 거치니께  
그냥 느이드리라구 해. (@ 예예.) 너희는, 난 너희들, 너희들이라고 해. 나는 너희보곤 뭐 학생들

하기 전에 내 손주딸 같으니까 그냥 너희들이라고 해.}

10801 #느이, 느이는 능:이 볼 수 이서. 이 하라버지 거튼 사라른 보기 힘들지.  
{너희, 너희는 능히 볼 수 있어. 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보기 힘들지.}

10801 #아프로 어:떠케 돼, 발전돼나가서 세:계를 가따 한:구게 자바 움켜지고 지배하는가 마리지.  
{앞으로 어떻게 돼, 발전되어 나가서 세계를 갖다 한국에서 잡아 움켜쥐고 지배하는가 말이지.}

10801 #세:계 상:등구기야. 상:등이 뭐야 우쌍짜 아냐.  
{세계 상등국이야. 상등이 뭐야 윗 상 자 아냐.}

10801 @ 예예.  
{예, 예}

10801 #제:일 너픈 나라가 된다고 한구게서 제:일 노픈 나라.  
{제일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나라.}

10801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저 하라버이 또 미친 소리 허네. 이런 얘:그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저 할아버지 또 미친 소리 허네. 이런 얘기한다고.}

10801 #그러나, 하라버지가 지금 메썸년 전, 아, 아플 보구 얘길 허면 미친노미지만, 그 당시에는, 마자.  
{그러나, 할아버지가 지금 몇십년 전, 아, 앞을 보고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지만, 그 당시에는, 맞아.}

10801 #아 그 얘:기가 증말 마잔네.  
{아 그 얘기가 정말 맞았네.}

10801 #이:걸 예:를 드러서 얘:기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

10801 #내가 한 삼사십년 저네, (@ 네네.) 삼사십너네는 무슨 얘길 헨냐면, 이런 얘길 해서.  
{내가 한 삼사십년 전에, (@ 네네.) 삼사십년에는 무슨 얘길 헨냐면, 이런 얘길 했어.}

10801 #아프로는 굴:뚜게서 연기 안 나고 바패먹고,  
{앞으로는 굴뚝에서 연기 안 나고 밥해먹고}

10801 #우리가 농사진는데, 여기는 농사 저 아냐?  
{우리가 농사 짓는데, 여기는 농사 저 아냐?}

10801 #농사진는데, 소니나 바레 물과 호글 안 무치구 농사 진는다.  
{농사 짓는데, 손이나 발에 물과 흙을 안 묻히고 농사 짓는다.}

10801 #그때 하라버지가 어:트게 물:런는 줄 아라?  
{그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물렸는 줄 알아?}

10801 #저: 미친 사람 미친년. 그 당시엔 하라부지가 이 상투 틀구 이뜨레따구.  
{저 미친 사람, 미친년. 그 당시엔 할아버지가 이 상투 들고 있더랬다고.}

10801 #저: 미친 사람, 미친 주른 이미 아라찌머는, 저러케꺼지 미친 주른 물:라따 마리아.  
{저 미친 사람. 미친 줄은 이미 알았지만, 저렇게까지 미친 줄은 몰랐다 말이야.}

10801 #아니, 이 사라마.  
{아니 이 사람아.}

10801 #아이 구 굴:뚜게서 연기가 안 나면, 바블 무:로 어:트게 해머거.  
{아이 굴, 굴뚝에서 연기 안 나면, 밥을 뭇로 어떻게 해먹어.}

10801 #그리고 우리가 농사진는데, 아이 무레 드러가야지. 호글 받:바야지.  
{그리고 우리가 농사짓는데, 아이 물에 들어가야지. 흙을 밟아야지.}

10801 #소니나 바레 호파 무를 안 무치고 어:떠케 농사지어 마라.

{손이나 발에 흙과 물을 안 묻히고 어떻게 농사지어 말이야.}

10801 #사:람 증:말, 어유, 미친 줄 아라찌만 보:통 미친 거 아이네. 저 크닐나꾸만 저 사람.  
{사람 정말, 어유, 미친 줄 알았지만 보통 미친 거 아니네. 저 큰일났구만, 저 사람.}

10801 #아:무말 모태서. 아:무말 모태서.  
{아무 말 못했어. 아무 말 못했어.}

10801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마자.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맞아.}

10801 #지금 굴:뚝 인는 지비 어디가 이서.  
{지금 굴뚝 있는 집이 어디가 있어.}

10801 #응? 굴:뚜기래는, 너이 굴:뚝 아:냐? 모르지?  
{응? 굴뚝이래는, 너희 굴뚝 아냐? 모르지?}

10801 #2 그저네 이러케 (#이, 이놈들 굴:뚝뚜 몰:라.)  
{그 전에 이렇게 (#이, 이놈들 굴뚝도 몰라.)}

10801 #2 그러구 맨발루다 모 찌구 김:매구 그만 .....  
{그리고 맨발로다 모 찌고 김 매고 그만.....}

10801 #뭇:허게 농사지는데 소이나 바레 무리 왜 무꾸 호기 왜 무더?  
{뭇 하게 농사짓는데 손이나 발에 물이 왜 묻고 흙이 왜 묻어?}

10801 #아 장:와 여기 어디 쓰는 거 있지, 장:갑 여기까지 쓰는 거지?  
{아 장화 여기 어디 쓰는 거 있지, 장갑 여기까지 쓰는 거지?}

10801 #어? 플로네 드러가도 호가나 무라나 안무치고 버스면 요러 요러 요러케 된다 마랴.  
{어? 물논에 들어가도 흙 하나 물 하나 안 묻히고 버스면 요러 요렇게 된다 말이야.}

10801 #지금 얘:기허며는, 마자.  
{지금 얘기하면, 맞아.}

10801 #허는데, 지금 내가 얘:기허는 건 아프로 벤 너늘 압뚜구서 얘기하니쎄 지금 또 드르면, 아유 하라버지 정말 미친네. 정, 망:녕 드린네.  
{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앞으로 몇 년을 앞두고서 얘기하니까 지금 또 들으면 아유 할아버지 정말 미쳤네.}

10801 #두구봐. 틀림업따.  
{두고 봐. 틀림없다.}

10801 #그리머는, 요 요거 인제 요건 흰색기구.  
{그러면, 요 요거 이제 요건 흰색이고.}

10801 #요 요 똥:그랑이 태그긴데.  
{요, 요 동그라미가 태극인데.}

10801 #요기 두:군데 따악 갈라논 거이 뭐냐. 양:이야 양:이.  
{요기 두 군데 따악 갈라놓은 게 뭐냐. 양의야, 양의.}

10801 #한:문 쓰지 안쿠 내, 어, 언문, 한글루 쓰께.  
{한문 쓰지 않고 내 어, 언:문, 한:글로 쓸게.}

10801 #양:의야. 양:이는 뭐냐. 남자 여자. (@ 그러쿠냐.) 해와 달.  
{양의야. 양의는 뭐냐. 남자 여자. (@ 그렇구나.) 해와 달.}

10801 #이거 오:음양이야. 일:본 구끼는 그냥 이런데 똥:그란 거 하나 이찌.  
{이거 오음양이야. 일본 국기는 그냥 이런데 똥그란 거 하나 있지.}

10801 #요건 해야, 해.  
{이건 해야, 해.}

10801 #일:본 구끼두 이거 보:통 구끼 아니야. 해야 해.  
{일본 국기도 이거 보통 국기 아니야. 해야 해.}

10801 #근데 다른 나라 구끼드른 이러:케 된다메. 낭:구이파리를 그려노코 요거 우리나라 구끼.  
{그런데 다른 나라 국기들은 이렇게 된다며. 나무이파리를 그려놓고 이거 우리나라 국기}

10801 #또, 줄 이러:케 자:노코 이거 우리나라 구끼.  
{또, 줄 이렇게 그어놓고 이거 우리나라 국기.}

10801 #만:국기를 한번 헤쳐노코 봐바.  
{만국기를 한번 헤쳐놓고 봐봐.}

10801 #참: 우:습끼가 하:넙, 뒤, 벼 별: 하나 이러 그려노코 우리나라 구끼. 응?  
{참 우습끼가 한없, 뒤 벼 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나라 국기. 응?}

10801 #이건 아:이들 장난끼리바께 안되는 거라 마라.  
{이건 아이들 장난거리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10801 #오:행 이:치에 인는 건, 요건 해야 해. 일보는 해.  
{오행 이치에 있는 건, 이건 해야 해. 일본은 해.}

10801 #헨데, 해가 아유 영: 시:지.  
{해인데, 해가 아유 영 세지.}

10801 #일본놈드리 을:마나 기우니 셔뜨래서?  
{일본 놈들이 얼마나 기운이 섰더랬어?}

10801 #소, 저러키니 러시아, 소련도 가따,  
{소, 저렇게 러시아, 소련도 갖다,}

10801 #2 저기 궁미색교 일본 글만 뵈:는데 그저넨 조선말하머는 여기 한국말하머는 빼꾸 지베도 안 보내서.  
그저네  
{저기 국민학교 일본 글만 배웠는데 그 전엔 조선말하면 여기 한국말하면 뺏구 집에도 안 보냈어.  
그 전에)}

10801 #이, 일:보니 일:러전쟁 이짜나.  
{이 일본이 일러전쟁 있잖아.}

10801 #역사는 그, 그거 정말, 일:러전쟁, 소련하고 전쟁해서 소련 때려 부셔짜나.  
{역사는 그 그거 정말, 일러전쟁, 소련하고 전쟁해서 소련 때려 부숴잖아.}

10801 #중일전쟁해짜나. 주 중국, 중국, 중국 때려 부셔짜나.  
{중일전쟁했잖아. 주 중국, 중국 때려 부숴잖아.}

10801 #그래가:주구 나:중엔 한:구글 깔:고누르는 거라 마리아.  
{그래가지고 나중엔 한국을 깔고 누르는 거라 말이야.}

10801 #깔:구 눌러 한:구글 토대로 해가주군 세계로 빼:쳐나갈려구.  
{깔고 눌러 한국을 토대로 해가지곤 세계로 뺏쳐 나가려고.}

10801 #근데, 요 해, 요건 해야. 이게 일보니, 아, 저번, 그저께두 내가 교:순데 해가 인제 동쪽에 불끈  
소까오를 때는 하:루 정일 날 그 기우늘 띠고 일 때 해에, 태양에 히미란 게 엄:청나다 마라.  
{그런데, 요 해, 요건 해야. 이게 일본이, 아 저번, 그저께도 내가 교순데 해가 이제 동쪽에 불끈  
숫아오를 때는 하루 종일 날 그 기운을 띠고 일 때, 해의, 태양의 힘이란 게 엄청나단 말이야.}

10801 #해:찌먼, 그 해가 떠와서 중간쯤 오면 그 처음에 떠올른 기새기 다 업드러지군 그저 호러, 호러.

고개 끄떡끄떡.  
 {했지만, 그 해가 떠 와서 중간쯤 오면 그 처음에 떠오른 기색이 다 없어지곤 그저 흘러, 흘러.  
 고개 끄덕끄덕.}

10801 #그, 서쪽그루 너머가게 되면 이 해는 인저는 기운 다: 이져버린 거야.  
 {그,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해는 이제는 기운 다 잊어버린 거야.}

10801 #이제 일:보는 힘 다 써서, 인젠. 업써.  
 {이제 일본은 힘 다 썼어 인젠. 없어.}

10801 #그, 일보는, 일:보는 그러키 때메 기시가 등등해짜나.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했잖아.}

10801 #근데, 그래두 세:계 구끼 일케 드러보면 일본구끼만덤두, 현거이 업는데.  
 {그런데, 그래도 세계 국기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일본국기만한 게 없는데.}

10801 #우리나라 구끼는 하유, 이거이 아:프루 무:궁무지너게 기냥 씨빨 빨:쳐나가는 기세라 마리아.  
 {우리나라 국기는 하유, 이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냥 시빨, 빨쳐나가는 기세라 말이야.}

10801 #게, 요거슨, 여긴 흥. 여긴 청. 흥청 아냐.  
 {그러니, 요것은, 여긴 흥. 여긴 청. 흥청 아냐.}

10801 #빨간 건 양, 파란 거 음.  
 {빨간 건 양, 파란 거 음.}

10801 #이러케 된는데, 왜 삼팔써니 갈라전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삼팔선이 갈라졌나?}

10801 #이상허지. 이거이 우리 조서닌데, 구끼가 갈라져서.  
 {이상하지. 이게 우리 조선인데, 국기가 갈라졌어.}

10801 #어? 구끼가 여기 이러, 그물 딱 거놔서.  
 {어? 국기가 여기 이렇게 금을 딱 그어 놔어.}

10801 #으:망이야.  
 {음양이야.}

10801 #이:부기:남 여기서 이 이 구끼에서두 이 주를 딱: 쳐노코 이러케 갈라.  
 {이북이남 여기서 이 국기에서도 이 줄을 딱 쳐놓고 이렇게 갈라.}

10801 #근데, 이걸 어:디다 그려? 아 중가니야 중간. 중가네서 다 그려놔서.  
 {그런데, 이걸 어디다 그려? 아 중간이야 중간. 중간에서 다 그려놔어.}

10801 #이거, 이건 어:차피 혈 쭉 읍:씨 천지대:세서 한:구글 가따, 얘기해짜나.  
 {이거, 이건 어차피 할 수 없이 천지대세에서 한국을 갖다, 아 얘기했잖아.}

10801 #음:녁, 양녀근 삼백육씨보일 음:녀근 이:백구십, 구십칠, 파릴 메뿐, 이백오십또 부니 허구 한데  
 요거술 통:터르면 삼백육십.  
 {음력, 양력은 삼백육십오일 음력은 이백구십, 구십칠, 팔일 몇분, 이백오십 도 분의 일하고  
 한데 요것을 통틀면 삼백육십.}

10801 #음:녁 양:녀글 통터러서 갈르며는 삼백육씨비다.  
 {음력 양력을 통틀어서 가르면 삼백육십이다.}

10801 #삼백육십빈데 지금 지구가 어:드러케 생겨나.  
 {삼백육십인데 지금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10801 #지구가 이 타워녕으로 생겨가지고 지축기 여기서 이러케 생겨다 마리아.  
 {지구가 이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지축이 여기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10801 #요거시 지추기 요러케 서스머는, 똑바로 서스머는 삼백육십이 되는데 지추기 삐따:커니 지금, 이 사람들 뭐 학생들 보고 이런 얘기허긴, 선생 아페서 문자 쓰는 거네 내가.  
{요것이 지축이 요렇게 섰으면, 똑바로 섰으면 삼백육십이 되는데 지축이 삐딱허니 지금. 이 사람들 뭐 학생들 보고 이런 얘기허긴, 선생 앞에서 문자 쓰는 거네 내가?}

10801 #지구가 지금 타워링이란 마라.  
{지구가 지금 타원형이란 말이야.}

10801 #헨데, 그 지추기래는 건 지구를 가따 아까 이 지구, 지블 허면 성주와 마찬가지로 그 성주 제 지추글 바루잡는 거이, 지추기 이 삐따:카게 서따 마리지.  
{헌데 그 지축이라는 건 지구를 갖다, 아까 이 지구, 집으로 하면 성주와 마찬가지로 그 성주, 제 지축을 바루잡는 게, 지축이 이 삐딱하게 섰단 말이지.}

10801 #게 지구가 지추글 위에서 이제 빙빙빙빙 수뇌를 허는데 삐따:커게 슌겐 삐따:커게 도:니겐 음:녁과 양:너근 거기서 차이가 진다 마리아.  
{게 지구가 지축을 위해서 이제 빙빙빙빙 순회를 허는데 삐딱하게 서니까 삐딱하게 도니까 음력과 양력은 거기에서 차이가 진단 말이야.}

10801 #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른 아:프론 이 삐따카게 슌 지추기 바루 슌다 이거야. 딱빠루.  
{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이 삐딱하게 선 지축이 바로 선다 이거야. 똑바로.}

10801 #똑빠루 서게 되며는 일러는 사, 삼백육십빌.  
{똑바로 서게 되면 일년은 사, 삼백육십일.}

10801 #음:녁 양:너기 읍씨 삼백육십빌.  
{음력 양력이 없이 삼백육십일.}

10801 #그땐 뭐:시 되냐. 동쪽게서 해 뜨고 서쪽게 해가 지면 바로 동쪽게서 다리 쪼차 올라오는.  
{그땐 무엇이 되냐.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에 해가 지면 바로 동쪽에서 달이 쫓아 올라오는.}

10801 #해 또, 달 지면 해가 뜨구. 이러케 된대는 거야.  
{해 또, 달 지면 해가 뜨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10801 #이:거슬 지금 누가, 누가 미더.  
{이것을 지금 누가, 누가 믿어.}

10801 #이런 얘기면, 또 미쳐따고 하지.  
{이런 얘기면, 또 미쳤다고 하지.}

10801 #미쳐따구 허는데, 아니. 증:거가 여기 텔레비에 나와.  
{미쳤다고 하는데, 아니. 증거가 여기 텔레비전에 나와.}

10801 #너이 저이 인천서우른 그거이 안나, 안나올 거야.  
{너희 저 인천 서울은 그게 안 나, 안 나올 거야.}

10801 #여:기서는 시:보방송이나본데, 시:보방송이서 맨:날 이 얘기 한다 이거.  
{여기서는 십오 번 방송이나본데, 십오 번 방송에서 맨:날 이 얘기 한다 이거.}

10801 #지추기 바루 습니다, 바루 습니다.  
{지축이 바로 섭니다, 바로 섭니다.}

10801 #바:루 스면 삼백육십이 된다 마리아.  
{바로 서면 삼백육십이 된다 말이야.}

10801 #밤낫 여기서는. 너이 고:구초네 가서 자면서 텔레비 보머는, 시보. 채널 시보 한 번 트러봐.  
{밤낫 여기서는. 너희 고구촌에 가서 자면서 텔레비전 보면, 십오. 채널 십오 한 번 틀어봐.}

10801 #지금 여기 틀면 지금두 나와.

{지금 여기 틀면 지금도 나와.}

10801 #고, 고:기서 나오며는 증:산도렌 교에서 나와.  
{거, 거기서 나오면 증산도라는 교에서 나와.}

10801 #아이 그, 데레비에 공개되는 건 버베 저:초기 안: 되니젠 공개하는 거 아냐. 그니까 나와.  
{아이 그 텔레비전에 공개되는 건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공개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나와}

10801 #그, 그 사람들 얘:기를 바로 내가 얘:기하는 거, 지추기 바로 쓴다.  
{그, 그 사람들 얘기를 바로 내가 얘기하는 거, 지촉이 바로 선다.}

10801 #바로 스며는 그땐 음:양이 또까따.  
{바로 서면, 그땐 음양이 똑같다.}

10801 #근데, 지금 태그기 얘기하다 이러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태극기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10801 #요거, 이제 으:망으루 갈라전는데.  
{요거 이제 음양으로 갈라졌는데.}

10801 #똥따마라. 근데 워:니 이거 팔괘야 팔괘. 여덟개야.  
{똥단 말야. 그런데 원이 팔괘야 팔괘. 여덟개야.}

10801 #이건 건, 곤, 이, 감.. 건, 곤, 감, 감 이. 허자나.  
{이건 건, 곤, 이, 감. 건곤감, 감이 하잖아.}

10801 #느이 이거, 이건 알:자나.  
{너희 이거, 이건 알잖아.}

10801 #그르먼 이거이 무어나. 거는 뭐:냐. 고는 뭐:고.  
{그러면 이게 뭐냐. 건은 뭐냐. 곤은 뭐고.}

10801 #요건 하늘, 요건 땅. 요건 아버지, 어머니. 요건 양, 음..  
{요건 하늘, 요건 땅. 요건 아버지, 어머니. 요건 양, 음.}

10801 #요건, 그러먼 요건 뭐냐. 해. 이건 달.  
{요건, 그러면 요건 뭐냐. 해. 이건 달.}

10801 #근데 이 꽤:래는 거이 그렇거야  
{그런데 이 꽤라는 것이 그런 거야}

10801 #양:은, 양:이래는 건 이 쪽 하나 정: 거이 요거 양이고, 음: 그래 요건 하나는 양으루 가.  
{양은, 양이라는 건 이 쪽 하나 그은 게 요것이 양이고, 음 그래 요거 하나는 양으로 가.}

10801 #근데 둘: 허먼 요러케 가. 음.. 요건 하나, 요건 두:리아.  
{그런데 둘 하면 요렇게 가. 음. 요건 하나, 요건 둘이야.}

10801 #금, 왜 양으미게.  
{그럼, 왜 양음이게.}

10801 #으, 으:망 얘기 할러머는, 내 저번날 저 교:순님 너이들 귀, 귀 마가 헨데.  
{음, 음양 얘기 하려면, 내 저번날 저 교수님이, 너희들 귀, 귀 막아 했는데.}

10801 #에이 나 그 얘기꺼진 아내준다 그러구 마라찌만.  
{에이 나 그 얘기까진 안해준다 그러고 말았지만.}

10801 #으:망을 얘기허면 사:라메 비춰서 얘길 해야 얼롱 아라.  
{음양을 얘기하면 사람에게 비춰서 얘기를 해야 얼른 알아.}

10801 #젠, 한 번 이야해신젠 내 고대로 얘기해.  
{그게,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내 그대로 얘기할게.}

10801 #천지, 아까 내가 얘기허지만. 사:라몬 천지에 대:표무리다.  
 {천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천지의 대표물이다.}

10801 #천지 이, 이:치는 몰라도 이 천지 이:치를 알:려머는 사:라메 모메다가서 비취보면 모든 게 안다  
 마리아.  
 {천지 이치는 몰라도 이 천지 이치를 알려면 사람의 몸에다가 비취 보면 모든 걸 안단 말이야.}

10801 #해:짜나. 그이, 요거는 쪽:쪽 빠치니겐 요건 양:이야.  
 {했잖아. 그러니, 요거는 쪽쪽 뻗치니까 요건 양이야.}

10801 #양:을 가따 건. 거는 하늘. 아버지.  
 {양을 갖다 건. 건은 하늘, 아버지.}

10801 #요건 전부 갈라져서. 요거 세:시 다 갈라져짜나.  
 {요건 전부 갈라졌어. 요거 셋이 다 갈라졌잖아.}

10801 #이 땅. 어머니. 음..  
 {땅, 어머니, 음.}

10801 #게, 아버지 어머니. 하늘과 땅. 야, 음:양.. 으:땅.  
 {게, 아버지 어머니. 하늘과 땅. 야, 음양. 음양.}

10801 #그면 여긴 뭐:냐  
 {그러면 여긴 뭐냐.}

10801 #이건 해. 해는 왜, 왜: 여그 중가니 비언냐.  
 {이건 해. 해는 왜, 왜 여기 중간이 비었냐.}

10801 #해를 쳐다봐. 해 소:근 부, 누니 부서서 해 소:글 드러다 보지 모태. 그르치?  
 {해를 쳐다봐. 해 속은 부, 눈이 부서서 해 속을 들여다 보지 못해. 그렇지?}

10801 #해에, 해 소:게는 아주 그냥 말꾸 고고헌데 해쏘글 드러다 보래면 해쏘게 무어 인는지 봐:질 아냐.  
 {해에, 해 속은 아주 그냥 맑고 고고헌데, 해 속을 들여다 보려면 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

10801 #그건 으:미 드러이끼 때메야.  
 {그건 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10801 #으:미 드러이끼 때메 해:소근 드러다보지 모태.  
 {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 속은 들여다보지 못해.}

10801 #다르, 다를 한 번 봐바. 달은 자체가 으:미거든?  
 {달을, 달을 한 번 봐봐. 달은 자체가 음이거든?}

10801 #으:민데, 달까운텐 양이 이서.  
 {음인데, 달 가운데엔 양이 있어.}

10801 #달까운텐 양이, 이 쳐다보면 게:수나무가 나오지.  
 {달 가운데엔 양이, 이 쳐다보면 계수나무가 나오지.}

10801 #그거 또렷하게 봐거든. 다른, 뻬.  
 {그거 또렷하게 보이거든. 달은 보여.}

10801 #그건 왜 빼냐.  
 {그건 왜 보이냐.}

10801 #으:메, 으:메는 양: 끼우니 이끼 때메.  
 {음에, 음에는 양 기운이 있기 때문에.}

10801 #양:끼운 때메 다른 저 보면 살 소:기 다 베지만 해 쏘:겐 으:미 이끼 때메 해쏘근 봐:질 안는 거야.

{양 기운 때문에 달은 저 보면 실속이 다 보이지만 해 속엔 음이 있기 때문에 해 속은 보이지 않는 거야.}

10801 #건 어니나라 구끼 치구, 이:런 천지에 이:치를 포아면 구끼를 가진 나라가 어디 인냐.  
{어느 나라 국기 치고, 이런 천지의 이치를 포함한 국기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

10801 #이건, 하라버지 혼:자 판단한 거야 누구에게 배:운 거뚜 아니고 누구에게, 이, 헨 거뚜 아니구.  
{이건 할아버지 혼자 판단한 거야.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 헨 것도 아니고.}

10801 #어:디 가든지 하라버진 이: 얘길 해.  
{어디 가든지 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해.}

10801 #아:프로 우리 한:구기, 한:구기 세:계를 지배한다. 상:등국 댄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상등국 된다.}

10801 #그건 뭐:루아냐.  
{그건 뭐로 아냐.}

10801 #구끼를 한 번 헤쳐노코 봐:라.  
{국기를 한 번 헤쳐놓고 봐라.}

10801 #구끼래는 건 그 나라에 상:징이야. 그 나랄 표시하는 거야. 그 나라의 알:구리야.  
{국기라는 건 그 나라의 상징이야. 그 나라를 표시하는 거야. 그 나라의 얼굴이야.}

10801 #그리먼, 아까 얘기한 대루, 어:드런 나라는 그냥 낭구이파리 하나 그리고 요거 우리 구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나라는 그냥 나뭇잎 하나 그리고 요거 우리 국기.}

10801 #하나 이러 쪽 거:노코 우리나라 구끼.  
{하나 이렇게 죽 그어 놓고 우리나라 국기.}

10801 #이거이 무:어 무:어 구끼지 뵤:지 그:리물 그려논 건지 하등 몰라.  
{이게 뭐 뭐 국기인지 뵤지 그림을 그려놓은 건지 하등 몰라.}

10801 #그나, 우리나라 구, 이 태그끼 만쿠른 완:저이 뽀:려터게 천지 이:치를 묘, 포함되구 이따 마리지.  
{그러나, 우리나라 구, 이 태극기만큼은 완전히 뚜렷하게 천지 이치를 묘, 포함되고 있단 말이지.}

10801 #근데 왜, 왜: 그러케 되냐.  
{그러는데 왜, 왜 그렇게 되냐.}

10801 #우리나라가 왜: 그러케 소, 소꾸기 되구 약쏘구까가 뵤:냐.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소, 속국이 되고 약소국가가 뵤냐.}

10801 #그거뚜 저 교수님한테 이야기 헨네 음양이야기.  
{그것도 저 교수님한테 이야기했네 음양이야기.}

10801 #선천네는 남자, 양이 셔:가지고 여:자는 그냥, 응? 거 남자들 사, 사추리 미테 고게 드리, 드리미러노쿤  
네:네 잘모태썸니다.  
{선천에는 남자, 양이 세가지고 여자는 그냥, 응? 거 남자들 사추리 밑에 고개 들이, 들이밀어놓곤  
네네 잘못했습니다.}

10801 #그러케 해:두 마, 나가! 그러면 보따리 싸가주구 나가야 돼구.  
{그렇게 해도 마, 나가!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되고.}

10801 #마, 예편네 그냥 두구두 첩, 뽀 일처 이:치비야.  
{마, 여편네 그냥 두고도 첩, 일처 이첩이야.}

10801 #첩 하나 둘 드리면 보:통이구.  
{첩 하나 둘 들이면 보통이고.}

10801 #남:자 권세가 그러케 시, 세:다구 해지 아나서.

{남자 권세가 그렇게 세, 세다고 하지 않았어?}

10801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자체가 동:쪼게서 양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체가 동쪽에서 양이야.}

10801 #우리나라 위치가 양인데, 양, 양: 중에 유오미야. 달, 다리구 또까태.  
{우리나라 위치가 양인데, 양 중에 음이 있어. 달, 달하고 똑같아.}

10801 #해:, 해:서, 구 구바글 바다 오다. 아:프론 후:천, 해원 시대가 돼.  
{해, 해서, 구박을 받아 오다가. 앞으로는 후천, 해원 시대가 돼.}

10801 #해원, 위:늘 푸러야지대.  
{해원, 원을 풀어야지 돼.}

10801 #위:늘 푸는데 뭐:세서 풀기 시자캔냐.  
{원을 푸는데, 무엇에서 풀기 시작했냐.}

10801 #윤님금. 윤님금 순님금 허면 느:이드리 그 역싸에 윤님금 순님그미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까따.  
{요임금. 요임금 순임금 허면 너희들 그 역사에 요임금 순임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10801 #에 보키씨, 무, 보키 보키씨 무냥씨 그거뚜 아:는지 모르까뜨만.  
{에 복희씨, 무, 복희 복희씨 문왕씨 그것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10801 #요, 요, 윤 윤:님그미야. 게, 이 살:기 조, 조:을 때가 요 윤님금 시저리 질: 조아때.  
{요, 요, 요임금이야. 그게 이 살기 좋을 때가 요임금 시절이 제일 좋았대.}

10801 #아:주 차카고 서:난 사라문, 아 저 사라문 요순쩍 백썩이야.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요순적 백성이야.}

10801 #이제, 그까, 지금두 이따구.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고.}

10801 #저 사라문 요순쩍 백썩이야.  
{저 사라문 요순적 백성이야.}

10801 #그러는데 그때는 사:라미 \*\*\*\* \*\* \*\*\*  
{그러는데 그 때는 사람이 \*\*\*\* \*\* \*\*\*}

10801 #요, 윤닝그미, 윤닝그메 아드리 단주야 단주.  
{요, 요임금이, 요임금의 아들이 단주야 단주.}

10801 #단준데, 엔:나라는, 아 지금, 지금두 아:부계선 기밀썩이가 김정이레게 정권 아양애주고 뭐 저, 정 뭐야 정이리 아드리 무슨 정 뭐시냐 그이 그놈께, 또 또 그놈께 다시 저, 정귀늘 이:양시키니.  
{단주인데, 옛날에는, 아 지금, 지금도 이북에선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정권 이양해주고 뭐 저, 정 뭐야 정일이 아들이 무슨 정 뭐시냐 그 그놈에게, 또 또 그놈에게 다시 저 정권을 이양시키니.}

10801 #예:저네는, 그대로 게:승이야. 임:그메 아드른 임:금.  
{예전에는 그대로 계승이야. 임금의 아들은 임금.}

10801 #한:는데, 윤:님그미 단, 아드리, 아들 이르미 단준데. 당여니 단주에게 될 임금 자리를 통:치꿔늘 넘겨 줘야되는데, 아드레게다 안 줘서 통:치꿔늘.  
{했는데, 요임금이 단, 아들이, 아들 이름이 단주인데. 당연히 단주에게 될 임금 자리를 통치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들에게 안 줘서 통치권을.}

10801 #안: 주구, 아드레겐 뭘: 친냐. 배독판, 지금 배독 두는 거 이짜냐.  
{안 주고 아들에게 뭘 줘냐. 배독판, 지금 배독 두는 거 있잖아.}

10801 #배독판을 하나를 그러 주면서 넌 이거나 가지고 이서, 허구 사:위. 사:위, 사:위가 누구냐면 우수니야 우순.

- {바둑판을 하나를 그려 주면서 넌 이거나 가지고 있어, 하고 사워. 사워, 사워가 누구냐면 우순이야  
우순.}
- 10801 #그게 운님그미야.  
{그게 우임금이야.}
- 10801 #우:수네게다, 따리 형제 이선는데, 큰 따른 아:왕, 둘째 딸 이르른 여영. 아:왕 여영을 가따 우:수네게  
다: 줘빠려서.  
{우순에게, 딸이 형제 있었는데, 큰 딸은 아왕 둘째 딸 이름은 여영. 아왕 여영을 갖다 우순에게  
다 갖다 줘버렸어.}
- 10801 #딸 형제를 다: 주면서 임:그메 자리를 우:수네게 냉겨주구, 아:들 단주에겐 이 배둑판 하나 그려주구  
넌 이거나 차지하구 이서. 줘:따 마라.  
{딸 형제를 다 주면서 임금의 자리를 우순에게 넘겨주고, 아들 단주에게는 이 바둑판 하나 그려주고  
넌 이거나 차지하고 있어. 쫓단 말이야.}
- 10801 #운님그미 성:이니신데, 운님그른 후:세를 며:천년전 아플 내다보시는 양반인데, 그래서 아:드레게  
단주에겐 임:금 짜리를 안:주구 너 배둑판이나 너 이거 가지구 이서.  
{이건, 임금이 성인이신데, 요임금은 후세를 몇 천년 전 앞을 내다보시는 양반인데, 그래서 아들에게  
단주에겐 임금 자리를 안 주고 너 바둑판이나 너 이거 가지고 있어.}
- 10801 #헨는데, 단주는 그 내용을 몰라.  
{했는데, 단주는 그 내용을 몰라.}
- 10801 #헌데, 당여니 내가 임:금 노른 헐 줄 아란는데, 아니 영:똥하게 난 쓸데웁는 그림 하나 그려주구  
이거 넌 이거나 가져 하고 임:금 자리는 매, 매:부에게 누, 누이동생 둘:씨기나 주면서 임:금시켜주니,  
그이 하:니 된 거지.  
{헌데, 당연히 내가 임금 노릇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엉뚱하게 난 쓸데없는 그림 하나 그려주고  
이거 넌 이거나 가져 하고 임금 자리는 매, 매부에게 누이동생 둘씩이나 주면서 임금시켜주니,  
그게 한이 된 거지.}
- 10801 #하:니 돼서, 단:주는 주거빠려서. 워:나늘 품지, 품꾸 그냥 주거빠린거야.  
{한이 돼서, 단주는 죽어 버렸어. 원한을 품지, 품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 10801 #그, 그: 워:나니 그 순님그미 임:금노르슬 하면서 단주에게 누, 누이동생 두를 아내로 거느리고  
사는데도.  
{그 그 원한이 그 순임금이 임금노릇을 하면서 단주에게 누이동생 둘을 아내로 거느리고 사는데도}
- 10801 #단주가 그 워:늘, 하:늘 품꾸 주그니 그 하:네 워:나니 누이, 누이들께루 가서 사리 가지구 아왕  
여영, 소상강에 무레 다 드러가 다: 주거빠리구 만 거야.  
{단주가 그 원을, 한을 품고 죽으니 그 한에 원한이 누이, 누이들에게로 가서 살이 가지고  
아왕 여영, 소상강에 물에 다 들어가 다 죽어버리고 만 거야.}
- 10801 #그니 거:기서부터, 하:니 썬: 거야 그냥.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한이 쌓인 거야, 그냥.}
- 10801 #워:나니 그냥 풍풍 썬:구 나오는 거지.  
{원한이 그냥 풍풍 쌓이고 나오는 거지.}
- 10801 #해:서, 이 세:상은 상그기 돼빠려서.  
{해서, 이 세상은 상극이 되어버렸어.}
- 10801 #서루 그냥 주구 바꾸 치구 바꾸 주구 살리구 그래 전:쟁이 이러나구 이 모양이 된 거지.  
{서로 그냥 죽이고 박고 치고 박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양이 된 거지.}

10801 #근데, 지금 이 도:수가. 지금 드러오기 시자키는 거야 이 도:수가.  
{그런데, 지금 이 도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도수가.}

10801 #금, 아니, 아니 지금 그 도:수가 드러온지 안드러온진 뭘: 가지고, 뭘:보고 암:니까 마리아.  
{그럼, 아니, 지금 그 도수가 들어온지 안들어온지는 무얼 가지고, 뭘 보고 압니까 말아야.}

10801 #느이 반:무나구 싶짜나.  
{너희 반문하고 싶잖아.}

10801 #아니, 아 그 사람들 그렇게 원:하네 주건는데 세:계 상그그루 해서 주기구 치구 바꾸 주기구 살리구 했는데 아 지금 그거시 푸러져서 후:천 시대가 드러온대는 건 뭐:, 뭘: 보고 그런 얘기하냐고 반문할 꺼 가튼데. 반문하지?  
{아니, 아 그 사람들 그렇게 원한에 죽었는데 세 개 상극으로 해서 죽이고 치고 박고 죽이고 살리고 했는데 아 지금 그것이 풀어져서 후천시대가 들어온다는 건 뭘 보고 그런 얘기하냐고 반문할 것 같은데. 반문하지?}

10801 #내가 이젠 반:문꺼지 무:러 가면서 대: 줘야지.  
{내가 이젠 반문까지 물어 가면서 대 줘야지.}

10801 #근데, 보키, 은님금 먼저에 보키씨가 이서서 보키씨가.  
{그런데, 복희, 요임금 먼저에 복희씨가 있었어 복희씨가.}

10801 #바로, 이 팔괘가 보키씨 나:중 팔괘야.  
{바로 이 팔괘가 복희씨 나중 팔괘야.}

10801 #요, 요건 아주 장:시기야 장:식.  
{요, 요건 아주 정식이야 정식.}

10801 #근데 무왕 때, 은님금 시저렌 무왕이래서.  
{그런데, 문왕 때, 요임금 시절엔 문왕이랬어.}

10801 #무:왕 때, 인데 이: 팔괘를 보키씨가 그냥 그린 거 아냐.  
{문왕 때, 인데 이 팔괘를 복희씨가 그냥 그린 거 아냐.}

10801 #보키씨두 승이는 승이니라두 몰:르지.  
{복희씨도 성인은 성인이라두 모르지.}

10801 #헌데, 그때에 하수. 하수는 연몰. 연:모세서 용마.  
{헌데, 그 때에 하수. 하수는 연못. 연못에서 용마.}

10801 #그니가 저 인제 너이는 그게 모르가, 아는지 모르간는데.  
{그러니까 저 이제 너희는 그게 모르겠, 아는지 모르겠는데.}

10801 #장:수나쁜 용마 생긴다.  
{장수 나면 용마 생긴다.}

10801 #장:수, 장수랜 건 율똥하는 장수지.  
{장수, 장수라는 건 율등한 장수지.}

10801 #장:수가 나머는 용마가 나온다, 그 얘:기가 인는 거야.  
{장수가 나머는 용마가 나온다, 그 얘기가 있는 거야.}

10801 #근데 용:마래는 건 어디서 나와, 았냐. 물쏘게서 나와. 용마는 물쏘게서 나와.  
{그런데 용마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 물 속에서 나와. 용마는 물 속에서 나와.}

10801 #용:마가 물 쏘게 튀어나 그때 튀어나오는데, 보키씨는 성이니거든. (용마가 물 속에 튀어나, 그때 튀어나오는데, 복희씨는 성인이거든.)

10801 #튀어나오는데 보니겐 마리 튀어나오거든 물쏘게서.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말이 튀어나오거든 물 속에서.}

10801 #그 이:상허자나 물쏘게서 마리 터:나오니.  
{그 이상하잖아 물 속에서 말이 튀어 나오니.}

10801 #게, 그런 얘:기가 인는 거야.  
{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10801 #무시, 보키씨가 무시카며는, 타구멍기다가 자바먹뜬지 할 건데.  
{무식, 복희씨가 무시하면 타고다니다가 잡아먹던지 할 건데.}

10801 #성이니시라 그러칠 안코, 용말 살피다 보니까 용마 장등에, 마 마른 털 이짜나. 터리 꼬불랑꼬불랑  
요러케 뭉쳐저가지구 뭉켜저가, 가지구 무슨 그:리플 그, 그러서 지금 나와따 이거야.  
{성인이시라 그렇질 않고, 용미를 살피다 보니까 용마 잔등에, 마 말은 털 있잖아. 털이 꼬불랑꼬불  
랑 요렇게 뭉쳐저가지고 뭉쳐저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 그러서 지금 나왔다 이거야.}

10801 #그 그:리미 무슨 그림이냐. 여기 나오는 거야.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여기 나오는 거야.}

10801 #그 용마 잔등에 무슨 그림인 줄 아냐면, 이런 그르플 지고 나온 거야. 이런, 이: 그림플.  
{그 용마 잔등에 무슨 그림인 줄 아냐면 이런 그림을 지고 나온 거야. 이런, 이 그림을.}

10801 #근데 이 그:리플 그린 게 아니라, 말 잔등에 털, 터리 꼬부락꼬부락 하면서 온 거지.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말 잔등에 털, 털이 꼬부락꼬부락 하면서 온 거지.}

10801 #게 그걸 보고 그린 그림이 요거, 하도야.  
{그게 그걸 보고 그린 그림이 요거, 하도야.}

10801 #근데 요 하:얀 건 양, 꺼먼 건 음..  
{그런데 요 하얀 건 양, 검은 건 음.}

10801 #아까 다서, 다서여서까지는 생수라 그래찌  
{아까 다섯, 다섯여섯까지는 생수라 그랬지}

10801 #요걸, 요걸, 바로 생수네, 요거 부모체야.  
{요거, 요거 바로 생수네. 요거 부모체야.}

10801 #해:가지고, 처:음 부모가 겨론허면 자식 나차나.  
{해가지고, 처음 부모가 결혼하면 자식 낳잖아.}

10801 #참: 하나 아들 난 거야.  
{처음 하나 아들 낳은 거야.}

10801 #아드른 양 아니야. 하나는 양이젠.  
{아들은 양 아냐. 하나는 양이니까.}

10801 #요거, 요 요거 하나는 요: 부모에 사이에서 하나 나온 거거든?  
{요, 요거 하나는 요 부모의 사이에서 하나 나온 거거든?}

10801 #기젠, 요거 하나 나와. 요거 부모는 다서시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나와. 요거 부모는 다섯이야.}

10801 #다서터고 하나하고 합치니젠 요 여서시 되는 거야.  
{다섯하고 하나하고 합치니까 요 여섯이 되는 거야.}

10801 #아까 얘:기현 그거야 이거.  
{아까 얘:기한 그거야 이거.}

10801 #게 이 용:마 장등에 이걸 지구 나온 거야.  
{게 이 용마 잔등에 이걸 지고 나온 거야.}

10801 #이:걸 보시구선 아하, 이:때는 이 법또 가지구 백쟁을 다스리래는 거구나.  
 {이걸 보시고서 아하, 이 때는 이 법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라는 거구나.}

10801 #승인이시니깐, 이거슬 보고 그:린 거시 이, 보키팔괘야.  
 {성인이시니까 이것을 보고 그린 것이 이 복희팔괘야.}

10801 #여기, 여기 그린 이 팔괘야 이거이.  
 {여기, 여기 그린 이 팔괘야 이게.}

10801 #근데 요건, 사:괘, 네:괘만 해찌? 요거 팔괘야 팔괘.  
 {그런데 요건, 사괘, 네괘만 했지? 요거 팔괘야 팔괘.}

10801 #이러케 된:는데, 무녕때는 어드러케 완냐머는, 요건 천지 기수가 봄처리야.  
 {이렇게 됐는데, 문왕 때는 어떻게 왔냐면, 요건 천지 기수가 봄철이야.}

10801 #하루, 하루에는 이:십사:시가니 벼놔된다고 얘:기해쥬찌?  
 {하루, 하루엔 이십사시간이 변화된다고 얘기해쥬찌?}

10801 #이:십사시가니 시비야. 시비지가 한지가 두:시간.  
 {이십사시간이 십이야. 십이지가 한 지가 두 시간.}

10801 #자추긴묘 허는 거이 고이 지지라구 허구 가블병정은 천가니라구.  
 {자축인묘 하는 게 그게 지지라고 하고, 갑을병정은 천간이라고.}

10801 #고걸 한 바꾸, 천간 지지가 한 바꾸 돌면 육씨비 돼. 육씩잡자야. 육씨비 되면, 한:갑.  
 {그걸 한 바퀴, 천간 지지가 한 바퀴 돌면 육십이 돼. 육십갑자야. 육십이 되면, 환갑.}

10801 #그 이:치가 다 고기 인는 거야.  
 {그 이치가 다 거기 있는 거야.}

10801 #그래가지구 여기 이 보키씨가 지나가니젠, 보키씨는 봄처린데, 여기 오면 무녕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 복희씨가 지나가니까, 복희씨는 봄철인데 여기 오면 문왕이야.}

10801 #무녕땐 뭐:연냐면.  
 {문왕 땐 뭐였냐면.}

10801 #무녕 때는 이 그, 이 그리미 또 나와서요 이 그리미.  
 {문왕 때는 이 그, 이 그림이 또 나왔어요 이 그림이.}

10801 #여:기는 보키시대구 여기는 무녕 때야.  
 {여기는 복희시대고 여기는 문왕 때야.}

10801 #게, 메:천년 후:지.  
 {게, 몇천 년 후지.}

10801 #건 지금 뭐:, 뭐:냐. 요 낙써라 그런다마라 낙써.  
 {그건 지금 뭐, 뭐냐. 요 낙서라 그런단 말야 낙서.}

10801 #낙써는 어:디서 난냐.  
 {낙서는 어디서 났냐.}

10801 #보키 때는 말: 장등에다 걸머지고 나와쥬마는 이 때는 거부기 장등.  
 {복희 때는 말 잔등에다 걸머지고 나왔지만 이 때는 거북이 잔등.}

10801 #거부기. 거부기두 연, 모세서 나와서 연모세서. 거부기 장등에다 이: 그리물 지구 나온 거야.  
 {거북이, 거북이도 연, 못에서 나왔어 연못에서. 거북이 잔등에다 이 그림을 지고 나온 거야.}

10801 #젠, 무녕두 성이니니젠 아하, 하도는 보키시대 봄철게 쓰던 법또구, 지그른 그 법또 쓰지 말구  
 이 법또 쓰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왕도 성인이니까 아하, 하도는 복희시대 봄철에 쓰던 법도고, 지금은 그 법도를

- 쓰지 말고 이 법도를 쓰라는 거구나.)
- 10801 #저이키니, 무냥이 이걸 보구선 이걸 하도를 하면서 이, 이 팔괘를 또 내는 거야. 이거, 요건 무냥 팔괘야.  
{저렇게, 문왕이 이걸 보고선 이걸 하도를 하면서 이, 이 팔괘를 또 내놓은 거야. 이거, 요건 문왕 팔괘야.}
- 10801 #오늘날까지 송꾸락 꼬불락꼬불락 허는 거 이짜나.  
{오늘날까지 손가락 꼬불락꼬불락 하는 거 있잖아.}
- 10801 #어태도 무냥, 무냥 이 시대 걸 우리가 쓰고 인는 거야. 이 시대 걸 쓰구이서.  
{여태도 문왕, 문왕 이 시대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이 시대 거를 쓰고 있어.}
- 10801 #근, 무냥은 어느 때냐. 무냥은, 일러니면 봄철. 무, 아 저러키니 보키씨는 봄철. 무냥은 여름철.  
{그, 문왕은 어느 때냐. 무냥은, 일년이면 봄철. 무, 아 복희씨는 봄철 문왕은 여름철.}
- 10801 #기젠, 생가케봐. 봄처레 허는 일과 여름처레 허는 일관 딸르자나.  
{그러니까, 생각해봐. 봄철에 하는 일과 여름철에 하는 일과는 다르잖아.}
- 10801 #봄처레는 눈: 같고 밭 같고 씨앗 뿌리고 허지마는 여름처레는 그 싹 나온 걸 가꿔야 하자나. 노냥 씨앗만 뿌리면 어뜨케. 가꿔야자나.  
{봄철에는 눈 같고 밭 같고 씨앗 뿌리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그 싹 나온 걸 가꿔야 하잖아. 노상 씨앗만 뿌리면 어떡해. 가꿔야 하잖아.}
- 10801 #가꾸면 어뜨케 되냐. 가꾸면 여름처렌 그냥 모:내, 팽창해 빠려. 막 퍼져뿌다.  
{가꾸면 어떻게 되냐. 가꾸면 여름철엔 그냥 모내, 팽창해 버려. 막 퍼져 버린다.}
- 10801 #인구가 얼마 퍼전냐.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마나 퍼져서.  
{인구가 얼마나 퍼졌냐.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퍼졌어.}
- 10801 #근데, 인:구가 그냥 그러케 퍼져나가면 안:되거든?  
{그런데 , 인구가 그냥 그렇게 퍼져나가면 안 되거든?}
- 10801 #그 뭐:냐. 여르미 가면 뭐:냐. 가을처리 온다 마리아.  
{그 뭐냐. 여름이 가면 뭐냐. 가을철이 온단 말이야.}
- 10801 #가:을처레 오면 어뜨게 사:냐. 비여, 전부. 추수해야 돼.  
{가을철에 오면, 어떻게 사냐. 벼, 전부. 추수해야 돼.}
- 10801 #근데, 봄처레는 하, 하늘끼우니야.  
{그런데, 봄철에는 하늘 기운이야.}
- 10801 #하늘끼우네, 너이 다른 건 몰라도 마늘거튼 거, 마늘건나 땅에다 안 시머도, 저, 다라꺼튼 데 봐도, 동지가 지나면, 동지는 서:파리아. 동지팔. 동지팔 지나면 동지에 이:량이 서:생이라는 거야.  
{하늘 기운에, 너희 다른 건 몰라도 마늘같은 거, 마늘같은 건 땅에다 안 심어도, 저 다라같은 데 봐도, 동지가 지나면, 동지는 선달이야. 동짓달. 동짓달 지나면 동지에 이량이 시생이라는 거야.}
- 10801 #이 너이드란텐 이 드끼 어려운 얘기들.  
{이 너희들한테 이 듣기 어려운 얘기들.}
- 10801 #동지 이:량이 시생이야.  
{동지 이량이 시생이야.}
- 10801 #동지가 되면 양:이 하나 나온다.  
{동지가 되면 양이 하나 나온다.}
- 10801 #양:은 뭐냐. 기운.

- {양은 뭐냐, 기운.}
- 10801 #양:이 나오면 뭐야. 요 곡씨게서 누니 터.  
{양이 나오면 뭐야. 요 곡식에서 눈이 터.}
- 10801 #기켄, 동:지가 지나면 벽 다라꺼튼 데 마눌두 얼렁 싱거야 마누리야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벽 다라같은 데 마눌도 얼른 심어야 하는 것이 마늘이야.}
- 10801 #마눌 두면 마누리 빠주:커게 싸기 나와.  
{마늘 두면 마늘이 삐죽하게 싹이 나와.}
- 10801 #그르먼 봄쳐레는 싸기 나오는 거고, 여름쳐렌 길르는 거란 마리아.  
{그러면 봄철에는 싹이 나오는 거고, 여름철엔 기르는 거란 말이야.}
- 10801 #길러, 팽창해. 맘껏 팽창해.  
{길러, 팽창해. 맘껏 팽창해.}
- 10801 #그러지아느면, 그냥이면 지구가 터:져빠려.  
{그러지 않으면, 그냥이면 지구가 터져 버려.}
- 10801 #지구 터:지면 안되지.  
{지구 터지면 안 되지.}
- 10801 #켄, 거기선 또 감:축시켜야 된다 마랴. 쥬:려야 된다구.  
{그러니까, 거기선 또 감축시켜야 된단 말이야. 줄여야 된다고.}
- 10801 #쥬:리는데, 뭐:냐. 전부 인제, 베 거튼 건 무껴. 아니 비어.  
{쥬리는데 뭐냐. 전부 이제 베 같은 건 묶어. 아니 베어.}
- 10801 #비:머는, 비:머는 전부 무껴. 전부 무껴서 이러케 노면.  
{베면, 베면 전부 묶어. 전부 묶어서 이러케 놓으면.}
- 10801 #지금 당이 얼마나,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부 무어 민주당 공화당 무슨 당 자유당 무슨 당.  
{지금 당이 얼마나,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부 뭐 민주당 공화당 무슨 당 자유당 무슨 당.}
- 10801 #저, 전:부가 무껴져 이서.  
{저, 전부가 묶여져 있어.}
- 10801 #근데, 무껴지는 건만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묶여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 10801 #보, 보메는, 보메는 양:에 기우니 셔:가지고 싸기 나니켄 양:은 뭐야 남자라 마래찌.  
{보, 봄에는, 봄에는 양의 기운이 세가지고 싹이 나니까 양은 뭐야 남자란 말이지.}
- 10801 #남자 세력이 커. 해가 불끈 소사올르는 그때 아침나저리야. 양에 기우니 셔:.  
{남자 세력이 커. 해가 불끈 솟아오르는 그때 아침나절이야. 양의 기운이 세.}
- 10801 #여:르메는, 키, 키우는 건 땅에, 땅에 시므니 어:머니가 키운다 마리아.  
{여름에는, 키 키우는 건 땅에 심으니 어머니가 키운다 말이야.}
- 10801 #기켄, 남자 기우는 어느정도 업서지고 어머니 세리기. 아이 자식 나오머는 엄마 하구 절빠라먹지  
아부지 절빠라멍나.  
{그러니까, 남자 기운은 어느 정도 없어지고 어머니 세력이. 아이 자식 낳으면 엄마 하고 젓  
빨아먹지 아버지 젓 빨아먹나.}
- 10801 #근데, 남:녀가 해:따가. 내 저번날 내 겨론을 가지구 얘기 해짜나.  
{근데, 남녀가 했다가. 내 저번날 내 결혼을 가지고 얘기했잖아.}
- 10801 #차:멘 실랑이 나이가 어리구 신부는 나이가 망:꾸. 나중에, 그다으멘 비슬비스하다 지그문 실랑은  
늘꾸 신부는 정:꾸 나이가 저:꾸 하다가.

- {처음엔 신랑이 나이가 어리고 신부는 나이가 많고. 나중에, 그 다음엔 비슷비슷하다 지금은 신랑은 늙고 신부는 젊고 나이가 적고 하다고.}
- 10801 #오후가 되려는 해 해의 시른 빠:져빠려.  
{오후가 되면 해, 해의 힘은 빠져버려.}
- 10801 #인제 저녁이 되겐 그:림자가 인는 거야. 그림잔 뭐야, 으:미야. 으:른 누구야, 여:자야.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림자는 뭐야, 음이야. 음은 누구야, 여자야.}
- 10801 #지, 지그른 아들보덤 저 따리 더 조태.  
{지 지금은 아들보덤 저 딸이 더 좋대.}
- 10801 #이:와 가튼 이:치가 이:전데, 바로 여기가 그 이:치가 인는 거야 그 이:치가 여:그가.  
{이와 같은 이치가 이:전데, 바로 여기가 그 이치가 있는 거야 그 이치야 여기가.}
- 10801 #그르니, 어:니 나라든지 이거 아프룬, 우리 항:구게, 우리 조서네 지배 안 받는 나라가 업서.  
{그러니, 어느 나라든지 이거 앞으론,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의 지배 안 받는 나라가 없어.}
- 10801 #선생구기 돼. 다 도라다니며 지금 영어 가르키든, 우리 한국짜라미 다 대니면서 해.  
{선생국이 돼. 다 돌아다니며 지금 영어 가르키듯, 우리 한국 사람이 다 다니면서 해.}
- 10801 #나는 불찌말찌 허지만, 우리 지애하구 저 저군 오:양허군 충부니 되면서 교:사노르탈꺼야, 강:사노른.  
{나는 불지 말지 허지만, 우리 지애하고 저 저기 오양하고는 충분히 되면서 교사노릇할 거야. 강사 노릇}
- 10801 #게 마:리 이서. 해방되고 난 대메 저: 내가 연배클 가뜨니, 무슨 마리냐.  
{그게 말이 있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저 내가 연백을 갔더니, 무슨 말이나.}
- 10801 #아 이러구 살 수 인나. 근 무슨 뜨시, 일본말 허구 살 쭈 인나.  
{아 이러고 살 수 있나. 그게 무슨 뜻이, 일본말 하고 살 수 있나.}
- 10801 #영아캐야 살지. 영아기 뭐야. 영어 해야 살지.  
{영학해야 살지. 영학이 뭐야. 영어 해야 살지.}
- 10801 #영아커먼 사나? 살:래야 살:지.  
{영학하면 사나? 살래야 살지.}
- 10801 #내 그: 얘기 드꾼, 지금도 그: 얘기가 생생해.  
{내 그 얘기 들곤, 지금도 그 얘기가 생생해.}
- 10801 #이러구서, 일본말 하구 살 수 인나? 영어 해야 살지. 영어 허면 사:나, 살:래야 살:지.  
{이러고서, 일본말 하고 살 수 있나? 영어 해야 살지. 영어 하면 사나, 살래야 살지.}
- 10801 #그 살:래는 누가 살래냐. 천지에서 내려주는 그 운명.  
{그 살래는 누가 살래냐. 천지에서 내려주는 그 운명.}
- 10801 #세:상사리가 다 이래, 뜨시. 메씨나 돼찌? 아우.  
{세상살이가 다 이래, 뜻이. 몇 시나 됐지? 어우.}

## 제 2 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벼
20102	이삭	벼이삭
20103	벼씨	벼씨
20104	못자리	모짜리
20105	모판	모판
20106	쟁기	쟁기
20107	보습	보습
20108	별	별
20108-0-1	-이	벼시
20109	극쟁이	쟁기
20110	씨레	쓰:레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모내기
20113	흑덩어리	흑땡어리
20114	고무래	고무래
20114-1	고무래(곡식)	고무래
20114-2	고무래(채)	고무래
20114-3	고무래(흙)	고무래
20114-4	고무래(미는 것)	고무래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고무래
20115	쇠스랑	쇠스랑
20116	곡괭이	꼬:괭이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미
20120	농기구	농괭기
20121	김	김
20122	김매다	김:맨다
20123	애벌 매다	애:불맨다

20123-1	두벌 매다	재:불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
20124	논둑	논:둑
20124-1	논두렁	논:뜨렁
20125	밭둑	바둑
20126	밭두둑	바뚜둑
20127	밭고랑	바꼬랑
20128	밭이랑	반니랑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반니랑 맨든다   반니랑 만들구
20128-2	이랑밭기	이랑밭기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가을쁘리
20129-2	봄보리	봄쁘리
20130	보리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갈:카리
20132	깜부기	깜:비기
20133	두엄	두엄
20134	거름	거름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헌다
20202	벼단	벼단
20202-1	벼단	벼단
20202-2	벼단	벼단
20202-3	벼단	벼단
20203	가리	가리
20204	가리다	가려
20205	벼가리	벼까리
20206	날가리	날까리
20207	타작	타:작
20208	벼훅이	그네깐
20208-1	그네	훅태기
20209	개상	타:작들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도리깨집
20210-2	도리깨열	도리깨 아들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개
20211	벼짚	벼짚
20211-0-1	-을	벼씨블
20211-0-2	-에	벼씨베
20212	새패기	*
20213	쪽정이	쪽째~이~   쪽쟁이
20214	티	티겔
20215	까끄라기	깔:까래기
20216	풍구	풍구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수애비
20219	흉년	흉년
20220	머슴	머슴
20221	눔	머슴   품꾼
20221-0-1	-을	품꾸늘
20222	품앗이	푸마시
20223	품삿	품   품삿
20223-0-1	-으로	품싸그루

### 2.1.3. 방아 쪼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괭이
20304	방아확	확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아
20307	절구	절구
20308	절구통	절구
20309	절굿공이	천괘~이~
20310	절구질	절구질
20311	겨	겨
20312	보릿겨	보리겨

20313	왕겨	망:지미겨
20314	쌀겨	쌀:겨
20315	검불	검불
20316	껍질	껍질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식
20402	찹쌀	찹쌀
20403	멥쌀	멥쌀
20404	쌀:보리	쌀:보리
20405	조	조:
20406	차조	차조
20407	메조	메조
20408	좁쌀	좁쌀
20409	잘다	잘다
20410	조:이삭	조:이삭
20411	수수	수수
20411-1	붉은색 수수	*
20411-2	장목수수	*
20411-3	찰수수	차수수
20411-4	메수수	메수수
20412	수수깡	수수깡
20413	옥수수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차록수수
20413-2	메옥수수	메옥수수
20414	귀리	귀:리
20415	메밀	모밀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찌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매:달지
20420	떡우다	떡:다
20421	곰팡이	곰팡이
20422	강낭콩	강낭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참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고수하구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나물
20502-1	나물(밭)_재료	반나물
20502-2	나물(밭)_반찬	반나물
20502-3	나물(들)_재료	들:라물
20502-4	나물(들)_반찬	들:라물
20502-5	나물(산)_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_반찬	산나물
20503	푸성귀	푸장구
20504	다듬다	다드머야지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
20507	썰다	썰:구
20508	무청	무청
20509	시래기	시러기
20510	무말랭이	오가리
20511	장다리무	*
20512	배추	배:추
20513	고깡이	배:추속
20514	오이	오:이
20515	오이지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소바기
20517	가지	가지
20518	호박	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1	우엉	근대
20522	파	파
20523	고추	고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부:추
20527	상추	생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냉:이
20531	달래	달래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20602	찬밥	찬밥
20602-1	더운밥	던:밥
20603	조밥	조밥
20604	누룽지	누룽지
20605	눌은밥	누른밥
20606	송농	송농
20607	뜨물	쌀뜨물
20608	김(蒸氣)	김:
20609	갱죽(羹粥)	시래기죽
20610	싱겁다	싱겁찌
20611	국수	국수
20612	칼국수	칼국수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
20613	건더기	건지
20613-1	국물	궁말국
20614	고명	고명
20615	꾸미	꾸미
20616	미역	떡: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수제비
20619	끼니	끼니

20620	미움	미움
20620-1	(미움을)끓이다/쭈다/삶다	끄린다
20621	엿기름	엿끼림
20622	식혜(食醴)	감주 단술   시케
20623	식혜	시케
20624	달다(甘)	달지
20625	가루	가루지
20625-0-1	-에	가루에다
20625-0-2	-을	밀가루를
20625-0-3	-도	밀가루두
20626	밀가루	밀가루
20627	밀기울	밀기우리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20702	된장	덴:장
20703	고춧가루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고추장
20705	소금	소금
20706	김치	금치
20707	김장	진장금치
20708	깍두기	깍:뚜기
20709	나박김치	나박금치
20710	담그다	당근다
20710-0-1	-고	당그고
20710-0-2	-어라	당가도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리
20713	버섯	버설
20713-0-1	-이	버서시
20714	콩나물	콩나물
20714-1	콩나물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숙쭈나물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떡
20717	달갈	달갈
20718	가래떡	떠가래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빫다	비진다
20722	흰떡	흰떡
20723	고물	고물
20724	팥죽	파죽
20725	새알심	새:   심
20726	백설기	백설기
20727	튀밥	튀김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마걸리
20730	소주	소주
20731	부침개	부치미   부침개   빈대떡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마솥
20802-0-1	-을	가마소시라   가마소슬
20802-0-2	-에	가마소테
20803	아궁이	아궁
20803-0-1	-이	아궁이
20804	그을음	끄:름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
20806	연기	연:기
20806-1	내(煙氣)	*
20807	그을리다	끄:림
20808	부지깻이	부주괘~이~
20809	부삽	부삽
20810	냅다	맵:찌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그릇

20812-0-1	-을	그르슬
20813	뚜껍	뚜껍
20814	주발 뚜껍	주발뚜껍
20815	사발 뚜껍	사발뚜껍
20816	술뚜껍	소댕
20817	밥주걱	주걱
20818	숟가락	수갈
20819	젓가락	저갈
20820	종지	종지
20821	보시기	종발
20822	뚝배기	뚝배기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이남박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빨래 힌다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솥물	개솥물
20831	찌꺼기	찌꺼기
20832	화로	하:루
20833	화롯불	하:루불
20834	부젓가락	화저갈   불저갈
20834-0-1	-이	불저까리
20834-1	부손	*
20835	다리쇠	걸치개
20836	석쇠	석씨
20837	도시락	도시락
20838	바구니	바구니
20839	뒤주	뒤주
20840	찬합	차:납
20841	강판	*
20842	개다리소반	개다리소반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방
20902	벽	벽
20903	다락	다락
20904	벽장	벽장
20905	감추다	감춰두는 거지
20906	흙	흙:짊
20907	돌쩌귀	돌:쩌기는
20907-1	암짜	*
20907-2	수짜	*
20908	미닫이	미다지
20909	여닫이	여다지
20910	덧문	덧문
20911	열다	여:러야지
20912	문꼬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자물썰
20914	간히다	가쳐찌
20915	열쇠	열:썰
20916	잠그다	장근다
20917	구멍	구녁
20917-1	취구멍	취구먹
20918	찢다	찢:는다
20919	구들	구들짱
20920	흙받기	흑빠침   흑빠깨
20921	흙손	흑손
20922	흙칼	흑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
20923	바르다	바르다   바른다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이
20926	도배	되배
20927	구석	구석
20928	굽도리	굽뜨리

20929	깨끗하다	깨끗태지
20930	문지방	문쭈방
20930-0-1	-에	문쭈방에
20931	틈	문틈
20932	가장자리	가:사리   갱:가리
20933	가운데	가운데
20934	시렁	시렁
20935	살강	*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빼:다지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거울   채경
20940	걸다	건:다
20941	호룽	호룽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에
21002	기와	개와
21003	기와집	개와집
21004	수키와	수캐와
21005	암키와	암캐와
21006	대들보	대들보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추녀
21009	처마	처마
21010	오두막	오두막짚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이영
21012-0-1	-에서	영:에서
21013	용마름	곰쌔
21014	기스락	지꾸스락
21015	낙숫물	낙쑤물
21015-1	기스락물	*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루
21018	토방	토방
21019	댓돌	대뜰
21019-1	섬돌	퇴:뜰
21020	마루	마루
21020-0-1	-에	마:루에
21021	툃마루	툃:마루
21022	기둥	기둥
21023	주춧돌	주추   주추뜰
21023-0-1	-을	주추뜰를
21024	굴뚝	굴:뚝

### 2.3.3. 마당

21101	뜰	압뜰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널:따   널:따
21103-0-1	-어서	널:버도   널:버서
21104	넓히다	널:퍼야지
21105	곳간	고간
21106	외양간	우양간
21107	마구간	마:구간
21108	광	광:은
21109	헛간	허간
21110	쓰레기	쓰레기
21111	장독대	장:뚝대
21112	장독 뚜껑	장:뚝뚜껑
21113	변소	두간
21113-1	똥장군	똥장구
21114	울타리	울:타리
21115	담	담장
21115-0-1	-에	담:장에
21115-0-2	-도	*
21116	사립문	싸리문
21117	뒤꼍	뒤뜰
21117-0-1	-에서	뒤뜨레서

21118	바깥	바깥치
21118-0-1	-에	바깥테
21119	모퉁이	모퉁이
21120	모서리	모수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을
21202	윗마을	윈:마을
21203	이웃	이:을
21203-0-1	-이	이:우시
21203-0-2	-에	이:우세
21204	마을가다	마:을 간다
21205	우물	움물
21206	두레박	두리박
21207	샘(泉)	샘:물
21208	가(邊)	가:는
21208-0-1	-을	가:사릴
21208-0-2	-에	가:사리에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가:게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흥정	흥정
21214	거간꾼(중매인)	중매쟁이   거:간꾼
21215	잔돈	잔돈
21216	에누리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거스름똥
21218	거스르다	거실러바다따
21219	꾸다(借)	꾸:워따
21219-0-1	-어야	꿔:줘
21220	구두쇠	구두세
21221	맡기다	마끼는
21222	나머지	나마지
21223	덤	덤:
21224	묵	묵

21224-0-1	-을	모글
21225	빛	빔 저찌
21225-0-1	-을	비슬
21225-0-2	-에	비세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심:부름
21228	두름	두름
21228-1	축	축
21228-2	쾌	쾌
21228-3	접	접
21228-4	쌈	쌈
21228-5	두름	두름
21228-6	단/뭇	벤무시   베단
21228-7	단/뭇	무:단
21228-8	툇	툇
21228-9	모숨	*
21229	컬레	컬레
21230	마지기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이:백 평
21231	꾸러미	꾸리미
21232	그루	그루
21233	포기	폴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루
21235-0-1	-을	*
21235-0-2	-에	자루에 다마라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 개	한개
21236-2	한 되	한데
21236-3	한 말	한말
21237	둘	둘:
21237-1	두 개	두:개
21237-2	두 되	두:데
21237-3	두 말	두:말
21238	셋	셋:

21238-1	세 개	세:개
21238-2	세 되	세:데
21238-3	세 말	세:말
21239	넷	넛:
21239-1	네 개	네:개
21239-2	네 되	네:데
21239-3	네 말	네:말
21240	다섯	다섯
21240-1	다섯 개	다섯개
21240-2	다섯 되	다섯때
21240-3	다섯 말	다섯말
21241	여섯	여섯
21241-1	여섯 개	여섯개
21241-2	여섯 되	여섯때
21241-3	여섯 말	여섯말
21242	일곱	일구
21242-1	일곱 개	일구개
21242-2	일곱 되	일곱때
21242-3	일곱 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 개	여들개
21243-2	여덟 되	여덜때
21243-3	여덟 말	여덜말
21244	아홉	아옴
21244-1	아홉 개	아우개
21244-2	아홉 되	아옴때
21244-3	아홉 말	아옴말
21245	열	열:   열:
21245-1	열 개	열:개   열:개
21245-2	열 되	열:때   열:되
21245-3	열 말	열:말   열:말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 개	스무개
21246-2	스무 되	스무되
21246-3	스무 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 개	서른개
21247-2	서른 되	서른되
21247-3	서른 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 개	마흔개
21248-2	마흔 되	마흔되
21248-3	마흔 말	마흔말
21249	쉰	쉰:
21249-1	쉰 개	쉰:개
21249-2	쉰 되	쉰:되
21249-3	쉰 말	쉰: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 개	예순개
21250-2	예순 되	예순되
21250-3	예순 말	예순말
21251	일흔	일근
21251-1	일흔 개	이른개
21251-2	일흔 되	이른되
21251-3	일흔 말	이른말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 개	여든개
21252-2	여든 되	여든되
21252-3	여든 말	여든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 개	아은개
21253-2	아흔 되	아흔되
21253-3	아흔 말	아은말
21254	백	백
21254-1	백 개	백개
21254-2	백 되	백되
21254-3	백 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들	한들
21256-1	한두 개	한두개

21256-2	한두 되	한두데
21256-3	한두 말	한두말
21257	두셋	*
21257-1	두세 개	*
21257-2	두세 되	*
21257-3	두세 말	*
21258	두서넛	두어서너   두:어서널
21258-1	두서너 개	*
21258-2	두서너 되	두어서너데
21258-3	두서너 말	두어서너말
21259	서넛	서너너덜
21259-1	서너 개	세네개
21259-2	서너 되	서너너더떼
21259-3	서너 말	서너너던말
21260	네댓	너더덜
21260-1	네댓 개	네다서개
21260-2	네댓 되	너더대:떼
21260-3	네댓 말	*
21261	대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 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 되	*
21261-3	대여섯 말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여닐곱
21262-1	예닐곱 개	여닐구개
21262-2	예닐곱 되	*
21262-3	예닐곱 말	여닐곱말
21263	일여덟	이라들
21263-1	일여덟 개	이라덜개
21263-2	일여덟 되	이라덜떼
21263-3	일여덟 말	이에덜말
21264	여덟아홉	여다옴
21264-1	여덟아홉 개	여다옴개
21264-2	여덟아홉 되	여다옴떼
21264-3	여덟아홉 말	여다옴말
21265	여남은	*

21265-1	여남은 개	여라문개
21265-2	여남은 되	*
21265-3	여남은 말	여라문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
21302	길이	기리가
21303	저고리	조고리
21304	색동저고리	까:치저고리   색똥저고리
21305	두렁이	통치마
21306	무늬	꿈무늬
21307	고쟁이	고장이   고쟁이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마기
21310	의복	의:복
21311	구겨지다	꾸겨진다
21312	옷고름	오꼬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정
21315	겉	겉
21315-0-1	-에	거세
21315-0-2	-을	거슬
21316	훈옷	호돋
21317	겹옷	겨볼
21318	잠방이	잠배~이~
21319	누더기	누데기
21320	거지	그:지
21321	구겉	구글
21322	조끼	조끼
21323	내의	냉:이
21324	껴입다	껴이버따든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호랑

21328	허리띠	허리띠는
21329	땡기	땡기
21330	도포	도:포
21331	삿갓	삿갓
21331-0-1	-에	삿갓세
21332	고깔	고깔
21333	사모	사:모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대님
21336	감발	감:발
21337	짚신	짚신
21338	미투리	미투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곁다	만든다
21339	나막신	나막신
21340	설피(雪皮)	설치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주
21401-1	명주실	명:주실
21402	목화	모카
21402-1	목화다래	*
21403	무명	무녀
21403-1	무명실	무녕실
21404	씨알	씨알
21405	자새	쟁기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
21408	길쌈	길쌈
21409	골무	골무
21410	반진꼬리	반지꼬리
21411	가위	가위[uy]
21411-0-1	-을	가위[uy]를
21411-0-2	-에	가:위에
21412	마르다(裁)	*
21412-0-1	-고	*

21412-0-2	-어라	*
21413	형겹	흥:겹
21413-0-1	-을	흥:거블
21413-0-2	-에	흥:거베
21414	바늘	바늘
21415	꿰다	꿰:다
21415-0-1	-고	끼:고
21415-0-2	-어라	*
21416	바느질	바누질
21417	재봉틀	재봉틀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노끈
21420	삼바	삼바
21421	매듭	매듭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맨:다
21422	보자기	보자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솜:
21425	포근하다	포그나다
21426	훈이불	훈니불
21427	겹이불	겹니불
21427-1	솜이불	한니불
21428	누비이불	누비이불
21429	베개	벼개
21430	베갯잇	벤넙   베갯넙
21430-0-1	-에	벤니베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퇴:침
21433	방석	방석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빨래한다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방망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름질
21440	인두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미방망이
21442	다듬잇돌	다드미돌:
21443	다듬이질	다드미질한다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랄
21502	설	설:
21503	선달 그믐날	서:딸 그믐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21505-0-1	-는	올해는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내:후:년
21505-5	내후년	내내후년
21506	작은설	자근설
21507	웃	윤:   윤:
21507-0-1	-을	유:슬   유슬
21507-0-2	-에	유:세   유시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윤까락
21508-1	도	도
21508-2	개	개:
21508-3	걸	겉:
21508-4	웃	윤
21508-5	모	모
21509	단동	훈말
21509-1	외동무니	웨동
21509-2	두동무니	두:동
21509-3	석동무니	속:똥   세:똥
21509-4	넉동무니	네:동   늑:똥

21509-5	막동	막똥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대:보름
21510-1	삭망	상망
21511	추석	한:가위   추석
21512	망월	*
21513	취불놀이	취불로리
21514	차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 막대	새끼자
21514-2	긴 막대	에미자
21515	수수꺼끼	수수꺼끼
21516	호미씻이	호미거리
21517	팽과리	팽가리
21518	장구	장구
21519	곶두리	새:참   곶뚜리
21520	무당	무:당
21520-1	박수	박수무당
21521	고수레	고시레
21521-1	고수레!	고시레
21522	점쟁이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상여
21524	굴건	굴권
21525	제사	제:사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귀:신
21528	도깨비	도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고삐
21602	굴레	굴레
21603	명에	목테
21604	길마	길마
21605	부리망	*
21606	구유	귀웅
21607	작두	작두

21608	꿀	꿀: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소죽
21611	쇠죽바가지	주박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끝다	끈:다
21613-0-1	-고	끝:구
21614	바퀴	바퀴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집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망태
21617	떡동구미	송:두리
21618	거적	거적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틀
21620	돛자리	돛자리
21621	자리틀	돛자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걸다/매다	짚:다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삼태
21623-1	짚 삼태기	집쌈태
21623-2	싸리 삼태기	싸:래삼태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얼메이
21625-1	고운체	곤:체
21625-2	굵은체	중간체
21626	대장장이	대:정장이
21627	대장간	대:정간
21628	풀무	풍무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갈키
21632	집계	직계
21633	장도리	장두리
21633-1	노루발	*

21634	톱	톱   톱
21634-0-1	-에	토베   토베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자루   도:끼자루
21636-0-1	-을	도:끼자루를   도:끼자루를
21636-0-2	-에	도:끼자루에   도:끼자루에
21637	갈고리	갈고리
21638	썰기	썰:기
21639	송곳	송:곳   통송곳
21639-0-1	-에	송:구세   송:고세
21640	뺨죽하다	뺨주카다
21641	숫돌	세뿔
21641-0-1	-에	세뜨레
21642	맷돌	매
21642-1	수쇠	맹쫘
21642-2	암쇠	*
21643	지게	지게
21644	밭채	바:수거리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 작쌈
21646	막대기	막대기
21647	몽둥이	몽대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빗짜루
21702	광주리	광주리
21703	소쿠리	소쿠리
21704	함지	함지
21705	풀비	솔:
21705-1	귀알	솔:
21706	독	독   독
21706-0-1	-에	도게   도게
21707	물독	물똥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똥이	물똥이

21711	짜리	꽤:리
21712	옹기	옹기
21713	표주박	표주박
21714	키(箕)	키
21715	떡살	떡살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룰   시루
21717-0-2	-에	시루에   시루에
21718	시룻밀	시룬민   시루방석
21718-0-1	-에	시룬미세   시루빵서게
21719	시룻번	시루뵤
21720	부싷돌	부시돌   부시돌
21720-0-1	-을	부시돌
21721	부시	부시
21722	부싷깃	부시깅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대
21725	담배설대	담:배테
21726	대통	담:배골통
21727	물부리	담:배빨대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벼루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녀
21734	참빗	참빈   참빈
21734-0-1	-을	참빈
21734-0-2	-에	참비세   참비세
21735	얼레빗	얼:레빈
21736	세숫대야	세수때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이:나때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빼기	이마뺨
21803	눈자위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눈동자
21805	흰자위	흰자위
21806	눈꺼풀	눈꺼풀
21807	거적눈	거적눈
21808	눈썹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지   눈썹비
21809	속눈썹	송:눈썹   송:눈썹비지
21809-0-1	-이	송:눈썹비   송:눈썹비
21810	눈두덩	눈:태기   눈가
21811	안경	양:경
21812	안경집	양:경집
21813	돋보기	도빠기
21814	주름살	주름   주름
21814-0-1	-이	주르미 느러따   주르미
21815	엿되다	애:때벤다
21816	수염	수염
21817	구레나룻	구레나루   구레나루
21817-0-1	-을	구레나를   구레나루를
21818	코	코지   코
21818-0-1	-이	코가   코가
21819	콧수염	올수염
21820	코딱지	코딱지
21821	콧구멍	코구녀기라
21821-0-1	-을	코꾸머글   코꾸녁
21821-0-2	-에서	코꾸머게서   코꾸머게서
21822	콧물	콤물

21823	입술	입썩리지
21823-0-1	-에	입썩레   입썩레
21824	다물다	다무러따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던니
21827	휘파람	휘:파람
21828	침	침
21829	삼키다	상킨다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밴:는다
21832	혀	혀
21833	혓바늘	세빠늘
21834	귓볼	귀빠퀴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거리
21836	귀지	귀:지
21837	귀이개	귀:지개
21838	소리	소리
21839	엿뜯다	열:뜯찌
21840	귀창	귀창
21841	귀밑	귀밑   귀밑
21841-0-1	-에	귀미테   귀미테
21842	관자놀이	관자노리
21843	기미	기미
21844	주근깨	주근깨
21845	턱	턱
21846	턱수염	턱수염
21847	뺨	뺨:
21847-1	볼	볼
21848	가름하다	가름하다   갈:마카다
21849	보조개	조개볼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21851	비듬	비듬
21852	기계충	기계충
21853	정수리	정:수리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가름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탄다
21857	가마(旋毛)	가:마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가마슬
21857-2	가마(轡)의 성조 · 음장	가:마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 · 음장	가마니
21858	뒤통수	뒤통수
21859	뒤틀미	뒤떨미
21860	묵	묵
21861	먹살	먹:살

##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밀치다	민:다
21903	겨드랑	겨드랑
21904	등	등
21905	가슴	가슴
21906	결리다	결린다
21907	갈비뼈	갈비뼈
21908	허파	허파
21909	쓸개	쓸개
21910	콩팔	콩팔
21910-0-1	-에	콩파세
21910-0-2	-을	콩파슬
21911	팔	팔
21912	팔꿈치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팔짱 꺾:따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바른손
21916	왼손	웬:손
21917	다르다	다르다
21917-0-1	-아서	달라서

21917-1	틀리다	틀려따
21918	왼손잡이	웬: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
21920	집게손가락	검지
21921	가운뎃손가락	중지
21922	약손가락	약지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손꾸락
21924	생인손	생손
21925	사마귀	사:마귀
21926	손아귀	손 아귀
21927	손목	손목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21931	옆구리	역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
21933	간지럼	간지럼
21934	잔허리	잘루커리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꼽
21937	목물	등물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승아뼈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툽
22005	냄새	발람새
22006	고린내	꼬랑내
22007	굳은살	구든살
22008	정강이	정강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훼추리
22012	무릎	무르비지   무르비   무릅

22012-0-1	-을	무르블   무르블
22012-0-2	-에	무르베   무르베
22013	오금	오금
22014	영덩이	응:데~이~
22015	궁둥이	궁데이
22016	불기	불:기
22017	멍	멍
22018	멍울	멍울
22019	가랑이	가랑이
22020	사이	사이
22021	살	사추리
22021-0-1	-이	사추리가
22021-0-2	-을	사추리를
22022	사타구니	사타구이
22023	가래뚫	가라투
22023-0-1	-을	가라투를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22025	넓적다리	넙적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가부좌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가부좌 한다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22102	기침	기침
22103	재채기	재채기
22104	사레	세:아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드런따
22105	딸꾹질	딸꾹질
22106	트림	트:림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연두	마:마
22109	여드름	여:드름
22110	학질	고:금
22110-1	하루거리	하루거리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호낙
22112	불거리	불거리
22113	땀띠	땀띠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22115	버짐	버짐
22115-1	마른버짐	마른버짐
22115-2	진버짐	진버짐
22115-3	도장버짐	도장빠짐
22116	문둥이	문:데이
22116-1	문둥병	문둥병
22117	부스럼	부시럼
22117-1	종기	종:기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곰겨따
22120	난쟁이	난:재~이~
22121	사팔뜨기	사:팔뜨기
22122	언청이	언채~이~
22123	소경	장:님
22123-1	당달봉사	청맹갱이
22124	애꾸	애꾸
22125	눈곱	눈꼽
22126	다래끼	빈:대
22126-1	다래끼	다래끼
22126-2	다래끼	빈:대
22127	절름발이	찢뚱빠리
22128	곱사등이	곱치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말:더드미
22131	병어리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잠포수
22133	졸리다	졸:린다
22134	하품	하품
22135	졸음	조:름
22135-0-1	-을	조:르물

22135-0-2	-에	조:르메
22136	잠꼬대	장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입떨
22201-0-1	-을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간난 애:
22203	어린아이	어리내
22204	경기(驚氣)하다	경끼
22205	눅히다	눅퍼라
22206	계집아이	거귀:지배
22207	예쁘다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남자애
22209	아우 타다	아우탄다
22209-1	아우보다	아우본다
22210	야위다	야웨따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줌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기저구
22215	뉘다(排便)	뉘어라
22216	방귀	방:귀
22216-1	뀌다	뀌여따
22217	구렁내	구렁내
22218	구리다	구리다
22219	포대기	포대기
22220	기지개	그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핀다
22221	거짓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남 보기에 부끄럽따
22223	겁쟁이	겁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허다
22225	죄암죄암	쥐엠젼
22226	곤지곤지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따루따루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짜짜꿍	*
22230	부라부라	*
22231	걸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너머진다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찢
22235	안기다	양:긴다
22236	바람개비	바랑개비
22237	호드기	호:디기
22238	숨바꼭질	감출래기
22239	소꿉놀이	소꿉장난
22240	사금파리	사금패~이~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걸려따
22243	고누	곤지리
22244	땅뺨기	땅뺨끼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딱찌치기
22247	구슬	구슬
22248	그네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똥:다
22249	밑신개	발판
22250	굴렁쇠	굴릉세
22251	굴리다	굴린다
22251-0-1	-고	굴리구
22251-0-2	-어야	굴려야
22252	자전거	자전거
22253	목말	무:등
22254	말타기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찢
22256	썰매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탄다

22256-2	송곳	송:곳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핀다
22258	부아	우랴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02	어머니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라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버지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남편
22305-1	남편(호칭)	서방님
22306	아내	아내
22306-1	아내(호칭)	여보   당신
22307	형	형
22307-1	형(호칭)	형님
22308	아우	아:우
22308-1	아우(호칭)	동생
22309	누나	누님
22309-1	누나(호칭)	누님
22310	누이	누:이동생
22310-1	누이(호칭)	동생
22311	자식	자식
22312	만아들	마다들
22313	맏딸	맏딸
22314	막내	망내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
22316	언니	언니
22316-1	언니(호칭)	언니
22317	아버	애비

22317-1	아버(호칭)	애비
22318	어미	*
22318-1	어미(호칭)	에미야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사위
22321-1	사위(호칭)	사위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짖다	꾸짖는 거지
22324-0-1	-고	*
22324-1	나무라다	나무랜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겨론
22327-1	혼인식	겨론식
22328	혼인 잔치	겨론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가든다   장:가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직간다
22330	혼숫감	혼수
22331	함	함
22332	겹사돈	겹싸둔
22333	새색시	새색씨
22333-1	새색시(호칭)	새댁
22334	시아버지	시아버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버님
22335	시어머니	시어머니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머님
22336	비위	비위
22337	아주버니	시아주버니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주버님
22338	서방님	시동생
22338-1	서방님(호칭)	아:주버님
22339	도련님	도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도련님

22340	형님	형님
22340-1	형님(호칭)	형님
22341	시누이	시누이
22341-1	시누이(호칭)	형님
22341-2	아가씨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
22342	올케	올케
22342-1	올케(호칭)	올케
22343	매형	매:부
22343-1	매형(호칭)	매:부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매:제
22345	큰아버지	크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버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호칭)	간:데아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호칭)	*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크너머니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아내(호칭)	크너머니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버지   자그나버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너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
22350	삼촌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오촌당숙
22351-1	아저씨(호칭)	크나버지
22352	아주머니	고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고모님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딸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22357	고종	내:웨종사춘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종	이:종사춘   이:종사춘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촌
22362	외숙모	외숙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숙모
22363	외중	내:종사춘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니
22366	장인	자:~인~
22366-1	장인(호칭)	자~인~님   자~인~님
22367	장모	장:모님
22367-1	장모(호칭)	장:모님   장:모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9	처남댁	처나메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메댁
22370	홀아버	호라비
22371	홀어미	호러머니
22372	계모	계:모
22372-1	계부	으부다버지
22373	아저씨	아저씨
22373-1	아저씨(호칭)	아저씨
22374	아주머니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니
22375	사나이	사나이
22376	영감	영:감

22376-1	할머니를 낮추어 말할 때(저놈의 할망구)	헬미
22377	나이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일   나:이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민물꼬기
22403	피라미	피래미
22404	지느러미	지레미
22405	아가미	아가미
22406	창자	창자
22407	송사리	송:사리
22408	헤엄	*
22409	매기	미:기
22410	자라	자라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끄라지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꺼비
22416	거머리	그:머리
22417	다슬기	다슬기
22418	우렁이	우레~이~
22419	고둥	고둥
22420	달팽이	달팽이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대)_민물	민물새우
22421-2	새우(소)_민물	보리새우
22421-3	새우(대)_바다	대와
22421-4	새우(소)_바다	바다새우
22422	새우젓	새우젓   새우젓

22422-0-1	-이	새우저시   새우저지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칼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가재미
22428	멸치	메치
22429	명태	명: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오가리라구
22429-4	복어	부거
22429-5	생태	생태
22430	조기	조기
22431	도미	도미
22432	뱀장어	뱀:장어라구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이깁   이깁
22435	낙싯대	낙씨때
22436	얼레	얼레   연깁기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레
22502	날벌레	날버리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쉬:으파리
22504	쉬슬다	쉬: 깔견네
22505	가시	구데기
22506	진뒗물	진덴물
22506-1	(진뒗물이) 끼다/얹다/생기다	끼연네
22507	잠자리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방아깨비
22508-1	암컷	방아깨비양컨

22508-2	수컷	방아깨비수컷
22509	메뚜기	메뚜기
22510	여치	여:치(yi:chi)
22511	사마귀	사:마귀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친다
22513	땅벌	땅벌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풍뎅이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곤두벌레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밴대뿔
22521	반딧불	개똥벌레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벥이	굼벥이
22524	구더기	구데기
22525	노래기	노래기
22526	그리마	소래기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구미
22530	진드기	진드기
22531	벼룩	벼룩
22532	이(蝨)	이:
22532-1	서캐	*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충이
22534	귀뚜라미	귀뜨라미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누에꼬치
22537	번데기	번데기
22538	지렁이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회

22540	소금쟁이	소금쟁이
22541	방개	물매미

###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
22605	황소	황소
22606	길들이다	길디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_앞으로 가라	이랴
22606-2	소 모는 소리_그 자리에 서라	워:
22606-3	소 모는 소리_오른쪽으로 돌아	오랴
22606-4	소 모는 소리_왼쪽으로 돌아	마랴
22606-5	소 모는 소리_뒤로 물러나라	물러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지
22609	둘치	둘치
22610	꼬리	꼬리
22611	망아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당나구 새끼
22613	갈기	*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메뻬지
22615	주둥이	주데~이~
22616	돼지 머리	돼: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돼:지우리
22617-1	오래오래	오래:오래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암캐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수코양이

22621-2	암고양이	암코양이
22622	토끼	수토끼
22623	거위(鵞)	거:위
22624	암탉	암탉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모:구 이따
22627	수탉	수탉   수딱
22627-0-1	-이	수타기   수타기
22628	벃(鷄冠)	벃
22629	부리	부리
22630	모이	모:이
22630-0-1	-을	모:일
22630-1	모이다	모:이지
22631	닭털	닥터큰
22632	닭똥	닥똥
22633	어리	달기우리
22634	닭장	달기장
22635	둥우리	달기둥주리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깃
22637-0-1	-을	기슬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랑이
22702	살쾅이	살쟁이
22703	여우	여우
22704	원숭이	원:숭이
22705	사슴	사슴
22706	노루	노:루   노루
22706-0-1	-이	노:루가   노루가
22706-0-2	-을	노:루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두더지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뱀:

22711	도마뱀	장:자뱀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무사	살무사
22714	생쥐	생:쥐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꺼꿀루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8	새(鳥)	새:
22719	꼬지	꼬랑지
22720	솔개	솔개
22721	독수리	독수리
22722	제비(燕)	쥐:비
22723	두루미	두루미
22724	소쩍새	소쩍새
22725	평	평
22726	장끼	장공
22727	까투리	까:투리
22727-1	꺼병이	평:새기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뼈꾸기	뼈꼭새지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북새
22732	올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덜	덜
22735-0-1	-을	더슬   쥐더슬
22736	올가미	올:가미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래
22802	철쭉꽃	철쭉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달기벼시라구

22805	봉선화	봉:서화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꼬뽕오리
22809	시들다	시드러따
22810	질경이	벵짜리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벵짜리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벵짜리나물
22811	빨기	빨:기
22812	비름	비름
22813	쇠비름	세비름
22814	씀바귀	씀바귀
22815	고들빼기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고들빼기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 이름)	고들빼기나물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
22818	도깨비바늘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도꼬마리
22820	억새	억:새
22821	갈대	갈대
22822	이끼	이끼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담쟁이
22825	수세미	수세미
22826	덩굴	덩굴
22827	덤불	덤불
22827-1	가시덤불	가시덤불
22828	잔디	잔디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관:솔
22904	솔가래	솔까래

22905	그러모으다	겉머모은다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두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떠깎나무
22910	상수리	상:수리
22911	옷	올
22911-0-1	-으로	오스루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그림자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습
22915-0-1	-을	수불
22915-0-2	-에	수폐
22916	시원하다	시워허지
22917	찢레	찢레
22918	취	칙
22918-0-1	-에	치계
22919	가지(枝)	가지
22920	끝	끝
22920-0-1	-이	꼬시
22920-0-2	-을	꼬슬
22920-0-3	-에	꼬테
22921	삭정어	삭째~이~
22921-1	삭정어를 판다/꺾다/하다	깁는다
22922	나무	나무
22922-0-1	-을	나무를
22922-0-2	-에	나무에
22923	나무하다	낭:구한다
22924	그루터기	그룬
22924-1	그루터기	베뿌리
22925	등걸	등거리
22926	장작	장작
22927	팬다	팬다

22928	부스러기	부스러기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시
22929-0-2	-을	수슬
22929-0-3	-에	수세
22930	불잉걸	*
22931	쌉	쌉
22932	읏	입   입
22932-0-1	-을	이블 따와   이플
22932-1	읏사귀	입싸구
22933	가랑읏	가랑니비라구두
22934	뿌리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숭아
23004	곶감	고:감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고욤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류
23012	모과	모:과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지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   야:람
23015-2	팻밤	팻팍
23015-3	알밤	오:람
23015-4	쌍동밤	쌍틀
23016	보늬	버:미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秋子)	*
23019	개암	개암나무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으:름
23024	참외	차미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_재배	*
23025-2	딸기(밭)_야생	*
23025-3	딸기(들)_재배	*
23025-4	딸기(들)_야생	*
23025-5	딸기(산)_재배	산딸기
23025-6	딸기(산)_야생	*
23026	뱀딸기	뱀:딸기
23027	마름(菱)	마름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꼭대기
23102	기슭	산 기슭
23102-0-1	-에	산기슭계
23103	골짜기	골:짜
23104	메아리	메아리
23105	고함	고암치구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
23106	묘	묘:
23107	뗏자리	묘:짜리
23107-1	광중	광:중
23108	구덩이	구덩이
23109	비탈	비탈
23110	가파르다	가파르다
23111	언덕	언덕
23112	낭떠러지	낭떠라지

23113	들(野)	들:
23113-0-1	-에	드:레
23114	별	벌:
23115	갈림길	갈래길
23116	헤어지다	헤:어지는
23117	바위	바:위[uy]
23117-0-1	-을	바:윌[uyɭ]
23117-0-2	-에	바:위에
23118	돌(石)	돌:   돌:
23118-0-1	-을	도를
23118-0-2	-에	도:레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래
23120-0-1	-를	모:렐
23121	진흙	지늑
23121-1	찰흙	차륙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거품
23203	개운하다	개뿐허네
23204	도랑	또랑
23204-1	봇도랑	보또랑
23205	둑	뚝
23206	잠기다	쟁겨찌
23207	개울	개울
23208	내(川)	내:까울
23209	미역 감다	먹: 감는다
23210	밭거숭이	벌거숭이
23211	목욕하다	모욕
23212	수채	수채
23213	개골창	개골창
23214	시궁창	시궁창
23215	응덩이	응덩이
23216	수렁	수렁

23217	늪	늪
23217-0-1	-에	늪에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나루터
23220	돛	돛
23220-0-1	-에	도세
23221	돛대	도대
23222	돛배	도대배
23223	돛 줄	도줄
23224	돛줄	단줄
23225	거루	거룬배
23226	상앗대	사:때
23227	개펄	개벌
23228	물	물
23228-0-1	-으로	무테루
23229	밀물	밀물
23230	썰물	썰물
23231	가라앉다	까라안찌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벽
23302	새벽밥	새벽밥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밥
23305	점심	점:슴빡
23306	저녁	저녁
23307	설빏하다	*
23308	노을	노:을
23308-0-1	-을	노:으를
23309	불그레하다	불그레
23310	해거름	어스름
23311	땅꺼미	땅꺼미
23312	봄	봄철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위
23315	추위	추위가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겨울
23317-0-1	-에	겨우레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널:모레   글피
23323	그글피	그글피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그제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훈:나리지
23328	하룻날	초하루
23329	이틀날	이틀
23330	사흘날	사흘
23331	나흘날	나흘
23332	닷셋날	다새
23333	엿셋날	여새
23334	이렛날	이레
23335	여드렛날	여드레
23336	아흐렛날	아으레
23337	열흘날	여를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을
23341	나흘	나을
23342	닷새	다새
23343	엿새	여새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절
23348-1	반나절	반:나절
23349	그믐	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께
23350	지금	지금
23351	아직	아직
23352	이제	이제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요즘
23355	금방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별
23401-0-1	-이	버시
23401-0-2	-을	벼슬
23402	따스하다	따뜨타지
23403	아지랑이	아지랑이
23404	응달	응:달
23405	양달	양:달
23406	비(雨)	비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안:개
23410	논개	안:개비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소나기
23413	갑자기	갑째기
23414	홍수	홍수
23415	번개	번개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벼락
23418	무섭다	무섭대갈찌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발짜죽
23422	진눈깨비	진눈까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햇무리
23426	달무리	달무리
23427	등글다	등글지
23428	은하수	으니수
23429	금성	개밥또둑
23430	가뭇	가뭇
23431	마르다	말르지
23431-0-1	-어서	말라서
23432	위	위[uy]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바른쪽
23436	결	결
23436-0-1	-에	겨테
23437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하네
23439	남풍	마파람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 제 3 편 음운

## 1. 음운 체계

### 1.1. 단모음

31001	테(輪)	테
31001-0-1	-이/가	테가 더   안경테가 더
31001-0-2	-보다	안경테보덤
31002	태(胎)	태:
31002-0-1	-이/가	태:가 나와따 그러는 거지
31002-0-2	-보다	태보담
31003	떼(群)	떼
31003-0-1	-이/가	양에 떼가 더 마느네
31003-0-2	-보다	떼보더
31004	때(時)	때
31004-0-1	-이/가	엔:날 그때가 더
31004-0-2	-보다	지금 이 때보덤두
31005	베(機)	베틀
31005-0-1	-이/가	애:네 베틀이 더 조으네
31005-0-2	-보다	느이 베틀보덤
31006	털(毛)	털
31006-0-1	-이/가	애 터리 더 장:허네
31006-0-2	-보다	니 털보덤
31007	글(文)	그를 잘쓴다 그르지 뭐야
31007-0-1	-이/가	애 그리 더 조으네
31007-0-2	-보다	네: 글보덤
31008	곶(鬣)	곶:
31008-0-1	-이/가	귀:리 조쿠
31008-0-2	-보다	곶:보덤 유시 조쿠
31009	기(旗)	태그끼가 바라메 풀러기먼
31009-0-1	-이/가	태그끼가
31009-0-2	-보다	일짱기보다
31010	귀(耳)	귀지
31010-0-1	-이/가	자네 귀가 더 크네
31010-0-2	-보다	이사람 귀보덤

31011	시(生時)	시:
31011-0-1	-이/가	이 사라미 태:난 시가 더 조:네
31011-0-2	-보다	태:난 시보덤
31012	쉬(蠅卵)	쉬:라그래
31012-0-1	-이/가	쉬:가
31012-0-2	-보다	쉬:보덤 구데기가 더 드:러네
31013	쇠(鐵)	세
31013-0-1	-이/가	세가 녹쓰러따구
31013-0-2	-보다	세보다든 그미 더 비싸지
31014	웨:국(外國)	웨:구기지
31014-0-1	-이/가	웨:구기
31014-0-2	-보다	웨:국보더든
31015	왜국(倭國)	왜국
31015-0-1	-이/가	왜구기 크다구
31015-0-2	-보다	왜국보더든
31016	쉬:다(休)	쉬:는 거지
31016-0-1	-이/가	*
31016-0-2	-보다	*
31017	쇠:다(설을~)	설: 세:라
31017-0-1	-이/가	*
31017-0-2	-보다	*
31018	베(布)	벼야
31018-0-1	-이/가	벼가
31018-0-2	-보다	삼베보더든
31019	배(船)	베
31019-0-1	-이/가	배가
31019-0-2	-보다	배보덤
31020	배(腹)	배
31020-0-1	-이/가	배가
31020-0-2	-보다	배보덤
31021	(떡)메	메
31021-0-1	-이/가	떡메가
31021-0-2	-보다	메보더든
31022	매(鞭)	매라구 이지
31022-0-1	-이/가	매가

31022-0-2	-보다	매보다든
31023	매:다(擔)	매:는 거지   멘:다
31023-0-1	-이/가	*
31023-0-2	-보다	*
31024	매:다(繫)	즐라매:고
31024-0-1	-이/가	*
31024-0-2	-보다	*
31025	떼:다(分離)	떼:야지   띤:다
31025-0-1	-이/가	*
31025-0-2	-보다	*
31026	때:다(炊)	때:지
31026-0-1	-이/가	*
31026-0-2	-보다	*
31027	베:다(切斷)	비:구
31027-0-1	-이/가	*
31027-0-2	-보다	*
31028	베:다(孕胎)	베:따구
31028-0-1	-이/가	*
31028-0-2	-보다	*
31029	세:다(算)	수를 신:다
31029-0-1	-이/가	*
31029-0-2	-보다	*
31030	새:다(漏泄)	세는 거구
31030-0-1	-이/가	*
31030-0-2	-보다	*
31031	뒤(後)	그 뒤지
31031-0-1	-이/가	뒤가
31031-0-2	-보다	뒤보다
31032	되(升)	데:
31032-0-1	-이/가	데가
31032-0-2	-보다	데보다
31033	괘:(蟹)	괘:
31033-0-1	-이/가	괘:가
31033-0-2	-보다	괘:보다든
31034	개:(犬)	개:

31034-01	-이/가	개:가
31034-02	-보다	개:보다는

## 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여러시
31035-01	-이/가	여러시
31035-02	-보다	여:러쁘다
31035-03	-을/를	여러슬
31036	물결(波)	물결
31036-01	-이/가	물꺼리
31036-02	-보다	물결보더믄
31036-03	-을/를	물결
31037	예:의(禮儀)	*
31037-01	-이/가	예의가
31037-02	-보다	예의보다
31037-03	-을/를	예의를
31038	계:획(計劃)	계획
31038-01	-이/가	계헤기
31038-02	-보다	계획쁘다
31038-03	-을/를	계헤글
31039	규칙(規則)	규칙뚜
31039-01	-이/가	규치기
31039-02	-보다	규칙뵤담두
31039-03	-을/를	규치글
31040	휴일(休日)	휘이른
31040-01	-이/가	휘이리
31040-02	-보다	휴일보다는
31040-03	-을/를	휘이른
31041	교통(交通)	교통이지
31041-01	-이/가	교통이
31041-02	-보다	대:중교통보더믄
31041-03	-을/를	대:중교통을
31042	효:자(孝子)	효:자지
31042-01	-이/가	효:자가
31042-02	-보다	효:자보덤

31042-0-3	-을/를	효:자를
31043	웬일(何事)	웬니린가
31043-0-1	-이/가	*
31043-0-2	-보다	*
31043-0-3	-을/를	*
31044	궤:(絜)(櫃)	궤
31044-0-1	-이/가	궤가
31044-0-2	-보다	궤보덤
31044-0-3	-을/를	궤
31045	왜란(倭亂)	임:지네난
31045-0-1	-이/가	임:진에난
31045-0-2	-보다	임:진네난보덤
31045-0-3	-을/를	임:지네나늘
31046	헛대(鷄架)	헛때
31046-0-1	-이/가	헛때가
31046-0-2	-보다	헛때보더믄
31046-0-3	-을/를	해:때를
31047	원망(怨望)	이건
31047-0-1	-이/가	원망이
31047-0-2	-보다	원:망보디는
31047-0-3	-을/를	원:망을
31048	권:투(拳鬪)	권투
31048-0-1	-이/가	권:투가
31048-0-2	-보다	권:투보더는
31048-0-3	-을/를	권:투를
31049	의논(議論)	의:논는   의:논한다
31049-0-1	-이/가	의노니
31049-0-2	-보다	의논보디는
31049-0-3	-을/를	의논
31050	무늬(紋)	무니
31050-0-1	-이/가	무니가
31050-0-2	-보다	무니보더믄
31050-0-3	-을/를	꼰무니를
31051	왕(王)	왕
31051-0-1	-이/가	왕:이

31051-0-2	-보다	왕:보다
31051-0-3	-을/를	왕:을
31052	과자(菓子)	과자라고
31052-0-1	-이/가	과자가
31052-0-2	-보다	과자보덤두
31052-0-3	-을/를	과자를

### 1.3. 장모음, 성조

31053	일(一)	일
31053-0-1	-이/가	일이
31053-0-2	-보다	일보더믄
31054	일:(事)	일:
31054-0-1	-이/가	이:리
31054-0-2	-보다	일:보다믄
31055	매(鞭)	매
31055-0-1	-이/가	매가
31055-0-2	-보다	매보다
31056	매:(驚)	매:
31056-0-1	-이/가	매:가
31056-0-2	-보다	매:보덤
31057	밤(夜)	밤
31057-0-1	-이/가	바미
31057-0-2	-보다	밤보덤
31058	밤:(栗)	밤:
31058-0-1	-이/가	바:미
31058-0-2	-보다	밤:보다는
31059	눈(眼)	누니지
31059-0-1	-이/가	눈보다믄
31059-0-2	-보다	누니
31060	눈:(雪)	눈:
31060-0-1	-이/가	누:니
31060-0-2	-보다	눈:보다는
31061	말(馬)	말
31061-0-1	-이/가	마리
31061-0-2	-보다	말보덤

31062	말(斗)	말
31062-0-1	-이/가	마리
31062-0-2	-보다	말보덤
31063	말:(言)	말:하지
31063-0-1	-이/가	마:리
31063-0-2	-보다	말:보덤
31064	손(客)	손
31064-0-1	-이/가	소:니
31064-0-2	-보다	소:늘
31065	손(手)	손
31065-0-1	-이/가	소니
31065-0-2	-보다	손보덤
31066	손:(孫)	손:
31066-0-1	-이/가	소:니
31066-0-2	-보다	*
31067	배(梨)	배
31067-0-1	-이/가	배가
31067-0-2	-보다	배보다
31068	배:(倍)	배:야
31068-0-1	-이/가	배가
31068-0-2	-보다	배보덤
31069	벌(罰)	버리지
31069-0-1	-이/가	버리
31069-0-2	-보다	벌보다는
31070	벌:(蜂)	벌:
31070-0-1	-이/가	버:리
31070-0-2	-보다	벌:보다는
31071	솔(松)	솔
31071-0-1	-이/가	소리
31071-0-2	-보다	솔보더믄
31072	솔:(刷)	솔:
31072-0-1	-이/가	소:리래는 건
31072-0-2	-보다	솔보덤
31073	줄(鉉)	줄
31073-0-1	-이/가	주리

31073-0-2	-보다	줄보덤
31074	줄:(연장)	줄:
31074-0-1	-이/가	주리
31074-0-2	-보다	줄:보덤
31075	돌:(石)	돌:
31075-0-1	-이/가	도:리
31075-0-2	-보다	돌:보다는
31076	담(牆)	담장
31076-0-1	-이/가	담보덤
31076-0-2	-보다	다미
31077	담:(膽)	담:
31077-0-1	-이/가	다:미
31077-0-2	-보다	담:보덤
31078	들:(野)	들:
31078-0-1	-이/가	드:리
31078-0-2	-보다	들:보다는
31079	달-(縣)	매:단다
31079-0-1	-고	매:달구
31079-0-2	-더라	매:달드라
31080	달-(甘)	달지
31080-0-1	-고	달고
31080-0-2	-더라	달드라
31081	달:-(熱)	다린다
31081-0-1	-고	다리구
31081-0-2	-더라	다리드라
31082	갈-(換)	간:다
31082-0-1	-고	갈:구
31082-0-2	-더라	갈:드라
31083	갈-(磨)	간:다
31083-0-1	-고	갈:구
31083-0-2	-더라	갈:드라
31084	갈:-(耕)	갈:기두
31084-0-1	-고	갈:구
31084-0-2	-더라	갈:드라
31085	걸-(收)	거더

31085-0-1	-고	걸꾸
31085-0-2	-더라	걸뜨라
31086	걸:-(步)	걸:는
31086-0-1	-고	거:꾸
31086-0-2	-더라	걸:뜨라
31087	적-(書)	정은
31087-0-1	-고	*
31087-0-2	-더라	적뜨라
31088	적:-(小)	적:따
31088-0-1	-고	적:꼬
31088-0-2	-더라	작:뜨라

## 2. 음운과정

### 2.1. 활용

32001	막-(防)[ㄱ]	망는다
32001-0-1	-지	막찌
32001-0-2	-고	마꾸
32001-0-3	-더라	*
32001-0-4	-으니까	마그니깐
32001-0-5	-아/어(-왔/었다)	마가두
32002	흐르-(流)[ㄹ]	흐른다
32002-0-1	-지	마가라
32002-0-2	-고	흐르구
32002-0-3	-더라	*
32002-0-4	-으니까	흐리면
32002-0-5	-아/어(-왔/었다)	흘러두
32003	오-(來)[ㅇ]	도라오는
32003-0-1	-지	오지
32003-0-2	-고	도라오구
32003-0-3	-더라	*
32003-0-4	-으니까	도라오면
32003-0-5	-아/어(-왔/었다)	도라와도
32004	듣-(聞)[ㄷ 변]	듣는다
32004-0-1	-지	드찌
32004-0-2	-고	드꾸

32004-0-3	-더라	드뜨라
32004-0-4	-으니까	드르문
32004-0-5	-아/어(-왔/었다)	드러두
32005	많:- (多)[ㅁ]	만:타
32005-0-1	-지	만:치
32005-0-2	-고	망:쿠
32005-0-3	-더라	만:트라
32005-0-4	-으니까	마:느면
32005-0-5	-아/어(-왔/었다)	마:나도
32006	맡:- (任)[ㄹ]	마타라
32006-0-1	-지	맡찌
32006-0-2	-고	마꾸
32006-0-3	-더라	*
32006-0-4	-으니까	마트면
32006-0-5	-아/어(-왔/었다)	마타따   마타도
32007	알:- (知)[ㄹ]	안:다
32007-0-1	-지	알:지
32007-0-2	-고	알:구
32007-0-3	-더라	알:드라
32007-0-4	-으니까	알:문
32007-0-5	-아/어(-왔/었다)	아라도
32008	감:- (閉眼)[ㅁ]	가마따
32008-0-1	-지	감:찌
32008-0-2	-고	강:꾸
32008-0-3	-더라	*
32008-0-4	-으니까	가:므면
32008-0-5	-아/어(-왔/었다)	가:마도
32009	벗:- (脫)[ㅅ]	번는다
32009-0-1	-지	벗찌
32009-0-2	-고	벗꼬
32009-0-3	-더라	벗뜨라
32009-0-4	-으니까	버스면
32009-0-5	-아/어(-왔/었다)	버서도
32010	올:- (可)[ㅇ]	올바르다   올타
32010-0-1	-지	올치

32010-0-2	-고	올바르고
32010-0-3	-더라	올트라
32010-0-4	-으니까	올바르면
32010-0-5	-아/어(-왔/었다)	올바래도
32011	입-(着衣)[ㅂ]	입는다
32011-0-1	-지	입찌
32011-0-2	-고	입꾸
32011-0-3	-더라	입뜨라
32011-0-4	-으니까	이브머는
32011-0-5	-아/어(-왔/었다)	이버도
32012	바꾸-(換)[ㄱ]	바꾼다
32012-0-1	-지	바꾸지
32012-0-2	-고	바꾸구
32012-0-3	-더라	바꾸드라
32012-0-4	-으니까	바꾸먼
32012-0-5	-아/어(-왔/었다)	바꿔두
32013	덮-(覆)[ㅍ]	덮는다
32013-0-1	-지	*
32013-0-2	-고	덮꾸
32013-0-3	-더라	*
32013-0-4	-으니까	더프먼
32013-0-5	-아/어(-왔/었다)	더퍼두
32014	묻:-[問][ㄷ 변]	문는다   문는다
32014-0-1	-지	무:찌
32014-0-2	-고	묻꾸
32014-0-3	-더라	묻:뜨라
32014-0-4	-으니까	무르먼
32014-0-5	-아/어(-왔/었다)	무러도
32015	낫:-[癒][ㅅ 변]	낫:는다
32015-0-1	-지	나:찌
32015-0-2	-고	나:꼬
32015-0-3	-더라	나:뜨라
32015-0-4	-으니까	나:먼
32015-0-5	-아/어(-왔/었다)	나:서두
32016	닫-(閉)[ㄷ]	닫는다

32016-0-1	-지	다찌
32016-0-2	-고	다꾸
32016-0-3	-더라	달뜨라
32016-0-4	-으니까	다드문
32016-0-5	-아/어(-왔/었다)	다다두
32017	좃-(追)[츠]	쫓는다
32017-0-1	-지	쫓찌
32017-0-2	-고	쫓:꾸
32017-0-3	-더라	쫓뜨라
32017-0-4	-으니까	쫓치니까
32017-0-5	-아/어(-왔/었다)	쫓차
32018	베:-(枕)[베]	빈다
32018-0-1	-지	비:지
32018-0-2	-고	베:고
32018-0-3	-더라	비:드라
32018-0-4	-으니까	비:면
32018-0-5	-아/어(-왔/었다)	벼:두
32019	깨:-(破)[깨]	깁:다
32019-0-1	-지	깨:지
32019-0-2	-고	깨:구
32019-0-3	-더라	깨:드라
32019-0-4	-으니까	깨:면
32019-0-5	-아/어(-왔/었다)	깨:두
32020	펴-(伸)[켜]	핀다
32020-0-1	-지	피지
32020-0-2	-고	펴구
32020-0-3	-더라	피드라
32020-0-4	-으니까	피면
32020-0-5	-아/어(-왔/었다)	펴봐도
32021	밝-(明)[러]	박따
32021-0-1	-지	박찌
32021-0-2	-고	바꾸
32021-0-3	-더라	박뜨라
32021-0-4	-으니까	발그면
32021-0-5	-아/어(-왔/었다)	발가도

32022	삼:- (烹)[ㄷ]	삼:는다
32022-0-1	-지	삼:찌
32022-0-2	-고	삼:꾸이따
32022-0-3	-더라	삼:뜨라
32022-0-4	-으니까	삼:므면
32022-0-5	-아/어(-왔/었다)	삼:마도
32023	을:- (吟)[ㄷ]	을:핀다
32023-0-1	-지	을:찌
32023-0-2	-고	을:꾸
32023-0-3	-더라	을:프드라
32023-0-4	-으니까	을:프면
32023-0-5	-아/어(-왔/었다)	을:퍼   을:퍼도
32024	밧:- (踏)[ㄷ]	밧:는다
32024-0-1	-지	밧:찌
32024-0-2	-고	밧:꾸
32024-0-3	-더라	밧:뜨라
32024-0-4	-으니까	밧:브면
32024-0-5	-아/어(-왔/었다)	밧:바따   밧:바도이
32025	하:- (爲)[ㅏ 변]	일: 한다   잘한다
32025-0-1	-지	허지 마라
32025-0-2	-고	이라고 이따
32025-0-3	-더라	안 허드라
32025-0-4	-으니까	이를 마니 하면
32025-0-5	-아/어(-왔/었다)	이를 해:두
32026	맏:- (結)[ㅈ]	맏:는다
32026-0-1	-지	맏:찌
32026-0-2	-고	맏:꾸
32026-0-3	-더라	맏:뜨라
32026-0-4	-으니까	맏:니까
32026-0-5	-아/어(-왔/었다)	맏:따
32027	업:- (無)[ㅁ]	업:따
32027-0-1	-지	업:찌만
32027-0-2	-고	업:꾸
32027-0-3	-더라	업:뜨라
32027-0-4	-으니까	업:쓰면

32027-0-5	-아/어(-왔/왔다)	업싸도
32028	앉-(坐)[ㅈ]	안:는다
32028-0-1	-지	안찌
32028-0-2	-고	양:꾸
32028-0-3	-더라	안뜨라
32028-0-4	-으니까	안즈면
32028-0-5	-아/어(-왔/왔다)	안자두
32029	비비-(刮)[ㅣ]	부빈다
32029-0-1	-지	부비지
32029-0-2	-고	부비구
32029-0-3	-더라	부비드라
32029-0-4	-으니까	부비면
32029-0-5	-아/어(-왔/왔다)	부벼두
32030	끄-(消)[-]	끈다
32030-0-1	-지	끄지
32030-0-2	-고	끄고 이따   끄구나면
32030-0-3	-더라	끄드라
32030-0-4	-으니까	끄니까
32030-0-5	-아/어(-왔/왔다)	꺼두
32031	꺾-(折)[ㄱ]	꺾는다
32031-0-1	-지	꺾찌
32031-0-2	-고	꺾꾸네
32031-0-3	-더라	꺾뜨라
32031-0-4	-으니까	꺾끄면
32031-0-5	-아/어(-왔/왔다)	꺾꺼도
32032	신:-(履)[ㄴ]	신는다지
32032-0-1	-지	신:찌
32032-0-2	-고	신꾸
32032-0-3	-더라	신:뜨라
32032-0-4	-으니까	신느면
32032-0-5	-아/어(-왔/왔다)	신너두
32033	보-(視)[ㅇ]	본다
32033-0-1	-지	보지
32033-0-2	-고	보구
32033-0-3	-더라	보드라

32033-0-4	-으니까	보면
32033-0-5	-아/어(-왔/었다)	봐:도
32034	추-(舞)[ㄷ]	춘다
32034-0-1	-지	추지
32034-0-2	-고	추구
32034-0-3	-더라	추드라
32034-0-4	-으니까	추면
32034-0-5	-아/어(-왔/었다)	춰:두
32035	피우-(吸煙)[ㄷ]	핀다
32035-0-1	-지	피지
32035-0-2	-고	피:구
32035-0-3	-더라	피드라
32035-0-4	-으니까	피:면
32035-0-5	-아/어(-왔/었다)	퍼:두
32036	서-(立)[ㄴ]	스다
32036-0-1	-지	스지
32036-0-2	-고	스구
32036-0-3	-더라	스드라
32036-0-4	-으니까	스면
32036-0-5	-아/어(-왔/었다)	서서두
32037	기-(匍腹)[ㅣ]	긴:다
32037-0-1	-지	기지
32037-0-2	-고	기구
32037-0-3	-더라	기드라
32037-0-4	-으니까	기면
32037-0-5	-아/어(-왔/었다)	기어가고   겨:두
32038	이-(戴)[ㅣ]	인:다
32038-0-1	-지	이:지
32038-0-2	-고	이:구
32038-0-3	-더라	이:드라
32038-0-4	-으니까	이:면
32038-0-5	-아/어(-왔/었다)	여:두
32039	아니-(否)[ㅣ]	아:니다
32039-0-1	-지	아니지만
32039-0-2	-고	아:니고

32039-0-3	-더라	아니드라
32039-0-4	-으니까	아:니면
32039-0-5	-아/어(-왔/었다)	아:니두
32040	되-(升)[니]	덴다
32040-0-1	-지	데지
32040-0-2	-고	데고
32040-0-3	-더라	데드라
32040-0-4	-으니까	데먼
32040-0-5	-아/어(-왔/었다)	뉘:두
32041	있-(有)[쓰]	이따
32041-0-1	-지	이찌만
32041-0-2	-고	이꼬
32041-0-3	-더라	이뜨라
32041-0-4	-으니까	이쓰니겐
32041-0-5	-아/어(-왔/었다)	이썬는데
32042	놓-(放)[ㅎ]	논는다
32042-0-1	-지	노치
32042-0-2	-고	노쿠 이따
32042-0-3	-더라	노트라
32042-0-4	-으니까	노으면
32042-0-5	-아/어(-왔/었다)	노아도
32043	훔-(擄)[래]	흠른다
32043-0-1	-지	흠씨
32043-0-2	-고	흠꾸
32043-0-3	-더라	*
32043-0-4	-으니까	흠트면
32043-0-5	-아/어(-왔/었다)	흠터도
32044	곰:-(麗)[비 변]	곰:따
32044-0-1	-지	곰:찌
32044-0-2	-고	곰:꼬
32044-0-3	-더라	곰뜨라
32044-0-4	-으니까	고으면
32044-0-5	-아/어(-왔/었다)	고와도
32045	쥐:-(握)[니]	죤:다
32045-0-1	-지	죤:지

32045-0-2	-고	쥐:구
32045-0-3	-더라	쥐:드라
32045-0-4	-으니까	쥐:먼
32045-0-5	-아/어(-왔/었다)	쥐어따   쥐어도
32046	가-(去)[ト]	간다
32046-0-1	-지	가지
32046-0-2	-고	가고
32046-0-3	-더라	가드라
32046-0-4	-으니까	가면
32046-0-5	-아/어(-왔/었다)	가도
32047	먹-(食)	멍는다
32047-0-1	“{-지,-고,-더라}“	머꼬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도
32048	뜯-(摘)	뜨드면   뜯는다
32048-0-1	“{-지,-고,-더라}“	뜨꾸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손톱 뜨더서 피나는 거지
32049	같-(如)	가트면   또까따
32049-0-1	“{-지,-고,-더라}“	가꼬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타두
32050	얕-(淺)	야따   야트면
32050-0-1	“{-지,-고,-더라}“	야꾸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타도
32051	흩-(散)	헤친다
32051-0-1	“{-지,-고,-더라}“	*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52	날:- (飛)	난다   나르면   나른다
32052-0-1	“{-지,-고,-더라}“	날구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도
32053	울:- (泣)	울:다   울:먼
32053-0-1	“{-지,-고,-더라}“	울:구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러두
32054	일:- (洶)	잘 이르므는   일:른다
32054-0-1	“{-지,-고,-더라}“	일:구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두
32055	얼:- (凍)	언:다   얼:면

32055-0-1	“{-지,-고,-더라}“	얼:꾸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두
32056	넘:-(越)	넘:는다   너므먼
32056-0-1	“{-지,-고,-더라}“	녕:꾸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두
32057	숨:-(隱)	숨:는다
32057-0-1	“{-지,-고,-더라}“	송:꾸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두
32058	쉽:-(易)	쉽:따   쉬:먼
32058-0-1	“{-지,-고,-더라}“	쉽:꾸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두
32059	눅:-(臥)	누:먼
32059-0-1	“{-지,-고,-더라}“	누:꾸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워도
32060	김:-(縫)	자꾸 기:먼   긴:다
32060-0-1	“{-지,-고,-더라}“	기:꾸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여두
32061	밈:-(憎)	미우먼
32061-0-1	“{-지,-고,-더라}“	미꼬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도
32062	높:-(高)	높:따   노프먼
32062-0-1	“{-지,-고,-더라}“	높:꼬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도
32063	짓:-(作)	지먼   진:는다
32063-0-1	“{-지,-고,-더라}“	지:꾸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두
32064	붓:-(腫)	분:는다   부:머는
32064-0-1	“{-지,-고,-더라}“	부:꾸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어도
32065	웃:-(笑)	우스먼   운:는다
32065-0-1	“{-지,-고,-더라}“	우:꾸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두
32066	짖:-(吠)	진는다   지즈먼
32066-0-1	“{-지,-고,-더라}“	짖:꾸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저도

32067	꽂-(插)	꽂는다   잘 꼬지든
32067-0-1	“{-지,-고,-더라}“	꼬꾸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자도
32068	낱-(産)	낱:는다   아를 나오면
32068-0-1	“{-지,-고,-더라}“	나:쿠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도
32069	따:- (辮)	따:는다   따:면
32069-0-1	“{-지,-고,-더라}“	따:쿠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두
32070	꿍-(切)	꿍는다   꿍느면
32070-0-1	“{-지,-고,-더라}“	꿍꾸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꿍너두
32071	괜찮-(無妨)	괜찬타
32071-0-1	“{-지,-고,-더라}“	괜찬타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찬나서
32072	읽-(讀)	읽:는다   일그면
32072-0-1	“{-지,-고,-더라}“	익꾸이따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   일거도
32073	털:- (澁)	털:따   털브면
32073-0-1	“{-지,-고,-더라}“	털:찌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털:버   털:버두   털버서
32074	옴:- (遷)	옴:는다   옴:므면
32074-0-1	“{-지,-고,-더라}“	옴:뜨라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옴마두   옴마서
32075	똥:- (貫)	똥른다   똥르면
32075-0-1	“{-지,-고,-더라}“	똥꾸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똥러도
32076	꿍-(脆)	꿍른다   꿍르면
32076-0-1	“{-지,-고,-더라}“	꿍꼬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꿍러두
32077	달:- (抗, 연필 심이 ~)	다르며는   달른다
32077-0-1	“{-지,-고,-더라}“	달트라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서   다라두
32078	달:- (煎, 솥에서 장이 ~)	*
32078-0-1	“{-지,-고,-더라}“	*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9	짜-(鹽)	짜다   짜면
32079-0-1	“{-지,-고,-더라}“	짜고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짜두
32080	말-(捲)	만:다   말면
32080-0-1	“{-지,-고,-더라}“	말구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라두
32081	쓰-(書)	쓴다   쓰면
32081-0-1	“{-지,-고,-더라}“	쓰구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써도
32082	오르-(登)	오른다   오르면
32082-0-1	“{-지,-고,-더라}“	올르구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라두
32083	바쁘-(忙)	바쁘다   바쁘면
32083-0-1	“{-지,-고,-더라}“	바쁘고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바빠두
32084	고프-(餓)	고프다
32084-0-1	“{-지,-고,-더라}“	고프구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파두
32085	쏘-(射)	쏜:다
32085-0-1	“{-지,-고,-더라}“	쏜:구
3208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쏜:도
32086	꾸-(夢)	꾼다   꾸:면
32086-0-1	“{-지,-고,-더라}“	꾸고
3208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워도
32087	머무르-(留)	*
32087-0-1	“{-지,-고,-더라}“	머물지
3208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물러라
32088	다듬-(整)	다듬는다
32088-0-1	“{-지,-고,-더라}“	다듬꼬
3208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드마도
32089	견디-(忍)	견딘다
32089-0-1	“{-지,-고,-더라}“	견디구
3208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견더라   견더두
32090	마르-(裁)	말른다

32090-0-1	“{-지,-고,-더라}“	말르구
3209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말라따
32091	끼-(烟鎖, 안개가 ~)	끼:다
32091-0-1	“{-지,-고,-더라}“	끼구
320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끼여따   끼여서   끼:두
32092	마시-(飲)	마신다
32092-0-1	“{-지,-고,-더라}“	마시구
320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셔두
32093	세:-(強)	센:다   세:다
32093-0-1	“{-지,-고,-더라}“	세:고   세:고
320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세워도   세:도
32094	포개-(重疊)	포갠다
32094-0-1	“{-지,-고,-더라}“	포개고
3209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포개따
32095	두드리-(敲)	두들긴다
32095-0-1	“{-지,-고,-더라}“	두들기구   두들기드라
3209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두들겨서
32096	켜-(點燈)	킨다
32096-0-1	“{-지,-고,-더라}“	키고
3209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켜따   켜도
32097	쇠:-(바람을)	쏘인다
32097-0-1	“{-지,-고,-더라}“	쏘이구
3209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췌:도
32098	쇠-(老)	췌:다
32098-0-1	“{-지,-고,-더라}“	세:고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췌서도
32099	쉬:-(饅, 밥이 ~)	췌:다
32099-0-1	“{-지,-고,-더라}“	쉬:고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쉬어도
32100	희-(白)	시면
32100-0-1	“{-지,-고,-더라}“	히고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어도
32101	볶-(炒)	봉는다
32101-0-1	“{-지,-고,-더라}“	보꾸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보까도

32102	안:-(抱)	아:느면
32102-0-1	“{-지,-고,-더라}“	안:꾸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따   아:나도
32103	묻:-(埋)	묻는다
32103-0-1	“{-지,-고,-더라}“	무꾸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도
32104	불:-(吹)	분:다
32104-0-1	“{-지,-고,-더라}“	불:구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도
32105	빨:-(洗濯)	뻘다
32105-0-1	“{-지,-고,-더라}“	빨구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도
32106	죽:-(死)	중는다
32106-0-1	“{-지,-고,-더라}“	주꾸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도
32107	걸:-(步)	건:는다
32107-0-1	“{-지,-고,-더라}“	걸:꼬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도
32108	가물:-(旱)	가문다
32108-0-1	“{-지,-고,-더라}“	가물고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러도
32109	졸:-(睡)	존:다
32109-0-1	“{-지,-고,-더라}“	졸:고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라도
32110	쓸:-(掃)	쓴:다
32110-0-1	“{-지,-고,-더라}“	쓸:고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도
32111	감:-(捲)	감:는다
32111-0-1	“{-지,-고,-더라}“	강:꼬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도
32112	더듬:-(摸)	더듬는다
32112-0-1	“{-지,-고,-더라}“	더듬꼬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마도
32113	끓:-(爇)	끓:는다
32113-0-1	“{-지,-고,-더라}“	국:꾸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워도
32114	무겁-(重)	무겁따
32114-0-1	“{-지,-고,-더라}“	무걱꼬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도
32115	잇:-(連)	인:는다
32115-0-1	“{-지,-고,-더라}“	이:꾸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도
32116	빗-(梳)	빈는다
32116-0-1	“{-지,-고,-더라}“	빌꾸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도
32117	까맣-(黑)	꺼머타
32117-0-1	“{-지,-고,-더라}“	경:꼬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머도
32118	넣-(入)	넌:는다
32118-0-1	“{-지,-고,-더라}“	너:코 이따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도
32119	고:-(煮)	곰:는다
32119-0-1	“{-지,-고,-더라}“	고:꼬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와도
32120	얹-(載)	언는다
32120-0-1	“{-지,-고,-더라}“	언꼬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도
32121	귀찮-(囑)	귀찬타
32121-0-1	“{-지,-고,-더라}“	귀찬케하구   귀찬꾸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나도
32122	바르-(剔, 생선 뼈를~)	뺨:다
32122-0-1	“{-지,-고,-더라}“	뺨:고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뺨:두
32123	맑-(淸)	막따
32123-0-1	“{-지,-고,-더라}“	말꼬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도
32124	끓:-(膿)	곰:는다
32124-0-1	“{-지,-고,-더라}“	공:꾸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도
32125	국:-(太)	국:따

32125-0-1	“{-지,-고,-더라}“	국:꼬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도
32126	얇:-{薄}	알:따
32126-0-1	“{-지,-고,-더라}“	알:꼬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바도
32127	쫄-(春, 곡식을 절구에다 ~)	쓴:다
32127-0-1	“{-지,-고,-더라}“	*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따
32128	잃-(失)	일:른다
32128-0-1	“{-지,-고,-더라}“	일:코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도
32129	핥-(舐)	할:른다
32129-0-1	“{-지,-고,-더라}“	할:꾸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타도
32130	짧-(短)	짤:따
32130-0-1	“{-지,-고,-더라}“	짤:꼬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짤:바도
32131	놀라-(驚)	놀:라따
32131-0-1	“{-지,-고,-더라}“	놀:라고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라도
32132	자-(宿)	잔:다
32132-0-1	“{-지,-고,-더라}“	자:고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도
32133	못:하-(不爲)	모:탄다
32133-0-1	“{-지,-고,-더라}“	모:타고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태도
32134	모르-(不知)	모:른다
32134-0-1	“{-지,-고,-더라}“	모:르구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라도
32135	아프-(痛)	아:프다
32135-0-1	“{-지,-고,-더라}“	아:프고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도
32136	크-(大)	크:다
32136-0-1	“{-지,-고,-더라}“	크:구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도

32137	꼬-(索, 새끼를 ~)	끈:다
32137-0-1	“{-지,-고,-더라}“	꼬:구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아도
32138	쭈-(造)	쑈:다
32138-0-1	“{-지,-고,-더라}“	쑈:구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쑈:도
32139	맞추-(組合)	마추면
32139-0-1	“{-지,-고,-더라}“	마추구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춰도
32140	데우-(悟)	데운다
32140-0-1	“{-지,-고,-더라}“	데우구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데워도
32141	이:-(盖, 지붕을 ~)	인:는다
32141-0-1	“{-지,-고,-더라}“	이:구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여:도
32142	갈기-(打)	갈킨다
32142-0-1	“{-지,-고,-더라}“	갈기구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갈겨도
32143	기다리-(待)	기다린다
32143-0-1	“{-지,-고,-더라}“	기다리구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다려도
32144	세:-(算)	세운다
32144-0-1	“{-지,-고,-더라}“	세:지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세워따
32145	빼-(拔)	뺨:다
32145-0-1	“{-지,-고,-더라}“	빼:구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빼:도
32146	켜-(引, 톱으로 ~)	킨다
32146-0-1	“{-지,-고,-더라}“	키구 이따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켜도
32147	되:-(硬)	되:다
32147-0-1	“{-지,-고,-더라}“	되:고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뒤:도
32148	쉬:-(休)	쑈:다
32148-0-1	“{-지,-고,-더라}“	쉬:구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셔:도
32149	할퀴-(擻)	할퀸다
32149-0-1	“{-지,-고,-더라}“	할키드라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할켜따
32150	눈:-(爇)	눈:는다
32150-0-1	“{-지,-고,-더라}“	눈:꼬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누러도
32151	깨달-(覺)	깨달른다
32151-0-1	“{-지,-고,-더라}“	깨다꼬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깨다라도
32152	마렵-(오줌이 ~)	마렵따
32152-0-1	“{-지,-고,-더라}“	마려꼬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려서   마려도
32153	부끄럽-(恥)	부끄럽따
32153-0-1	“{-지,-고,-더라}“	부끄럽꼬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끄러도
32154	가깝-(近)	가깝따
32154-0-1	“{-지,-고,-더라}“	가깝꼬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까워서   가까워도
32155	깊-(深)	깊따
32155-0-1	“{-지,-고,-더라}“	기꼬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퍼도
32156	긋:-(劃)	긋:는다
32156-0-1	“{-지,-고,-더라}“	거:꼬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거:도
32157	씻-(洗)	씻는다
32157-0-1	“{-지,-고,-더라}“	씨쳐도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꼬
32158	짚-(搗)	짚:는다
32158-0-1	“{-지,-고,-더라}“	짜:꼬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짜여도
32159	깁-(擻)	깁는다
32159-0-1	“{-지,-고,-더라}“	까끄구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까까도
32160	굶:-(飢)	굶:는다

32160-0-1	“{-지,-고,-더라}“	궁:꼬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머도
32161	닭:-(似)	담:는다
32161-0-1	“{-지,-고,-더라}“	당:꼬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마도
32162	싫-(厭)	실타
32162-0-1	“{-지,-고,-더라}“	실쿠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도
32163	끓-(𪓐, 달걀이 ~)	골른다
32163-0-1	“{-지,-고,-더라}“	골쿠 이따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도
32164	붓:-(注)	분:는다
32164-0-1	“{-지,-고,-더라}“	부:꼬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어도
32165	타-(乘)	탄다
32165-0-1	“{-지,-고,-더라}“	타고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도
32166	마르-(乾)	마른다
32166-0-1	“{-지,-고,-더라}“	말리고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도
32167	쓰-(苦)	쓰다
32167-0-1	“{-지,-고,-더라}“	쓰고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도
32168	슬프-(哀)	슬프다
32168-0-1	“{-지,-고,-더라}“	슬프고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퍼도
32169	기쁘-(喜)	기쁘다
32169-0-1	“{-지,-고,-더라}“	기쁘고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뻐도
32170	쏘-(蝨, 벌이 ~)	쫓:다
32170-0-1	“{-지,-고,-더라}“	쏘:구 이따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아도
32171	주-(與)	준다
32171-0-1	“{-지,-고,-더라}“	주고 이따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도

32172	키우-(育)	키운다라구 어지
32172-0-1	“{-지,-고,-더라}“	키우고 이따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워도
32173	가두-(囚)	가둔다
32173-0-1	“{-지,-고,-더라}“	가두고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둬도
32174	부수-(碎)	부순다
32174-0-1	“{-지,-고,-더라}“	부시고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셔도
32175	나누-(分)	논는다
32175-0-1	“{-지,-고,-더라}“	논:꾸 이따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나도
32176	속이-(欺)	소긴다
32176-0-1	“{-지,-고,-더라}“	소기구 이따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겨도
32177	끼-(插)	깁:다
32177-0-1	“{-지,-고,-더라}“	끼고 이따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여도
32178	튀-(跳)	튀다
32178-0-1	“{-지,-고,-더라}“	튀고 이따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어도
32179	괴:-(滯)	고인다
32179-0-1	“{-지,-고,-더라}“	고이고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여도
32180	여위-(癩)	야원다
32180-0-1	“{-지,-고,-더라}“	야위고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위여따   야위여도
32181	맵-(辛)	맵따
32181-0-1	“{-지,-고,-더라}“	매우꼬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와도
32182	뀌:-(屁)	뀨:다
32182-0-1	“{-지,-고,-더라}“	뀌:고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어도
32183	고치-(改)	고친다
32183-0-1	“{-지,-고,-더라}“	고치고 이따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쳐도
32184	싣:-(載)	싣른다
32184-0-1	“{-지,-고,-더라}“	싣꼬 이따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싣러도
32185	얻:-(得)	얻:는다
32185-0-1	“{-지,-고,-더라}“	얻:꼬 이따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얻:더따
32186	빡-(粉碎)	빡:다
32186-0-1	“{-지,-고,-더라}“	빡:고 이따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빡:도
32187	파랗-(碧)	파라타
32187-0-1	“{-지,-고,-더라}“	파라코 이따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라도
32188	다르-(異)	성껴근 달르다
32188-0-1	“{-지,-고,-더라}“	다르고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달라도
32189	푸-(汲)	푼다
32189-0-1	“{-지,-고,-더라}“	푼구 이따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푼도
32190	누-(尿)	눈다
32190-0-1	“{-지,-고,-더라}“	누고 이따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누워도
32191	더:럽-(汚)	더:럽따
32191-0-1	“{-지,-고,-더라}“	더:러꼬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더:러서
32192	거두-(收)	세:그물 거둔다
32192-0-1	“{-지,-고,-더라}“	거두구 이따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거뒤도
32193	끓-(沸)	끓른다
32193-0-1	“{-지,-고,-더라}“	끓쿠 이따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러도
32194	이기-(承)	이:긴다
32194-0-1	“{-지,-고,-더라}“	이:기고 이따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겨도
32195	부시-(照)	부시다

32195-0-1	“{-지,-고,-더라}“	부시고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셔도
32196	자빠지-(後)	자빠져따
32196-0-1	“{-지,-고,-더라}“	자빠지고 이따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져도
32197	일으키-(使起)	이리킨다
32197-0-1	“{-지,-고,-더라}“	이리키고 이따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리켜도
32198	당기-(引)	당긴다
32198-0-1	“{-지,-고,-더라}“	다리고 이따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려도
32199	버리-(捨)	버린다
32199-0-1	“{-지,-고,-더라}“	버리고 이따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려도
32200	훔치-(盜)	훔친다
32200-0-1	“{-지,-고,-더라}“	훔치고 이따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쳐도
32201	지-(負)	진다
32201-0-1	“{-지,-고,-더라}“	지구 간다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두
32202	외:-(暗誦)	웬:다
32202-0-1	“{-지,-고,-더라}“	웬:구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웬:두
32203	사귀-(交)	사귀다   차지
32203-0-1	“{-지,-고,-더라}“	사귀구 이따   차드라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겨도   차도
32204	썩-(腐)	썩:는다
32204-0-1	“{-지,-고,-더라}“	썩:꼬 이따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도
32205	질-(泥)	질다
32205-0-1	“{-지,-고,-더라}“	질고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도
32206	까불-(箕)	까:부른다
32206-0-1	“{-지,-고,-더라}“	까:불고 이따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러도

32207	드물-(稀)	드물다
32207-0-1	“{-지,-고,-더라}“	드물고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도
32208	줄:-(縮)	쫘:다
32208-0-1	“{-지,-고,-더라}“	쫘:고 이따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쫘러도
32209	심:-(植)	심는다
32209-0-1	“{-지,-고,-더라}“	싱꼬 이따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머도
32210	쓰다듬-(撫)	쓰다듬는다
32210-0-1	“{-지,-고,-더라}“	쓰다듬꼬 이따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머도
32211	샤:납-(猛)	샤:납따
32211-0-1	“{-지,-고,-더라}“	샤:납꼬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샤:나워도
32212	가볍-(輕)	가볍따
32212-0-1	“{-지,-고,-더라}“	가볍꼬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벼워도
32213	젓:-(撈)	젓:는다
32213-0-1	“{-지,-고,-더라}“	저:꼬 이따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어도
32214	두껍-(厚)	두껍따
32214-0-1	“{-지,-고,-더라}“	두꺼꼬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워도
32215	무르-(軟)	물르다
32215-0-1	“{-지,-고,-더라}“	물르고 이따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러도
32216	분지르-(折)	*
32216-0-1	“{-지,-고,-더라}“	분지르구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분질러따
32217	배우-(學)	배운다
32217-0-1	“{-지,-고,-더라}“	배우고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워도
32218	다리-(躡)	다린다
32218-0-1	“{-지,-고,-더라}“	다리고 이따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려도
32219	후비-(窻, 귀를 ~)	후민다
32219-0-1	“{-지,-고,-더라}“	후미고 이따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후며도
32220	아리-(痛)	아리다
32220-0-1	“{-지,-고,-더라}“	아리구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려도
32221	그리-(畵)	그:린다
32221-0-1	“{-지,-고,-더라}“	그:리고 이따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려도
32222	저리-(癱)	저리다
32222-0-1	“{-지,-고,-더라}“	저리고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려도
32223	불리-(增)	풀린다
32223-0-1	“{-지,-고,-더라}“	풀리고 이따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풀려도
32224	뜨시-(溫)	따시다
32224-0-1	“{-지,-고,-더라}“	뜨드타고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시워도
32225	끓이-(使沸)	끄린다
32225-0-1	“{-지,-고,-더라}“	끄리고 이따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려도
32226	누비-(縫)	누빈다
32226-0-1	“{-지,-고,-더라}“	누비고 이따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벼도
32227	구기-(皺)	구긴다
32227-0-1	“{-지,-고,-더라}“	구기구 이따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겨도
32228	비:-(空)	빈다
32228-0-1	“{-지,-고,-더라}“	비고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벼:도
32229	식히-(使冷)	시킨다
32229-0-1	“{-지,-고,-더라}“	시키고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켜도
32230	매-(草)	맨:다

32230-0-1	“{-지,-고,-더라}“	매:드라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도
32231	매:-(結)	낸:다
32231-0-1	“{-지,-고,-더라}“	내:꾸 이따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도
32232	뛰-(走)	똥:다
32232-0-1	“{-지,-고,-더라}“	뛰:고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어도
32233	담:-(盛)	담:는다
32233-0-1	“{-지,-고,-더라}“	당:꾸 이따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마도
32234	가렵-(癢)	가렵따
32234-0-1	“{-지,-고,-더라}“	가려꼬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려도
32235	때리-(打)	때린다
32235-0-1	“{-지,-고,-더라}“	때리구
322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려도
32236	어둡-(暗)	어:둡따
32236-0-1	“{-지,-고,-더라}“	어:두꼬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워도
32237	잡-(執)	잡는다
32237-0-1	“{-지,-고,-더라}“	자꼬
322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도
32238	차-(蹴)	찬다
32238-0-1	“{-지,-고,-더라}“	차고
322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도
32239	모자라-(不足)	모자라다
32239-0-1	“{-지,-고,-더라}“	모:자라고
322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자라도
32240	부르-(呼)	부른다
32240-0-1	“{-지,-고,-더라}“	부르고
322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도
32241	따르-(注)	따른다
32241-0-1	“{-지,-고,-더라}“	따르고
322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도

32242	쫓:- (啄)	쫓:다
32242-0-1	“{-지,-고,-더라}“	쫓:고
3224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쫓와도
32243	두:- (置)	뚫다
32243-0-1	“{-지,-고,-더라}“	뚫고
3224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뚫워도
32244	시키:- (使)	시킨다
32244-0-1	“{-지,-고,-더라}“	시키고
3224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켜도
32245	지리:- (漏, 오줌을 ~)	찌린다
32245-0-1	“{-지,-고,-더라}“	찌리구
3224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려도
32246	던지:- (投)	던진다
32246-0-1	“{-지,-고,-더라}“	던지고
3224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던저도
32247	모이:- (集)	모인다
32247-0-1	“{-지,-고,-더라}“	모이구
3224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모여도
32248	만지:- (搨)	만진다
32248-0-1	“{-지,-고,-더라}“	만지구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저도
32249	쫓:- (曬)	쫓인다
32249-0-1	“{-지,-고,-더라}“	쫓이구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쫓여도
32250	비틀:- (捻)	비튼다
32250-0-1	“{-지,-고,-더라}“	비:틀구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트러도
32251	돕:- (助)	도운다
32251-0-1	“{-지,-고,-더라}“	도우꾸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도와도
32252	쌌:- (咀)	쌌:는다
32252-0-1	“{-지,-고,-더라}“	쌌:꼬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쌌버도
32253	미끄럽:- (滑)	미끄럽다
32253-0-1	“{-지,-고,-더라}“	미끄럽꼬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끄러도
32254	닿-(接)	단:는다
32254-0-1	“{-지,-고,-더라}“	다:코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도
32255	누르-(壓)	누른다
32255-0-1	“{-지,-고,-더라}“	누르고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눌러도
32256	주무르-(揉)	주무른다
32256-0-1	“{-지,-고,-더라}“	주물르드라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물러도
32257	메우-(填)	미꾼다
32257-0-1	“{-지,-고,-더라}“	미꾸구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꿔도
32258	고소하-(香味)	고수하다
32258-0-1	“{-지,-고,-더라}“	꼬시고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셔도
32259	내리-(降)	나린다
32259-0-1	“{-지,-고,-더라}“	나리고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려도
32260	구르-(轉)	굴:른다
32260-0-1	“{-지,-고,-더라}“	구르고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굴:러도
32261	만들-(作)	만든다
32261-0-1	“{-지,-고,-더라}“	만들고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드러도
32262	늙-(老)	능는다
32262-0-1	“{-지,-고,-더라}“	늘꼬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늘거도
32263	앓-(病)	알른다   아르면
32263-0-1	“{-지,-고,-더라}“	알쿠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라도
32264	따르-(隨)	따른다
32264-0-1	“{-지,-고,-더라}“	따르고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라도
32265	사-(買)	산다

32265-0-1	“{-지,-고,-더라}“	사고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사도
32266	치우-(除)	치운다
32266-0-1	“{-지,-고,-더라}“	치우고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치워도
32267	부러지-(被折)	부러진다
32267-0-1	“{-지,-고,-더라}“	부러지고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러져도
32268	다치-(傷)	다친다
32268-0-1	“{-지,-고,-더라}“	다치고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쳐도
32269	느리-(緩)	느리다
32269-0-1	“{-지,-고,-더라}“	느리고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느려도
32270	무치-(和, 나물을 ~)	무친다
32270-0-1	“{-지,-고,-더라}“	무치고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쳐도
32271	죄:-(縮)	조인다
32271-0-1	“{-지,-고,-더라}“	조이구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여도
32272	팔-(賣)	판다
32272-0-1	“{-지,-고,-더라}“	팔고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라도
32273	뽑-(選)	뽑는다
32273-0-1	“{-지,-고,-더라}“	뽑고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바도
32274	뒤지-(索)	뒤진다
32274-0-1	“{-지,-고,-더라}“	뒤지고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뒤져도
32275	마치-(終)	마친다
32275-0-1	“{-지,-고,-더라}“	마치고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쳐도
32276	절이-(鹽)	저린다
32276-0-1	“{-지,-고,-더라}“	저리고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려도

32277	휘-(曲)	흰다
32277-0-1	“{-지,-고,-더라}“	휘고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휘켜도
32278	줍:- (拾)	주순다
32278-0-1	“{-지,-고,-더라}“	주수고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서도
32279	빼앗-(奪)	뺨:는다
32279-0-1	“{-지,-고,-더라}“	뺨:고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뺨서도
32280	기울-(傾)	기운다
32280-0-1	“{-지,-고,-더라}“	기울구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우러도
32281	아깝-(惜)	아깝따
32281-0-1	“{-지,-고,-더라}“	아깝꼬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까워도
32282	반갑-(歡)	방갑따
32282-0-1	“{-지,-고,-더라}“	방갑꼬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방가워도
32283	찌-(蒸)	찐다
32283-0-1	“{-지,-고,-더라}“	찌고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도
32284	노랑-(黃)	노:라타
32284-0-1	“{-지,-고,-더라}“	노:라코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라도
32285	푸르-(靑)	푸르다
32285-0-1	“{-지,-고,-더라}“	푸르고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푸러도
32286	서두르-(忙)	서둘른다
32286-0-1	“{-지,-고,-더라}“	서둘르드라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둘러서
32287	서투르-(不熟)	서:들르다
32287-0-1	“{-지,-고,-더라}“	서:투르드라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들러
32288	게으르-(怠)	게으르다
32288-0-1	“{-지,-고,-더라}“	게을르드라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게올러
32289	따뜻하-(溫)	따드타다
32289-0-1	“{-지,-고,-더라}“	따스하드라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0	춥-(寒)	춷따
32290-0-1	“{-지,-고,-더라}“	추꼬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취:도
32291	뜨겁-(極熱)	뜨겁따
32291-0-1	“{-지,-고,-더라}“	뜨겁뜨라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거
32292	미지근하-(微溫)	미지그나다
32292-0-1	“{-지,-고,-더라}“	미지근하드라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지근해두
32293	차갑-(寒)	*
32293-0-1	“{-지,-고,-더라}“	*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4	부럽-(羨)	부럽따
32294-0-1	“{-지,-고,-더라}“	부럽씨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러워도
32295	알땀-(憎)	알:땀단
32295-0-1	“{-지,-고,-더라}“	알:땀뜨라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알:미어도
32296	비슷하-(類似)	비스터다
32296-0-1	“{-지,-고,-더라}“	비스타드라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스태서
32297	새롭-(新)	새롭뜨라
32297-0-1	“{-지,-고,-더라}“	새로워서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8	서:럽-(悲痛)	서럽따
32298-0-1	“{-지,-고,-더라}“	서럽뜨라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러워도
32299	까다롭-(難)	까다롭따
32299-0-1	“{-지,-고,-더라}“	까다롭뜨라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까다로워도
32300	외롭-(孤)	외롭따

32300-0-1	“{-지,-고,-더라}“	외롭뜨라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로워도
32301	아쉽-(不滿)	아:쉽따
32301-0-1	“{-지,-고,-더라}“	아쉽뜨라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쉬워도
32302	단단하-(固)	단다나다
32302-0-1	“{-지,-고,-더라}“	단다너드라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다내서
32303	늦-(晚)	느지면
32303-0-1	“{-지,-고,-더라}“	느뜨라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두
32304	남:-(餘)	남:는다
32304-0-1	“{-지,-고,-더라}“	남:꼬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도
32305	남기-(使餘)	남기는
32305-0-1	“{-지,-고,-더라}“	냉기드라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겨따
32306	넘어뜨리-(使倒)	너머트린다
32306-0-1	“{-지,-고,-더라}“	너머트리드라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뜨려따
32307	쭈그러뜨리-(使凹)	쭈그러트린다
32307-0-1	“{-지,-고,-더라}“	쭈그러트리드라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그러트려따
32308	견주-(比)	견준다
32308-0-1	“{-지,-고,-더라}“	견주드라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9	외우-(誦)	원:다
32309-0-1	“{-지,-고,-더라}“	외:드라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워따
32310	문지르-(摩)	견준다
32310-0-1	“{-지,-고,-더라}“	문지르구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러따
32311	가리키-(指)	가르킨다
32311-0-1	“{-지,-고,-더라}“	가르키고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켜따

32312	가르치-(敎)	가르친다
32312-0-1	“{-지,-고,-더라}“	가르키드라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켜따
32313	겨누-(照準)	겨눈다
32313-0-1	“{-지,-고,-더라}“	겨누구 이따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눠도
32314	겨루-(競)	겨눈다
32314-0-1	“{-지,-고,-더라}“	겨누구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뤄따
32315	달래-(慰撫)	달랜다
32315-0-1	“{-지,-고,-더라}“	달래고 이따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래도
32316	본받-(效)	본반는다
32316-0-1	“{-지,-고,-더라}“	본받뜨라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본바다따
32317	어지르-(散)	*
32317-0-1	“{-지,-고,-더라}“	어질르드라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질러따
32318	달리-(走)	달린다
32318-0-1	“{-지,-고,-더라}“	달리고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려도
32319	우기-(拗)	우긴다
32319-0-1	“{-지,-고,-더라}“	우기드라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겨따
32320	중얼거리-(獨言)	중얼거리지
32320-0-1	“{-지,-고,-더라}“	중얼거리드라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알거려따
32321	지껄이-(騷)	지꺼린다구
32321-0-1	“{-지,-고,-더라}“	지꺼리드라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려따
32322	다니-(行)	다닌다
32322-0-1	“{-지,-고,-더라}“	다니드라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녀라
32323	떨어뜨리-(使落)	떨어트린다
32323-0-1	“{-지,-고,-더라}“	떨어트리드라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떨어트려따
32324	깨-(覺)	*
32324-0-1	“{-지,-고,-더라}“	깨우치드라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깨우쳐따
32325	시-(酸)	시다
32325-0-1	“{-지,-고,-더라}“	시고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셔두
32326	솟-(湧)	손는다
32326-0-1	“{-지,-고,-더라}“	솔뜨라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사따
32327	좋:-(好)	조:타
32327-0-1	“{-지,-고,-더라}“	조:코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아도
32328	빨강-(赤)	빨:가타
32328-0-1	“{-지,-고,-더라}“	빨:가치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빨가서
32329	끝:-(曳, 땅에 질질 ~)	끈:다
32329-0-1	“{-지,-고,-더라}“	끝:드라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러따
32330	넓-(廣)	널:따
32330-0-1	“{-지,-고,-더라}“	널:뜨라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널:버서
32331	하얗-(白)	하야타
32331-0-1	“{-지,-고,-더라}“	하야트라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야서

## 2.2. 곡용

32332	국(羹)	국
32332-0-1	-이/가	구기 짜다 그러지
32332-0-2	-을/를	구 구글 잘 끄러야지
32332-0-3	-에(서)	구게
32332-0-4	-으로	구그루
32332-0-5	-도	국뚜 머거라
32333	논(沓)	논
32333-0-1	-이/가	노:니 만타

32333-0-2	-을/를	노:늘 잘 간다
32333-0-3	-에(서)	노:네 물대지 어디 대
32333-0-4	-으로	*
32333-0-5	-도	논두 만코
32334	쌀(米)	쌀
32334-0-1	-이/가	싸리 마니 나지
32334-0-2	-을/를	싸를 농사 마이
32334-0-3	-에(서)	싸레서 벌레가 나와따 그러지 뭐야
32334-0-4	-으로	쌀:루 바블 지찌 뭇: 지어
32334-0-5	-도	쌀:두 이꾸
32335	봄(春)	보미지   봄
32335-0-1	-이/가	보미 오며 꼬시 피지
32335-0-2	-을/를	보물
32335-0-3	-에(서)	보메 뿌리를 인제 뿌려
32335-0-4	-으로	보므루 가는 게 어디루 가
32335-0-5	-도	봄두 조치
32336	집(家)	집 떠나면 고상이지
32336-0-1	-이/가	아: 내 지비 조치
32336-0-2	-을/를	지블
32336-0-3	-에(서)	지비서 이저 버려찌 어디서 이저 버려
32336-0-4	-으로	지부루 드러가지   지부루 완는데
32336-0-5	-도	집뚜 절두 업따
32337	옷(衣)	올
32337-0-1	-이/가	오시
32337-0-2	-을/를	오슬 득꺼께
32337-0-3	-에(서)	오세
32337-0-4	-으로	다른 오스루 가라 이브라 그래
32337-0-5	-도	오뚜 이쁘다
32338	방(房)	방
32338-0-1	-이/가	방이 널찌
32338-0-2	-을/를	방을 치어라
32338-0-3	-에(서)	방에만 이찌 말:고
32338-0-4	-으로	방으루
32338-0-5	-도	방두 크다
32339	낫(晝)	낫

32339-0-1	-이/가	나지 길지
32339-0-2	-을/를	밤나슬
32339-0-3	-에(서)	나:제 빨리빨리 이:래야지   나:제두 더우꾸
32339-0-4	-으로	밤나스루
32339-0-5	-도	나뚜
32340	낫(顔)	낫
32340-0-1	-이/가	나시 고:꾼
32340-0-2	-을/를	나슬 가린다
32340-0-3	-에(서)	나세서
32340-0-4	-으로	나스루
32340-0-5	-도	나:뚜 음냐구
32341	부엌(廚)	부엌
32341-0-1	-이/가	부어기 널버서
32341-0-2	-을/를	부:어글
32341-0-3	-에(서)	부어게서 허지 그계
32341-0-4	-으로	부어그루
32341-0-5	-도	부엌뚜
32342	밭(田)	밭
32342-0-1	-이/가	바시 널따 그러자나
32342-0-2	-을/를	바슬 매구
32342-0-3	-에(서)	바세 푸리   바테
32342-0-4	-으로	바스루
32342-0-5	-도	바뚜 만타
32343	앞(前)	압
32343-0-1	-이/가	아피 화:나다
32343-0-2	-을/를	아플 모 뽀지
32343-0-3	-에(서)	아페
32343-0-4	-으로	내 아푸루
32343-0-5	-도	압뚜 봐:라
32344	넋(魂)	넋기라구도 해:
32344-0-1	-이/가	넋시 나가서 그 사람 아주
32344-0-2	-을/를	넋쓸
32344-0-3	-에(서)	*
32344-0-4	-으로	*
32344-0-5	-도	넋뚜 내 정시너구

32345	흙(土)	흙
32345-0-1	-이/가	흐기 곱:따
32345-0-2	-을/를	흐글
32345-0-3	-에(서)	흐게서는
32345-0-4	-으로	흐그루 도라 가지
32345-0-5	-도	흑두 털지 안쿠
32346	여덟(八)	여덜
32346-0-1	-이/가	여더리 크지
32346-0-2	-을/를	여더를
32346-0-3	-에(서)	여더레 멈춰라
32346-0-4	-으로	*
32346-0-5	-도	여덜뚜 만타
32347	돌(週歲)	돌   돌
32347-0-1	-이/가	도리 돼찌
32347-0-2	-을/를	도를
32347-0-3	-에(서)	*
32347-0-4	-으로	*
32347-0-5	-도	돌뚜 모태 쥐따구 그러지
32348	값(價)	갑
32348-0-1	-이/가	갑씨 비싸다
32348-0-2	-을/를	갑쓸 제대루 쥐:아지   갑쓸 빼줘라 소리는
32348-0-3	-에(서)	물건까베서
32348-0-4	-으로	갑쓰루 매길 수 업따
32348-0-5	-도	갑뚜 비싸지 안네
32349	속:(內)	속:
32349-0-1	-이/가	소:기 아프다
32349-0-2	-을/를	소:글 모르지
32349-0-3	-에(서)	이불 소:게서 나와라
32349-0-4	-으로	이불 소:그루
32349-0-5	-도	속:뚜 멀쩡해야지
32350	돈:(錢)	도:니지 뭐야
32350-0-1	-이/가	도:니
32350-0-2	-을/를	도:늘 줘야지
32350-0-3	-에(서)	도:네 차지리 생길 꺼지
32350-0-4	-으로	도:느루 다: 데는 거 아이다

32350-05	-도	돈:두 움는데
32351	발(足)	발
32351-01	-이/가	바리 다 어려찌
32351-02	-을/를	바를 왜 떠나 그러지
32351-03	-에(서)	바:레 먹찌
32351-04	-으로	발루 허지
32351-05	-도	발두
32352	짐(物)	짐
32352-01	-이/가	지미 만타
32352-02	-을/를	지물 가버께 싸야지
32352-03	-에(서)	지메 비해서
32352-04	-으로	지므루 놀러 나라
32352-05	-도	짐두 가버야지
32353	입(口)	입
32353-01	-이/가	이비 크다
32353-02	-을/를	이불 함부로 놀리먼
32353-03	-에(서)	이베 바풀 무더따
32353-04	-으로	이브루
32353-05	-도	입뚜 이쁘다
32354	낫(鎌)	낫
32354-01	-이/가	나시 안 들먼
32354-02	-을/를	나슬
32354-03	-에(서)	나세 녹쓸어찌 뭐여
32354-04	-으로	나스루 비지
32354-05	-도	나뚜 가치 훑쳐 가따
32355	강(江)	강
32355-01	-이/가	강이 길지
32355-02	-을/를	강을 건널려먼
32355-03	-에(서)	강에서
32355-04	-으로	강으루
32355-05	-도	강두 어려따
32356	젖(乳)	젖
32356-01	-이/가	저시 마나야
32356-02	-을/를	저슬
32356-03	-에(서)	저세

32356-0-4	-으로	저스르두 키워찌
32356-0-5	-도	절뚜 안나오지
32357	꽃(花)	꼰
32357-0-1	-이/가	꼬시
32357-0-2	-을/를	꼬슬
32357-0-3	-에(서)	아카시아 꼬세서
32357-0-4	-으로	꼬스루
32357-0-5	-도	꼬뚜 그려져 인네
32358	팥(赤豆)	팥
32358-0-1	-이/가	파시 조아야지
32358-0-2	-을/를	파슬
32358-0-3	-에(서)	파세서 판나고
32358-0-4	-으로	파스루 맨들지
32358-0-5	-도	파뚜 다선 말
32359	옆(側)	여피라구 할 수 이찌
32359-0-1	-이/가	여피 허저너다지
32359-0-2	-을/를	여플 잘 보지   여플 잘 봐야지
32359-0-3	-에(서)	여폐서
32359-0-4	-으로	여푸루 와라
32359-0-5	-도	엽뚜 잘 봐야
32360	삿(賃金)	품삿
32360-0-1	-이/가	품싸기 후허드라
32360-0-2	-을/를	사글 마니 바든 거지
32360-0-3	-에(서)	품싸게서 제헌다 그래야가찌
32360-0-4	-으로	품싸그로 머꾸 산:다 마리지
32360-0-5	-도	삭뚜 모 빠드면 안 대지
32361	닭(鷄)	다기지 뭐야
32361-0-1	-이/가	다기 울지
32361-0-2	-을/를	다글 자바찌
32361-0-3	-에(서)	다기
32361-0-4	-으로	다그루 음식 해: 준다 그래지
32361-0-5	-도	닥뚜 만:타
32362	밖(外)	바깁
32362-0-1	-이/가	바끼 출찌
32362-0-2	-을/를	바까슬

32362-03 -에(서)

바께 | 바끼 도라대기다가 강:기 걸린다구  
구러지

32362-04 -으로

바끄루 나가니께 축찌

32362-05 -도

바끼두 적땅이 도라탱겨야지

## 제 4 편 문법

### 4.1. 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꺼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에게
40101-0-5	나-와	나허구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
40102-0-1	저-가	제:가
40102-0-2	저-의	저에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에게
40102-0-5	저-와/과	저허구
40102-0-6	저/-는	저는
40102-0-7	저/-도	저두
40103	우리	우리
40104	저희	저에
40105	너	너
40105-0-1	너-가	니:가
40105-0-2	너-의	*
40105-0-3	너-을/를	너:를
40105-0-4	너-에게	너에게
40105-0-5	너-와/과	너허구
40105-0-6	너-는	넌
40105-0-7	너-도	너두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당신
40108	너희	너에
40109	개	개:
40109-1	애	애:

40109-2	재	재:
40110	자기	자기
40111	당신	당신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요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
40112-0-3	누구-를	누구
40112-0-4	누구-에게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누구하고
40113	무엇-이나/입니까	뭘:니까
40113-0-1	무엇-이	무어시   무어이
40113-0-2	무슨	무슨
40113-0-3	무엇-을	무어슬
40113-0-4	무엇-과	뭘:
40114	어디	어드메
40115	언제	언:제
40116	어느	어느
40117	왜	왜
40118	얼마나	얼마나
40119	어떻게	어뜨케
40120	이것	이걸
40121	그것	고걸
40122	저것	저거
40123	여기	여기
40124	거기	거기
40125	저기	저기
40126	이리	이리
40127	그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 4.2 조사

40201	-이/가(무엇이)	갑시
40202	-이/가(무엇이)	코가
40203	-을/를(어디를)	어디루
40204	-을/를(무엇을)	무어

40205	-에게/게(사람에게)	저 아이에게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누구에게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누구보고
40208	-에(집에)	지베
40209	-에(나중에)	*
40210	-에서(큰집에서)	지베서
40211	-에서(서울에서)	공워네서
40212	-에서(여기에서)	여:기서
40213	-으로(참쌀로)	누루그루
40214	-으로(짚으로)	지브루
40215	-으로(새끼로)	새끼루
40216	-으로(어디로)	어디루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자두허구
40218	-와/과(나와)	나하구
40219	-보다(형보다)	형보덤
40220	-처럼(돼지처럼)	돼:지처럼
40221	-만큼(너만큼)	너만큼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머글 만큼만
40223	-아/야(복남아)	봉:나마
40224	-아/야(복남이)	*
40225	-아/야(영수야)	영주야
40226	-아/야(누님)	누님
40226-1	-아/야(누님!!예)	누님
40227	-아/야(할아버지!)	하라버지
40227-1	-아/야(할아범요!)	하라버지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수리랑 고기랑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마:넛커냥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수른 담배는
40231	-만(딸만)	딸만
40232	“-도(키도, 얼굴도)“	키두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다
40234	-부터(오늘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내일까지)	내:일까지
40236	-조차(물조차)	물조차두
40236-1	-조차(비할라)	*

40237	-이야/야(말이야)	마:리아
40238	-을랑(소릴랑)	*
40239	-이라도(부자라도)	부:자라두
40240	-밖에(너밖에)	너바께
40241	-가지고(싸가지고)	싸가주 가지
40242	-고(간접인용조사)(오라고)	오라구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아리씀니다
40244	-요(높임)(했지요)	하셔서서요

### 4.3. 종결어미

40301	-아라(앉아라)	안자라
40302	-게(앉게)	안께
40303	-으오(앉으시오)	안자요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안즈세요
40305	-세요(앉으세요)	안즈세요
40306	-자(가자)	가자
40307	-세(가세)	가세
40308	-으오(가오)	가십씨다
40309	-십시다(가십시다)	가시조
40310	-세요(가세요)	가시조
40311	-니(오니)	나리니
40312	-나(오나)	나리나
40313	-오(오오)	나림니까
40314	-습니까(옵니까)	나림니까
40315	-나요(오나요)	나림니까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니)“	가니
40317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나)“	가나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시오)“	가십니까
40319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십니까)“	가십니까
40320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세요)“	가십니까
40321	-는다(먹는다)	멍는다
40322	-네(먹네)	멍네

40323	-오(먹소)	머금니다
40324	-습니다(먹습니다)	머거요
40325	-네요(먹네요)	멍네요
40326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다)	작:따
40327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네)	자:그네
40328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소)	자:금니다
40329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십니다)	자:금니다
40330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세요)	자:금니다
40331	-아(아파)	아파
40332	-지(거지)	갈꺼지
40333	-이다(생일이다)	생이리다
40334	-이니(생일이니)	생이리냐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생이릴세
40336	-인가(생일인가)	생이린가
40337	-이오(생일이오)	생시니리래요
40338	-이오(생일이오?)	생시니쥬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생시니네요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생시닌가요
40341	-이지지요(생신이지지요)	생시냐요   생시님니다
40342	-이지지요(생신이지지요?)	생시니쥬   생시님니까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냐)	뭐니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뭔:가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오)	뭘:니까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입니까)	뭘:니까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요)	무어심니까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야)	뭔:가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어요)	뭘:요
40350	-습니다(많습니다)	이씀니다
40351	-습디다(많습디다)	만:씀띠다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멍는구나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먹떼
40354	-일세(오랜만일세)	오래간마닐세
40355	-으마(값으마)	가프마
40356	-음세(값음세)	기픔세
40357	-을라(다칠라)	다칠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먹꾸   먹꾸서
40402	-으면서(보면서)	보면서
40403	-어/-어서	추워서
40404	-으니/-으니까	따뜨타니까
40405	-관데	*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가거든
40408	-더라도	먹뜨라두
40409	-으려고	노나머글러구
40410	-도록	부서지드락
40411	-을수록	이글수록
40412	-듯이	물 쓰들
40413	-지	보지

#### 4.5. 주체 존대

40501	-셔(오셔)	마쳐소
40502	-셨소(하셨소)	*

#### 4.6. 시제

40601	-는/ㄴ-(웃는다)	운:는다
40602	-는/ㄴ-(기어간다)	겨:간다
40603	-는/ㄴ-(크다)	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고 있-(오고 있다)	오구 인네
40606	-았/였-(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건나
40607	-았/였(왔었다)	와서서
40608	-더-(먹더라)	먹뜨데
40609	-더-(먹더냐)	먹뜨냐
40610	관형형(만나는)	만난
40611	관형형(만난)	만난
40612	관형형(만났던)	다정해뎌
40613	관형형(만날)	만날
40614	관형형(큰)	큰
40615	관형형(크던)	크던
40616	관형형(컸던)	커써뎌

40617	-겠-(않겠다)	마시게따
40618	-겠-(오겠다)	오게따

#### 4.7. 부정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안 머거서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조치 아나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끄치 모태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갔다/장가가지 않았따)	안 가서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지 않았따/만나 안 보았다)	모태서요   안 만나서요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안 먹꾸
40706-1	부정(먹도 않고)	먹:찌두 안꾸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몰 마셔요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

#### 4.8. 피동과 사동

40801	살리다	살린다
40802	늘리다	늘룬다
40803	말리다1	말린다
40804	말리다2	말리지
40805	열리다	열:린다
40806	녹이다	노킨다
40807	신기다	신킨다
40808	보이다	보인다
40809	알리다	알려준다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앉히다	안친다
40812	벗기다	베킨다
40813	웃기다	우킨다
40814	씩히다	썬다
40815	숨기다	숨킨다
40816	꿇기다	꿇:킨다
40817	깨우다	깨운다
40818	돋우다	도둔다
40819	잡히다	재퍼따

40820	깎이다	까끼다
40821	끼이다	끼여따
40822	떼이다	띠여따
40823	채이다	채:따
40824	닫히다	다쳐따
40825	들리다	들린다
40826	엮히다	에:퍼따
40827	바뀌다	바뀌여따
40828	씹히다	씨핀다
40829	엮히다	언쳐따
40830	찍히다	찌켜따
40831	눌리다	눌려따
40832	실리다	실려따
40833	긋기다	끈켜따
40834	긋히다	글켜따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싶은)	바꼬 시픈 거
40902	싶다(싶더니)	멍는가 십뜨니
40903	보다(보세요)	이버 보세요
40904	버리다(버렸네)	머거 버런네
40905	대다(댄다)	우러 댄다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올:려나 보네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자나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 보다)	찬가 보네

#### 4.10. 부사

41001	실컷	실컸
41002	많이	마:니
41003	너무	너무
41004	조금	쪼끔만
41005	자주	자주
41006	빨리	빨리
41007	얼른	얼릉
41008	기어코	기어꾸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먼저
41011	나중에	나:중에
41012	가득	가득
41013	몽땅	몽땅
41014	모조리	모주리
41015	혼자	혼자
41016	항상	항상
41017	똑똑히	똑또기
41018	겨우	겨:우
41019	늘	늘:
41020	저절로	저절로
41021	자꾸	자꾸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하마터먼
41024	함께	함께
41025	걸핏하면	걸피터먼
41026	공연히	공연이
41027	그냥	그냥
41028	매우	매우
41029	곧장	고짱
41030	벌써	벌써
41031	가장	가장
41032	가만히	가마니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이따금씩은

#### 4.11. 관용적 표현

41101	관용구(여보)	여보
41102	관용구(여보세요)	여보쇼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끈쌌니다   아 그 드러가세요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아이 수고하세요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반갑따 오라간마니네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그간 안녕하셔습니까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돈: 바드세요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예: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아니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러치도 아나
41112	관용구(내버려 뒤)	내뿌려 뒤:라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개:나 소나 마리나 물:구
41114	속담(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룬 무레 돌 드리티기야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두기 쉐도두, 소도둑 덴다
41116	속담(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땀 굴뚜게 영기 나라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목포대학교)
- ◆ 위 원 강영봉(제주대학교)
- ◆ 위 원 곽충구(서강대학교)
- ◆ 위 원 김무식(경성대학교)
- ◆ 위 원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경남대학교)
- ◆ 위 원 박경래(세명대학교)
- ◆ 위 원 소강춘(전주대학교)
- ◆ 위 원 최명옥(서울대학교)
- ◆ 위 원 한영목(충남대학교)

